

우리가 몰랐던 _____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traditional culture of hwasung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를 발간하며



화성문화원장 고정석

문 화원에 있다 보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자주 만납니다. 누구보다도 화성을 사랑하고 화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넘치시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화성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동시에 문화원장으로서의 책임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역사문화자료를 수집 발굴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복차림으로 한옥마을과 고궁을 거닐며 SNS를 채우고 역사를 다룬 드라마들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중동에까지 전해지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대로라면 지금이 역사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좋은 남편이 집에서는 무뚝뚝하듯 화성시민들과 화성의 역사는 만날 기회가 부족하여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문화원에서는 이러한 화성시민과 화성시역사의 대화를 돕기 위해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를 출간하였습니다.

바다와 물과 사람이 어우러진 화성은 공룡들의 낙원이었던 백악기부터 3·1만세운동의 성지까지 선사부터 현대에 이르는 빼곡한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합니다. 그중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용릉과 건릉처럼 비교적 잘 알려진 역사유물들도 있지만 문체반정에 저항한 이옥선생이나 화성시 3·1운동의 영웅 홍면옥 선생처럼 알려지지 않은 역사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화

성을 대표할만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과 역사 민속을 재조명하여 화성시의 정체성을 밝혀내고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는 공룡과 당성, 화성지역 선비들의 활약상과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근현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화성의 역사들을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빈곳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작가들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역사만큼 다양한 이유로 화성에 모여 사는 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화성을 시대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촌과 어촌, 공단과 신도시가 함께 있는 다양성의 도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도시에서 공존하려면 서로 간 다름에 대한 관용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가 화성의 시민들이 화성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위하여 수업 및 원고작성에 수고해주신 글쓴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성문화원은 화성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화성시장 채인석

화성시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하신 집필진 및 화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화성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정신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고장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당성, 제암리, 남양만, 서부바다지역의 유적지와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있지만 이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자 발간과 같은 노력은 박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책을 통해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에 한발 더 다가가고 우리 고장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발간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간사



화성시의회 의장 김정주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의회 의장 김정주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화성시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시작한 역사적인 작업의 결과물로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가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화성문화원 고정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화성은 충·효·예의 반듯한 정신문화가 깃든 고장으로 유적지마다 고결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의 역사적 사실이나 전통문화가 제대로 발굴·정립되지 못하여 우리 시민들이 화성시 문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우리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화성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옛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 시키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발간으로 63만 화성시민들에게 화성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화성문화원이 화성문화 창달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뜻 깊은 전통역사와 문화 발굴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길 바라며, 화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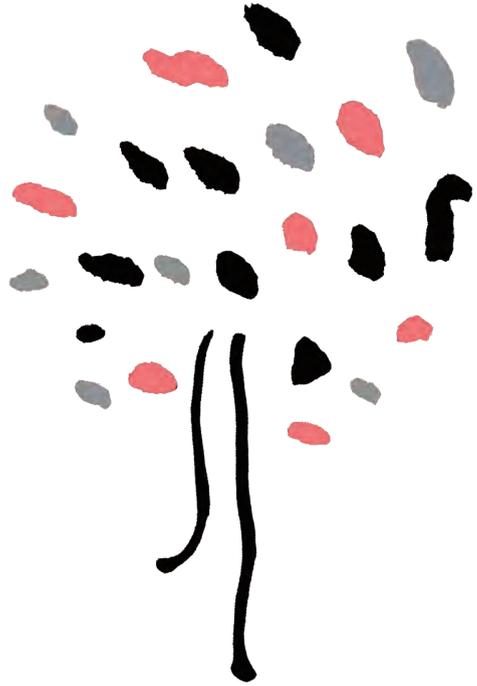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제1부 오래된 그곳의 풍경

- 1장 아득한 과거와 살아 숨 쉬는 현재가 공존하는 곳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_ 000
- 2장 서해의 군센 지킴이 당성(唐城) _ 000
- 3장 서해안의 파수꾼, 남양만 _ 000

제2부 선비들이 살던 시대

- 1장 선비의 자취를 찾아서 _ 000
- 2장 시대와 호흡한 조선후기 송산의 두 지식인, 이옥과 정윤영 _ 000
- 3장 선조들의 삶이 녹아 있는 전통가옥 _ 000



제3부 제국주의의 침략과 주민들의 저항

- 1장 제국과 식민의 길목에서 : 마산포를 가다 _ 000
- 2장 3.1 운동의 현장을 걷다 _ 000
- 3장 홍진후의 기억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 홍면옥과 그 후손의 삶 _ 000

제4부 바닷가 사람의 삶과 문화

- 1장 쫓부리섬으로의 초대 _ 000
- 2장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_ 000
- 3장 사강장에 가다 _ 000
- 4장 사라진 것들을 위한 쓸쓸한 보고서 _ 000
- 5장 맛과 멋과 노을에 취하는 서해의 항구들 _ 000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오래된 그곳의 풍경

Part I

아득한 과거와 살아 숨 쉬는 현재가 공존하는 곳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이진희 (시인)

1. 육지가 된 땅에서 발견된 것

상상해 본다. 1억여 년 전 한반도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모습을. 1억 년이라니. 실감하기 어려운 시간 단위이다. 그래도 상상해 보기로 한다. 책이나 영화, 각종 미디어 같은 데서 어설프게 접했던 지식과 여러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두서없이 뒤섞인다.

사람 키보다 훌쩍 자란 양치류를 비롯한 온갖 거대 원시 식물들이 뻗뻗이 들어찬 밀림 지역이었을까? 온통 바위투성이인 척박한 들판? 느닷없이 불을 내뿜거나 용암을 토해내는 화산이 있었나? 1억여 년 전이라면 지구에 공룡들이 존재했던 시기일 텐데, 그때 화성에도 공룡이 살았나? 살았다면 과연 어떤 모습, 어떤 종류의 공룡들이 살았을까?

구체적인 그림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직접 화성시에 가보는 수밖에. 그런데 지금은 바야흐로 21세기. 지금 화성시에 가본다고 1억여 년 전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염려는 붙들어 매도 좋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1억 300만 년 전, 그러니까 중생대 전기 백악기의 흔적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시기를 상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말이다.

시화호 간척사업.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바닷물에 잠겨 있던 지역이 육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광활한 간척지 남쪽, 송산면 고정리 일대에서 공룡알 등지와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것도 대량으로. 육지가 되기 전, 점처럼 자그마한 섬들이 떠 있었던 곳에서였다.

시화호 간척사업은 1987년 6월에 시작되어 1994년 1월에 끝났다. 1만 7300헥타르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는 이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입하였다. 장밋빛 전망만을 부각시키며.

하지만 이 대규모 사업은 종료 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 단 3년 만에 시화호는 끔찍하게 오염되었다. 무수한 갯벌과 바다 생물이 죽어서 썩고, 온갖 폐수가 유입되어 정체된 호수에서 는 참기 어려운 악취가 진동했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바다를 막아버린 탓이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심각하게 들끓었다. 갖가지 정화 처리를 시도했지만 오염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1997년 중반부터 시화호에 바닷물을 투입하여 호수를 해수화(海水化)시키고 말았다.

이후 1999년 3월부터 육지가 된 시화호 지역의 생태계와 지질 변화에 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가 최종인 씨의 노력과 요청 덕분이었다. 한국해양연구소와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석·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가 공동조사단을 꾸렸다. 1999년 4월, 조사단은 상한염, 중한염, 하한염, 한염, 개미섬, 닭섬 등지에서 20여 개의 공룡알 등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조사단은 검은 테두리에 둥근 구조를 가진 것들이 어쩌면 공룡알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룡 전문가 이용남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놀랍게도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진짜 공룡알이었다. 등지에는 평균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열두 개의 공룡알 화석이 들어 있었다.

2.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알 화석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은 적색 사암층 지대. 시화호 일대에서 공룡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집단으로 알을 낳고 서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룡알 화석이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다양한 퇴적층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 보성의 선소마을 해안 일대에서도 공룡알 등지와 공룡알 화석이 제법 발견된 적이 있다. 하지만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비하면 발견된 양이 적고, 보존 상태가 떨어지는 편이다. 지금까지 공룡알 화석은 주로 중국, 몽골 등지에서 발견되곤 했다. 하지만 시화호 지역처럼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산지는 세계 3대 화석산지라 불릴 만한 규모와 보존 상태를 자랑한다.

2016년 현재까지 고정리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은 세 종류이다.

발견된 알의 95%를 차지하는 알화석은 새의 골반을 가진 초식공룡인 조각류의 알로 추정된다. 이 알화석은 200여 개가 12개 지점, 30여 개의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9개의 서로 다른 준층에서 발견되었다. 개미섬의 세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알화석은 알 크기에 비해 껍데기가 무척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평균 두께가 1mm 정도인 알들에 비해 이 알의 껍데기는 두께가 5mm이다. 2006년, 고정리에서 약 4km 떨어진 삼촌리에서 발견된 15개의 공룡알 화석도 개미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로, 초식공룡의 알로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식동굴과 중한염에서 발견된 알화석은 앞의 두 종류와는 또 다른데, 보존 상태가 썩 좋지 않으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는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과학 지식은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 가량으로 추정한다. 칼 세이건은 이 엄청난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축약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을 1월 1일 0시로, 현재 시점을 12월 31일 밤 12시로 잡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첫 별과 은하는 1월 24일에, 태양계는 9월 9일에 등장했다. 지구의 등장은 9월 14일. 이곳에 생명체가 처음 나타난 것은 9월 30일 무렵이다. 공룡은 12월 24일에, 인류는 12월 31일하고도 밤 10시 30분에 등장했다.

그렇다. 우주가 생겨나고, 태양계와 지구가 등장하고, 지구에 첫 생명체가 나타나고도 아주 한참 뒤에야 인류는 생겨났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우주의 역사에 견주어보면 인류의 역사는 초라할 만큼 짧다. 지금은 지구의 주인을 자처하며 뛰어난 문명을 세우고 발달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인류의 등장과 그 역사는 찰나에 가깝다. 언젠가 지구의 주인은 인류가 아닌 다른 생명체일지도 모른다. 인류보다 먼저 지구를 누볐던 주인공이 공룡들이었듯이.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상에 치이고 얽매어 살아가다 보면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지구의 역사 같은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러나 한정된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일상의 눈을 이득한 차원으로 돌려놓는 놀라운 일들은 예기치 못한 선물처럼 우리 곁을 찾아온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서의 공룡알 화석 발견은 그런 놀라운 선물과 같은 사건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1억 3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지만, 인류의 역사와 견주면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마나 먼 과거를 경험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곳,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이 일대의 1.59km², 다시 말해 약 480만 평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에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었다.

3. 드넓고 고요하던 공룡알 화석지

지금은 화석지 출입구에서 공룡알 화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한된 지점까지 왕복 3km의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고, 평택에서 시흥을 오가는 고속도로가 드넓은 화석산지 한가운데를 딱하니 관통하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자연의 광활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비롭고 놀라운 야생 들판이었다. 그래서 일상의 반복되는 생활에 지친다거나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곳을 찾으려면 눈이 확 뜨이고 가슴이 탁 트였다.

물론 공룡알 화석산지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중요한 곳이고, 그렇다보니 화석산지의 보호와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그와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표지판 하나 없이, 흙이 날리고 돌이 튀는 비포장도로로 어쩔수 없이 들어가야 했던, 게다가 화석산지 방향으로 최소한의 울타리만을 둘러놓았던, 자연 상태 그대로에 가까웠던 옛 풍경이 때로 그림고 아쉬울 때가 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에 따라, 풍경은 변하기 마련이다.

방문자센터에서 약 1.5km 정도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예전에는 섬마을이었던 우음도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건설한 송산그린시티 전망대가 있다. 201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한 전망대는 자체 높이는 40m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해발 100m의 높이에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다. 드넓은 공룡알 화석산지가 눈 아래 거침없이 펼쳐지고, 시화호 또한 발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시화호 너머로는 가깝게는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멀게는 수리산이며 오이도, 송도까지 볼 수 있고, 시선을 서쪽 돌리면 형도와 대부도, 시화방조제, 무의도까지 조망할 수 있다.

중생대 초기인 2억 300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던 공룡은 그로부터 약 1억 6500만 년이라는 지나간 시간 동안 지구에 번성하다가 백악기가 끝나면서 멸종했다. 그토록 오랜 기간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공룡들이 어느 시점에 일제히 멸종한 원인을 두고 여러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한 계체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한 탓에 먹이가 부족해진 탓이라고도 하고,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빙하기가 왔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화산 폭발설, 거대 운석의 지구 충돌설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구라는 별에 공룡이라는 생명체가 지나간 기간 동안 대거 존재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망대에서 공룡알 화석산지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시간의 무상함을 실감하는 동시에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로서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금 짚어보게 된다. 생성과 소멸.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소용돌이처럼 아로새겨진 역사. 드넓은 들판에 인간이 손을 대 만들어낸 모든 것을 잠깐이나마 깨끗하게 지우고,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하고도 수많은 공룡들이 하늘을 날고, 물속을 헤엄치고, 알을 낳고, 풀을 뜯거나 사냥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당장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미래에 일어날 법한 불행한 결과를 간과할 때, 우리는 종종 공룡의 멸종을 예로 든다. 거대한 몸집과 엄청난 개체 수를 불리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지구에서 사라져 버린 공룡. 인류의 운명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전망대를 필두로 하여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9조 4천 50억 원을 투입하여 화성시 송산면 일원 55.86km²에 수도권 최대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주 예상 인구는 15만 명으로 친환경, 관광, 레저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서 시화호 간척사업의 경우처럼 장밋빛 전망만을 앞세워 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걱정이 든다.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에 친환경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였지만 공룡알 화석지 주변 드넓고 고요하던 광활한 들판 한가운대를 그다지 친환경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고속도로가 이미 거침없이 관통하고 있다. 공룡알 화석지가 세인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이곳에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들어설 거라는 소문이 돌고 더 늦기 전에 이곳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을 수익 발생의 장소로만 여기고 눈독을 들이고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수식어와 개발이라는 말이 과연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같은 의미나 무게, 색깔을 지닌 낱말인지 의심스럽다. 역사적, 생태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다지도 어려운 일인가 싶다. 다행히 비교적 드넓은 규모의 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인간의 탐욕이 언제까지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4.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뼈 화석

1999년에 고정리 일대와 2006년에 삼촌리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데 이어 2008년 5월 30일, 화성시 전곡항 제방에서 공룡의 뼈화석이 하나 발견된다. 발견자는 화성시 공무원 김경하 씨. 머지않아 개최될 제1회 세계요트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고 점검하던 와중이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암 덩어리 속에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화석은 정밀 감정 결과, 해부학적 특성상 다소 원시적인 특성을 지닌 프로토크라톱스의 화석으로 확인되었다. 프로토크라톱스는 고비사막에서만 발견되던 공룡이었다. 이전에도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에서 공룡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전곡항에서 발견된 화석은 지금까지의 화석 중에서 형태가 가장 온전하고, 프로토크라톱스 종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한반도 공룡의 전성기인 백악기에 살았던 프로토크라톱스는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 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했다고 한다. 최초의 빨공룡이라는 뜻에서 프로토크라톱스라고 불리는 이 공룡은 초식공룡이다. 몽골에서 발견된 프로토크라톱스가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인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는 프로토크라톱스의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또한 이 공룡뼈 화석은 1억여 년 전 한반도 공룡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한다.

몸 전체의 절반가량, 허반신이 발견된 이 웅크린 형태의 뼈화석은 거의 완전한 상태의 꼬리뼈와 종아리뼈, 발가락뼈, 발톱 등 100여 개의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안타깝게도 상반신 골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발견된 공룡의 몸 전체의 길이는 대략 1.7m~2.3m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척추뼈의 5배나 되는 긴 신경배돌기와 독특한 복사뼈가 꼬리뼈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꼬리는 높으면서 납작해서 마치 노처럼 생겼는데 물속에서 헤엄을 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 공룡뼈 화석은 두 발로 걷는 공룡과 네 발로 걷는 공룡의 중간 형태를 지니고 있어 공룡의 걸음걸이의 진화 과정을 밝히는 데도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

정확한 학명 부여 전에는 '화성공룡'이라고 불렀던 이 공룡은 한국의 화성에서 발견된 빨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에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학명이 붙여졌다.

5. 방문자센터의 이모저모

2009년에 완공된 방문자센터 2층에는 삼차원 영상 상영실이 있다. 서너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16개 놓여 있고, 하루 6번 입장이 가능하다. '진화의 알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룡 시대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고, 코리와 엔시라는 엄마와 아기 공룡을 주인공으로 하여 1억여 년 전 한반도 화성의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준다. 중생대에 처음 등장한 공룡은 백악기에 접어들면서 최대 전성기를 맞는데, 백악기의 대륙 형태와 자연 환경은 현재의 지구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한다.

코리와 엔시의 이야기는 백악기 화성에 건기가 찾아오는 때에서 시작한다. 먹이를 찾아 강의 상류 지역으로 대이동하는 초식공룡의 무리에 코리와 엔시도 합류한다. 사자보다 작은 초식공룡 코리와 엔시는 육식공룡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었다. 상류로 향하는 길목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들은 목적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동 중에 육식공룡으로부터 입은 치명적인 상처 때문에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코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전곡항에서 웅크린 모양으로 발견된 빨공룡의 화석에서 살마리를 얻어 제작한 듯한 이 짧은 이야기는 어린이 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간략하나마 화성에서 살았던 공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백악기의 화성에는 바다가 없었고, 드넓은 초원과 호수가 존재했다. 전곡항에서 발견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가 실제로 무슨 일 때문에 죽어 그런 형태의 화석으로 남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고고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관련자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1억여 년 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다.

방패 모양의 목 장식에 앵무새 모양의 주둥이, 헤엄치기 좋은 노처럼 생긴 꼬리를 가지고 육식 공룡과 함께 살며 두 발로도 네 발로도 걸었던 한반도 화성의 빨공룡.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주차장에 내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귀엽고 앙증맞게 형상화한 공룡 캐릭터 네 마리와 공룡알들이다. 어린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 공룡을 껴안거나 반구형으로 제작된 알 위에 올라앉는다.

방문자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안내데스크가 있고 그곳에 문화해설사가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방문자의 눈높이에 맞춰 공룡알이며 화석산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궁금한 게 많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질문을 쏟아놓기 일쑤인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산과 바다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뼈화석이 발견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몽골과 같은 사막 지역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 이유를 해설사로부터 듣고 나니 전곡항에서 발견된 뼈화석이 새삼 더 신기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다.

1층에는 유리 상자에 담긴 세 종류의 알들과 전곡항 뼈화석을 그대로 본뜬 모형을 전시한 구역과 화석을 처리하던 처리실도 있다. 한때는 연구자들이 화석을 처리하는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처리가 모두 끝나 처리 도구며 현장만 보존하고 있다. 복도에는 몽골에서 발견된 공룡뼈 조각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휴게실과 영상실, 관리실 등이 있고,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옥상이 딸려 있다. 바깥에서 보았던 건물의 전체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의 절반이 화석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라고 한다.

6. 공룡 복원과 한국-몽골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

모형과 그림으로 복원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의 생김새는, 전곡항에서 발견된 공룡의 허반신 화석뼈와 기존에 연구된 프로토케라톱스의 상반신 골격을 참고하여 하나의 모습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뿔공룡은 머리 뒤쪽 프릴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하는데, 전곡항에서 발견된 공룡은 프로토케라톱스보다는 다소 원시적인 형태여서 전형적인 프로토케라톱스보다는 프릴을 작게 복원하였다. 알둥지는 몽골에서 발견된 둥지를 참고하였다.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이후 공룡알 화석에 관심이 갖게 된 화성시는 국내 최대의 공룡알 화석산지인 고정리에 박물관을 세우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룡뼈 산출이 극히 적어서 전시할 표본이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화성시는 공룡뼈가 많이 발견된 몽골로 눈을 돌려 한국-몽골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한국-몽골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과학원의 고생물센터가 주관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룡 화석지인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2006년부터 5년간 매해 여름 40여 일 동안 공룡을 비롯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척추동물화석을 탐사, 발굴, 수집, 연구하는 것이었다. 화성시는 그 결과물을 박물관에 전시하고자 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용남 박사가 탐사대장을 맡았고, 여기에 전 척추고생물학회 회장 미

국 남부감리대의 루이스 제이콥스 교수와 캐나다 앨버타대의 필리 커리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매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덴마크의 저명한 고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이 팀에 합류했다.

한국-몽골 국제공동탐사 프로젝트는 한국이 주관하는 최초의 국제적, 다국적 공동탐사대였다. 화성시는 이 탐사에 30억 원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지원했으며, 이 공동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694개체 15톤 분량의 공동 화석을 확보했다. 이후 화성시는 채취한 표본과 화석들을 전량 운송하여 연구와 처리를 진행하였다.

이 공동 탐사와 관련한 화성 국제 공동탐사 심포지엄이 2013년에 화성시에서 열렸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00여 명의 국내외 공동학자들이 참석한 이 심포지엄에서 미국 등 세계 10개국 30명의 공동학자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 고비사막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루이스 제이콥스 교수는 공동 화석이 가지는 문화콘텐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탐사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참가한 세계적 학자들의 경험과 자연사박물관 관련 노하우를 수집했다. 중생대 백악기 공룡알 화석지와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화석 보전을 위해 화성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0년에 세계 3대 국립자연사박물관인 미국 스미소니언재단,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프랑스국립자연사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하여 2015년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지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몽골 국제공동탐사 기록과 성과’ 특별기획전이 개최되었다. 이 기획전에서는 탐사대원들이 기록한 몽골 초원과 고비사막의 대자연을 비롯하여 탐사 여정, 지표 조사와 발굴 과정, 탐사단 베이스캠프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하였다. 또 탐사 결과물인 공룡 화석의 발견과 발굴, 처리 작업과 연구 과정을 소개하고, 발굴한 공룡 화석들을 3D 프린팅으로 복제한 골격 모형도 일부 전시하였다.

7. 눈으로 직접 보는 공룡알 화석과 화석산지 들판

방문자센터를 나가면 지금은 포장인 도로를 건너 화석산지로 갈 수 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지점은 가장 많은 등지와 알이 발견된 상한염, 중한염, 하한염과 무명섬 일대. 개미섬 쪽이나 다른 곳은 먼 탓도 있고, 그다지 많은 공룡알이 발견되지 않기도 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발길이 먼 곳까지 이어지면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출입구에서 1.5km 정도 되는 탐방로를 따라 걸어가면 드디어 공룡알 화석의 실물을 볼 수 있다. 바위처럼 보이는 퇴적층 속에 박혀 있는 공룡알들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알이라고 하면 회고 둥근 모양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1억여 년 동안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었을 리 만무하다. 퇴적층 속에 묻혀 검붉은 흙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화석화되면서 알 내부가 광물질로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화석화된 알을 보며 저게 공룡알인가 싶어 실망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공룡알 껍데기의 표면에는 미세한 숨구멍이 있다. 이 구멍을 통해 태아인 공룡은 산소와 탄소, 수분을 교환한다. 공룡알은 다른 알에 비해 숨구멍이 훨씬 많은데, 공룡이 살던 중생대에는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고, 온난다습하여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숨구멍이 발달했다. 숨구멍이 많으면 호흡에는 유리하지만 수분 손실은 크다. 그래서 공룡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은 후 모래로 덮었다.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다.

발견된 공룡알 화석은 윗부분이 거의 깨져 있다. 알 속에 파편이 가라앉아 쌓인 것은 부화 전에 먹힌 것이고, 알 속에 파편이 없는 것은 부화한 이후 남은 껍데기이다. 그리고 자갈 따위가 알 속에 들어 있는 것은 퇴적물이 갑작스럽게 등지를 덮쳐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룡알 화석은 타원형인데 대개 지름이 11~12cm 정도이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지름이 14cm나 되는 것도 있다.

공룡 화석과 알 화석은 동시에 발견되기 어렵다고 한다. 공룡 화석은 지진이나 화산으로 인한 지각 변동이 있는 곳에서 나오고, 발자국이나 알은 지각이 안정된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공룡알 화석산지에서는 공룡알 화석 이외에도 저서생물의 흔적화석과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육식 공룡의 늑골도 발견되었다. 또한 줄기에 마디가 있는 늪지 갈대 등 규화된 식물화석의 흔적화석들

도 대량 발견되었다.

공룡알 화석의 관람이 허용된 곳은 남양분지의 상부층에 해당하는 상한염, 하한염, 중한염 염의 일명 누드바위와 중한염과 하한염 사이의 무명섬 일대이다. 이 일대의 토양은 이암이나 사암,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의 형태와 발견되는 석회질 물질의 상태 등을 분석하면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자연환경을 알 수 있는데, 이곳은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기후였을 것이며 사행천이 흘렀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 1억여 년 전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멧토끼, 오소리,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한 작은 포유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화석지의 너른 들판 곳곳에서 이들의 발자국과 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30여 종 가까운 나무들도 들판 여기저기에서 자라고 있다. 버드나무, 오리나무, 위성류 등등. 각종 곤충과 거미들이며 꿩, 개개비, 고방오리, 중대백로, 황로, 수리부엉이, 쇠백로, 황조롱이 같은 새들도 이곳에 살고 있다. 이곳의 땅은 아직도 곳곳이 염분기가 가지지 않았는데 칠면초, 나문재, 함초, 통통마디, 갯방동사니, 갯개미취, 범부채, 꼬마부들, 띠풀, 산조풀, 갈대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란다.

이렇듯 송산면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지는 많은 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언젠가는 이곳에 사는 동식물들의 생태의 변화와 현황도 꼼꼼하게 기록되어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8. 공룡알 화석산지를 즐기는 사람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산지 일대의 약 480만 평은 1억여 년 전 공룡시대의 생태와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천이와 생태를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비롯하여 일반 대중에게 생태교육과 현장교육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적색 사암지대가 드러난 동시에 바다 밑 빨이었던 염분을 품은 흙이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밟로 실제 디더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초기에는 염생식물 위주로 자라던 땅에 지금은 육상식물들이 차츰 늘어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진한 회색에 염분이 하얀 분처럼 묻어나던 땅에서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자라는 식물이 바뀌

고 서식하는 곤충이며 동물들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에 지인을 통해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 보호색을 띠는 텐트와 위장막을 쳐놓고 거의 종일 꼼짝도 안으면서 새들을 관찰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다. 이곳의 동식물을 관찰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열정,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는 환경운동가 최종인 씨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한다. 공룡알을 발견하게 된 것도, 주변의 환경이 보호된 것도 이분의 지극한 시화호 일대 사랑, 나아가 환경 사랑 덕분이라고 한다. 480만 평이라는 넓은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너무 넓은 장소를 천연기념물로 삼았다며 이로 인한 개발 제한을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가 잠깐 머무르고 기대는 곳이지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미 개발은 포화상태이다. 아무튼 이 지역은 공룡알 화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먼저 전문 사진작가들은 물론 아마추어 사진사들도 이 장소에 열광한다. 산과 바다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활하고 이국적인 풍광이 이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안개가 끼면 끼는 대로, 해가 저물면 저무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곳을 찍은 사진들은 뛰어난 풍광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공룡알이 대량으로 발견된 지점은 이곳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누드 촬영 장소로 자주 이용됐다고 한다. 한적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인 풍광에 바위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퇴적층이 누드 사진을 찍기에 적절했던 모양이다.

공룡알 화석지 너른 들판은 작품 사진을 찍기에도 좋지만 웨딩 촬영이나 개인 프로필 사진을 찍기에도 좋아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적하게 산책을 즐기고 싶은 연인들이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는 누런 갈대가 뒤덮인 들판을 볼 수 있고,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초록이 싱싱한 들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눈이 막 내려 쌓인 겨울 들판을 보는 것도 장관일 듯하다. 이밖에 각종 동호회 사람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 캠핑, 자전거 여행, 모형비행기 날리기 등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들판 한가운데를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사방이 확 트였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눈에 걸리는 것 없는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너른 들판을 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탐방로 입구 쪽에는 공룡알 화석지 안내도며 설명판이 있고, 공룡 모형들도 여기저기 놓여 있다. 코리아케라톱스며 티라노사우르스 등의 모형들은 특히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탐방로 중간에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전망데크도 마련되어 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그리고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탐방로를 따라 공룡알 화석지를 걸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참으로 즐겁고 평화롭게 보인다. 아이나 어른이나 종종 탐방로를 이탈하여 사진을 찍고, 땅을 쿡쿡 찌러보고, 땅에 그림도 그린다. 연을 가지고 와서 날리는 사람들도 있다.

9. 변화와 축제의 장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룡알 화석을 보려고 이곳을 찾아와 탐방로와 화석지 부근을 둘러보고 가지만 좀 더 다른 체험을 하려면 우음도 방향으로 가면 된다. 앞서 언급했듯 송산그린시티 전망대가 있어 드넓은 화석지 들판과 시화호 방면이며 대부도 방면까지 두루 조망할 수 있다. 바람이 불면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우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곳 역시 예전에는 섬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 어업에 종사했다. 6~7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들만이 옛 시절을 겨우 간직한 채 을씨년스러운 풍경으로 남아 있다. 변해가는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과 마을이 주는 쓸쓸함 또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잊히겠지만, 이 또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다른 흔적을 남길 것이다.

한때 공룡알 화석지에서 '무사 백동수라는 TV 드라마와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촬영되기도 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이곳이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눈여겨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또한 공룡알 화석 발견 이후 이곳에서는 관련하여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송산 지역은 포도로 유명한데, 화석지 탐방과 연계하여 2007년부터 고정리를 비롯한 인근 아홉개 마을의 주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 매년 포도축제를 열고 있다. 포도 따기, 포도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만들기, 포도 염색 등 여러 활동을 하고 나서 공룡알 화석지를 산책하거나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2013년에는 세계공룡축제도 열렸다. 하지만 이 축제는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단 며칠간의 축제라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세심하게 계획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여 진행

해야 한다.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뜻 깊고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도 부주의한 준비로 인해 사람들이 이곳에 가졌던 관심과 기대를 꺼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축제에 들이는 돈을 소모되는 비용이라고만 생각해서 안 된다. 당장의 수익이나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화성 특유의 역사며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오래도록 보전하는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애쓴 만큼의 반응이 얼른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미래에 열릴 알찬 열매를 기다려 보면 어떨까 싶다.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이나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는 있다. 하지만 1억여 년이라는 장구한 침묵의 시간을 뚫고 과거의 신비를 드러내는 자연 환경은 바란다고 해서 누구나 발견하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생명들과 현재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이곳이 인간의 이기심에 희생되지 않고 되도록 오래 아름답게 보존되었으면 한다.

서해의 굳센 지킴이 당성(唐城)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당성을 찾아서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서해를 보고 싶을 때는 차를 몰고 화성시 서신면의 궁평리를 가는 것이 가장 좋다. 혹은 궁평리 위쪽으로 전곡항을 가거나 조금 더 바닷길을 따라 제부도로 가는 것이 좋다. 이 지역은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작은 어촌의 옛 정취가 남아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회센터와 요트항으로 변하여 옛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해 바다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한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서해가 아닌 산에서 바다를 보고자 한다면 가장 적합한 곳이 한 곳 있다. 그곳은 바로 구봉산이다. 높이는 해발 165.7m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오르면 서해만이 아니라 남양반도와 경기 남부지역 전체가 보인다. 특히 구봉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신면 일대의 마을에는 전국에서 대부분 사라진 미루나무가 아직도 남아 있다. 서신면, 송산면 일대의 포도과수원이 가득한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이 구봉산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봉산은 화성시의 이름다운 마을뿐만 아니라 너른 서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해가 질 녘 구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노을은 궁평리에서 바라보는 붉은 노을 그 이상이다.

구봉산의 당성을 찾아가는 길은 참으로 아름답다. 물론 지금은 20여 년 전 당성을 찾아가는 길과는 매우 다르게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원에서 서신면으로 가는 지방도로가 예전에는 4차선이 아니었다. 당연히 2차선이었다. 그것도 온갖 마을을 다 지나가야 해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었다.

당시이나 지금이나 사강의 어시장은 명물이다. 화성호 간척사업이 시작되고 바다가 막히면서

마산포 앞바다가 사라지고 그 바다가 육지로 바뀌면서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되었다. 그러자 사강시장 입구에 공룡이 서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티라노사우르스' 공룡 모형을 세워놓았다. 사강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티라노사우르스가 육식공룡이었기 때문이다. 마산포 앞바다가 막히면서 드러난 공룡알 화석지에는 초식공룡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성시에 늘 '티라노사우르스'를 없애고 초식공룡인 '알로사우르스'를 세워놓으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도 4차선 도로는 없었고 늘 사강시장 가운데로 뚫린 2차선 도로를 지나 제부도와 대부도로 갈리는 길로 가야만 했다.

당연히 당성은 제부도 가는 길로 가야 했다. 두 섬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며 낮즈막한 고개를 만나게 된다. 그 앞에 작은 당성이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는 작은 버스정류장을 만나게 된다. 이 정류장에서 내려 겨울 승용차 내지는 1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오른쪽 길로 1km 이상 가면 그곳에 당성이라는 안내판이 나온다.

사적 217호로 지정된 당성은 위에서 말한 버스정류장에서 남양 홍씨 문중이 세운 당성사적비 앞까지 오는 길까지가 참으로 묘하다. 당성을 에워싸고 있는 구봉산 아래 지역이 밤나무 과수원이기 때문이다. 초여름 이곳을 지나게 되면 밤나무 꽃향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다. 흰색 밤꽃과 그 향기는 당성의 또 다른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1000여 년 전에도 밤나무가 가득했는지 알 수 없지만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전반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성 입구는 밤나무로 가득하다. 그런데 지금 이 낭만적 길은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수원을 거쳐 51사단에 있는 원평리에서부터 시작되는 4차선 도로가 사강 읍내를 지나지 않고 외곽으로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강 읍내를 지나 제부도와 대부도로 가는 4차선 도로에서는 당성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따라서 당성을 가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사강 읍내로 가서 옛 마산포 땅이었던 공룡알 화석지로 가는 고정리 길과 제부도로 가는 사거리를 거쳐 당성으로 가는 2차선 길을 타고 가야 한다. 그러면 당성이 있는 구봉산에 다다른다.

구봉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산은 9개의 여러 봉우리가 모여져 이룬 곳이다. 구봉산은 남양반도의 서신·송산·마도면의 경계가 교차되는 중심부에 위치하며 정상부와 동향한 계곡 및 서남쪽 능선을 에워싼 3중의 성벽으로 구성된 당성이 있다.

산성의 전체 모양은 남북으로 기다란 장방형에 가까우며, 작은 계곡을 두른 포곡식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성(本城)이 있고, 서남쪽의 남문 밖으로는 한층 낮아진 능선 대지를 다시

두른 성곽이 이중으로 외성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이 외곽의 서남쪽 능선을 따라 토루가 계속 이어져 행성(行城)을 이루며 보다 서남쪽의 염불산(念佛山) 봉수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다를 지키는 해성(海城)은 서해안 일대 곳곳에 있다. 그러한 해성은 주로 바닷가와 인접한 낮은 야산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남양만에 있는 당성(唐城)은 일반적인 해성과 전혀 다른 산성이다. 분명 화성 일대의 바다를 지키는 성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다와 붙어 있지 않고 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성이 그 옛날 신라가 당나라로 가기 위한 군사 교통의 요충지였는지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양의 당성 일대는 신라의 사신단과 구별승들이 당나라로 가기 위해 찾았던 곳이자 서해로 가는 출발지였다. 또한 중국 사신들의 입국처이기도 했다. 중국의 사신과 무역 교류상들이 바로 이곳을 통해 들어왔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곳 서해의 당성은 전 세계 최고의 무역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왜 당성을 만들고 지켰는가?

사실 사람들은 신라가 중국과 무역을 교류하고 멀리 유럽과 교류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 어지간히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신라의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한반도 중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신라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이 지역이 처음 백제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이상하리만큼 신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기도 지역이 북한과 접경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 과주와 연천 일대는 한반도의 중심부로서 휴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전쟁의 고통과 이후 남북 분단의 고통을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심하게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어 고구려의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고 더불어 중국의 국가였던 당나라에 사대(事大)를 하게 되어 국력이 약해졌고, 결국 조선이 일본에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어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잘못일 수 있겠는가? 고구려가 아무리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삼국을 호령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

고, 백제 역시 의자왕의 독단으로 귀족들과의 연대가 붕괴되어 국가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 소통이 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린 결과는 참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신라에 의한 패망이었다.

신라는 어떻게 힘을 키웠을까?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힘을 키우기 위하여 불교지도자들을 포용하고 이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화엄학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하나—卽多 多卽一”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정치적으로 변화하여 국왕은 곧 백성이고, 백성은 곧 국왕이라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귀족들은 자기 헌신을 다하고 백성들은 국가를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죽하였으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불교 승려마저 살생을 허락하되 가려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단가!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는 형식적으로 화랑들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지만 이는 곧 국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신라가 발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신라의 진흥왕은 장차의 통일을 위하여 이와 같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위 집단을 만들었다. 바로 화랑이었다. 화랑 제도는 단지 성골과 진골 등 귀족집단의 자제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을 만드는 것이 더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 선봉에 서고 불리한 전세가 되면 스스로 죽음으로써 신라군의 감성을 분노케 하여 승리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귀족의 자제들이 먼저 나가 죽음을 택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의 자제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국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발전과 경제적 안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우리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다는 안정감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 자신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큰 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신라는 이를 위하여 당나라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백제와 연대하여 나제동맹을 체결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이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물론 한강 유역의 너른 평야를 확보하여 식량을 풍부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중

국과의 교통로의 확보였다. 더 나은 선진문물을 받기 위한 교통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 방향의 끝자락에 위치하였다. 수도 서라벌은 비록 동해안과 가깝다고 하지만 중국으로 가는 교통로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신라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당시 한반도 남쪽 바다를 지나 백제의 영해를 거쳐 당나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오늘날 경기 남부지역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한강 유역 아래 가장 좋은 중국으로 가는 포구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포구가 바로 당성진이었고 당성진을 보호하는 산성이 바로 당성이었다. 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끝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당성을 얻는 자 천하를 얻은 것이다.

당성진은 어떤 곳인가?

한 말 조선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위세는 말 그대로 하늘을 찔렀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로 60년 동안 세도를 부리던 안동 김씨마저 추풍낙엽 지듯이 권력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던 그도 권불십년(權不十年)이었다. 자신이 데리고 온 며느리 민 황후에게 쫓겨난 것이다. 부모없이 자란 며느리이기에 외척 세력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철저한 오산이었다. 그녀는 타고난 영특함으로 서서히 자신의 친위 세력을 형성하고 민씨들을 대거 규합시켰다. 어리석은 고종은 아내의 영리함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군주였고, 아내인 민 황후에게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군주였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왕이었다. 조선의 왕으로 섭정을 하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출입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흥선대원군은 섭정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운현궁에서 분노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중 다시 흥선대원군에게 기회가 왔다. 바로 임오년의 군란이었다. 민 황후를 비롯한 민씨 척족세력들과 조정의 대신들이 엄청난 탐욕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주어야 할 급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뒤늦게 급료로 지급한 쌀의 상당수가 모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인에 의해 훈련받은 신식군대만 총애하는 황후에 대한 반발감으로 구식군대라고 업신여기던 군사들이 대거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민 황후는 궁내부 별장 홍계훈의 도움을 받아 장호원으로 도망가고 흥선

대원군은 고종의 요청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던 청나라는 탐탁치 않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은 사람이 흥선대원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조선과 동맹관계를 맺어오고 흥선대원군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원세개(袁世凱)는 청나라 조정의 명을 받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세개는 용산에 있는 청나라 군영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흥선대원군을 초청하였고, 이들의 음흉한 생각을 짐작하지 못했던 흥선대원군은 아무 생각없이 용산의 청나라 군영으로 찾아갔다. 원세개는 그 자리에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경기도 남양의 마산포로 이동하였다. 마산포에 정박된 군함에 흥선대원군을 태우고 바로 청도로 이동하였고, 흥선대원군은 북경으로 끌려가 보정으로 이동한 뒤 3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우리 민족의 비극 중의 한 역사다. 자, 여기서 흥선대원군의 납치 전말이 아닌 청나라 군함이 정박된 마산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왜 청나라 군대는 오늘날 경기도 화성의 송산면에 있는 마산포에 군함을 정박하였을까? 오늘날 우리들이 수도권 일대의 서해안 항구로 떠 올리는 곳은 바로 인천 제물포일 것이다. 그런데 제물포가 아니라 바로 마산포였다.

이곳 마산포는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지금은 완전히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한 포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마산포 바로 앞에 어도(漁島)라는 작은 섬이 있어 멀리 큰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곳보다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조금 적었다. 그러나 보니 오늘날 큰 항구가 가지고 있는 도크가 천연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좋은 포구가 한강 유역 일대에 이곳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나라 군함이 이곳에 정박해 있었고 후일 청일 전쟁 때도 이곳에 청나라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바로 이곳이 신라시대 당성진이었다.

신라시대 당성진은 청일전쟁이 벌어진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중심부의 가장 큰 포구이자 항구였다. 당성진에서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이 출발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무역선이 정박하였다. 당나라의 무역선에서 내린 많은 물품들은 당성진의 여러 배들로 나뉘어져 전국으로 보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항구를 지켜주던 도독과 군사들은 바로 당성에서 거주하면서 이곳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 시기에 이르도록 중국과의 무역기지 및 국제 교류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당성진을 설치하여 군사와 포구를 동시에 겸비하게 한 것은 그 중요성 때문이다. 실제 당성진

은 흥덕왕 4년인 829년에 설치한 것으로 신라 하대까지도 당성의 역할이 중요하였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 해 전인 흥덕왕 3년 828년에 장보고의 중심 세력이 형성된 청해진이 설치되고 15년 뒤인 문성왕 6년인 844년에 오늘날 강화도에 혈구진(穴口鎭)을 설치하였다. 9세기 초중반 이처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진(鎭)이 설치되는 것이 사료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청해진이 당나라 해적으로부터 끌러가는 백성들을 위해 설치된 것처럼 이곳 당성진 역시도 신라백성들과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곳 당성 일대에 진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신라의 군사기지 및 무역항이 최고로 발달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곳이 그 당성(唐城)인가?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이곳 당성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산동반도에 갔느냐는 것이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의상이 바다의 관문 당주(唐州) 지역에 도착해 큰 배를 구해 창파를 건너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당주(唐州)는 당성(唐城) 즉 당항성(黨項城)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효와 의상대사가 유학길에 다시 오른 661년은 백제가 이미 신라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바닷길에서는 우선 문제가 없었다. 또한 원효와 의상이 육로를 통해 당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해상 통로로서 가장 적합한 곳을 찾는다면 그 당시로서는 당항성뿐이기도 하다. 더구나 7세기 중엽 당항성은 국제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신라가 백제와 대등한 군사적 힘으로 서로를 견제하던 선덕 왕대에도 당항성은 이미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국제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본래 백제 지역이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하면서 당성군(唐城郡)이라 하였고, 후일 신라 진흥왕이 이곳을 차지한 후 경덕왕이 唐恩郡으로 이름을 고쳤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원효가 당으로 두 번째 유학길에 올랐던 661년에는 당으로 가는 위험 요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기 전부터 활발한 국제 교역항이었던 당항성 일대는 당시 많은 상인들로 붐볐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조사에서는 현재 정비된 당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자성1 부근에서 삼국~고려시대에 속하는 다량의 기와·토기류, '主月', '戌月'명 기와 등이 수습되었다. 이로 보아 삼국~고려시대에 걸쳐 이 지역의 주요 거점성은 당성이었음을 뒷받침하여주는 한 자료로 여겨진다.

지난 1월 한양대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화성 당성 3차 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삼국시대 축조된 1차 성벽, 망해루, 집수시설, 연못지 등 유구와 유물 1천여 점을 발견했다. 특히 이번 발굴에서 놀라운 성과는 바로 '당(唐)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를 발견한 것이다. 과거 대당 무역 전진기지였던 당성이 과연 현재 당성으로 불리는 산성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곳에서 당자가 새겨진 기와가 나왔으니 현재 이곳이 당성이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성 정상부의 망해루(望海樓) 일대에서 발굴된 흙으로 만든 말인 토제마(土製馬)가 다량으로 발굴되었는데, 이 토제마가 당나라로 떠나는 배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도구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이곳이 역사 속의 당성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20여 년 전 이곳 일대를 답사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당성과 바다의 근접성을 물어보았다. 40여 년 전에는 당성 바로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바닷물이 막히고 그 일대가 너른 평야로 바뀐 것이다. 당성 입구의 옛 도로 바로 앞에 그리 작지 않은 주유소가 있다. 필자가 20년 전에 찾아갔던 주유소다.

당시 주유소 주인은 60대 후반의 어른이었다. 그분께 당성 아래의 지형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40여 년 전까지 주유소가 있던 자리가 바다였다는 것이다. 당성 입구의 도로가 모두 바다였고, 서신면으로 가는 길은 현재의 길이 아니라 당성 뒤 즉 구봉산 뒤편으로 나 있는 길로 다녔다는 것이다. 그곳이 바다였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신라의 당성이 그려졌다. 지금의 당성이 어찌 서해를 호령하고 중국과 교통하는 당성진의 사령부였을 것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은 전혀 근거 없는 천한 비웃음이었다. 이곳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마산포였고, 한 말까지 중국과 교류했던 한반도 역사 이래 최대의 포구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와 지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곳이 당성이었음을 거의 확신할 수 있다.

불교대중화로의 출발지, 당성

지금까지의 내용을 감안해 보면 원효가 유숙했던 당주가 이곳 당성이었음은 거의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곳 당성은 한국불교의 철학적 체계가 불교 대중화로의 길을 마련한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상과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바다길 출발지인 당성으로 왔다. 너무도 피곤하여 토굴에 들어가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나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들어 있는 물을 발견하고 맛나게 먹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그 물은 해골에 들어 있는 썩은 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은 물이 해골에 들어 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원효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였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해골에 들어 있는 썩은 물이 달고 맛있는 물이라 생각하면 그런 것이요, 그것이 썩은 물이라 생각하면 썩은 물이라는 것을 원효는 깨닫게 된 것이다. 결국 원효는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구태여 당나라로 유학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대로 서라벌로 돌아갔다.

일체유심조란 《화엄경(華嚴經)》의 중심 사상으로, 일체의 제법(諸法)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나타남이고,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곧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경》 보살설계품(菩薩設偈品)에 다음과 같은 4구의 계송이 나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若人欲知三世一切佛),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하리(應觀法界性).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一切唯心造)."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송으로, 삼세불은 과거불·현재불·미래불을 가리킨다. 이 일체유심조의 경계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통찰해 보이는 경계로, 마음을 통해 생명이 충만함을 깨닫는 경계이다. 곧 유심은 절대 진리인 참 마음(眞如)과 중생의 마음(妄心)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심(一心)과 같은 뜻이다.

원효가 당성에서 깨침을 얻지 못하고 의상과 같이 유학길에 올랐다면 어쩌면 독자적 원효불교의 철학적 체계는 완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50대에 그 유명한 원효철학의 요체(要諦)인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를 저술하여 다양한 불교철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불교대중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성의 한국불교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성 홍씨의 근거지

당성은 당성 홍씨라 불리는 남양 홍씨의 근거지였다. 남양 홍씨는 고려시대 왕비 집안으로 명성을 날렸는데 특히 당성은 대모(大母) 즉 국왕의 어머니가 나온 곳으로 유명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의 망행루에 대한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강도(江都) 말년에 이르러 남양군(南陽君)이 권신(權臣)을 죽이고 정치를 왕실로 돌려보냈으면, 문예부주(文睿府主)를 놓아서 두 조정의 대모(大母)가 되었으므로 승격시켜 부(府)를 만들었다…해정어수(海亭漁叟) 정후(鄭侯)가 부임하여, …하물며 군상(君上)이 나온 곳(어머니의 집)이었는가? 신하 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공경하여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바로 국왕의 어머니인 대모(大母)와 국왕인 군상(君上)이다. 대모는 충숙왕(1313~1330)의 비인 명덕태후(明德太后) 홍씨로 추정된다. 군상은 명덕태후의 아들인 충혜왕 또는 공민왕이다. 당성은 바로 명덕태후의 고향이자 정치적 배경을 지닌 고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府)로 승격시킨 것이다.

고려시대 국왕의 모친이 태어난 곳은 주로 개성지역이다. 고려시대 왕실 결혼은 주로 동성 간에 많이 이루어졌다. 같은 왕씨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다른 성씨와의 결혼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성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남양 홍씨와의 결혼은 역으로 남양 홍씨 집안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한다. 이러한 남양 홍씨의 힘은 오랫동안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이루어진 능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당성의 중국과의 교역이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당성의 실제적 지배세력과 군사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당성인 것이다.

당성에서 대모의 야기를 생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곳에서 대모를 선발하면 어떨까! 이러한 기록을 기반으로 명덕태후를 기리는 대모(大母) 선발대회를 치루는 것도 지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각 지역마다 여성 인물에 대한 현양 사업과 특정 여성인을 스토리텔링하여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 역시 당성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명덕태후를 기반으로 대모를 선발하거나 아니면 지역 사회 인사들의 추천으로 대모를 선정하고 이 대모를 한시적 화성시의 홍보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의 당성의 모습

당성의 옛 기록에는 이 산성을 고당성(古唐城)이라 하여 당항성과 관련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신라 하대에는 당성진이 설치되고, 신라의 왕도(王都)에서 상주와 삼년산성을 거쳐 이곳에 이르는 길을 당은포로(唐恩浦路)라 하였다. 이 성에는 남문터와 북문터가 정상부 아래의 기슭에 있고, 동문터와 수구터는 계곡 쪽에 있다. 수구터의 안쪽에는 지금도 샘이 있어 물이 사철 나오고, 주변에 건물터가 있다.

서벽에 연한 정상부에는 노목이 우거진 숲이 있고, 여기에 성황당이 있다. 이밖에 망해루로 추정되고 있는 건물지에 초석들이 남아 있다. 한편 본성의 서남쪽에 이어진 외성은 성의 서남쪽의 제일 높은 곳에서 한층 낮아진 평탄 대지를 주머니 모양으로 둘러서 본성의 남문을 보호하는 웅성처럼 축조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둘레는 230m이다. 이 외성에서 다시 능선을 따라 낮아지는 곳에도 보다 작은 제2의 외성을 만들어 남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최소한 2개의 벽을 통과하여야 되도록 특수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제 2의 외성에서 계속 산줄기를 따라 이어진 성벽은 희미하긴 하지만 보다 남쪽의 안부(鞍部)를 지나 계속된다.

벽은 석축된 벽체가 무너져 마치 토석혼축처럼 보이지만 당초 토축의 석축으로 개축되면서 쌓아 올린 석축의 일부가 남벽쪽에 약간 남아 있고, 문터의 좌우와 성벽의 회절처(回折處)마다 곡성(曲城)을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당성은 동남 방향으로 경사진 구봉산을 둘러싼 포곡식의 본성(本城)과 본성의 서벽에 붙은 2개

의 테피식 자성(子城)으로 구성된 복합식 산성이다. 현재 사적 제2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체 둘레는 1,668m로, 본성은 둘레가 1,148m로 동남향한 계곡을 포함하여 축조된 포곡식의 석축산성이다. 평면은 남북이 긴 장방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동벽의 계곡부가 안으로 움푹 들어온 버선모양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성벽은 파괴되었거나 지표에 덮여 있고 관찰되는 부분은 복원공사가 이루어진 성벽이다. 북·동·남벽은 석축을 위주로 축조하였으며 서벽은 관축기법을 이용한 토축으로 일부 구간은 석심을 채워 쌓은 수법을 보이기도 한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1998년도에 성벽구간과 건물지, 복문지 등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성벽조사는 토축구간(서벽)과 석축구간(동벽)으로 나누어지는데, 석축구간은 부정형 할석재의 한면을 맞추어 안물림하며 외벽을 쌓고 안쪽은 잡석을 섞은 다짐층으로 뒷채움하였다. 성석은 치석재와 할석재를 혼용하였고 이들 틈새는 잔돌끼움수법을 사용하였다. 토축구간은 중심 하부에 석심을 넣은 후 그 위로 관축기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관축은 20~40cm의 두께로 점질토와 석회암돌기부를 이용하여 자연경사면을 따라 쌓았으며 토루의 내외 기저부에 와적층을 형성시켜 배수와 하부 보강의 역할을 도모하였다. 석축과 토축구간은 여러 번의 수·개축 과정이 이루어졌고 석축구간보다 토축구간이 먼저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출토유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벽이 지형에 따라 꺾이는 부분 즉 능선을 돌아나가는 부분, 능선과 교차하는 부분에는 체城과는 달리 돌출하여 등글게 축조하는데 이러한 구조물을 곡성(曲城)이라 한다. 곡성은 본성에 2개소, 자성에 1개소가 시설되어 있다. 당성의 진입로 입구에는 당성사적비와 주차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성 내로 진입하면 넓은 평탄대지가 나타난다. 이 대지의 동벽 중간부에 치우쳐 우물지와 수구지가 조성되어 있다. 문지는 수구지로 추정되는 진입로 지역의 동문지와 북벽부 서편의 북문지, 그리고 자성으로 통하는 서문지 등 세 곳이 있다. 본성 서쪽의 최고지점에는 성황당(城隍堂)이 퇴락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 바로 그 아래의 평탄지에 성 내 주요 건물지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성 내 시설물은 문지 3개소, 우물지·수구지 1개소가 확인된다.

본성의 서벽과 접한 자성1은 둘레가 363m(본성과 공유벽 68m+자성2와 공유벽 40m포함)로 구봉산에서 봉화산으로 뻗은 남서능선을 따라 석축으로 축조되었다. 외벽 높이는 4~5m이며 상면에는 2~3.5m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다. 자성1의 북서쪽 무너진 석축부에서 명문기와를 비롯해 삼국~고려시대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자성1의 동벽은 성벽 하단부까지 들어선 밤나무단지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자성1과 접한 자성2는 둘레가 265m(자성1과 공유벽 40m포함)이며 능선을 따

라 남서쪽으로 길게 돌출된 모양이다. 외벽높이는 3~5m내외를 유지하며 밖으로는 서신면 전곡리와 상안리를 잇는 바리고개가 접해 있다.

당성에서는 북서쪽으로 화량만구(花梁灣口)의 화량진성, 북쪽으로 해운산봉수, 서남쪽으로 염불산봉수, 남쪽으로 백곡리산성·청명산성이 조망된다. 이를 통해 보면 화성 해안지역의 관방체계는 당성을 중심에 두고 당성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화량만의 입구에 축조된 화량진성, 당성의 동남쪽에 입지하여 당성으로 향하는 교통로 상에 축조된 백곡리산성과 남양만 내륙 해안가에 축조된 청명산성을 잇는 북서-남동 방향의 방어선 및 남양리성에서 시작하여 거점성인 당성을 지나 광평리까지 연결되는 남양장성과 함께 해안방어선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인근 연안의 마산수로를 통해 해상교통로를 통제하고 남양만 연안에서 청명산성을 지나 백곡리산성으로 향하는 길과 화량만에서 남양장성 구간을 통해 당성으로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진입을 통할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유적의 주 방어방향이 모두 해안을 향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에필로그

당성은 계속 발굴 중이다. 향후 발굴을 통해 당성의 새로운 진실은 계속 밝혀질 것이다. 이곳을 통해 실크로드로 나간 선현들의 흔적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21세기 중국을 포함한 세계와 교통할 것이다. 세계와의 교통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과 북도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당성은 잊혀진 산성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줄 새로운 출발지이다.

당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당성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망해루에 올랐던 고려말 대학자 목은 이색의 망해루 기를 통해 과거 서해안의 지킴이 당성을 생각하길 바란다.

남양부 망해루기

당성인(唐城引) / 문정공(文正公) 목은(牧隱) 이색(李穡)

당성 해안은 화개와 같으니 포구는 이를 둘러 안팎으로 나뉘었네
영령이 모인 곳에 인물이 나고 곧고 웅위한 큰 인재 다 당대에 뛰어났네
덕산 촌 주는 강남에서 자라 요동에서 백모 쓰고 처음 가서 참여하였네
학야에 양과 개가 가까이 하는 것을 혐오하네
해외에 삼신산을 찾고자 하며 배를 경랑에 띄워 딴 세상을 만나니
두 눈을 움직이지 않은 채 나는 뜻을 멈추고 해안에 내려 해를 점치고 세대를 점쳐보니
남마다 동방을 도와 천만 년 길이 가리
신라 이래 우리 고려에 이르기까지 예악과 시 서로 군자를 내었네
수재는 강도 말에 독보적인 존재여서 반란 기운 쓸어 없애 대궐 문을 열었네
기강이 다시 떨쳐도 벼슬을 사직하였고 쥐들이 다시 설치는 것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태사가 탄생하사 왕실의 배필 되니 성자 신손이 오늘에 이르렀네
아, 덕산은 출중한 인물이어라
저절로 어우러져 좋은 일만 이루어지고 푸른 솔 뜯 구름은 젖은 듯이 푸르구나
내 일찍 말을 세워 멀리서 우러러 읊했어라
양파 선생은 어디에 계시는가
높은 위풍은 천 년 가도 미칠 자 없으니 뛰어남을 본받지 않는 것은 자손 없는 것과 같고
문화에 사람이 있으나 부질없이 눈물만 흘리네

서해안의 파수꾼, 남양만(南陽灣)

류현희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서해의 관문 남양만

남양만은 서해안의 큰 만(灣)이며, 고대로부터 삼국의 각축지 또는 대중국 무역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한국 역사에서 유명한 지명 중에 하나이다. 이곳은 삼국시대에 백제·고구려·신라가 차례로 점령하면서 국경선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대중국 교역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외구와 홍건적의 침입에 따른 방어선을 구축한 곳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마산수로를 이용하는 조운선(漕運船)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연안항로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조선 말기에는 신미양요와 병인양요가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이곳 남양만 일대에는 20여 개의 성곽들이 존재한다. 이 성들은 삼국시대부터 축조되어 천 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진 것으로, 남양만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체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부분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에 집중되어 있어, 이곳이 남양만 방어의 핵심지역임을 알려 준다. 바닷가에 인접한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에 어김없이 산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현재 이곳 남양만을 둘러싼 지역은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랜 세월 동안 제방을 쌓아 해안선을 정리하면서, 방어기능을 수행하며 위치했던 산성의 능선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구릉이 되어 버렸다. 최근에는 시화방조제와 화옹방조제 건설로 옛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온 간척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 때문이다. 약 8,000년 전부터 형성되어 온 갯벌은 물에 잠기면 바다이고, 물이 빠지면 넓은 땅이 되었다. 게다가

밀물 때 물이 차올랐을 때도 깊은 곳은 10m지만, 얇은 곳은 채 2~3m도 되지 않을 정도의 깊이였다. 바다에 숨은 땅을 간척해 육지로 만드는 작업이 오랫동안 추진되었다. 이러한 남양만 일대의 지형을 염두해 두고, 서해안의 방어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양부에서 만(灣)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 해문리를 거쳐 바다로 나아간다. 해문리는 해문역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현재는 지형이 많이 변형되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살펴보면 해문리는 그야말로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바다를 통하지 않으면 청원리를 지나가는 길이 유일한 육로였다. 좁은 길목을 거치면 슬항리, 해문리로 나가서 당성이 있는 구봉산 줄기를 따라 위로는 송산면, 아래로는 서신면으로 나간다. 슬항리의 경우 거쳐 가는 길목이라는 뜻인 듯하고, 해문리는 바다로 나가는 관문을 뜻하는 듯하다. 이 곳을 지나면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해문리, 슬항리, 청원리 길목을 장악하면 육로로 남양만으로 나가는 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1910년대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1/50,000지도를 살펴보면 남양만을 에워싼 위쪽 지역인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의 지형적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이 지역 방어 체제 구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일대에 구축된 산성의 입지와 역할을 시기 별로 살펴보고, 대표적으로 활용된 산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양만 일대의 성곽 현황

명칭	소재지	해발	규모	축성	시대	비고
길성리토성	향남면 요리	11.6	2,311	토축	백제	
태봉산성	봉담면 마하리	223	800	토축	삼국	
소근산성	양감면 신왕리	190	630	토축	삼국	
운평리성	우정면 운평리	30.1	1,185	토축	삼국	
한각리성	우정면 한각1리	38.1	551	토축	삼국	
길성리성	향남면 요리	111.6	2,311	토축	삼국	요리산성
수원고읍성	태안읍 안령리	108	1,320	토축	삼국·조선	
백곡리성	마도면 백곡리	70	320	토축	신라·고려	
당성	서신면 상안리	165.7	1,148	토축	통일신라	석성+토성
화랑진성	송산면 지화2리	75	1,200	석축	고려	
남양리성	남양면 남양3리	40	771	토축	고려·조선	

청명산성	서신면 흥법리	154.9	1,200	토석축	고려·조선
영종포성	서신면 용두리	58	220	토석축	조선
삼존리성	송산면 삼존1리	108.5	506	토석축	조선
사창리성	양감면 사창3리	50	124	토석축	조선
성목쟁이성	마도면 청원리	-	-	-	-
남양장성	남양면 남양리	20	1,500	토축	미상
석산성	서신면 백미리	110		석축	
용두리성	서신면 용두1리	37.7	540	석축	
창고산성	우정면 석천리	54.2	305	토축	
오두산성	팔탄면 지월리	104.6	-	석축	

심광주, 「남양만 일대의 성곽과 당성의 역사적 위상」, 『황해의 문화교류와 당성』, 2012, 143쪽.

삼국의 각축장이자 대중국 무역 중심지, 남양만

남양만 방어체계의 중심은 마도면에서 서신면으로 이어지는 능선인 구봉산에 위치한 당성이 다. 당성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5세기 후반부터 당성군(唐城郡)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이곳이 정치적·군사적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성을 중심 성(城)으로 구축하고, 주변에 해안선을 따라서 방어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당성과 주변 성(城)의 거리가 가깝게 배치된 것으로 보아, 시차는 있지만 상호 보완관계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 남양만의 첫 주인은 백제였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개로왕이 전사하여 웅진으로 천도하기까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고대국가로 성장해갔다. 남양만과 인천 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영역권에 속해있었다. 남양만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시점도 삼국 간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부터이다. 고구려는 이곳을 점령하고 당성현(唐城縣)을 설치하였다. 고구려 점령 이후 50여 년이 지난 시점인 551년에 백제 성왕이 신라와 손을 잡고 이곳을 탈환했으나, 2년 후에 신라가 다시금 빼앗아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고구려는 이곳을 점령하여 신라나 백제의 대중국 외교를 막았을 것이다. 당성(唐城)은 5세기 후반 이미 축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당성이 위치한 남양만을 대중국 외교를 위

한 항구로 적극 활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백제 시기 건설된 산성을 점령하고 적극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경우 서해 연안을 거치지 않고도 중국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양만을 통한 외교교섭이 필요치는 않았다. 그러나 신라나 백제의 경우는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도움을 받거나 서북연해를 통과해서 발해만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남양만의 존재가 절실하였다.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국 외교 시에 고구려를 거쳐 가거나 육로를 거쳐서 한강 하구에서 발해만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신라는 381년 전진에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때 고구려의 사절을 따라갔다고 한다. 즉 4세기 후반까지 신라의 외교사절단은 고구려의 도움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396년 광개토왕은 신라에 침공한 왜(倭)를 격퇴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양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내부를 관통하거나 연안을 통과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우호관계 속에서 신라는 고구려와의 밀약으로 553년 한강 유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590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신라는 위기에 처한다. 이후 고구려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한강 유역을 지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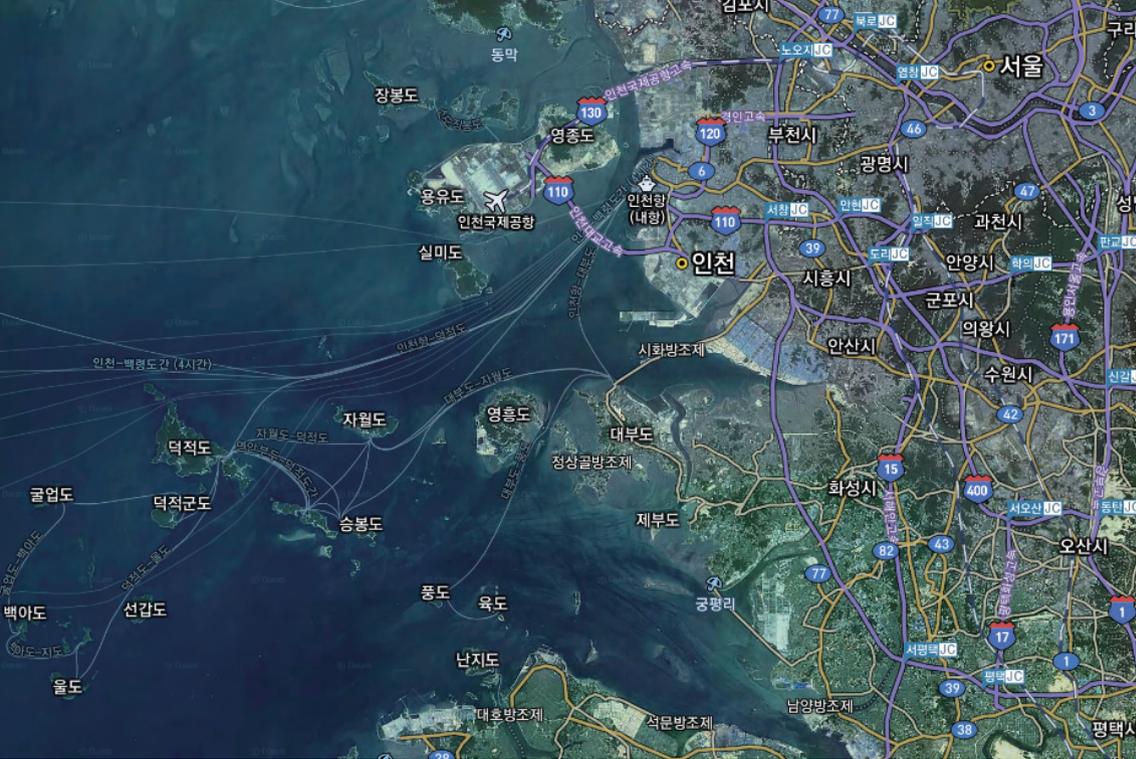
이 때문에 고구려의 남양만 점령은 삼국의 외교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8세기 대중국 직항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남양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남양만은 노철산수도항로와 적산항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노철산수도항로는 중국에서 삼국을 거쳐 일본까지 연결되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활용된 항로였으며, 적산항로는 웅진반도 장산곶에서 산동반도 적산으로 건너가는 항로이다. 남양만은 이 두 항로의 배후 근거지이다. 이에 남양만에는 대중국 항로의 한축인 항구가 발달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어성이 구축된 것이다. 대표적인 중심 기지는 당성이며, 주변 산 구릉에 산성들이 축조되었다. 당성이 군현의 치소인 중심 성이었다면 주변 산성은 중심성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례	
봉수(△)	
①	형도봉수
②	해운산봉수
③	염불산봉수
④	제부도봉수
산성(□)	
①	화량산성
②	당성
③	백곡리산성
④	청명산성
⑤	석산성
⑥	용두리성
⑦	영종포성
⑧	삼존리성
⑨	청원리성
⑩	남양장성
⑪	남양동토성

■ 화성 남양만 일대의 지형과 봉수, 산성 분포



■ 서해안 연안항로 (다음 지도)

서신면, 마도면, 송산리 일대 주요 고대 산성으로는 당성, 백곡리성, 석목쟁이성 등이 있다. 백곡리토성(華城白谷里土城)은 마도면 백곡리 산35번지에 위치한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활용된 것으로 북동쪽으로는 남양·수원 일대가 조망되고, 남동쪽에서는 청명산성과 남양만을 건너 화성군 우정면 일대가 조망된다. 해발 70m의 낮은 아산 봉우리에 9부 능선을 둘러싼 테피식 토축 산성으로 성벽 둘레는 320m이다. 성벽의 높이는 4-5m, 폭은 1.2m 정도이다. 성에서 채집된 기와류는 선문(線文)·석문(蓆文)·어골문(魚骨文)·복합문(複合文) 등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어 이 성의 축조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백곡리산성 주변에는 백제시대 고분군이 서쪽 2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석목쟁이성이 있는데 일명 청원리성이라고도 한다. 석목쟁이성은 마도편 청원리 228-14번지 청원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다. 지금은 흔적도 거의 없지만,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성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변에 성이 위치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곳은 서신, 마도, 송산이 위치한 남양반도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1910년대 작성된 지도를 살펴보면 청원리는 군사만과 남양만 양쪽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좁은 목이었으며, 아주 좁은 통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청원리성은 육지에서 연결되는 관문역할을 했다. 이곳을 지나면 해문리라는 지명이



■ 청원리성 원경

나오는데, 바다의 관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즉 청원리를 길목을 방어하면 남양만 일대는 그야말로 바다에 둘러싸인 거대한 섬이 된다. 특히 밀물이 들어왔을 때에 청원리성을 방어하면 육로는 차단된다.

다음으로는 당성의 존재를 살펴볼 수 있다. 당성은 서신면 상안리 산2번지 일원에 위치하는데, 남양반도의 서신·송산·마도면의 경계가 교차되는 중심부 가까이에 있는 해발 165.7m인 구봉산(九峰山) 정상부와 동향한 계곡 및 서남쪽 능선에 성벽이 구축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활용되었다고 한다. 북서쪽으로는 화랑진성, 북쪽으로 해운산봉수, 서남쪽으로 염불산봉수, 남쪽으로는 백곡리산성, 청명산성 등 넓은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당성이 위치한 구봉산은 남양반도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처음에는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한때 고구려의 영토로 당성군(唐城郡)이라 하였으며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당항성(唐項城)이라 하였는데, 서해바다를 건너 중국과 교통하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신라 하대(下代)에는 당성진(唐城鎭)을 설치하였으며 신라의 왕도에서 상주와 삼년산성을 거쳐 이곳에 이르는 길을 당은포로(唐恩浦路)라 하였다. 아마도 고구려 정복 이전인 백제시기에 이미 당성 일대에는 산성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벽은 쌓은 시기를 달리하는 3종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쌓은 성벽은 구봉산의 정상부에 서봉화산으로 뻗는 남서능선을 따라 테피식으로 축조된 삼국시대 성벽이다. 둘레는 363m이며 외벽 높이는 4~5m이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6~8세기 대의 유물들이 주로 출토되었다. 두 번째 성벽은 이 성벽의 중간부를 관통하며 구봉산 동북쪽 능선을 따라 가다가 동남 방향의 산복부를 감싸안은 장방형의 포곡식 성벽이다. 정상부의 테피식 산성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신라 말기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벽은 신라 하대의 당성진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내에서 출토되는 통일신라 말기의 유물들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성벽의 둘레는 1,148m이며 관측기법을 이용한 토축하였다. 외벽의 높이는 3~4.5m이다. 이 외에도 동북쪽 능선과 서북쪽 서남쪽 능선을 따라가며 작은 외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서남쪽 외성에서는 남양장성이라 불리는 토루가 연결되고 있으나 쌓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성은 발굴조사 결과 시대를 달리하여 쌓은 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대중국항로의 기착지로서 역사적인 중요성이 매우 큰 유적이다.

고대의 바다환경이 어떠한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서해안 갯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약 12,000~8,000년 전부터이며, 삼국이 본격적으로 각축을 벌이던 시점이 약 1,500년 전이라고 하면 현재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남양만 일대의 서해안 지형의 지형조건이나 물때를 알아야만 넓은 갯벌과 바닷물을 이용해 운항이 가능했을 것이다.

남양만 지역의 산성들은 삼국시대 군사적 접경지대로서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신라가 장악한 이후에는 국제항구로 기능했고, 여전히 해안국경선의 역할을 겸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 건국으로 양국의 국경선이 북쪽으로 조정되면서 서해안의 긴장감은 다소 약화되었다.

고려시대 남양만, 왕실의 보호막이 되다

고려시대 남양만은 통일신라와 발해를 거치면서 국경 지대의 항시적인 긴장감이나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번잡스러움은 일정 정도 계승되었으나 예전과 같지는 않았던 듯하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국경선은 청천강 이북으로 옮겨졌으며, 국제항구는 수도 개경 부근의 벽란도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양만의 위상도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려 초기에 지방호족으로서 건국에 큰 기여를 했던 홍은열(洪殷悅)의 존재이다. 남양 일대에 오랫동안 세거하던 남양 홍씨를 대표하며,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고려 건국에 일조하였다.

두 번째로는 고려 후기에 왕실이 강화 천도를 단행하면서 서해안 일대에 광범위한 방어선이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왕조는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로 천도해서 39년이나 개성에서 국가를 운영하였으며, 25대 충렬왕 때에는 거란군의 침입으로 강화에 들어와 2년간이나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 또한 공민왕 대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던 시절에도 강화천도 논의가 있었다. 외적이 침입하면 조정은 강화천도를 단행하거나 천도 논의가 진행되는 등 고려시대 제2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강화도 아래쪽에 위치한 남양만은 강화를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남양만에 위치한 화지랑, 즉 화랑진성은 강화를 수어하는 방어진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고려 말 강화 천도 시기에 남양군 홍규가 권신을 죽이고 정권을 다시 왕실에게 돌려주었으며, 문예부주를 낳아 양조의 태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옛 당성에 있었으나 없어진 망해루에 대해서 기록한 이색의 글에 남아 있는 내용이다. 남양군의 존재는 고려 초기에 건국에 기여한 호족이 고려 후기까지 존재했음을 알려 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서 당성 일대, 즉 남양만의 역할과 의의를 알 수 있다. 남양만 즉 당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이나 그들의 근거지, 또는 해안이나 산성 방어체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산성이 송산면 지화리에 위치한 화랑진성과 남양읍의 남양리성, 서신면 홍법리의 청명산성이다. 남양리성과 청명산성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사회 방어 체계의 핵심이었던 산성은 축조 당시부터 전략적 요충지나 길목에 건설되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활용되고 재정비 되었다.

남양리성은 남양리토성(南洋洞土城)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남양동 1633-1번지 남양중·종합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다. 유적은 동쪽에서 뻗어오는 구룡상에 자리하는데 북쪽으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남양천(南陽川)과 서쪽으로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

■ 1980년대 당성에서 바라본 남양만 일대(화성시청 포토갤러리)





하고 있다. 소하천은 자연 해자(垓字)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해에서 남양만(南陽灣)을 거쳐 내륙으로 통할 수 있는 주요 교통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양동 토성은 토축으로 축조되었으며 방형의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성벽은 북벽과 동벽, 서벽의 일부가 남아 있고 남벽은 학교 신축 시 완전히 파괴되었다. 둘레는 성벽 잔존부와 파괴부의 추정선을 연결한 결과 771m 정도로 계측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상에 축조되어 동벽에 비해 북벽과 서벽은 접근이 쉽지 않으며 능선과 교차하는 지점에는 성벽을 돌출시켜 북동회절부와 북서회절부에 치성을 시설하였다.

남양만은 고려 건국 이후 삼국시대에 비해 중요도는 떨어졌지만, 고려 호족의 배후지로서 또한 왕실이 국난을 당했을 때 파천하는 강화도를 외호하는 지역으로서 그 위상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 말 남양군 홍규의 활약은 약화된 왕실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지역이 남양부(南陽府)로 승격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여전히 당성과 같은 산성에 주현(州縣)의 지배자들이 본거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 달리 지방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호족들이 지배의 중심에 있었고, 파견된 지방관은 이를 감시·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이므로 자신들의 통치기반이던 지역을 벗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산성 안에 자신들의 본거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고려 말 외구와 홍건적, 몽골침입으로 서해안에 광범위한 방어선이 존재한 것도 산성의 필요성을 유지시켰다. 때문에 강화천도나 국가적 전란이 존재했을 때, 지방세력들은 자신들의 사병들을 동원해 왕실을 지키기도 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남양만, 세곡선의 운송로

조선시대 들어서 남양만의 역할과 독자성은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배경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배를 받게 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들은 독자성을 상실해 갔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고려 말 조선 초 약 100년간 진행된 홍건적·왜구와의 전쟁이 진정되면서 주요 침략지였던 대부도와 서해안 도서 일

로, 아마도 전란 때마다 강화도를 피난처로 삼았던 역사적 경험에 의해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남양만은 다른 역할로 대체해서 활용되었다. 전국의 조운선이 남양만 일대 영흥수로와 마산수로를 이용해서 한강하구로 진입하였다. 영흥수로는 대부도 서쪽에 있으며 마산수로는 화랑진 앞쪽으로 선감도와 불도, 탄도 사이의 바닷길이다. 지금은 탄도방조제가 마산수로로 진입하는 하구를 막아서 수로가 막혔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바닷물이 흐르던 해로였다.

마산수로는 고대부터 활용되던 연안 바닷길이고 주변의 섬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식수나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이 때문에 마산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방어진이 구축되었다. 이곳은 주변 작은 섬들이 수로 중간 중간에 위치해 있어 외부 시선을 차단한 상태로 적을 감시하고 관찰하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곳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물때를 대비해 움직이거나, 해류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움직이기 어려운 지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이곳 주변 섬들은 토지가 비옥하고 어염의 이점이 많은 곳이었다.

마산수로는 『해동지도』에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마산수로는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뱃길인 제부도 뒤쪽으로 합류해서 화랑진 앞바다를 거쳐 한양으로 올라간다. 즉 서해에서 올라오는 뱃길은 평택선로(平澤船路), 신창선로(新昌船路), 아산공세선로(牙山貢稅船路), 예산선로(禮山船路), 해미선로(海美船路), 홍천창서산선로(鴻川倉瑞山船路), 결성선로(結城船路) 등인데 유도(乳島) 앞에서 모여 남양본부와 대부도 사이의 뱃길로 합쳐진다. 유도는 고지도에는 등장하지만 현재 섬 명칭으로 확인되는 곳은 없다. 다만 옛 지도상의 위치를 근거로 비정해 본다면 현재 제부도가 아닐까 추정된다.

또한 조선 건국 이후 고려 유생이나 유민들이 서해안 외딴섬에 숨어 살았다고 하는데, 이작도, 자월도, 굴업도, 덕적도 등이라고 한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하고 섬에 오랫동안 근거하면서 해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공도정책과 조선시대 해금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적들은 존재했고, 빈 섬에 왜구들이 근거하며 다시 출몰하게 됨에 따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방어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남양만 일대의 방어체계는 주변 섬에 숨어 있는 왜구나 해적들로부터 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마산수로에 위치한 대표적인 방어성은 조선 초 수영(水營)이 설치되어 있던 화랑진성이다. 화랑진성은 고려시대에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마산수로는 오래 전부터 연안항로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서해안의 관방으로서 화량진과 영종포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을 방비하던 주요 성은 화량진성, 청명산성, 영종포성 등이다. 화량진성(花梁鎭城)은 남경성, 남경두도성, 화량성, 지화리산성, 와룡산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지화리 와룡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가지 능선 일대에 위치한다. 화량진성은 서쪽으로 돌출한 와룡산 남쪽의 7부 능선에서 남쪽 계곡부를 포함하며 화량만 입구의 해변까지 축조된 석축성이다. 지금은 이곳에 펜션이 들어서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화량진 남쪽은 서신면으로 300m 정도 거리이며, 동쪽으로는 중송리까지 만을 이루고 있으나, 지금은 모두 육지가 되었다. 서해 쪽으로는 탄도가 화량진과 서신면 사이의 만 입구를 가려 주며 북쪽으로는 불도, 선감도, 대부도로 연결되고, 아래로는 제부도로 이어지는 마산수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진성(鎭城)이 입지하기에는 최적의 여건이라 할 수 있다.

화량진성은 석축의 평산성으로 평면은 남북이 길쭉한 타원형을 하고 있다. 둘레는 약 1.2km 정도이다. 성벽은 협축식과 편축식을 혼용하여 축조하였고 성 밖으로는 외황(外隍)을 조성한 후 지형조건에 맞춰 몇 개의 단을 설치하였다. 현재는 일부 성벽의 석축만 확인될 정도로 붕괴된 상태이며, 마을 진입도로와 경작지 조성으로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화량만에 접한 남벽은 시화지



■ 수영을 교동으로 옮겨 부로 승격시키고 월곶진 대신에 화량진을 다시 설치한 기사(『인조실록』, 인조 7년 2월 24일)

■ 2007년 송산면 지화리 고포리 상공에서 바라본 마산수로 전경(화성시청 포토갤러리)







■ 1997년 왕모대 포구 꽃게잡이(화성시청 포토갤러리)

구 간척사업 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입도로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편에 좌도수군침절제사영(左道水軍僉節制使營)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실려 있는데 “남양부 서쪽 화지랑에 있고 항상 중대선 3척과 쾌선 10척 무군선 13척을 거느리고 강화를 수어하는데 장번수군이 6명이요 각 관의 좌·우령선군이 총 1,597명이다. 대개 배1척에 각기 땀나무와 물을 실어 나르는 삼관소선이 있으며 그 무군선은 만일 경급한 일이 있으면 영선군을 모두 징발하여 태우는 것이니 뒤의 것도 모두 이와 같다.”고 하였다. 즉 수영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규모와 운영에 관한 것이 서술되어 있다. 총 1,597명에 달하는 수군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화랑진에 있던 수영(水營)은 1629년(인조 7)에 교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마산수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수영의 교동 이전은 1627년 정묘호란 직후 안전한 피난수도 강화도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영종포 만호도 1653년(효종 4)에 자연도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용두리성(龍頭里城)인데, 서신면 용두리에 위치하며 영종포성이라고도 한다. 이곳



■ 2016년 왕모대 전경

에는 왕모대라는 포구가 있는데, 패망한 나라의 임금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쌓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왕모대에서 정상을 지나 능선을 따라가면 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2003년 화옹방조제가 완성되어 농경지는 확보되었지만 포구는 사라지고 대대로 어업으로 삶을 영위한 어민들은 생활터전을 상실하였다. 왕모대에 이어진 영종포성을 찾은 사람도 없어졌다. 영종포성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왕모대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전설이 슬픈 만큼이나 슬픈 운명을 맞이한 영종포성이다. 한때는 영종포 만호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그 위용을 자랑했던 곳인데, 이제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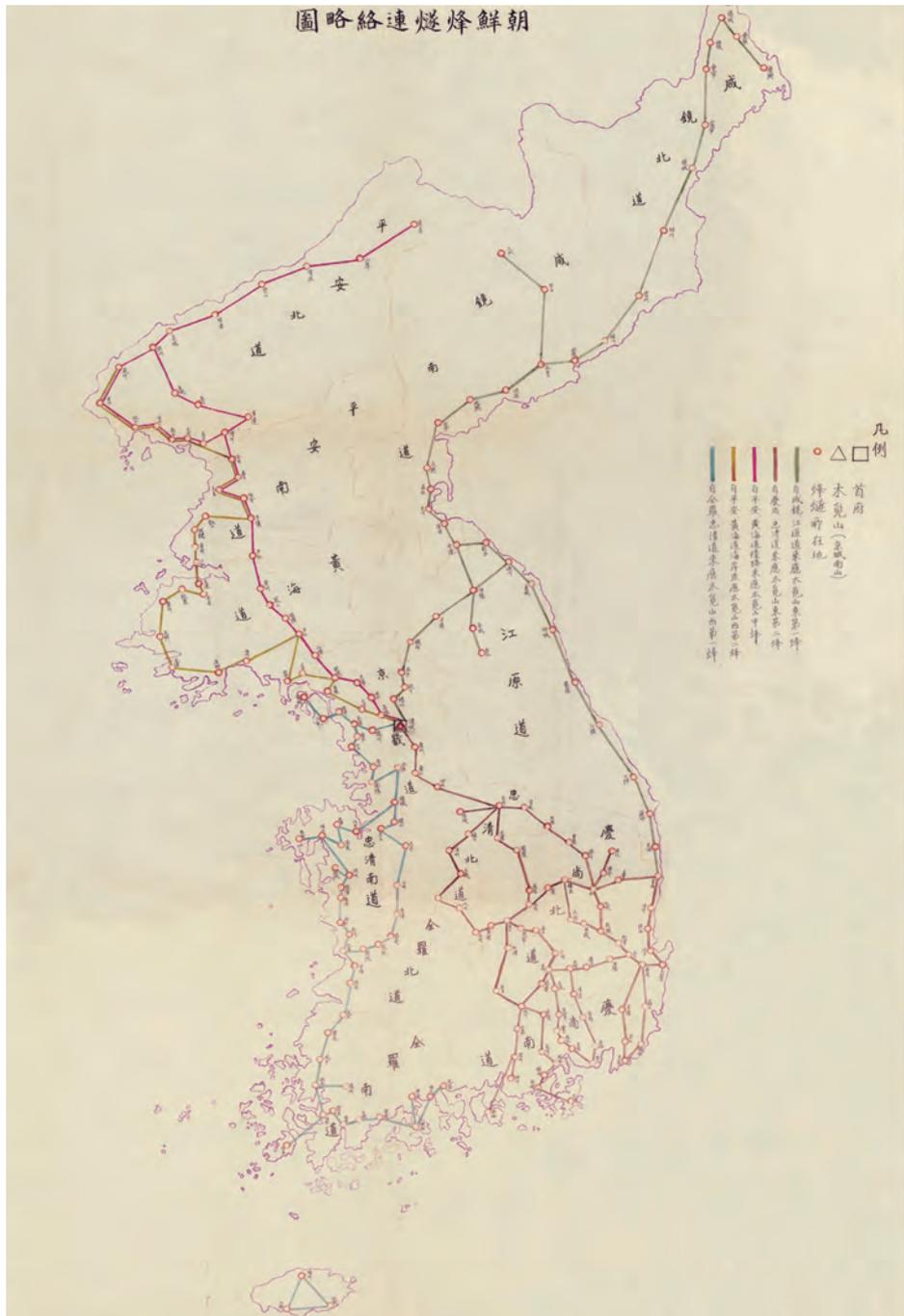
이 성에 관한 기록은『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석축 주위 약 이백오십간이며 대부분 붕괴되어 반 정도는 밭으로 변하였고 약 삼백여 년 전 영종포영첨사(永宗浦營僉使)를 설치했던 곳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두리성은 포구에서 서북쪽으로 보이는 능선을 따라 오르면 능선 상에 군사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둘레는 540m이고 석축으로 축조하였다. 북벽과 서벽 일부는 비교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용두리성에서는 남쪽으로 화성군 우정면과 충남 당진군 일대가 바라보이며 남동쪽으로는 남양만 내륙으로 들어가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이곳 영종포만호(永宗浦萬戶)에 대해 “남양부의 서쪽에 있고 중대선 3척, 맹선 1척, 무군선 3척 이요, 각 관의 좌·우령선군이 총 5백 10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 전기부터 남양이 경기 남부 수부로의 요충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남양부에 있던 영종포만호를 1653년(효종 4)에 인천도호부 자연도(현 영종도)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정묘호란 이후에 화랑진의 수영을 이전한 조치와 1656년(효종 7)에 제물진을 강화도로 이전한 일련의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다음은 청명산성이다. 청명산성은 흥법사의 남동쪽에 소봉의 둘레를 퇴피형 토성으로 구봉산 당성이 북쪽 1.7km, 백곡리토성이 북동쪽 1km, 백곡리 백제 고분군 북쪽 500여m에 위치한다. 청명산은 해발 154.9m의 단봉으로 남양반도 서쪽 마도면, 서신면의 경계점에 위치한다. 이곳 청명산은 삼국시대부터 유적이 남아 있어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며, 남양도호부 관아로 들어오는 물산과 외적의 해안접근을 조망할 수는 위치에 있다. 이곳 남양부 개죽포를 향하여 범선(帆船)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절경을 이루어 죽포귀범(竹浦歸帆)이라는 남양팔경의 하나로 꼽기도 했다.

청명산성은 흥법사의 북쪽에 위치한 청명산 정상과 북쪽, 서쪽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는 약 1.2km이다. 내부에는 폭 2.5~3m의 회곽도가 조성되어 있고, 남서회절부는 능선과 교차하기 때문에 서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정상부에서 북향하는 능선을 따라가면 해발 145m의 봉우리를 지나 석축구간인 북쪽 봉우리로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석축이 무너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다시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벽은 서쪽 봉우리까지 길게 돌출하는 형태로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성벽은 이곳의 8~9부 능선을 따라 편축식으로 축조된 후 다시 청명산 정상부로 향하고 있다.

성 내부에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들과 조선시대 기와편들이 채집되고 있다. 흥법사 북서쪽 청명산성과 능선으로 연결되는 해발 140.2m의 봉우리와 해발 148.9m 봉우리는 산성의 망대지로 사용된 듯하다. 특히 흥법사의 북동 소봉에서 4세기 말~5세기 제작으로 보이는 적갈색 격자문 토기편, 격자문에 황성을 돌린 토기편, 회색 승석문 토기편, 삼국 말기~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경질 토기편이 발견된다. 이곳을 활용해 우정면 북쪽 해안과 개죽포 일대 고모리 해변이 조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명산성의 북쪽으로 연결된 능선이 약 130m 정도 백곡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데 북쪽 선단부에는 자연암석을 이용 석축을 쌓은 곳이 확인된다. 청명산에는 ‘홍량과 무쇠사공’의 설화가 전하는 흥법사가 있다. 명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끌려간 홍씨녀의



■ 조선봉수연락약도 (1914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전설이다. 청명산이 중국과 통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남양 홍씨가 세거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대성이라 생긴 설화인 듯하다. 이곳에서의 청명산의 위치와 위상을 알려 주는 설화이다.

조선시대 지도에는 경기도 서해안 지역의 성지들 중 문수산성(文殊山城)과 청명산성 그리고 화랑진성을 중심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당대에도 핵심적인 산성이었음을 알려 준다.

조선시대에는 성곽 이외에 봉화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 마도·서신·송산 일대에는 염불산과 해운산에 봉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봉수는 고려시대부터 흔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적극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봉수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위치를 활용하다 보니 자연지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없는 듯하다.

봉수는 국경이나 전략적 거점에서 벌어지는 변란 등을 알리기 위한 통신시설이다. 사실 봉수는 고대 중국에서도 사용했으며, 백제나 신라에도 봉산성(烽山城)이나 봉현(烽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 연락체계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섬이나 산, 교통로에 봉화대를 만들어 적의 기습 등을 알려주는 긴급연락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거화법을 규정하고 봉수군의 배치 등을 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전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를 알리는 연락체계는 민(民)의 생명을 지키고,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계승한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었다. 남양만 일대도 그러한 연락망 안에 있었을 것이고, 삼국시대는 지금보다 전쟁이나 전란에 많이 노출되었던 시기이므로, 그 중요성이 더 컸을 것이다. 국경선이 자주 변동되고 국경을 접한 경우 봉화를 사용하는 방법은 보다 정교하고 복잡해야 했을 것이다. 일종의 암호체계로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을 찾아냈을 것이다. 군사정보와 전선의 급보나 화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파발제도와 동시에 병행되었을 것이다.

『남양군읍지』(1842년경)에는 염불산봉대와 해운상봉대의 위치, 본부와의 거리 그리고 이곳에 주둔하여 지키는 군사들의 숫자를 표기하였다.

염불산봉대(念佛山烽臺)는 수원 흥천산(興天山) 봉수로부터 남쪽으로 오는 것에 응한다. 서로의 거리는 봉로(烽路)로는 30리이고, 육로(陸路)로는 70리이며, 관아의 정문에서부터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다. 별장(別將) 1인, 감관(監官) 5인, 봉군(烽軍)과 호보(戶保)를 아울러 1백 명이다.



■ 해운산봉수가 있었던 송산면 독자리 봉우재



■ 해운산봉수 연조 전경(『화성봉수』, 2014)

해운산봉대(海雲山烽臺)는 염불산(念佛山)으로부터 남쪽으로 오는 것에 응한다. 서로의 거리는 봉로로 15리이고, 육로로 15리이다. 북쪽으로 안산(安山)의 정왕산봉수(正往山烽燧)에 응한다. 서로의 거리는 봉로로 30리, 육로로 90리이다. 관아의 정문에서부터는 서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별장 1인, 감관 5인, 봉군과 호보를 아울러 1백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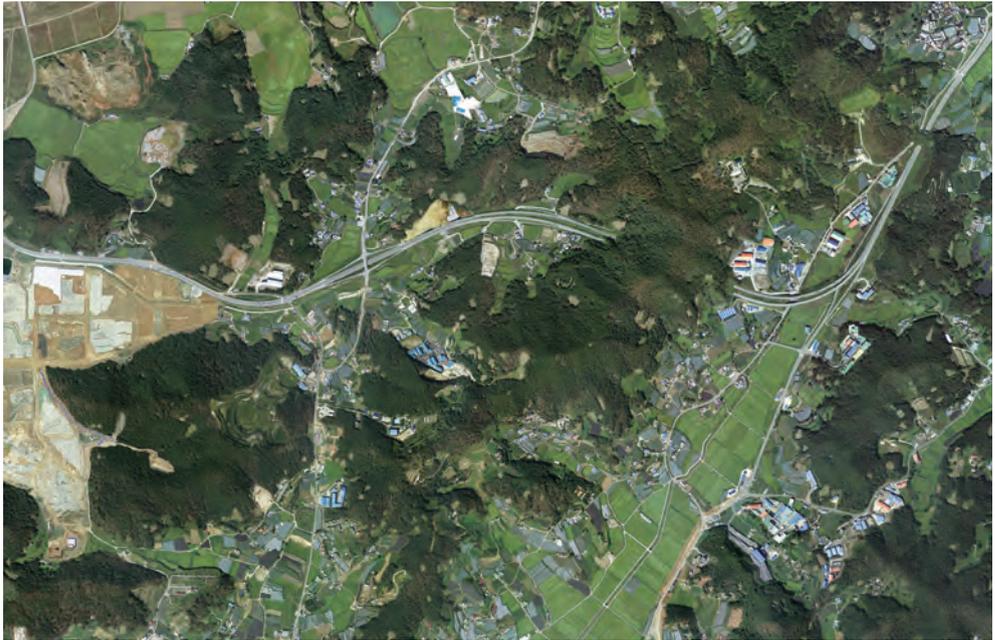
두 봉수에 대해서 자세하지는 않으나, 수비하는 군사와 관리의 숫자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운영이나 규모는 유사해 보인다.

화성시 남양만 일대 봉수

이름	위치	높이	규모	축성	시대	봉수	
형도봉수	송산면 독지리	147		석축	조선		간봉
해운산봉수	송산면 독지리	127	동서 37 남북 18	석축	고려, 조선	연변봉수	직봉
염불산봉수	서신면 상안리	170	동서 60 남북 21	석축+토축	고려, 조선	연변봉수	직봉
제부도봉수	제부리 제부도	62		석축	조선	연변봉수	간봉

화성에 있는 봉수는 제5직봉선에 속하며, 제5직봉선은 전라남도 남해안 여수의 돌산도봉수대에서 출발하여 순천, 광양, 보성, 해남, 진도, 무안, 함평, 영광, 부안 등 남서해안을 돌아 옥구, 은진, 공주, 천안 등 내륙에서 다시 서해안 아산, 수원, 안산, 부평, 강화, 통진을 돌아 김포를 지나 60번째 양천의 개화산봉수대에 이르러 목멱산(경봉)봉수대에 연락한다. 이곳 봉수는 1884년에 작성된 청구도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간봉으로 형도봉수와 제부도 봉수가 있다고 한다. 해운산봉수(海運山烽燧)나 염불산봉수(念佛山烽燧)의 경우 초축 시기가 고려시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운산봉수는 송산면 독지리 문지마을 해발 127m인 봉우재 정상에 있다. 주위 일대는 해발고도 100m 내외의 저평한 충적평야지대로서 북쪽의 남양만일대를 조망하기에 용이한 연변봉수이다. 봉수는 조선 전기 북쪽으로 안산 무고리봉수(無古里烽燧)로만 신호를 보냈으나 조선 중기 이후 남쪽의 화성 염불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종래의 무고리봉수 대신 신설된 시흥 오질이도봉수(吾叱耳島烽燧)에 응하였다. 대웅봉수의 거리는 북쪽 무고리 봉수와는 9.75km, 오질이도 봉수와는 9.25km, 남쪽 염불산봉수와는 8km의 거리에 있는 등 모두 반경10km 이내에서 상호연락이



■ 엽불산봉수가 있었던 서신면 봉화산



■ 엽불산봉수 연대 상부 연소실(『화성봉수』, 2014)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연조 시설은 5개소의 연조터 흔적이 확인된다. 각 연조는 직경 3m 내외의 원형석축으로 현재 서쪽에서 1·2·5 연조의 일부가 높이 50cm 정도씩 잔존하고 3·4연조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장 방향의 토석 흔축대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5개소의 석축원형 연조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같은 화성지역에 존재하는 봉수이지만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염불산봉수는 서신면 상안리 해발 170.2m인 봉화산(烽火山) 정상에 위치하였다. 봉수 노선과 성격상 동쪽의 홍천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해운산 봉수에 응하였던 제거직봉 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명칭상 후대에 염불산봉대 또는 행정구역 명칭에서 비롯된 상안리봉수(尙安里烽燧) 등으로 호칭되었다. 대웅봉수의 거리는 동쪽의 홍천산 봉수와는 16km, 북쪽의 해운산 봉수와는 8km의 거리이다. 현재 봉수는 산정상에 원형의 작은 봉분 혹은 토만두 형태인 4개소의 토·석흔축 연조와 서쪽 높은 곳의 입지 좋은 곳에 원형 연대기가 위치하고 있다. 입지상 앞의 홍천산봉수와 마찬가지로 산 정상의 능선상에 연대와 연조시설을 하여 놓았기에 출입시설 등과 같은 특별한 부속시설은 마련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형태는 홍천산봉수와 유사하며 평면 형태는 자루가 길쭉한 조롱박의 형태이다. 또한 염불산 정상부의 남쪽 5m 하단부에는 건물이나 창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서 10m, 남북 5m 가량의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염불산과 해운산의 직봉 이외에 간봉이 있는데, 형도봉수(衡島烽燧)와 제부도봉수이다. 형도봉수는 형도 섬 해발 126.5m인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봉수에 가기 위해서는 해운산봉수가 있는 독지리 문자마을 지나 시화방조제 공사 시 개통한 길을 따라 봉수가 위치한 형도까지 갈 수 있다. 섬의 4부 능선까지는 교회와 민가로 인해 길이 나 있으며 마산초등학교 형도분교에 서북쪽 능선을 따라 정상부에 오를 수 있다. 과거 방조제 공사 시 산을 굴착하고 암석을 반출하여 이미 섬의 대부분은 파괴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봉수도 훼손되어 유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방조제공사 전에는 섬 정상에 석축의 봉수대가 양호하게 남아 있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봉수는 바닥이 5×5m 규모의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줄여 쌓은 단이 있었으며 북서쪽 일부만 무너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봉수를 기억하는 주민을 만나기 어렵다. 제부도에도 봉수가 있었다고 한다. 제부도봉수(濟扶島烽燧)는 제부도 정상에 있다고 한다. 섬의 정상부는 해발 62.3m밖에 되지 않지만, 남쪽으로는 충남 서산과 아산 일대가, 북쪽으로는 제부도를 거쳐 인천, 강화 일대까지 연결되고 있으며 육지로는 염불산봉수와 이어지는 중요한 곳에 자리 잡



■ 형도봉수 위치



■ 형도 전경 _ 봉수가 있던 곳은 채석으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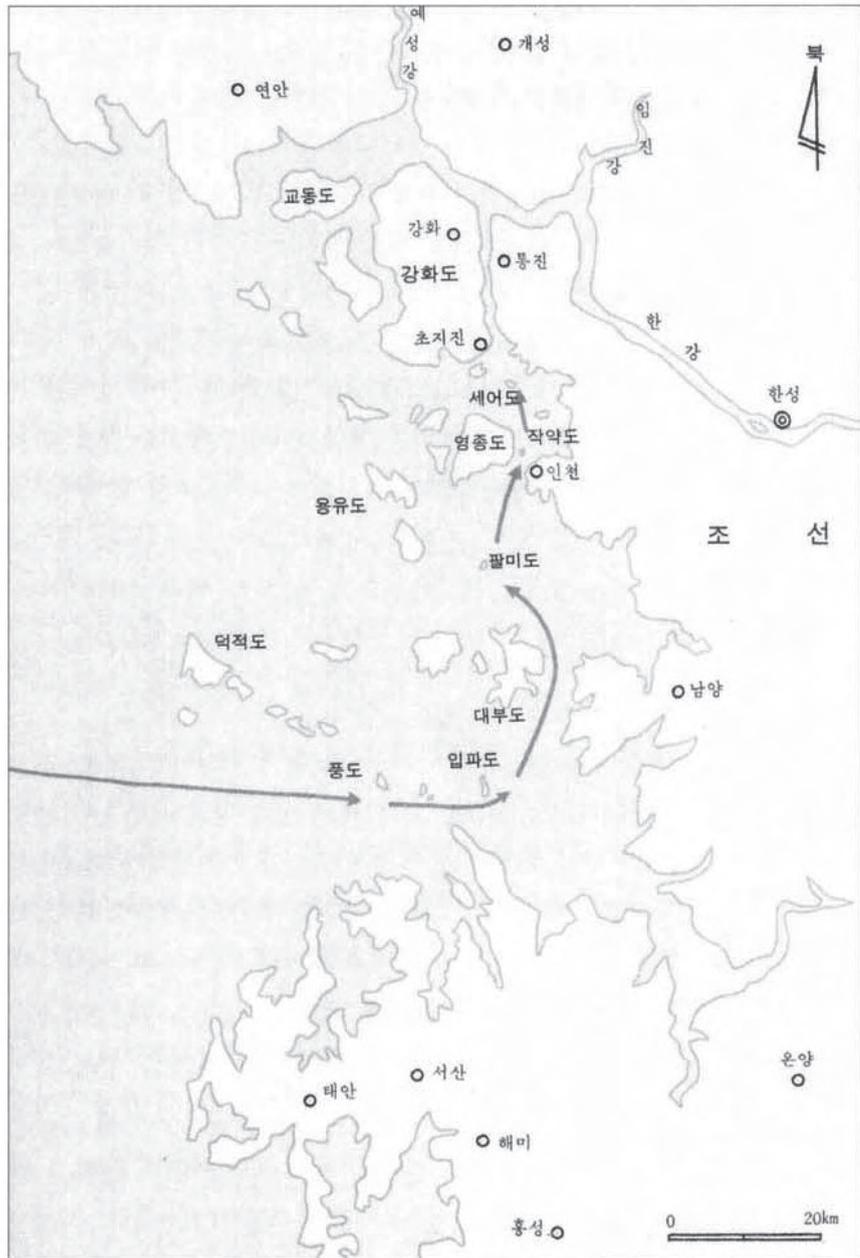
고 있다. 지금 이곳에는 원래의 봉수 자리는 없어지고 높이 약 1.5m, 지름 1.2m의 둥근 원통형의 단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멘트로 어설피게 쌓아 놓은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최근에 군인들이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시대 지리지들을 비롯하여 문헌에서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이곳은 마산수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어서 봉수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해안 남양만 일대의 섬들은 조운선을 해적으로부터 방비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저반시설로 마련되었다. 또한 전란 시에 제2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해안 일대의 섬들은 예로부터 전란이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감미도(仙甘彌島)와 대부도(大部島), 소우도(小牛島), 영흥도(靈興島), 소홀도(召忽島), 덕적도(德積島), 울음도(汚音島), 토아관(土也串) 등 주요 섬들은 거리, 주민과 그들의 역할 및 밭과 같은 생업수단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좌도선군영(左道船軍營) 밭을 농사짓거나 나라의 말을 기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란이 발생하거나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경기읍지(京畿邑誌)』(1871년)에는 남양만의 역할에 대해서 수호(水護)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삼남의 조세선(漕稅船)·대동선(大同船)이 남양을 지날 때 영흥도 호송별장 및 사공이 주민들을 뽑아 이 선박들을 호위하도록 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삼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던 남양부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즉 남양만 일대 섬들은 전란이나 유사시에는 군선에 물자를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목장을 만들어 말을 먹인다거나 밭을 경작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유사시에 해안의 중요 성(城)들은 육로가 막힐 경우 물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섬에 안전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양요의 시대, 위기의 남양만

남양만이 다시금 전란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조선 말기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곳은 중국 쪽에서 건너오는 무역상뿐만 아니라, 한성부로 들어가기 위해 들어오는 외세의 진입로가 되기도 했다. 주로 강화도가 침략의 대상이 되었다. 강화도는 김포를 거쳐 한강



■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의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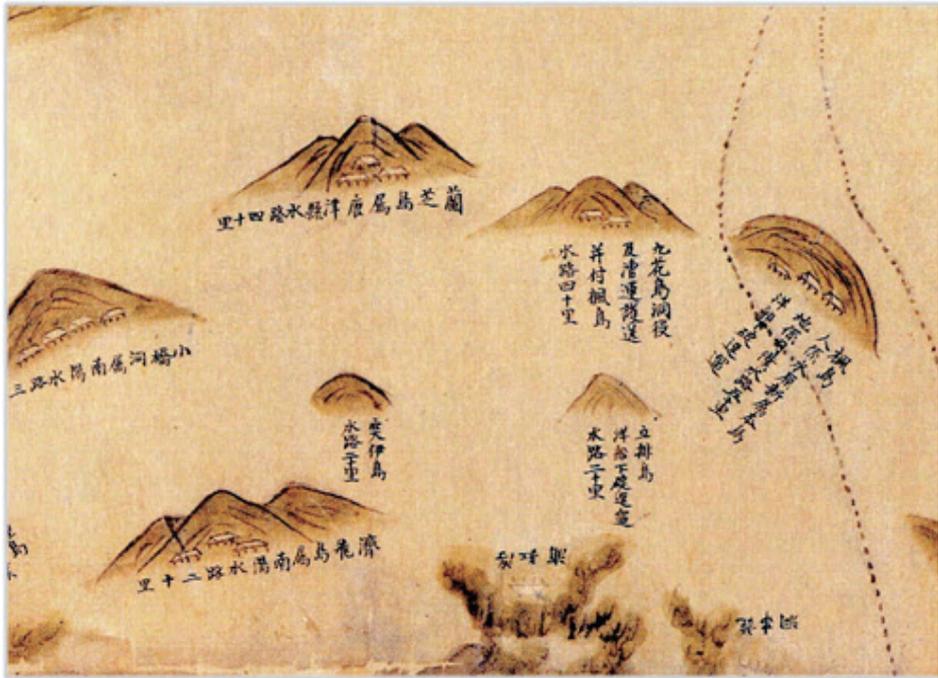
히구로 진입하는 직접적 통로였다. 이에 따라 서해안과 남양반은 다시금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상태를 불러온 것은 1866년 프랑스군이 침입한 병인양요와 1871년 미국 함대가 침입한 신미양요이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지만, 서해안을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하였다. 이에 1871년에 『경기읍지(京畿邑誌)』를 편찬하였다. 경기도 35개 지역의 읍지와 영종진지를 모은 책으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 외세와 직접적인 충돌을 겪고 난 후 국가가 전국에 읍지편찬 명령을 내려 지방 현황을 파악하여, 전란이나 위기를 맞이하여 경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정비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남양지도』(1872년)가 만들어지는데, 현존하는 남양지도 중 가장 상세한 지도이다. 남양지도는 도로를 적색으로 그리고 굵기에 따라서 도로의 넓이나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각 면 옆에 읍치로부터의 거리를 표기하여 거리감을 나타냈다. 이 지도에는 대부도를 비롯해 주변 섬이 그려져 있고, 특히 대부도에는 대부도아관방(大阜島衙關防)이라 기록되어 있어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중시되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후 해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1871년 5월 25일에 대부도에 진을 세우고 진무영에 속하게 하였다. 교통로나 주변 섬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표기한 것은 전란이 발생했을 때, 군사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염두해 두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안 섬과 해안 곳곳에는 외세의 침략 흔적들이 눈에 띈다. 「대부지도(大阜地圖)」의 풍도(楓島)와 입배도(入排島) 지역에 “서양 선박이 정박했던 곳”이라 쓰여 있고 해로를 점선으로 표시해 놓아, 대부도 주변 해로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통로가 되었던 지역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 일대는 1882년 임오군란 때는 마산포에 청나라 군사가 올라와서 정박했으며, 풍도는 1894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함이 주변에서 머물기도 했다. 마산포의 경우 남양반도 맨 서쪽 끝에 있지만, 제물포가 개항하기 이전에 가장 번성했던 포구였다. 하지만 이곳에 청나라 군대가 상륙하고 흥선대원군을 붙잡아 볼모로 잡아간 곳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대원군이 볼모로 잡혀 간 역사의 슬픈 현장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곳에 시화호가 조성되면서 포구의 기능은 잃어버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마산포 포구에서 어업이 성행하고, 곳곳에 횃집이 포진해 있어 바다의 풍요로움을 느끼던 곳이었다. 예전 방어성의 흔적이라고는 서해를 바라보면서 작은 초소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 풍도와 입배도에 “서양 선박이 정박했던 곳”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대부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것마저 비워져 있는 상태이다. 1894년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 군대가 풍도 주변에 있으면서 일본 함대와 대척하기도 했다. 서해안의 강화도, 교동, 영종, 대부도, 남양만, 불도, 탄도로 이어지는 라인인 해안 경비에 중요한 방어선이었다.

홍성원은 소설 『먼동』에서 마산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남양으로 가는 길은 사방 어디에도 높고 장한 산다운 산은 볼 수가 없다. 산이 없으면 큰 들이라도 있으련만 개펄과 가까운 이 일대는 시원하게 가슴 트이는 들다운 들도 볼 수 없다.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올망졸망한 산과 들이 섞여 있다. …… 남양은 예전부터 소금 많이 나기로 소문난 고장이다. 넓은 개펄에 갯골이 패여 바닷물 대기도 편할뿐더러, 인근에 큰물이



■ 2008년 제4회 화성포구 축제(화성시청 포토갤러리) _ 북적이는 배들로 옛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흐르지 않아 간물이 묽어질 까닭도 없다. 조상 대대로 소금을 구어온 이력들이 몸에 배어 이곳서 이곳 갯가에 사는 백성들은 누구나 손이 나면 염벚에 솔을 걸고 소금을 구워온 것이다. …… 바다 건너 대국과 가까워서 남양은 예전부터 대국과 왕래가 잦은 곳이다. 청나라 잠상(潛商)을 통해 서양 박래품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팔기 위해서 조선 각처에서 보상 부상도 일 년 내내 북적이는 곳이다.

마산포에 외국 상인들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을 사기 위해 보부상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후에 강화도에서 남양만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방어선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어 조선은 서구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남양만은 지리적인 특성상 새로운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 들여야 하는 위치였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을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지점이었었고, 조선 말기에는 서구열강의 새로운 문화가 진입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다시 남양만에서

한국사의 중요한 흐름을 같이한 남양만은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마산 포구에 넘쳐나던 배들도 화랑진성에서 진을 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지키던 수군의 위용도, 급박한 순간을 알리던 형도 봉수도 사라졌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형도 허리를 관통해 채석한 탓에 허리가 잘록해지고 멀리서 보면 두 개의 섬이 합쳐진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예전에는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우뚝 선 모습이었을 것이다. 주인을 바꿔 가면서 쟁탈전을 벌였던 삼국시대, 그리고 국제항구로서의 위용을 자랑했을 것이고, 고려시대에는 지방세력이지만 왕권을 수호하고 피난처인 강화도를 외호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며, 조선시대에는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조선 말기 외국함대가 서해안을 넘나들 때 이들을 방어하고 나라를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바다를 잃어버린 순간 여느 육지와 다름없는 야트막한 구릉과 논이 되어버려 나라를

지키던 위용은 모두 사라졌다. 서해안의 파수꾼인 남양만의 역사와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와 역사책으로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근래 중국 어선들의 잦은 출몰과 그들의 남획으로 서해안의 어종이 줄어들고 우리 어부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 남양만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옛 모습은 찾아보긴 어렵지만, 남양만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와 역할을 기대해 볼 때인 것 같다.

<참고자료>

『남양만의 역사와 문화』, 2005년, 한신대학교박물관

『항해의 문화교류와 당성』, 2012년, 화성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년, 화성시·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화성봉수』, 2014년, 한강문화재연구원

『수원의 옛 지도』

『경기도의 옛 지도』

『면동』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선비들이 살던 시대

Part 2

선비의 자취를 찾아서

이근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화성 지역의 주요 세거 성씨

오늘날의 화성시는 조선시대의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에 속하는 지역이다. 조선시대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는 다양한 성씨들이 대대로 거주하였다. 조선 전기 이곳에 거주하던 성씨에 대해서는 주로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와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수원도호부에는 최(崔)·김(金)·이(李)·서(徐) 등의 토성(土姓)을 비롯해 모두 57개의 성씨가 확인된다. 토성이란 토착 성씨를 말한다. 남양도호부에는 손(孫)·윤(尹) 등의 토성 등을 비롯해 모두 13개의 성씨가 기록되었다. 이후 1530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런 양상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단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성씨를 구분하던 토성이나 망성(亡姓) 등의 기준이 없어졌을 뿐이다. 망성이란 원래는 토성이었다가 소멸된 성씨를 말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선 『세종실록지리지』와는 달리 인물조(人物條)가 항목으로 설정된 점이다. 수원도호부 인물조에는 고려시대 인물로 최자성(崔滋盛)이 수록되었다. 최자성은 수원 최씨로, 『고려사』에 전기가 수록된 인물이기도 하다. 남양도호부 인물조에는 고려조의 인물로 홍관(洪灌)·홍자번(洪子藩)·홍언박(洪彦博) 등이 수록되었고, 조선조 인물로 홍여방(洪汝方)·홍달손(洪達孫)·홍일동(洪逸童)·홍응(洪應)·홍형(洪炯)·홍식(洪湜)·홍한(洪翰)·홍흥(洪興)·홍경주(洪景舟) 등이 수록되었다. 남양도호부의 항목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남양 홍씨이지만, 계열을 달리하는 토홍(土洪)과 당홍(唐洪)이 혼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물조는 16세기 전반 명문 씨족의 의식을 보여주는 장치이자, 당대 해당

지역 유력 인물을 수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완성 단계에서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 내 수원 최씨와 남양 홍씨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조선 후기 이 지역 주요 세거 성씨의 모습은 남양향교에 소장된 『청금록(靑衿錄, 혹은 靑襟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 향교는 신분에 따라 양반은 동재(東齋), 서얼과 일반 평민은 서재(西齋)로 나뉘어 거처하였는데, 『청금록』은 동재생인 양반 유생들의 명단을 말한다. “춘추 석전제 모임에서 여러 유생이 각자 문벌자제를 천거”하거나 시재(試才)를 통해서 『청금록』에 들 수 있었다(안정복, 『잡동산이』). 『청금록』이란 명부는 비단 향교에서만 작성된 것은 아니고, 성균관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명부가 작성되었다. 단, 지방 향교에서 작성된 명부는 향촌 사회의 구성이나 유력 성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부이다.

남양향교에 소장된 『청금록』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작성된 것은 18세기 인물을 수록한 것이다. 이 『청금록』에는 모두 152명의 명단이 수록되었으며, 총 20개의 성씨가 확인된다. 20개 성씨를 본관으로 보면 29개이다. 그 중 다수의 명단이 수록된 성씨는 남양 홍씨와 전주 이씨, 청주 한씨, 초계 정씨, 상주 박씨 등이다. 『청금록』 중 19세기 인물 545명을 수록한 명부는 수록된 성씨와 본관이 다수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모두 29개의 성씨에 본관은 53개로 확인된다. 이전과 달리 곤양 배씨나 안동 권씨, 진주 강씨 등이 다수 참여하는 차이를 보인다. 남양향교에는 이들 『청금록』 이외에도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인물을 수록한 명부 2종과 최근에 작성된 1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인물을 수록한 『청금록』 중 한 종은 501명의 명단을, 다른 한 종은 991명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임에도 이처럼 수록 인원 차이가 있는 것은 501명이 수록된 명부를 작성하면서 일부 명단을 삭제하였기 때문이었다.

남양향교에 소장된 『청금록』을 종합해 보면, 18세기 이후 남양향교의 핵심 구성원은 남양 홍씨와 전주 이씨, 초계 정씨, 청주 한씨, 상주 박씨 등 5개 성씨로 확인된다. 이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는 남양 홍씨로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남양 홍씨는 홍선행(洪先幸)을 시조로 하는 토홍 계열과 홍천하(洪天河)를 시조로 하고 홍은열(洪殷悅)을 1세조로 하는 당홍 계열로 구분된다. 전주 이씨는 효령대군파와 함께 근령군파, 화의군파, 진남군파, 양원군파, 덕흥대원군파 등이 남양동 안석리와 활초리, 마도면 슬항리와 석교리, 송산면 고정리와 용포리, 팔탄면 울암리와 가재리 등에 세거하고 있다. 초계 정씨는 송산면 마산리, 지화리, 천등리,

중송리에 세거해 왔으며, 청주 한씨는 화성시 서신면 흥법리 오송산 등에 선영을 조성하고, 서신면 매화리 송교리, 광평리, 마도면 청원리, 팔탄면 지월리, 해창리 등에서 세거하고 있다. 상주 박씨는 1668년(현종 9) 안곡서원에 제향된 도원재(道源齋) 박세희(朴世熹)의 후손들로, 송산에 세거하고 있다.

父子 정승, 남양 홍씨 흥언필과 홍섬

흥법리에 정착하다

남양 홍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홍과 당홍으로 불리는 두 계열로 나뉜다. 홍씨의 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견해는 두 성씨를 전혀 다른 계파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견해는 두 성씨가 동일 계파에서 분화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견해가 맞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두 성씨가 전혀 다른 계파라는 점은 인정된다. 이 글에서 서술하려는 흥언필(洪彦弼)과 홍섬(洪瀾)은 모두 토홍으로, 아래에서는 이 계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토홍의 시조는 홍선행으로, 이하 7세(世) 홍덕의(洪德義) 이전까지 활동이나 행적 등 사실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 다만, 후대에 간행된 족보에 따르면, 홍선행은 고려 후기에 동정직(同正職)을, 홍선행의 아들인 홍숙은 검교직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정직은 실제 직무가 없는 관직 체계로, 주로 문반 정6품 이하와 무반 정5품 이하, 남반(南班)·이속(吏屬)·향리(鄕吏)·승관(僧官) 등에게 설정되었던 관직체계였다. 동정직이 음서(蔭敍)를 통하여 입사한 사람과 과거 급제자의 초직(初職)으로 제수되던 관행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홍선행의 경우 아마도 음서로 동정직을 제수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홍숙이 역임한 검교직은 동정직에 상응하는 것으로 동정직이 주로 하위 체계인 반면 검교직은 문반 5품 이상, 무반 4품 이상에 설정된 관직으로 그 위상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홍선행 이하 남양을 본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조로부터 남양과 인연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선대의 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7세인 홍덕의 때

에 이르러 묘소가 남양부 서면 등동(燈洞)에 위치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조선시대 인물들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세한 개인 기록이 있을 경우 종종 거주지를 밝히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묘소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그들의 세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묘소의 위치가 세거지와 거의 일치하거나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다. 물론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경우는 서울에 경저(京邸)를 보유하였을 것이나 대개 향저(鄉邸)도 함께 보유함으로써 해당 성씨들이 세거하였다. 이 점을 전제로 한다면 남양 홍씨는 7세를 전후해 남양의 등동 일대에 세장(世葬)과 거주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홍덕의의 아들인 홍자경(洪子敬) 혹은 홍자경(洪自敬, 子敬)의 묘소는 남양부 당곶(唐串)에 위치한다.

등동과 당곶 등지에서 세거하던 남양 홍씨가 홍법리에 정착한 것은 홍자경의 아들인 홍익생 대에 이르러서이다. 홍익생은 조부인 홍덕의의 묘소가 있던 남양 서면 등동과 부친 홍자경이 있던 서면 당곶이 비좁다는 이유로 새로운 지역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홍법리를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익생의 사돈인 이순지(李純之; ?~1465)가 동행하였는데, 이순지는 산학(算學)·천문·음양·풍수분야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홍익생의 사위인 이지(李持)의 부친이었다. 홍법리는 이후 대대로 남양 홍씨의 선영으로써 뿐 아니라 일대에 집성촌이 형성되어 생활 기반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곳은 풍수적으로 뛰어난 길지로써, 홍법리를 당시 촌민들은 “대지(大地)”라 표현하였다고 하는데, “대지”란 매우 대단한 땅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후손들의 전언에 따르면 삼정승판관서(三政丞八判書)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으나 묘의 좌향이 약간 흔들려 정승과 판서 각 1명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

홍법리는 토지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조 사회에서 남양 홍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생활공간이 대부분 협소한 산간에 위치하고, 또 남양반도 상에서도 남부 해안의 한 귀퉁이에 위치, 교통상으로도 중심지에서 벗어난 벽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지형이 남양 홍씨가 대대로 세거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며, 그것은 홍형(洪澗)을 비롯한 형제들의 16세기 사회기에 화를 당하게 되고 이후 후손들에게 은둔 생활에 필요한 장소를 모색하게 한 것이 홍법리가 세거지가 되게 된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성(關係性)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성이란 주변지역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교통상의 이점

을 고려한 입지선정을 말하는 것으로, 신리(新里)를 포함한 남양 지역은 육로뿐 아니라 해로가 발달한 지역이고,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해창(海倉)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남양 홍씨가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된 데에는 해로 교통의 이점을 고려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해로 교통의 편리성은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과 함께 지방에 산재한 농장 등에서 세곡을 운송하거나 물산을 수송하는 데 유리하였다. 남양 홍씨의 경우도 조선 후기까지 서울에 경저(京邸)를 두고 있어, 사환시에는 경저에 머물다가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낙향할 때 남양 지역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관계성은 더없이 중요한 입지선정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사회와 남양 홍씨

홍익생 이후 남양 홍씨는 문과와 무과에서 급제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였다. 즉 족보에 따르면 홍익생의 세 아들인 홍귀해(洪貴海)와 홍귀호(洪貴湖)·홍귀인(洪貴寅)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홍귀해의 아들인 홍형(洪炯)·홍식(洪濕)·홍한(洪澣), 홍형의 둘째 아들인 홍언필(洪彦弼), 홍언필의 아들인 홍섬(洪暹)이 문과에 급제하였을 뿐 아니라 홍섬의 경우는 장원 급제라는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홍형의 셋째 아들인 홍언광(洪彦光)은 1507년(중종 2)에 시행된 진사사에서 합격한 뒤 학행으로 추천되어 관직 생활을 하였고, 홍언광의 아들인 홍담(洪曇)은 문과에 급제하였다.

남양 홍씨 가문은 16세기 사회를 겪으며 정치적 시련을 경험하였다. 16세기 전반기는 사회가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차례 사회가 발생하였다. 사회라 함은 사람세력이 화를 당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연산군대에는 무오사회와 갑자사회라는 두 차례의 사회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양 홍씨 내 이른바 삼현(三賢)이라 불리는 홍형(洪炯)·홍식(洪濕)·홍한(洪澣)이 화를 당하였다.

첫째인 홍형(1446~1500)은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회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다. 홍형은 동생들과 함께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뒤 1477년(성종 8)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승정원 주서, 예조 좌랑 등을 거쳐 시간원 시간으로 활동하였다. 1497년(연산군 3) 은성부사(穩城府使)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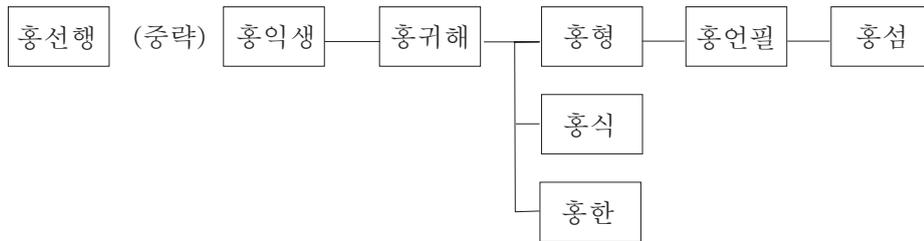
임명되자, 노모 민씨(閔氏)가 아들이 부사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과 『경국대전』 상 “70세 노 부모를 모신 자는 300리 밖에 수령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탄원하자 이것이 받아들여져 관직이 갈렸다. 얼마 뒤 홍문관부제학 그리고 우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인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 생모인 폐비 윤씨가 성종 때 폐위되어 궁궐에서 쫓겨날 때 홍형이 승정원 주서에 재직하면서 적극 개입하였다고 하여 부관참시되었다.

둘째인 홍식(1449~1504)은 1469년(예종 1)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483년(성종 14) 문과에 급제, 예문관의 검열을 거쳐 박사·전적·이조좌랑·정언을 역임한 뒤, 성종 연간에 호조정랑, 한성부판관, 성균관 직강, 병조정랑을 거쳤다. 홍식은 연산군대에 들어서 시간원 시간과 홍문관 전한을 비롯해 승정원의 동부승지·좌부승지 등을 거쳐 좌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언관에 재직하던 홍식은 강경한 언론으로 연산군의 측근인 신수근이나 유자광, 임사홍 등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홍식은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의 전개과정에서 아들 홍세필이 숙부인 홍한이 유배간 것을 원망하여 국왕을 걸주(桀紂 : 중국 하나라의 걸왕(桀王)과 은나라의 주왕(紂王))으로 포악한 임금을 비유적으로 지칭함)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국문을 당하였고, 결국 아들 홍세필은 경상도 곤양(昆陽)에서, 홍식은 전라도 부안(扶安)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후 1501년(연산군 7) 사면되었으나, 1504년 갑자사화 당시 궁중의 일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참형의 형벌을 받고 효수형에 처해졌다. 홍식은 중종반정 직후에 사면되었다.

홍식과 함께 막내인 홍한 역시 무오사화 때 화를 당하였다. 홍한(1451~1498)은 형들처럼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뒤 1485년(성종 16) 별시문과에 급제, 홍문관 수찬을 거쳐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였고, 연산군 즉위 이후에도 예전 동궁의 관원이라는 이유로 홍문관 응교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이어 홍문관 전한과 직제학, 부제학 등을 거쳐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이 부친 성종의 상에 사찰에서 재(齋)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응교로서 이를 반대하였다. 이어 무오사화가 발생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장형(杖刑)을 당한 뒤 경흥으로 유배되어 가던 중 정평(定平)에 이르러 며칠 머물다가 사망하였다. 1504년 갑자사화 때는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사화 때 화를 당한 홍형과 홍식·홍한은 삼현(三賢)이라 일컬어졌으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사이에 삼현사를 건립, 이들을 배향하였다.

부자 정승을 배출하다

계속되는 사회에 이들 이외에도 홍형의 아들인 홍언필이 연루되어 화를 당하였다. 홍언필은 1504년(연산군 10) 문과에 응시하여 2단계 시험인 회시(會試)까지 치렀으나 마지막 단계인 전시(殿試)에 응하지 않았다. 더하여 같은 해 발생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진도로 귀양갔다가 중종반정 이후 사면되어서는 1507년(중종 2)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조정 내 청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6번의 대사헌을 역임하였고 5번의 참관을 지냈으며 7번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할 수 있는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최고위직인 영의정을 지내기도 하였다.



화려한 관력을 자랑하는 홍언필은 중종 연간 우부승지에 재직시, 기묘사화가 발생하였다. 기묘사화는 1519년(중종 14) 조광조 등이 축출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른바 위훈삭제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위훈삭제사건이란 중종반정의 공신 중 외람되게 명단에 포함된 자 76명에 대하여 그 공훈을 삭제해 버리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 거추장스런 존재인 구세력을 내몰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공신세력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공신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대단히 위협천만한 사안이었다. 결국 공신세력들의 반격을 받아 사람세력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 기묘사화 당시 홍언필은 조광조와 인척 간이라는 이유로 여러 날 국문을 받았고 장차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다. 홍언필의 외가가 한양 조씨로, 어머니가 조충손(趙衷孫)의 딸인데, 조광조에게는 고모가 되는 인물이다. 이때 참찬으로 재직하고 있던 신상(申鏞)의 도움으로 죽음만은 면하고 삭탈관직되었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얼마 후 다시 병조참지로 관직에 복귀하게 된 홍언필은 이후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판서와 한성판윤 등을 두루 거쳤다. 1534년(중종 29) 우찬성에 올랐으나 당시의 권신 김안로(金安老)와 사이가 멀어져 남양으로 낙향하였으며, 약 3여 년간을 남양에서 지내면서 시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몰려나자 다시 호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가 곧 좌의정에 이르렀고, 중종 승하 직전에는 윤인경과 함께 중종의 유명을 받았다. 1545년(인종 1) 영의정이 되어 영중추부사·영경연사 등을 겸하다가, 명종 즉위 후 원상(院相)으로 임명되어 국왕의 승하를 전후한 국정의 공백을 메웠다. 원상이란 국왕 승하 후 새로운 국왕이 등극하기 전에 국정을 주관하던 재상을 말한다. 이어 좌의정에 다시 제수되었으나 당시 윤인경이 영의정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승이 된 선후 관계로 보아 부당하다고 하여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명종 즉위 초에 발생한 을사사화 직후에는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에 봉해졌다.

홍언필 이후 남양 홍씨의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이는 홍섬이다. 홍섬(1504~1585)은 홍언필의 아들로, 어머니는 영의정 송질의 딸이다. 조광조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1528년(중종 23)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다음 해에 치러진 정시(庭試)의 대책(對策 : 시정의 문제를 묻고 그 해결방안을 논하도록 한 시험 과목)으로 인해 직부전시(直赴殿試 : 문과의 마지막 단계인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의 특전을 받았으며, 1531년(중종 26) 문과에 급제하였다. 급제 이후 홍문관 정자를 비롯해 박사와 세자시강원 설서, 홍문관 부수찬 등을 역임하였으며 부수찬 재직시에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특전을 받았다. 사가독서란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후 시간원 정언과 이조좌랑을 거쳤다. 그러나 이때 김안로(金安老)가 권력을 농단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홍섬은 홍양현에 유배되었다가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사사된 후 홍문관 수찬으로 관직에 복귀하였다. 홍섬은 이후에도 홍문관 교리를 비롯해 응교, 전한과 사헌부의 장령, 집의 등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1540년(중종 35) 직제학을 거쳐 부제학으로 승진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시간원 대사간과 성균관 대사성, 이조참의, 승정원 도승지 등을 거쳐 경기 관찰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명종 즉위 이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하루는 명종이 주렴(珠簾) 안에 자리하자 홍섬은 “마땅히 주렴 밖으로 나오시어 여러 신하들을 대하소서”라고 진언하여 바로잡기도 하였다. 통상적으로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 자전(慈殿)은 주렴을 쳐 주렴 안에 위치하고 국왕은 주렴 밖에 앉아 국정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명종이 주렴 안에 자리하자 그 부당성을 언급한 것이었다. 홍섬은 이후 계속된 승진 속에서 1552년(명종 7)에는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고, 1558년(명종 13)에는 승정대부의 품계가 가자되면서 우찬성에 제수되었고 예조판서와 세자 이사(貳師)를 겸직하다가 얼마 후에는 이조판서를 겸하고, 이듬해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였다. 홍섬은 1563년(명종 18) 이후 이량(李樛)의 전횡이 이루어지자 사직하였다. 1568년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원상으로 서정(庶政)을 처결하고 이어 우의정에 올랐다. 1571년(선조 4)에는 좌의정이 되어 궤장(机杖)을 하사받고 영의정에 승진되어 세 번이나 중임하였다.

홍섬은 남양 홍씨의 가문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선산이 있는 홍법리 일대의 관리에도 주력하였다. 즉 홍섬이 1563년(명종 18)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는 것을 우려하여 청원서라고 할 수 있는 입안(立案)을 제출했으며, 이를 계기로 선산 관리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산 안쪽은 묘지기에게 관리하게 하였고 산 밖에는 양인을 모아 거주하게 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때 이곳에 양인인 수원 유민 양춘산(楊春山)과 승려 등이 들어와 정착하였다. 홍섬은 집안에서는 어머니에 대해 효를 다하였다. 아버지인 홍언필이 늙어서 병환이 들면 직접 탕약을 맛본 다음에 올렸으며, 홍언필의 상에는 3년 동안 여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신의 나이 70세가 되어서도 봉양함에 지성을 다하였고, 혹시 모친이 아프기라도 하면 문득 밥을 먹지 않고 울면서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상주 박씨 박세희 · 박세훈과 안곡서원

안곡 마을 정착과 박세훈 · 박세희의 활동

남향 홍씨와 함께 오랫동안 화성시에서 세거한 성씨가 상주 박씨이다. 상주 박씨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시조로 하며, 1세는 신라 말 사벌국왕(沙伐國王)으로, 아마도 이때부터 상주라는 본관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주 박씨가 화성에 정착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묘소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사벌국왕 이후 고려 후기 때 인물인 13세 박문노(朴文老) 때까지는 정확한 묘소 위치가 확인되지 않다가 고려 말 조선 초 인물로 14세 박안의(朴安義)의 묘소가 상주로 확인된다. 확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이 시기까지 상주를 기반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 건국 초기 인물인 박미창(朴美昌) 때에 이르러 묘소가 경기 지역에서 확인된다. 1984년에 간행된 『상주박씨족보』에 따르면, 박미창의 묘소 위치는 경기 부천군 소사읍 온수곡으로 표기되었는데, 오늘날의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일대에 해당된다. 박미창의 부인인 여흥 민씨 민대생 딸의 묘소는 역시 같은 족보에 따르면 경기 화성군 반월면 팔곡리로 표기되었는데, 오늘날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대로 판단된다.

다음 세대인 박미창의 첫째 아들 박사영(朴士英)은 다시 상주로 이거한 반면, 둘째 아들인 박사화(朴士華)의 묘소는 오늘날의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안곡 마을로 확인된다. 이런 사실로 보면, 1세 이하 대대로 상주 일대에 세거하던 상주 박씨는 조선 건국 이후 일부 계파가 경기 일대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박미창의 첫째 아들 박사영의 경우와 같이 다시 상주로 이거한 계파가 있는 반면 박사화의 계파는 경기 지역에 계속 터전을 잡았으며, 주로 오늘날 화성시 일원으로 옮겨 세거지를 조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사화(1433~1504)는 조선 전기 성종 연간에 군자감 부정을 역임하였고, 임시직인 경차관(敬差官)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그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세조 즉위의 결정적 계기인 계유정난 이후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고, 이후 좌익공신 등에 책록되기도 한 권람(權擘)이다.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권람이 장인이라는 사실은 박사화 집안이

당대에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데 적지 않은 정치적 배경이 되었을 것임은 쉽게 상상된다.

박사화의 첫째 아들인 박세훈(朴世勳, 1488~1553)은 스스로 호를 송촌(松村)이라 하였는데, 이는 소나무를 심고 대나무를 심어서 세한(歲寒)의 깊은 취미를 갖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서 '세한'이란 겨울을 지칭하는데, 이는 공자가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든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조를 상징한다. 박세훈은 어려서 살던 동네에서는 효성이 지극하여 '주동효아(鑄洞孝兒)'라 불렸다고 한다. '주동'은 그가 살던 서울의 주자동(오늘날의 서울 시 중구 필동 일대)을 말하는데, 1504년 부친의 상을 당해서는 안곡의 무덤가 여막에서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박세훈은 『효경』이나 『소학』 등의 경전 공부에 치중한 반면,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소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점이다. 『소학』은 8세 소학 15세 대학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어린 아동들이 학문에 입문하면서 배우는 대표적인 성리학 경전이다. 조선에서 『소학』은 조선 건국 초부터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특히 15세기 후반 사림 세력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김광필(金宏弼) 같은 인물은 '소학동자(小學童子)'로 자칭할 정도로, 당시 사림 세력들에게 『소학』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위한 중요한 입문서였다. 이에 따라 사림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소학』 보급에 주력하였는데, 박세훈이 『소학』을 중시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림의 학문적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박세훈은 1519년(중종 14) 현량과(賢良科)에 추천되었다. 현량과란 조광조의 건의에 의해 시행된 인재 선발 제도이다. 당시 조광조는 과거제도가 글을 짓는 사장(詞章)에만 치중하다 보니 성리학의 의리 추구와 실천궁행(實踐躬行)에 소홀하다고 판단, 과거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숨은 인재의 발굴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현량과는 성균관을 비롯해 중앙의 홍문관, 사헌부 등 관청과 지방 수령 등이 각각 인재를 파악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그들의 성품이나 재능, 학식 등을 종합해 의정부에 보고하고 이들을 모아 시험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1519년 4월 추천된 120인의 후보자들을 근정전에 모아 시험한 결과 이 중에서 김식(金湜), 박훈(朴薰) 등을 선발하였다. 박세훈은 이때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이 화를 당하면서 선발된 모두를 천거에서 삭제하면서 혁파되었다. 이후 박세훈은 관직 진출의 뜻을 버리고 향촌에서 생활하면서 향촌 자제들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한편 동생인 박세희(朴世熹, 1491~1530)는 1514년(중종 9) 9월 국왕이 친림한 별시에 응시하여 급제한 뒤에 홍문관의 부수찬을 비롯해 사헌부 정언과 이조좌랑,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15년(중종 10)에는 사가독서(賜假讀書) 문신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사가독서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정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독서당은 이를 위한 공간이었다. 박세희는 경연에 참석하여 인재의 선발을 비롯해 국왕의 치도 등 당시 사림 세력이 구상하고 있던 성리학적 이상정치의 구현에 주력하였다.

일례로 1516년 2월 경연에 참석하였던 정언 박세희는 친영(親迎)과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친영은 혼인 절차의 하나로, “혼례가 바른 뒤에야 지아버는 지아버답게, 지어미는 지어미답게” 되는 것이라 하여 실시를 주장하였다. 친영이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혼례의 한 절차로, 유교식 종법(宗法)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향음주례는 향교에서 거행하는 의식인데, 목적은 충효의 예를 실천하도록 서로 권하는 의식으로, 향촌 사회의 교화를 위해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이밖에도 박세희는 충청도 도사 재직시 공주와 부여의 경계에 위치한 석탄(石灘)에 고려 후기의 문신인 이존오(李存吾)의 별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옛 터에 비석을 세워 기리는 한편 후손들을 벼슬에 등용하지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사림의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박세희는 형인 박세훈과 함께 사림 세력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기묘사화가 발생하자 조광조의 앞잡이로 봉당을 결성했다는 죄목을 받고 강계로 유배를 가기도 하였다. 사후인 1538년(중종 33) 4월 직첩(職牒)이 환급되었다.

안곡서원의 건립과 사액

현재 화성시 서신면에는 화성시의 유일한 서원인 안곡서원(安谷書院)이 위치해 있다. 안곡서원에는 박세훈과 박세희, 홍섭이 배향되어 있다. 조선에서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후에 소수서원으로 사액됨)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황(李滉)이 주도한 서원보급운동의 결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설치되었으며, 향촌 사림의 학문 연구와 수양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맞추어 서원의 공간 구조가 강화

공간인 강당과 동·서재 그리고 제향공간인 사당으로 정비되었으며 사당에 제향되는 인물은 유학자가 중심이었다.

이후 17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동·서재가 쇠퇴하는 등 공간 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함께 제향인물도 종래의 유학자 중심에서 점차 정치적으로 희생되었거나 행의(行誼)가 바른 유생이 제향되는 등 변화를 보였다. 안곡서원은 이렇게 서원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에 건립되었다. 안곡서원은 1668년(현종 9) 남양 지역의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당초 안곡사(安谷祠)라는 이름으로 건립하여 제향 기능을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박세훈을 제향하였고, 이후 동생인 박세회를 제향하였으며, 1697년(숙종 23)에 같은 지역 출신인 홍섬을 추가로 제향하였다. 사당으로 유지되던 안곡사는 1721년(경종 1) 경기 유학(幼學) 이중영(李重英) 등의 상소를 계기로 '안곡'이라는 이름으로 사액(賜額: 국왕이 사당이나 서원 등의 이름을 새긴 편액을 내려주는 일) 서원이 되었다. 당시는 서원의 건립이 제한되면서 동일 인물을 모신 서원이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 첩설(疊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안곡서원에 사액된 것은 남양 이외 다른 지역에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안곡사에 대한 이름의 후보로 예조에서는 안곡과 명수(明岫)·석천(石泉) 등을 제출했는데, 이 중 안곡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후 사액서원으로 유지되던 안곡서원은 1729년(영조 5) 사액이 철폐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거론한 첩설이었다. 이에 대해 같은 해 7월 경기 유생 윤재(尹載) 등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철폐의 명이 부당하다며 이의 회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 해 뒤에 안곡서원의 사액이 철폐된 것은 잘못된 판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1732년(영조 8) 6월 국왕과 재상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김재로(金在魯)는 서원의 첩설 폐단으로 인해 사액을 철폐하였으나, 철폐된 서원 중 안곡서원은 잘못 포함되었다(誤入)고 하였다. 그러면서 안곡서원은 새로 건립된 서원도 아니고 첩설된 서원도 아니므로 선비들이 원망하고 있다며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만, 김재로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급한 일이 아니라며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안곡서원이 다시 사액서원이 된 것은 김재로의 논의가 있는 뒤 약 8년 뒤의 일이었다. 1740년(영조 16) 4월 유학(幼學) 한덕봉(韓德鳳) 등은 상소를 올려, 박세훈과 박세회·홍섬 등의 학문과 행적을 높이 추켜세운 뒤 이들 모두 조광조, 이항 등과 서로 의지하며 허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안곡서원의 건립 과정이나 해당 인물의 제향 과정을 설명한 뒤에 철폐

한 사액을 다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한덕봉 등의 주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앞서 1732년 사액의 회복을 주장하였던 김재로가 다시 주장하였다. 이때 영조는 김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곡서원은 건립된 지가 오래되었고 첩설도 아니므로 사액을 다시 내리는 것이 좋겠다며 이를 허가하여 안곡서원이 다시 사액서원이 되었다. 동시에 관행에 따라 국왕이 예문관에 명해 치제문을 함께 내려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안곡서원은 남양 지역 사림이 학문을 연마하고 활동하는 자치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다가 1871년(고종 8) 전국적인 서원철폐령 당시에 철폐되었으나 1976년 지역 내 유림과 문중의 협력으로 다시 복원하였다. 현재는 매년 9월 5일에 제향을 모신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서원등록』, 『열읍원우사적』, 『상주박씨족보』 1984.

김자운, 『남양향교지』, 남양향교·화성시·화성문화원, 2008.

이근호, 『남양 흥씨 정효공파의 역사』, 『남양흥씨 정효공파,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화성시·화성문화원, 2010.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1)-충·효·예의 고장(건)』, 2005.

시대와 호흡한 조선후기 송산의 두 지식인, 이옥과 정윤영

김자운 (공주대학교)

1. 시대와 호흡한 조선후기 송산의 두 지식인

조선후기 화성 지역에 파격적인 글쓰기와 상소 운동으로 당대를 떠들썩하게 한 두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옥과 정윤영이다. 18세기 말 성균관 유생 이옥의 실험적 글쓰기는 정조의 문체반정의 표적이 되어 멀리 경상도 삼가현으로, 19세기 말 경기 유생을 대표하여 정윤영이 지은 척사만인소는 '경향에 출몰하여 흑세무민'하는 배후로 지목되어 함경도 이원현으로 이들은 각각 유배를 떠나게 된다. 한 사람은 전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은 전통을 뛰어넘기 위해 평생을 저항하였으니, 유배를 무릅쓰고 이들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흥미롭게도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믿는 바는 달랐지만, 죽을 때까지 지배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기 변혁을 꾀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한편 묘하게 닮아 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모두 화성 송산의 소북 집안 출신이었다.

국왕 정조로부터 수차례의 고초를 겪었음에도 이옥은 과거와 벼슬길을 포기하고 끝내 자신만의 문체를 고집하며 소외된 백성들의 삶에서 길어 올린 진정성을 그 문체에 담아내려 하였다. 정윤영은 진정한 학문과 배움을 위해 당색을 불문하고 선각자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으며, 순식간에 만 리 길을 달려가는 화륜선을 목도한 순간, 평생 주장해온 척사사상을 뛰어넘고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침내 세계와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백성들에게 이를 소개하는 등 죽기 전까지 스스로의 변혁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화성 송산의 소북 가문인 전주 이씨와 초계 정씨 출신으로, 조선후기에 태어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시대와 호흡했던 이옥과 정윤영의 삶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이옥의 가계와 생애

1) 왕족의 후예로 무반계 서족 집안에서 태어나 성균관 유생이 되다

18세기 말 성균관 유생으로 정조의 문체반정에 걸려 혹독한 고초를 겪고도 끝내 문체를 고치지 않고 불우한 생을 살다 간 이옥(李錡, 1760~1815)은 왕족의 후예이자 화성 송산의 소북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로, 효령대군의 장자 의성군(諡城君) 채(策)의 3남인 윤림도정(雲林都正) 필(幅)의 후손이다. 이옥의 집안이 화성에 입향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¹⁾ 이옥의 외가인 남양 홍씨의 세거지가 남양 백곡리(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였으므로, 이옥의 부친 대에 처향을 계기로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옥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며 외가가 있는 남양에 별서를 두고 서울과 남양을 왕래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부친상을 당하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는 서울의 집을 처분하고 남양으로 완전히 낙향하여 '백운사(白雲舍)' 혹은 '백운헌(白雲軒)'이라 이름 붙인 남양의 집에서 글쓰기에 전념하다 여생을 마쳤다.

이옥의 집안은 효령대군의 현손인 광윤(光胤) 대부터 음직으로 벼슬에 나가기 시작하여 그의 손자 대에 처음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이후 무반 집안으로 자리를 굳혀 갔다. 광윤의 아들 간(幹)도 문관으로 고을을 잘 다스려 이름을 얻었으나, 그의 아들 중 경록(慶祿)과 경유(慶裕)가 무과에 급제하면서 무반으로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경록, 경유 형제 대까지만 해도 비록 무반이지만 명문가와 혼맥을 이어가며 이 집안은 왕족으로서의 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유의 아들 정(日+丁)이 요절하고, 경유가 옥구현감 고언명의 서녀였던 첩 고씨 사이에서 낳은 서자 기축(起築)이 적자를 대신하여 가계를 계승하면서 이후 이 집안은 서족 가문으

1) 김영진은 '이옥의 집안은 윤림도정부터 양주(남양) 송산에 문헌 이래 이옥의 대까지 이곳은 줄곧 선산이 되었으며 이옥의 집이 남양에 거주한 것은 조부 동윤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 '양주를 남양으로 읽고 윤림도정을 남양 입묘조로, 동윤을 남양 입향조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김영진, 『이옥의 가계와 교유』 연보),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제1장, 화성시, 2012, 21쪽). 이옥의 선대 묘소가 위치한 송산은 현 화성시 '남양의 송산'이 아니라 경기 북부에 있는 '양주의 송산'이다. 조선 후기 양주는 현재 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로 각각 편입되었는데, 윤림도정의 증손 간(幹)과 그 아들 경유, 경록 형제의 묘역은 현재 의정부시에 있다.

로 전략하게 된다.)²⁾

경유의 서자 기축은 1620년(광해군 1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충좌위부사과 등을 역임하고, 사촌형 이서(李曙)와 함께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3등에 책록되고 완계군(完溪君)에 봉해졌다. 기축의 넷째 아들 만림(萬林, 1633~1712)은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정평도호부사를 지냈다. 만림은 5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장자가 이옥의 조부인 동윤(東潤)이다. 동윤은 서자인 동래 정씨 정응상(鄭應祥)의 딸과 혼인하여 독자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4대에 걸쳐 무과급제자만 배출해 온 이 집안 최초의 소과 합격자이자 이옥의 부친인 이상오(常五, 1722~1796)이다. 이상오는 1754년(영조 30) 진사시에 합격하고 첫째 부인이 일찍 죽자 이원현감을 지낸 남양 홍씨 홍이석(洪以錫)의 딸과 재혼하여 1760년(영조 36) 39세의 나이에 이옥을 낳았다. 이옥의 외조부인 홍이석 역시 병마절도사를 지낸 홍시주(洪時疇)의 서자였다.

그런데 이상오는 홍이석의 셋째 사위였고, 홍이석의 만사위는 유춘(柳椿)이었다. 유춘은 북학파이자 사검서(四檢書)의 하나였던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부친이므로 이옥과 유득공은 이종사촌 지간이 된다. 이런 인연으로 유득공과의 교류는 이옥의 평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유득공은 비록 서계(庶系)이지만 문명이 높아 1779년(정조 3)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되었고, 백과사전적 지식을 소유한 당대 최고의 재사(才士)로 세 차례나 사행단에 들어 심양과 연경을 다녀왔다. 그 때 기운, 나병 등 당대 내로라하는 청조 문인들과 교분을 쌓기도 했다. 이옥이 동시대 나병의 저서를 환히 꿰고,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일본의 백과사전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나 역관들이 보던 만주어·한어 교재인 『한청문감(漢淸文鑑)』 등을 열람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왕실 서고의 관원이자 중국 왕래가 잦았던 사촌 유득공 덕택이었을 것이다.³⁾

이상오는 소과에 합격한 뒤 서울에 거주하다가 1781년(정조 5) 무렵부터 남양과 서울을 오가며 살았다. 이옥 역시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은 주로 과거를 준비하며 서울에서 지내다 20대 초반부터 성균관 입학 전인 20대 후반까지는 서울과 남양을 왕래하였으며, 30대 후반에 남

2) 이하 이옥의 가계와 생애는 김영진이 정리한 연보 중 일부를 토대로 해석, 재구성한 것으로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았다(김영진, 「이옥의 가계와 교유附 연보」,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제1장, 화성시, 2012, 28~42쪽 참조).

3) 이현우, 「이옥의 생애와 작품 세계」, 이옥 저, 『완역 이옥 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14~15쪽.

양으로 완전히 낙향하였다. 젊은 시절 해안가 남양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은 모두 그에게 창작의 소재가 되어 남양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이옥은 20세인 1779년(정조 3)에 해주 정씨 정경조(鄭景祚)의 서녀와 혼인하여 후일 1남 4녀를 두었다. 22세인 1781년(정조 5)에는 가족이 모두 서울 집을 떠나 남양에 우거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남양의 낙지정(樂志亭)에서 부친의 회갑연을 열고 거북이를 통해 부친의 장수를 기원한 「귀부(龜賦)」를 지었다. 25세에는 남양의 바닷가에서 용오름 현상을 목격한 뒤 「용부(龍賦)」를 지었고, 다섯 째 이들을 낳은 남양의 이웃 이낙이, 기뻐하는 기색은커녕 한숨만 쉬는 모습에서 민생의 고통을 절감하며 군정(軍政)의 문란을 비판한 「오자구부(五子媮賦)」를 지었다. 26세 봄에는 남양의 바닷가에 물고기 기르는 연못을 조성한 뒤 그 낭만적 정취를 담아 「종어피기(種魚陂記)」라는 기문을 짓고, 27세 여름에는 남양의 바다 속 물고기를 관찰하다 어족(魚族)의 조직을 통해 인간세상의 권력 구조를 풍자한 「어부(魚賦)」를 지었다.

9세에 과거공부를 시작하여 일곱 차례 이상 낙방했던 이옥은 31세가 되던 1790년(정조 14), 마침내 소과에 합격하였다. 이 해 6월 원자가 탄생하자 정조는 원자의 정호(定號)를 기념하여 9월에 증광시를 설행하였는데, 이 때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9세부터 과거공부에 뜻을 두었다고 하였으니 장장 20여 년 만의 성과였다.⁴⁾

이처럼 이상오·이옥 부자의 대를 이은 소과 합격은, 비록 왕족이지만 무반계 서족의 한미한 기문으로 전락했던 이 집안에 새로운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소과에 합격한 뒤 이옥은 서울에 머물며 다시 대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서울에서의 오랜 객지생활과 20년이 넘는 과거공부에 지친 그에게 또 다시 대과를 준비하는 과정은 한편, 내면의 갈등과 깊은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대과에 합격하여 ‘임금을 도와 나라를 빛내고 일세를 울리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꿈꾸는 한편, 한미한 기문의 출신인 자신에게 ‘과연 세상이 벼슬을 허여할 것인지, 허여한다 해도 과연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더 근

4) 이옥이 25세에 지은 「祭文神文」에 따르면, “일곱 차례나 과장에 들어갔지만 필경 한 차례도 해액(解額)에 들지 못하였고”라 하였으니, 25세까지 적어도 7회 이상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글에 “과거에 뜻을 둔 지 16년에 거의 1,000편에 가까운 시가 있고, 거기에 200편의 번러문이 섞여 있으며, 책문은 50편을 엮었고...”라 하였으니, 9세부터 과거공부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옥 저, 『완역 이옥 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262-267쪽).

본적으로는, ‘과거공부에 몰두하여 영화를 엿보고 이익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에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며, 애초의 뜻대로 ‘세상사는 모두 잊고 남양으로 돌아가 꽃과 대나무, 새와 물고기를 벗 삼아’ 유유자적 사는 삶이 본래 자신이 갈 길이 아닌지 번뇌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791년 7월, 그는 「매미의 권고(蟬告)」라는 글을 지어 ‘누가 말리기에 이것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세상에 그대가 없다고 하여 손실될 바가 없고, 그대에게 세상이 없어서 또한 욕될 바가 없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의 뜻을 행하고,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대가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돌아갈 것인가? 매암이여, 매암이여, 마땅히 돌아갈 것이로다’ 라고 하며 내면의 숨겨진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깊은 갈등에 빠져 있던 그는 차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성균관 유생이 되는 길을 택하였다.⁵⁾

2) ‘고문(古文)으로 돌아가 허위에 빠지는’ 대신 끝내 자신의 문체를 지키다

1792년(정조 16) 봄, 이옥은 33세의 나이로 성균관 상재생이 되어 대과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문체를 공부하는 중에도 그는 아침저녁으로 틈틈이 단부(短賦)를 지으며 습작을 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옥의 이름이 조정에서 거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해 10월, 이른바 정조의 ‘문체반정’에 이옥이 걸려든 것이다.

사실 정조는 문체반정 이전부터 이미 이옥을 주목하고 있었다. 문체도 문체지만 이옥은 성균관 유생 중 꽤 성적이 우수한 유생이었기 때문이다. 이옥은 성균관에 들어간 뒤 치른 반시(泮試)에서 여러 차례 수석을 차지해 이미 정조를 알현한 적이 있었고, 그 때부터 정조는 이옥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옥은 1792년(정조 16) 7월 20일 ‘예(禮)’를 책제로 한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고, 8월 15일에는 시(詩) 제술에서 삼하(三下)의 점수를 받아 종이 한 권을 시상 받았으며, 9월 14일에는 반시에 합격한 유생이 입시할 때 함께 입시한 적이 있었고, 9월 15일의 제술에서도 삼하의 점수로 수석을 차지해 직부회시의 자격을 얻었다. 다음 날 입격 유생

5) 이옥 저, 『완역 이옥 전집』 2, 「매미의 권고(蟬告)」, 휴머니스트, 2009, 205-207쪽.

으로 정조를 알현했을 때 정조는 이옥에게 전후로 지은 표(表)와 책(策)이 각각 몇 수가 되느냐고 물었고, 이옥은 표가 500수, 책이 100여 수가 된다고 답하였다.⁶⁾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 16일, 정조는 성균관 상재생을 대상으로 친히 책문의 시제를 출제하고 응제책을 시행하였다. 이미 이옥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정조는 그의 답안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제출한 이옥의 책문은 격식을 갖춘 고문이 아니라, 당시 정조가 문제 삼던 소품체의 문체로 쓰여져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정조는 이옥의 응제문을 괴이하고 불경스런 '순용소설체'라 비판하며 다시는 그런 문체를 쓰지 못하도록 날마다 사료문 50수를 짓게 하고, 잘못된 문체를 완전히 고치기 전까지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정거(停擧)의 벌을 내렸다. 이옥은 매일 50수의 표문을 짓고 11월 20일야 정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처럼 최초의 벌과는 한 달 만에 가볍게 끝나는 듯하였으나, 이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 해 10월에 시작된 문체로 인한 수난은 1800년 이옥이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조는 또 다시 성균관 유생들에게 '문의심설삼척(門外深雪三尺)'이란 제목으로 7언 20운의 배율을 짓게 하고 시권을 채점하였는데 이옥의 문체가 여전히 거슬렸다. 정조는 자신이 엄하게 나무랐는데도 고의로 저축하려고 든다며 이옥을 심하게 책하고, 열흘 동안 배율 100편을 지어 올리되 확실하게 고치지 않으면 바닷가 수군으로 충정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듬해인 1793년(정조 17) 2월에는 '박접회(撲蝶會)'라는 시제로 성균관 상하재 유생들에게 7언 20운의 배율을 시험하고 정조는 이옥의 시권을 검토하였다. 여전히 소품체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벌 없이 그냥 지나갔다. 같은 해 10월 12일의 제술에서 이옥은 송(頌)으로 또 높은 점수를 받아 정조를 알현하였다. 그 자리에서 정조는 "네가 지은 것은 끝내 문체를 고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미 높은 등수에 올랐기 때문에 비록 빼버리지 않았으나 차후로는 이렇게 짓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며 다시 한 번 경고하였다.⁷⁾

'문장에는 시대마다 문체가 있고 문체는 그 시대의 도(道)를 반영한다'⁸⁾고 믿은 정조는, 이

6) 설훈,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 창비, 2011에 수록된 강명관의 「해설」, 210쪽.

7) 강명관, 같은 글, 211쪽. 1792년 7, 8, 9월과 1793년 2월, 10월 반시에 대한 기록의 출처는 『송정원일기』로 강명관의 글에서 재인용하였다. 김영진의 연보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출처를 따로 밝힌다.

8) 『홍재전서』 권 49, 「책문」 2, 〈문체〉.

처럼 당시 패관소품 문체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학의 유입, 진산 사건, 강이천의 유언비어 옥사 등, 18세기 후반 불안한 사회상의 원인을 체제 자체의 모순이 아닌 새로운 문예사조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1788년 서학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도, “근래 문체가 날로 박잡해지고 또 소설을 탐간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서학에 빠져드는 까닭이다”⁹⁾라고 하며, 당시 사대부와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 유행하던 패관소품문이 서학의 확산을 포함하여 사회질서와 선비들의 습속을 문란시킨 주범이라고 확신하였다. 패관소품체란 명말청초에 유행한 문체로 고문의 격식과 한정된 주제에서 벗어나 통속적이고 자질구래하며, 가볍지만 흥미로운 제재를 짧고 자유로운 필치로 담아낸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 양식을 말한다. 새로운 문체는 고문의 언어로는 담지 못했던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감수성을 담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문체는 지배층에게는 전통 주자학이 표방해온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불온한 것, 즉 지배 체제와 지배적 담론으로부터의 이탈로 인식되었다. 정조는 그 이탈과 균열을 봉합하고 주자학에 토대한 지배 권력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해 패관소품체를 엄격히 금하고 고문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반시(泮試)를 통해 성균관 유생들의 문체를 통제, 관리하는 것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였다. 이옥이 걸려든 1792년의 문체반정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었다.¹⁰⁾

새로운 문예사조를 선도한 것은 물론 중국을 통해 유입된 서화류였다. 따라서 정조는 중국으로부터 패관소품류 서적의 수입을 금지하고 검열을 철저히 강화하였으며, 문신 중 패관 잡기류를 좋아하는 자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유생을 가르치는 교수 후보자로 천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¹¹⁾

이와 같은 정조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부 문인들은 문체를 고치고 정조의 정치적 교화에 순

9) 『정조실록』 권 26, 정조 12년 8월 3일 임진.

10) 이옥 외에 정조의 문체반정에 직접 연루된 인사는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김려, 남공철, 이상항 등이 있다(정용수 역주, 『봉성에서』, 〈부록〉: 해설, 국학자료원, 2001, 184쪽). 그 중 김려는 이옥의 절친이자 이옥 사후 이옥의 유고를 수집, 정리하여 『담정총서』에 수록한 인물이다.

11) 『정조실록』 권 36, 정조 16년 10월 19일 갑신.

응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문을 배우면서 허위에 빠지는 것이 금문(尙文)을 배워 오히려 유용함만 같지 못하다’¹²⁾고 생각한 이옥은 끝내 고문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반시에서 정조에게 네 차례나 처벌과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소품 문체를 고치지 않고 「중흥유기(重興遊記)」 등 소품류의 산문을 틈틈이 집필하고 있었다.

3년 후인 1795년(정조 19) 8월, 성균관에 행차한 정조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영란제(迎鑾製)를 시행하였다. 이옥의 시권을 살펴본 정조는 그의 문체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즉시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정거(停擧)의 벌을 내렸다. 그러나 곧 명을 바꾸어 정거를 취소하고 대신 충청도 정산현의 군적에 충군(充軍)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이옥이 끝내 문체를 고치기를 기대하며 다음 달에 있을 경과(慶科)에 응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정조의 배려였다.

같은 해 9월 4일 정조는 예정대로 춘당대에서 경과를 설행하였다. 이옥은 정산현에 내려가 편적(編籍)한 뒤 곧 수령에게 휴가를 얻고 상경하여 경과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옥의 문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조는 여전히 문체를 고치지 못한 이옥을 엄하게 책하며 정산보다 훨씬 더 먼 곳의 군적에 배속시키는 것으로 그를 벌하였다. 새 유배지는 경상도 삼가현(지금의 함천)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옥은 삼가현에 내려가 편적하고 3일을 머무른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이듬 해 2월에 설행된 별시에 또 다시 응시하였다. 당시 국법에는 과거에 합격하면 군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옥은 이미 6년 전 소과에 합격한 전력이 있었지만 삼가현의 군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과거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때 응시한 별시 초시에서 이옥은 장원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러나 이옥의 답안을 확인한 정조는 이번에도 이옥의 문체가 순정하지 못하고 격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즉시 장원을 취소하고 꼴등으로 강등시키려는 명을 내렸다. 순식간에 장원에서 방말(榜末)이 된 이옥은 참혹한 심경으로 그 해 3월 고향인 남양에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두 달 뒤인 1796년(정조 20) 5월에는 부친상을 당하였다.

장원으로 뽑혔다가 비록 꼴등으로 강등되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1796년 별시 초시에 합격하여 삼가현의 군적에서 풀려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옥은 1797년(정조 21) 봄 느닷없이 삼가현

12) 이옥 저, 『완역 이옥 전집』 2, 「(문무지문초)의 뒤에題文無子文鈔卷後」, 휴머니스트, 2009, 489쪽.

으로 돌아오라는 귀환통지서를 받는다. 충군된 자가 과거에 합격하여 군적에서 벗어나려면 정소(呈訴)의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옥은 별시에 합격한 뒤 그 절차를 밟지 않아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군적에 매인 신세였던 것이다. 이에 부친의 3년상을 마친 뒤 1798년(정조 22) 형조에 정소하여 군적을 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형조에서는 병조 소관으로 돌리고, 병조에서는 또 다시 예조로 떠넘기며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옥은 도망친 죄수의 신세가 되어 결국 삼가현으로 두 번째 귀양길을 떠나게 된다. 그리하여 삼가현에 도착한 1799년(정조 23) 10월 18일부터, 해배되어 이듬해 2월 18일 삼가를 떠날 때까지 이옥은 꼬박 118일의 기간 동안 삼가현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삼가현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곳의 풍속과 세태를 상세히 기록하여 총 65편에 이르는 글을 남겼다. 이 때 남긴 글의 모음집이 바로 『봉성문여(鳳城文餘)』이다. 『봉성문여』는 삼가현의 문화와 풍속 등을 ‘창틈으로 바깥을 엿보듯이’¹³⁾ 면밀하게 관찰하고 당시 향촌 사회의 변화상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여 일종의 인류학적 민족지라 불릴 만큼, 조선후기 삼가현의 지역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¹⁴⁾

1800년 2월 유배에서 풀려나 그해 3월 남양으로 돌아온 이옥은 이후 과거와 벼슬에 두었던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칩거하며 오로지 글쓰기에 전념하였다. 사면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은 불혹을 넘긴 41세 때였으니, 소과에 합격한 지 꼬박 10년, 문체반정에 휘말린 지 8년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옥을 사면한 직후인 그 해 6월, 정조도 세상을 떠났다. 정조 사후 이옥은 15년을 더 살며 고향땅에 틀어박혀 글쓰기에 전념하다 1815년(순조 15) 6월 5일, 56세의 나이로 남양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13) 이현우, 「이옥의 생애와 작품 세계」, 이옥 저, 『완역 이옥 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19쪽.

14) 전경목, 「봉성문여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삼가현의 모습」,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제5장, 화성시, 2012, 169쪽.

3. 이옥의 글쓰기 철학

1) '도학(道學)적 이념'에서 무장해제된 이옥 글쓰기의 '반시대성'¹⁵⁾

정조는 왜 이옥의 글쓰기를 그토록 불온한 것으로 낙인찍어야만 했을까. 그의 글쓰기와 사유가, 도학(道學)적 이념으로 무장한 주자학적 사유 틀을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자학에서 천지만물은 '도학적 이상'이 구현되는 도구이며, 사대부는 글로써 그 도(道)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글을 짓는 사대부는 그 마음을 도가 주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문학을 하는 이유도 결국 삼가고 또 삼가서 마음의 주재력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옥은 그와 정 반대되는 글쓰기 철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내 마음의 주재력을 상실하고 이름 모를 주재자에게 나를 내어 주는 것을 글쓰기라 규정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철학은 『이언(俚諺)』에 매우 간결하게 집약되어 있다. '이(俚)'와 '언(諺)'은 모두 속된 말, 고상하지 않은 여향의 언어를 뜻한다. 여기서 이옥은 논쟁 형식을 빌려 '왜 하필이면 국풍이나 악부나 사곡이 아닌 이언을 지었느냐는 객의 질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재자가 있어 시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 다음, 국풍과 악부와 사곡 옆에 슬쩍 이언을 끼워 넣는다. 국풍, 악부, 사곡은 모두 노래이며, 노래란 곧 마음작용의 분출이다. 마음작용은 나와 대상이 마주친 사건이고 그 결과 감응이 발생하며, 그 감응이 나를 움직일 때 나는 비로소 노래하고 쓴다. 그러니 글을 쓰는 건 내가 아니라 '무언가 낯선 힘이 나로 하여금 쓰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에는 초월적 주재자도, 어떤 도학적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풍이든 악부든 사곡이든 이언이든 그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이언은 속되고 나머지는 고상하다는 식의 위계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

객이 '그렇다면 저 국풍·악부·사곡과 그대의 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짓는 자가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 하고 다시 묻자, 이옥은 '짓는 자가 어찌 감히 짓겠는가. 짓는 자로 하여금 짓게 하는 자가 지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천지만물이 바로 그

15) 채운,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옥을 읽는다』, 2부 「육망의 글쓰기, 글쓰기의 육망」, 북드라망, 2013, 96-113쪽 참조.

것이더라고 대답한다. 즉, 이옥은 작가를 지고의 위치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천지만물의 '번역자나 화가'로 정의한다. 그에게 작가란 천지만물의 가탁자(假託者)이다. 쓰는 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이 그의 신체를 관통하여 글쓰기의 형식을 빌려 상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천지만물의 약동하는 기운에 대한 증언이다. 천지만물은 작가의 글을 빌려 이 세계의 진동을 전달한다. 기존의 의견과 지식, 견해, 기억을 지우지 않고서는 세계의 미세한 진동, 차이들을 포착할 수 없다. 이옥의 글에서 펼쳐지는 사물의 세계는 이옥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옥이 한 흐름이 되어 세계 속으로 진입한 결과물이다. 세계는 어느 한순간도 같지 않으며, 늘 다른 방식으로 현현한다. '천지만물의 번역자로서의 이옥은 무한히 반복되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물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거니와 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서로 같은 하늘이 없고, 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서로 같은 땅이 없다. 마치 천만 사람이 각자 천만 가지의 성명을 가졌고, 삼백 일에는 또한 스스로 삼백 가지의 하는 일이 있음과 같다. 오직 그와 같을 뿐이다. … 나는 진실로 인위적으로 짓는 바가 있을 수 없다. … 부끄러워함직한 것은 천지만물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고 활동됨이 옛사람에게서 표현되고 활동되는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죄이다. 이에 언의 여러 가락을 감히 국풍이나 악부 또는 사곡이라 하지 못하고, 이미 이(罷)라 하고 언(諷)이라 하여 천지만물에게 사죄하게 된 것이다.’(『이언(異言), 「일난(一難)」)

그런데 이옥이 관심을 둔 그 미세한 차이들은 도학적 이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주자학의 틀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자학은 '도리(道理)라는 틀 밖의 세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주자학은 예술을 도, 리와 같은 초월적 장벽 안에서만 작동시킨다. 이 장벽 속에서 차이는 사상되거나, 동일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용인된다. 그러나 이옥을 비롯한 조선후기 문장가들의 글에서 이 견고한 세계의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이옥에게 자연은 도를 구현한 이상체가 아니고, 문(文)은 도를 실어 나르는 기구가 아니며, 작가는 '경(敬)과 '신독(愼獨)'을 기치로 삼고 외물에 마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는 도학자가 아니다. 작가는 오로지 자연의 힘을 감지하고 그것을 진솔하게 번역하거나 풀어내는 자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의 규칙을 위반하고 전도시키게 된다. 이옥은 다른 ‘도’, 다른 ‘진리를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다. 이옥 글쓰기의 반시대성은 그런 주자학적 틀에 도통 무관심했다는 데 있다. 도학적 이념으로 무장하기는커녕 눈앞에 현현하는 사건들 앞에서 무장 해제되어 버렸다는 데 있다. 그에게 글 쓰기는 자신이 끊임없이 사라지는 새로운 공간의 열림, 혹은 그런 공간을 향한 자기 버리기였다.

2) ‘불가항력’으로서의 글쓰기와 ‘유희’ 정신¹⁶⁾

이옥은 52세 때인 1811년(순조 11), 명나라 반유룡이 편찬했다는 사선집(詞選集) 『시여취(詩餘醉)』를 읽고 여기 실린 사에 운자를 화답하거나 모방해서 『묵토향(墨吐香)』이라는 창작 사집을 지었다. 그 서문에는 ‘천지만물의 가탁자 혹은 번역자’로서의 작가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독서론과 글쓰기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책을 좋아하고 또한 술을 좋아한다. ... 마침 내가 술 한 단지를 받은 것처럼 『시여취(詩餘醉)』 일부를 빌릴 수 있게 되었다. ... 이상하다. 먹(墨)은 누룩이 아니고, 책에는 술 그릇이 담겨 있지 않은데 글이 어찌 나를 취하게 할 수 있겠는가? ... 그런데 글을 읽고 또 다시 읽어, 읽기를 3일 동안 오래 했더니, 꽃이 눈에서 생겨나고 향기가 입에서 풍겨 나와, 위장 속에 있는 비릿한 피를 맑게 하고 마음속 쌓인 때를 씻어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즐겁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에 들어가게 한다. ... 그렇다면 이 글이 사람을 달게 취하게 하여 미혹케 하는 것이 어찌 술 1석 5두보다 못하겠는가? ... 읽어서 그 묘처를 능히 터득하는 것은 그 맛의 깊음을 사랑 하는 것이요, 읊조리고 영탄하며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취하여 머리를 적시는 데 까지 이른 것이다. ... 나는 모르겠노라. 이것이 글인가? 술인가? 지금 세상에 또한 누가 능히 알겠는가?(『묵취향서(墨醉香序)』)

16) 채운,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옥을 읽는다』, 2부 「육망의 글쓰기, 글쓰기의 육망」, 북드라방, 2013, 153-166쪽 참조.

시여(詩餘)는 시(詞)이지 술이 아니다. 그런데 인정반유롱을 말함은 그것을 취라고 이름 하였으니, 그 글이 사람의 폐부를 적시고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흥겹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맛있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자가 누구인들 취하지 않으리오. 나도 이에 진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하게 되었다. 크게 취해서 취함이 극에 달한 자는 반드시 토하게 되는 것이니, 마치 옛날에 이불에 토했다는 것과 흑 수레의 깔개에 토했다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나는 술에 있어서 취하면 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니, 나의 주벽이 그런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읽고서 이것을 지은 것은 또한 내가 취하여 토한 것이다. … (『묵토향전서(墨吐香前緘)』)

이것이 이른바 술을 마시듯 책을 읽고, 취한 자가 토하듯 글을 쓴다는 이옥의 '취토론(醉吐論)'이다. 이처럼 그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건 관념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무의식의 문제였다. 독서와 글쓰기가 인간의 신체를 소외시킨 '정신적 활동'만으로 규정되지 않는 건 물론 주자학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글을 암송하고 쓰는 행위는 머리가 아니라 전신에 그 글을 새기는 일로, 얹어 신체에 각인되어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주자학에서는 그게 배움의 최종 목표였다. 그런데 이옥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에게 읽고 쓰는 것은 일종의 불가항력이다. 글을 몸에 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독서요,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뚫고 터져 나오는 것이 글쓰기다. 즉, 글은 '사유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사유가 터져 나온' 토사물,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실존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옥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쩔 수 없음'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을 완전히 망각한 후에야 거기서 비로소 시작되는 무엇, 그것이 이옥의 글쓰기였다.

한편, 이옥에게 독서와 글쓰기는 음주, 즉 유희의 차원에서 사유된다. 유희의 기본 정신은 진리에 대한 가벼움과 사물을 자유롭게 변환하는 능력이다. 어린아이가 유희의 대가(大家)인 것은 그 때문이다. 어린아이의 눈은 세계 속에서 진리를 찾지 않는다. 그저 매일 허물어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재미난 것, 새로운 것, 신기한 것, 다른 것을 찾을 뿐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건 '옳지 않음'이 아니라 '재미없음'이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은 진리의 재현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물음이며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세계를 꿈꾸는 불온함이다. 글을 술로 보는 이옥의 사고에 깔려 있는 것은 이 같은 유희정신이다. 술 취

한 자에게 왜 말이 논리적이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반칙이다. 술 취한 자에게는 노래를 시켜야 한다. 유희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옥의 독서론과 글쓰기론을 관통하는 건 바로 이러한 유희정신이었다.

4. 이옥의 작품 세계

1) 존재의 자기변환을 통해 포착한 다양한 미물의 세계¹⁷⁾

새, 꽃, 벌레, 곡식, 담배로부터 노처녀와 기생, 도둑, 거지, 노름꾼, 효부, 열녀 등 다양한 인간 군상에 이르기까지 이옥의 글쓰기가 대상으로 하는 소재들은 실로 다양하다. 그들의 공통점은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미물, 주류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하층민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옥이 집착한 것은 한 마디로 '자질구레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가 포착하는 자질구레한 존재들의 세계는 끊임없는 존재의 자기변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입 불가능한 세계였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떠나고, 미지의 세계와 조우함으로써 다른 관점들을 획득한다. 다르게 지각하고 느낀다는 것은 사물로부터 관습적 의미를 걷어 내는 것, 사물로부터 낯선 힘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한없이 가벼운 글쓰기가 내포하고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옥이 해배 후 남양으로 돌아와 백운사라는 집에서 지었다는 『백운필』의 한 구절을 보자.

벌레로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것은, 모두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던 것이 화한 것이다 (매미, 나방, 나비, 귀뚜라미, 벌, 파리 등). ... 그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을 따져 보면 꿈틀거리지 않는 것이 없다. 날개가 없어 능히 날지 못할 때에는 그 모양이 혹은 크고, 혹은 작고, 혹은 길고, 혹은 짧고, 혹은 뽕이 있고 ... 혹은 물속에서, 혹은 땅속

17) 채운,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옥을 읽는다』, 3부 「카메라를 든 사나이」, 북드라마, 2013, 180-214쪽 참조.

에서 꾸물꾸물 꼬물꼬물거리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 번 뜰을 지나가기만 하면 침을
뱉어 더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백운필], 「담충」)

인간은 매번 ‘인간의 관점’을 유일한 관점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옥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얼핏 꿈틀거리는 것들은 다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다르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모두를 ‘꿈틀거리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그것들을 ‘더럽다’고 가치화한다. 하지만 꿈틀거리는 것들에게 기적처럼 날개가 돋으면 이전의 모습은 오간 데 없이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이를 본 인간들은 벌레를 볼 때와는 사뭇 다르게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벌레일 때는 더럽다고 침을 뱉다가 날개가 돋으면 그것을 사랑한다. 즉, 벌레에서 나비에로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벌레를, 나비를 볼 뿐이다. 자신의 이념과 관습, 욕망에 따라 연속적인 흐름을 자의적으로 절단하고 코드화하는 인간들에게, 이옥은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가 나비는 그 근본이 추한 벌레라고 언급하자, 아까와는 반대로 벌레는 벌레로 나비는 나비로 봐야지 왜 나비에서 ‘벌레의 본질’을 보느냐고 반문한다. 여기에 이옥 글쓰기의 반전이 있다. 그는 선형적인 이념이나 가치판단 체계 속에서 사물을 마주하는 법이 없다. 벌레는 천시하면서 그 벌레가 화한 나비는 아름답다고 하는 자나, 나비의 본질이 벌레이므로 나비나 벌레나 다를 게 없다고 하는 자나, 습관적 관념 속에서 사물을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이옥은 그 관념을 벗어나 변이의 파노라마 속으로 미끄러진다. 하나의 관점이 사라지고 생각지 못한 다수의 관점들이 총천연색으로 펼쳐진다. 이처럼 관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온갖 미물과 접촉함으로써 이옥은 매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지주부(蜘蛛賦)」에서 그는 거미와 맞닥뜨린 선비의 위선과 비루함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다. 하루는 이자(李子: 작중 화자로서의 이옥)가 거미줄을 치워 내면서 “뒹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벌레 중의 적이라. 내 장차 너를 제거하여 다른 충류에게 덕을 베풀려 한다”고 거미에게 훈계한다. 그러자 거미의 거센 항의와 훈계가 이어진다. 그물에 걸려든 놈들의 면면을 보면 허랑방탕한 나비, 소인배 파리, 엉큼한 모기, 경박한 잠자리 등으로, 그들이 까불다가 그물에 걸린 것일 뿐이니, 이를 거울삼아 “그대의 이름을 팔지 말며, 그대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며, 이욕으로 화를 부르지 말며, 재물에 목숨 바치지 말며, 경박하거나 망령되어 굴지 말며, 원망

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더 큰 거미가 있어 그 그물이 나보다 천 배, 만 배가 될 뿐이 아닐 것이다"라고 일장 훈계를 한다. 이 말을 듣고 덕 운운하던 이지는 허둥지둥 달아난 반면, 거미는 원래 하던 대로 유유히 거미줄을 치며 묵묵히 자신의 본성을 발현한다.

한편 「조부(蚤賦)」는 벼룩과 경금자의 대화를 다룬 글이다. 자신의 살갓을 파고드는 벼룩을 발견한 경금자가 엄지손가락으로 벼룩을 잡고는 죽이기 직전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 자신은 천성이 게을러 청소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았으므로 땀과 때를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서 만족하지 못하고 피를 빨아먹느냐고 따진다. 그러더니 “네놈은 다만 사람에게 피와 살이 있음을 알 뿐 사람의 손가락과 손톱이 두려운 줄은 알지 못하는구나. … 포식한 놈은 쓰러지고 급히 가는 놈은 자빠지니 사람의 살에 피를 내는 놈은 사람 또한 그 골수에서 피를 내는 법. … 나는 장차 네 배를 짜개어 너의 심보를 알아보고 말겠다”며 손톱으로 꼭 눌러 벼룩을 죽인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어지는 후속편 「후조부(後蚤賦)」에서는 이에 맞서는 벼룩의 변이 펼쳐진다. 그날 경금자의 손톱에 장렬하게 사망한 벼룩이 꿈에 도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내가 당신을 대우하는 것이 남보다 후하게 하고 감히 박하게 함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주인공은 나를 대하기를 덕을 원수로 여기고 선행을 포학으로 갚으려 하시오? … 옛 철인들은 자비로워 물이를 균등하게 보았으니 옛 것으로써 지금을 논한다면 잘한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 개가 도둑 하나를 쫓을 때는 저민 고기를 던져서 먹고, 고양이가 쥐를 막을 때는 담요를 나누어 잠을 재우는 법. 그런데 큰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돌봐주지 않는구려. 주인께서는 이에 대해 얕이 미치지 못하니 나를 책망하는 말을 하는구려. 나는 실로 당신을 부끄럽게 여긴다오. 원컨대 이로부터 당신을 떠나 감히 다시 오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경금자는 그때서야 자신의 ‘살충’을 반성하고 사레하러 했으나 꿈이더라는 이야기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잡아 죽여야 할 미물이지만, 미물의 입장에서 보면 저 나름의 의도와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옥에게 인간의 헛된 욕망을 일깨우고 가슴속의 원망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언제나 하찮은 미물들이었다.

이옥은 『백운필』에 열거된 한없이 가볍고 미미한 존재들의 세계를 보면서, 자신이 기존에 붙들고 있었던 특정한 신념을 무화시키는 낯선 힘을 발견하였다. 시물들에게도 각각의 역사와 사연이, 각각의 회로애락과 각각의 쓰임이 있음을 보았다. 그는 이 미물들의 아우성 속에서 길을 잃고 인간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뒤 천지만물과 교감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고정된 좌표를 벗어나 관점을 다수화하면 의미의 빔장이 풀리면서 세계의 역동적 전체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자신이 안다고 믿었던 실체는 사라지고, 대신 관점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구성되는 무수한 파편들의 세계가 나타난다. 그의 글쓰기는 이렇게 가까이 자신을 버리고 모든 예측불가능성과 불안정성을 가까이 긍정하며 존재의 끊임없는 자기변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2) 날 것의 삶들에서 길어 올린 진정성¹⁸⁾

이옥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도덕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다 간 군자상이나 영웅호걸이 아니라, 주류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인간들, 누군가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시대의 아웃사이더들이다. 의사(義士), 효부, 열녀로부터 시골의 가난한 농부, 시정의 험잡꾼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이옥이 이 마이너들의 삶에 주목한 건, 그들의 일상 속에 깃든 진정성 때문이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풍기는 독특한 뉘앙스에 주목함으로써 이옥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18세기라는 시공간을 수놓은 수많은 삶의 곁들을 세심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문체반정에 연루되기 한 해 전인 1791년(정조 15), 이옥은 장터에서 들었다며 아이종이 전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희곡 『동상기(東床記)』를 지었다. '동상(東床)'이란 혼인을 뜻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총각 김희집과 노처녀 신씨이다. 어느 날 임금의 성덕으로 전국의 가난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짝을 맺게 되었는데, 관리들의 실수로 그만 이 두 사람이 혼인 명단에서 누락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부랴부랴 두 사람의 혼인을 따로 성대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이 희곡의 줄거리이다. 처녀귀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절망하던 노처녀가

18) 채운,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옥을 읽는다』, 3부 「카메라를 든 사나이」, 북드라망, 2013, 247~261쪽 참조.

혼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장면을 이옥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세상에 지극히 어려운 일이 세 가지가 있다. 형세 없는 무반의 첫 벼슬길이요, 기구(器具)¹⁹⁾ 없는 선비의 감시(監試) 초시오, 가난한 처녀의 혼인이라. 이 세 가지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가난한 처녀의 혼인이다. 얼마 전에 한 노처녀가 다행히 혼처를 구해서 사주단자가 오고 택일단자가 가고, 혼인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처녀는 기쁨을 견딜 수 없었지만 체면이 있기에 참고 참았다.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는데 더 참을 길이 없어, 측간으로 달려가 가만히 개를 불러 말했다. '멍멍아, 내가 내일모레면 시집을 간단다.' 개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단지 히핼만 한 번 하니, 그 처녀 민망하고 민망하여 또 개를 보고 말하였다. '멍멍아, 내가 너에게 허황된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너의 여식(女息)이다.' 사람의 심정이 이쯤에 이르니, 어찌 지극한 즐거움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동상기』, 「제2절」)

가슴이 아프면서도 포복절도할 만한 장면이다. 시집가는 노처녀의 환희에 찬 심사를 묘사하기 위해 이옥은 난데없이 개를 등장시키는 기지를 발휘한다. 너무 기쁘게 처녀 체면에 어디 말할 데는 없고, 참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그래 할 수 없어 개를 붙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노처녀의 솔직 발랄함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옥은 이미 길을 잃는다. '유생'이라는 주체성을 망각한 채 그는 흡사 노처녀에 빙의되었다. 그 결과 '규범적 언어'를 잃고 대신 생동하는 타자들의 언어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이옥을 매혹시키는 건 경전 속 성인들의 위대한 도가 아니라 비루한 인간들의 일상 속에 깃든 진정성이었다.

「차조 이야기(衆語)」는 이옥이 집 근처의 땅에 차조를 심은 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기록한 글이다. 소금기가 많아 지력이 없고 척박한 땅에 무엇을 심어도 실패하자 그는 소용없을 거라며 만류하는 종의 말을 뿌리치고 차조를 심게 한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비가 온 후 다 쓸려가고 남은 것도 거의 싹을 틔우지 못한 것이다. 이웃의 한 영감이 이를 보고 키득키득 웃으

19) 과거시험에 필요한 붓, 벼루, 종이 등을 말한다.

며 다음과 같이 조롱하였다.

아깝도다. 당신의 노고가 허사로 되어! 어찌 당신은 헛된 곳에 힘들여 애쓰는가? 당신은 큰 추위에 솜뭉치를 잘라 화분을 감싸고 끓는 물로 나무를 써서 꽃을 피게 하려는 것인가? ... 쓸모없는 땅에 힘을 다 쏟고, 효용 없는 일에 정력을 낭비하니, 한 가지 일이 그러하면 백 가지 일이 모두 그러할 것이다. 당신은 평소 무엇을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운 영하거나 할 때에 꼭 차조밭과 같이 됴이 많을 것이다. 아깝도다. 저 노고의 헛됨이여!

열흘 뒤 이옥은 차조밭을 지나다 차조 중 살아난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짝이 난 차조를 보고 안타까워 잡초를 모두 제거하고 있는데, 김매던 이웃 여인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 '차조를 위해 김을 매시나요? 풀을 위해 김을 매시나요?' 이옥이 차조를 위한답시고 뽑은 건 잡초가 아니라 차조였던 것이다. 그는 하늘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한다.

애! 내가 어리석었다. ... 어찌 그리도 비슷하단 말인가? ... 어찌 이것뿐인가? 소인은 군자와 비슷하고, 간신은 충성스러운 듯하고, 참소하는 신하는 정직한 듯하고, 어리석은 신하는 어진 듯하다. ...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바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악한 것이 있으니, 명철함이 없으면 어찌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밀함이 없으면 어찌 그 이름을 구별할 수 있으며, 공평함이 없으면 무엇으로 그 표식을 다르게 하라? 애! 적어도 이것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100인의 윗사람이 될 수 없고, 10인의 장(長)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짝이 될 수 없다. 비록 차조를 위해 김매 사람을 구하려 해도 또한 얻을 수 없으리라.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이옥이 지닌 건 땅에 대한 이념이었지 지혜가 아니었다.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건 중, 이웃집 농부, 아낙 같은 하층민이었다. 그들은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배인 경험을 통해 판단한다. 이념에 압도되는 자는 실패한 후에도 미련에 휘둘리지만, 경험을 통해 배운 자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미련 없이 포기한다. 이처럼 이옥에게 미물과 하층민 같은 마이너들은, 끊임 없이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게 하고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스승이었다.

「북관기야곡론(北關妓夜哭論)」은 가련이라는 함흥의 기녀가 한밤에 통곡한 사연에 대한 이옥의 논평이다. 가련은 미모와 재능, 학식을 겸비한 명기였다. 어느 날 가련이 미소년과 눈이 맞아 유흥을 펼쳤는데 음주면 음주, 바둑이면 바둑,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그 어느 하나 통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딱 맞는 파트너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지경이었다. 가련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 하나를 만난 것으로 족하다. 내가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라며 기뻐한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소년의 안색이 변하며 탄식이 이어졌다. 다가가 소년을 안고 보니, 천생연분이라 믿었던 그가 고자였던 것이다. 이것이 가련이 한밤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다. 그런데 이옥은 이 이야기에 다음과 같이 긴 논평을 더한다.

논하여 말한다. 가련은 통곡을 잘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가련의 통곡이 어찌 그가 정욕을 이루지 못함을 상심해서이겠는가. 가련이 통곡한 것은 아마도 천고에 만남이 어려운 것을 깨닫고 울었던 것이리라. 천지간에 사람으로서 '만남'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임금과 신하요,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이다. 오직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는 비애와 환락이 있게 마련이니, 이는 인지상정이다. 그렇다면 이미 만남을 얻은 자가 기쁜 것과 얻지 못한 자가 슬픈 것은, 의당 군신, 남녀가 하나같이 똑 같을 것이다.

...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들이 능하지 못한 것에 능한 자가 오히려 남들이 능한 것에 능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가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을 줄을. 필경 만났으되 만나지 못한 한탄이 있게 되었으니 아, 끝장이로대! 이 세상에 '이 사람을 참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로구나. ... 가련이 갑자기 일어나 목을 놓아 울었던 것은 실로 그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되 만나지 못했음을 통곡한 것이다. 어찌 비통하지 않겠는가? 어찌 애절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므로 말한다. 가련이 통곡한 것은 그 정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요, 천고에 만남이 어려운 것을 통곡한 것이다. 그 어찌 통곡을 잘한 자가 아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세 번 통곡의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한 번의 눈물은 천고에 가인을 만나지 못함을 통곡한다'고 하였다. 이에 나도 말한다. "가련의 한바탕 눈물은 천고의 가인, 재자(才子)를 만나지 못함을 통곡한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내의 울분이나, 자신과 꼭 맞는 낭군을 만나지 못한 여인의 통곡은 '정의 차원에서 보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고원하고 뒤의 것은 천박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임금과 신하의 정보다 차라리 남녀의 통속적인 정이 훨씬 진실할 수 있다. 거기엔 최소한 체면이나 위선이 끼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옥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이처럼 하찮은 존재들이다. 이 하찮은 존재들을 이옥은 아무런 차별 없이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원칙에 충실한 이들에게서 '도 이전의 진정(眞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이입하며, 천지만물의 정서와 삶을 관통한다. 그가 주목한 마이너들의 삶은 어떤 당위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어떤 지배적 가치로도 의미화 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삶, 신산하고 우울할지언정 생기를 띤 삶들이었다. 그의 글쓰기에는 도를 위한 자리가 없다. 겹겹의 생이 자아내는 이야기들, 상이한 뉘앙스로 펼쳐지는 감정들, 만물이 빚어내는 차이의 향연들, 그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반응하며 길을 잃는 '자아들이' 이옥의 글쓰기를 가득 채운다. 그렇게 이옥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썼다. 그는 정조가 시킨 대로 쓰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문체를 고칠 수 없었던 이유이다.

5. 정윤영의 가계와 생애 ²⁰⁾

1) 명망 있는 소북계 양반 가문, 송산의 초계 정씨

정윤영(鄭胤永, 1833~1898)은 16세기에 화성 송산에 입향하여 대대로 송산에 세거해 온 초계 정씨 천호장공파 출신이다. 정윤영의 가계인 천호장공파가 송산에 처음 자리 잡게 된 것은 정윤영의 11대조 정경륜(鄭景倫, 1519~1594) 때의 일이다. 그는 행의(行誼)로 천거되어 벼슬이 한성부서윤에 이르렀다. 그 후 이조판서에 추증된 10대조 응탁(應鐸, 1542~1618)을 거쳐 9대조인

20) 이하 정윤영의 생애와 사상은 오영섭·김자운, 『구국의 마지막 계인: 후산 정윤영의 학문과 실천』(화성시, 2010)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문의 직접 인용 외에는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았다.

문명(文明, 1563-1647)대에 이르면서부터 지손들이 번성하여 송산의 천호장공파는 이후 3개 지파로 갈라지게 된다. 먼저 10대조 응탁의 장자인 문박(文博)의 후손은 현재 송산면 천등리에, 차자인 문명(文明)의 후손은 '만주공파'로 분파하여 현재 송산면 마산리에, 4자인 송죽당 문의(文翼)의 후손은 '송죽당공파'로 분파하여 현재 송산면 중송리와 지화리에 각각 세거하고 있다. 그 중 정윤영은 만주공파의 직계 종손이다.

초계 정씨의 화성지역 입향조로 16세기에 송산면에 거처를 정한 정윤영의 11대조 정경륜(鄭景倫, 1519~1594)은 남양부의 서쪽 등곡(登谷: 현재의 송산면 천등리)에 살았는데, 소년시절부터 성품이 독실하고 효행이 깊어 인근 5개 군현에서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그는 생원시를 거쳐 함열, 곡성군수를 지냈으며 함열군수 재직 시에는 관대함과 인자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청렴함과 결백함으로 자신을 다스려 많은 칭송을 받았다. 벼슬이 한성부서윤에 이르렀고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 청백리에 선발되었으며 남양 등곡에 안장되었다.

정경륜의 큰아들이자 정윤영의 10대조인 정응탁(鄭應鐸, 1542~1618)은 생원시를 거쳐 임협, 진위, 안협 3개군의 군수를 지냈다. 벼슬이 첨정에 이르렀으며 사후에 역시 남양 등곡에 안장되었다. 정응탁은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정윤영은 그 중 차자인 정문명(鄭文明, 1563-1647)의 후손이다. 정윤영의 9대조 정문명은 광해군대에 벼슬을 구하지 않고 동생 송죽당 정문익과 함께 물러나 해주에서 은거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각별히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 인조대에 효행으로 천거되어 건원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해주부 농장에 나가 은거하며 살았다.

이후 8대조 정시망(鄭時望, 1586~1662)의 정치활동으로 정윤영 집안은 대대로 소북의 당색을 띠게 되었다. 정윤영 가문이 소북이라는 사실은 노론계의 여흥 민씨가 정권을 독점한 개화기에 정윤영의 출세와 정치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정윤영은 노론계가 득세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과 같은 소북 가문이 모두 28가문으로 7학사, 5군자, 8문장가를 배출한 훌륭한 가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정윤영이 소북계 재야선비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시망은 1606년(선조 39년)에 진사시에 입격, 1613년에 성균관 장의로 상소를 올려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의 심복으로 김제남의 처형을 주장하고 영창대군의 생모 김대비를 무고한 윤인(尹訥), 정조(鄭造), 이위경(李偉卿) 등의 목을 베기를 청하였다. 이로 인해 정시망은 유적(儒

籍)에서 삭제당하고 대북과가 정권을 잡은 광해군대에 정계에서 소외되었다. 정시망이 대북과의 강압정책을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정운영의 선계는 대대로 당론이 소북에 속하게 되었다.

7대조 정창주(鄭昌胄, 1606~1664)는 진사시를 거쳐 1637년(인조 15년) 문과에 급제, 1642년(인조 20년) 사헌부 지평을 거쳐 사헌부, 시간원의 지제교와 연행사절의 서장관을 지냈다. 1646년(인조 24년)에는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접위관(接慰官)에 임명되었다. 1661년(현종 2년)에 전라감사 겸 전주부윤에 임명되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해주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노친 봉양을 위해 나가지 않고 은퇴하여 고향인 화성 남양에서 강호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생을 마쳤다. 그는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서인정권에 밀려 고관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뛰어난 학문과 문장을 인정받아 비록 당색이 다른 서인들이라도 모두 정창주에게 공경하며 복종했다고 한다. 북인 8문장가에 꼽힐 정도로 문장에 능했으며, 저서로는 『만주집(晩洲集)』이 전하고 있다.

6대조 정원상(鄭元祥, 1662~1717)은 통덕랑을 지냈다. 그는 1689년 장희빈 아들의 세자 책봉문제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 이후 은둔하며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5대조 정유(鄭維, 1691~1761)를 거쳐 정운영의 고조부 정우석(鄭禹錫, 1721~1800)은 1750년(영조 26년)에, 증조부 정득중(鄭得中, 1746~1800)은 1780년(정조 4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정득중은 경기도 이천의 유학자 이식(李栻)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조부 정인최(鄭寅最, 1768~1832)는 평안하고 조용히 지내며 글을 좋아하고 거상(居喪)을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으며, 양부 정현택(鄭鉉澤)과 생부 정현풍(鄭鉉豐)은 평범한 재야의 유학자였다.

이와 같이 정운영 가문은 조선시대 이래 남양지역에서 대대로 문필을 이어온 선비가문이며 생원, 진사와 문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한 명망 있는 양반가문이었다. 그러나 정시망의 대북과 탄핵활동 이후 정운영 가문의 당색은 소북으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정시망 사후 정운영 가문의 인사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에 상관없이 중앙정계로 진출할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다. 정운영의 7대조 정창주는 문장으로 명성이 높아 서인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으나 고관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였고, 6대조 정원상은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정원상이 벼슬길을 포기함에 따라 정운영 가문은 점차 중앙정계에서 멀어졌다. 고조부 정우석과 증조부 정득중은 진사에 입격하고 정득중은 문장으로 이름이 드러났으나 정운영의 조부 정인최와 양

부 정현택, 생부 정현풍은 사마시에 입격하지 못한 채 재야유림에 머물렀다. 즉 정윤영 기문은 대대로 문장을 이어온 명망 있는 소북계 양반가문이었으나 노론계 벌열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정권 하에서 점차 과거에 진출하지 못한 채 영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2) 과거를 접고 안빈낙도의 삶을 산 개결한 선비

정윤영은 1833년(순조 33) 12월 15일 화성유수부 어탄면 금곡리(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초계 정씨 정현풍(鄭鉉豐, 1805~1864), 모친은 진주 강씨 강시면(姜時冕)의 따님이다. 정윤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정신과 안색이 맑고 빼어나 어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자식이 없던 큰어머니 삭녕 최씨가 크게 기뻐하며 아들로 삼기를 위하여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큰아버지 정현택(1802~1818)에게 출계되었다.

정윤영은 생전에 학문 등의 이유로 때로는 처항을 쫓아, 때로는 스승을 쫓아 경기, 충청 양도의 각지를 옮겨 다니며 살았다. 21세까지 남양에서 살고, 그 후 12년 동안은 경기, 충청 각지를 돌았으며, 34세 이후 안성에 정착하여 30여 년을 거주하였다. 사후에는 모친을 모신 안성 후산의 선영에 임시로 장사지내고 이후 선조들의 선영이 있는 남양부 수산면 봉기동(현 화성시 송산면)으로 이장하였다.

정윤영은 태어나자마자 큰집으로 입양되어 양모 삭녕 최씨의 보살핌을 받았다. 7년 후에 최씨 부인이 돌아가자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비통하게 곡읍(哭泣)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고, 어른들을 따라 예법대로 양모의 장례를 치러냈다. 나중에 그는 최씨 부인이 자신을 친자식같이 어루만지며 길러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였다. 동시에 그는 적절할 정도로써 최씨 부인을 봉양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자신이 입신양명하여 최씨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였다.

1864년 9월 생부 정현풍이 중병에 걸려 사거하려 할 때 정윤영도 갑자기 기이한 질병에 걸려 오래 고생하다가 겨우 일어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병석에서 털고 일어나 부친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분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걱정스럽고 초조한 마음에서 30여 일 동안이나 의관을 풀지 않고 지냈다.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친이 돌아가자 법도에 맞게 장례를 지내고 청주 미야평 노고동에 안장하였다가 이후 남양

봉기동(현 송산면)으로 이장하였다.

1875년 1월 정윤영은 생모 진주 강씨가 돌아가자 통곡하며 기절했다가 겨우 깨어났다. 예서(禮書)를 가지고 몸소 모든 장례 절차를 점검하며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으며,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예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이쉬워하며 날씨가 어썩든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묘소에 나아가 절하였고, 묘소 앞에서는 반드시 무릎으로 기어서 나아가 무덤 앞에 구덩이가 생길 정도였다. 이로부터 정윤영은 모친이 안장된 안성의 '후산'을 따라 자신의 호를 후산(后山)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을 담아 자호를 삼은 것이다.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함에 있어 정윤영은 생부 정현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과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생 재야 유림으로 살다간 정현풍은 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그 중 ① 벼슬과 명리를 탐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안빈낙도의 자세, ② 재산을 향민과 친척 구호사업에 모두 내놓은 관계로 몹시 어려워진 가정경제, ③ 국가운영 방침으로서의 성리학적 경제대책 등은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정윤영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성리학적 경제대책을 지닌 재야유림으로 명망을 날린 데에는 부친의 정신적 유산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덕분이었다.

어려서 정윤영은 자질이 빼어나 다른 아이들과 달랐으며, 말을 배우자마자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이에 정현풍은 각별한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아들 정윤영을 가르쳤다. 정윤영은 6세 때 아버지의 품안에서 천자문을 배웠는데 한 자도 틀림없이 모두 암송하였고, 7세에는 증선지의 『십구사략』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후 대략 글의 뜻을 통할 정도로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이 무렵부터 정현풍은 선생 4~5인을 초빙하여 그들에게 의식(衣食)을 제공하며 아들의 공부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10여 년간의 노력에 힘입어 정윤영은 상당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 정윤영이 생전에 많은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학자로서의 뛰어난 자질과 부친 정현풍의 남다른 교육열에 의한 것이었다.

11세 때인 1843년(헌종 9)에 정윤영은 화성지역에서 널리 회자된 「화성 팔달산에 올라(登華城八達山)」란 시를 지었다. 당시 온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정현풍 부부는 아들을 화성에 사는 이모 최씨 댁으로 피신시켰다. 마침 늦봄을 맞아 정윤영은 이모댁의 어른들을 따라 화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산에 올라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정윤영의 시문가로서의 자질과 조속성을

여지없이 보여준 수작이었다.²¹⁾

푸른 산이 꽃기운을 빚어내니	靑山釀花氣
찌꼬리는 봄노래 불러대누나.	黃鳥習春聲
누각은 하늘에 닿을 듯 높게 솟았고	樓閣連天起
비람과 안개는 화성을 감싸고 있네.	風煙拂綺城

13세 때인 1845년(헌종 11년) 가을 정윤영은 화성의 백일장에 응시하여 장원을 차지하였다. 당시 화성유수가 백일장을 설행하고 “남산의 계수나무에 가을바람이 부네(南山之中 桂樹秋風)”란 시제를 냈다. 정윤영은 화성부 뜰에 들어가 직접 시권(試券)을 작성하여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제출하였다. 화성유수가 그것을 보고 어린 정윤영을 기특하게 여겨 제1등으로 뽑아주었다. 그리고 『사기영선(史記英選)』 3책 및 종지와 붓을 상품으로 주었다. 이는 정윤영의 문재가 한 마을을 벗어나 한 고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정윤영은 부친의 바람에 따라 과거공부에 매달리다 20대 무렵에 이르러 과거에 뜻을 접었다. 과거공부를 중단한 경위에 대해 정윤영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한(文翰)을 업으로 삼았다. 나도 어려서부터 대중들을 따라 과거 문체를 익혀 조금은 알게 되었으며 과거에 응시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 세상에 관직을 얻으려는 운동(奔競)이 크게 유행하여 지름길을 생각지도 않고 권력자와 인연도 없으면서 한갓 과거장에 나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였다. 나는 이런 현실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비록 벼슬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역시 그것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품지는 않았으며, 드디어 과거는 향촌의 가난한 유생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과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으며, 역시 나중에는 과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진실로 높은 견해와 원대한 학식이 있어서 과거공부를 달갑지

21) 『후산집』 권 1, 시(詩), 「등화성팔달산(登華城八達山)」.

않게 생각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위기(爲己) 공부에 뜻을 두면서부터 마침내 과거를 위한 공부는 포기하였다.²²⁾

정운영은 자신이 처음에는 대중들을 따라 과거를 위한 공부에 매달려 약간의 성취를 이루고 몇 년간 과거에 응시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벼슬을 얻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엽관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급기야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을 두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는 과거를 포기함에 따라 문장도 이전에는 미려한 문체에 심취하였으나 그것이 뜻을 상하게 하는 것을 알고는 다시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후 정운영은 재야에서 과거를 포기하고 도학(道學)을 공부하는 정통 주자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정운영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정통 도학을 추구함에 따라 현실적 경제생활에 상당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병으로 부인 의령 남씨가 사망하자 평생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문하는 남편을 관대하게 이해해준 부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묘지명을 지었다. 또한 그의 아들 정수용은 부친 사후 지은 「가장(家狀)」에서 정운영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했으며, 가난 속에서도 권력자들을 추종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켰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1898년 봄, 정운영은 점차 기력이 쇠퇴감을 느끼고 자신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서전 「후산거사전(后山居士傳)」을 지었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의 평생 모습을 ① 향촌사회에서의 사회적 위치, ② 이이와 송시열에 대한 사모, ③ 조용히 지내며 독서에 심취하여 세상사에 부합하지 못하는 처지, ④ 어진 이를 좋아하고 악한 이를 미워하는 준엄함, ⑤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스승을 찾아가 도학을 추구한 경위, ⑥ 경제형편이 곤란하여 대단히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안빈낙도의 자세를 유지한 일상생활, ⑦ 술을 좋아하나 과음하지 않는 음주자세 등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이 글의 마지막에서 그는 “상스러운 말은 입 밖에 낸 적이 없고 경전과 역사서는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궁(窮)하다고 하여 근심하지 않았고 통(通)하기 위해 골몰하지 않았다. 좋은 경치를 마음에 새겨두고, 구기자와 국화를 벗하며 지냈네. 삶에 순응하고 죽음을 편

22) 『후산집』 권 1, 시(詩), 「등화성팔달산(登華城八達山)」.

안히 여기니, 또 무엇을 근심하고 슬퍼하랴”는 구절로 자신의 일생을 요약하였다. 이 자서전에는 명리와 이욕을 끊고 극도의 빈궁함에도 변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과 신체를 유지하며 일생을 살아간 정윤영의 개결한 선비로서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정윤영은 이 자서전을 지은 직후 1898년 5월 66세의 나이로 사거하였다. 죽음을 며칠 앞둔 병석에서 그는 자손들에게 “빈궁하더라도 불의(不義)한 짓은 하지 말아라. 힘을 다하여 의리를 지키고 빈궁하더라도 의리를 잃지 말아라”, “내가 평생에 어떤 불의한 짓도 하지 않았다. 지금 내 마음은 호연(浩然)하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조상을 정성으로 받들고, 자식들을 의리로 가르치고,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임금에게 충심을 다하고, 집에서는 위엄을 유지하고, 집안을 관대함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문에 전수할 묘법이다”, “사군자(士君子)가 학문할 때에는 반드시 선정(先正)이 추구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 방식이 바르지 못하면 만사가 모두 그르쳐진다”는 등의 당부를 남겼다. 이 유언에는 그가 평생 지녀온 삶의 철학과 실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6. 정윤영의 학문과 실천

1) 당색을 넘어 스승을 택한 정윤영

정윤영은 21세 때인 1853년(철종 4년) 고향을 떠나 충남 천안으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을 옮겨 다녔다. 그러다가 39세 때인 1871년(고종 8년)에 경기도 안성군으로 이주하여 66세에 별세할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 그 과정에서 정윤영은 평생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그가 평생 교류한 인사들은 안성지역의 시회(詩會) 동인들, 그리고 과거에 뜻을 접은 뒤 도학을 추구하며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할 때에 교류한 임헌晦(任憲晦, 1811~1876)의 고산학파(鼓山學派) 유림들과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화서학파(華西學派) 유림들이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윤영의 인생과 학문은 많은 변모를 겪게 된다. 첫째, 과거를 위한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도학(道學)을 추구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 공부에 잠심하게 되었다.

둘째, 서양의 종교, 사상과 문물을 물리치고 동양의 유교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위정적 사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셋째, 소북계 명문가의 후예인 정윤영이 자기와 당색이 다른 고산 학파 및 화서학과 인사들과 교류함으로써 점차 당색을 타파할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었다. 넷째, 개화기 조선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조정의 인정을 받는 산림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맞았다.

정윤영은 37세 때인 1869년(고종 6년) 가을에 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노론계 재야산림 임헌회가 남방에서 도를 강론한다는 말을 듣고 가르침을 청하는 서한과 예물을 갖추어 공주의 명강산으로 찾아갔다. 그는 임헌회를 만나 제자의 예를 올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는 요체를 물은 다음 자신이 귀의할 곳으로 삼았다. 임헌회는 정윤영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석화(石華)라는 재호(齋號)를 직접 써서 내려주었다. 이는 석담(石潭) 이이(李珥)와 화양(華陽) 송시열(宋時烈)의 의리를 사모하여 따온 것으로서 철저히 기호의 정통학통을 계승하라는 의미로 지어준 것이다. 또한 임헌회는 자신이 스승 매산 홍직필(洪直弼, 1776~1852)에게 전해 받은 말이라고 하면서 “사업은 효종의 대의를 주로 하고 학문은 주자를 법으로 삼으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정윤영에게 주었다. 정윤영은 임헌회의 가르침에 평생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타개하기 3년 전인 1895년 4월, 63세 때에 스승에게서 받은 편지를 모아 엮어 도합 3책의 편지첩을 만들었다. 그 편지첩의 말미에 붙인 글에서 정윤영은 “나에 대한 극진한 가르침, 원대한 기대감, 남다른 사랑이 찬란히 편지글 사이에 넘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극한 사모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아, 선생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년인데, 내 나이가 올해 이미 63세이다. 선생을 본보기로 삼은 날이 멀어질수록 나날이 선생을 잊어가면서 나의 학문도 나날이 황폐해져갔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세우고 행실을 닦아 혹여 큰 사고에 이르지 않은 것은 선생이 지하에서 살펴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임헌회의 가르침과 평생의 보살핌이 자신을 올바른 유학자의 길로 인도했음을 깊이 감사하였다.

2) 척사론의 전개와 상소 운동

39세 때인 1871년(고종 8) 정윤영은 안성의 후산으로 이주한 뒤 유시수, 홍대심 등 화서학과

유림들과 각별한 교류를 통해 위정척사사상을 전수 받고, 이항로의 제자인 김평묵, 유중교를 비롯한 화서학과 인사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렇게 형성, 발전된 그의 척사사상은 구한말 개화반대상소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 정운영을 상소 운동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생애 후반기 사상과 실천에 있어 정운영의 행보는 크게 귀양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신사척사운동 때 경기 유림을 대표하여 상소문을 작성한 정운영은 척사사상의 배후로 지목되어 1881년 8월 유배형에 처하게 된다. 이후 함경도에서 1년 6개월 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한편으로는 현실 불참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시국마다 시사를 개탄하는 글을 지어 발표함으로써 저술을 통한 간접적 현실참여의 길을 걷게 된다.

개화반대 상소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 정운영은 당시 혼란한 현실을 피하여 초야에 머물며 저술을 통해 자신의 척사론을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이 때 쓰여진 시와 논설 등에는 한편으로는 어지러운 현실을 벗어나 청정한 곳에 머물고자 했던 의도와, 다른 편으로는 학문을 통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교화하고자 했던 그의 사명 의식이 동시에 담겨 있다. 아래의 시는 일본과 서양의 침투에 맞서 자신이 지닌 학문을 비탕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인민을 교화해야 한다는 정운영의 사명감을 잘 드러낸다.

〈백성〉

〈民〉²³⁾

자신의 한 몸을 받들기 위해	莫以一身奉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는 말이라.	須令百姓嘔
백성들의 아픔이 그리도 많은데	同胞多癘疾
어찌하여 냉담하게 바라보는가?	何忍視瘠秦
나는 단약(丹藥) 한 알을 갖고 있으니	我有丹一片
이를 주어 백성들을 장수케 하리라.	持贈欲壽民

23) 『후산집』 권 1, 시, 「근차동래선생시민여상운증진위사군이치경승우(謹次東萊先生視民如傷韻贈振威使君李稚敬勝宇)」 중 2수 〈민(民)〉.

모든 일에는 大體를 힘써야 하니

凡事務大體

자질구레한 일을 가까이 말라.

瑣細不須親

1879년, 혼란한 시기에 '청정한 곳으로 이주하여 대도(大道)를 보존한다'고 한 『논어』의 '거지 자정(去之自靖)'의 행동방안에 따라 정윤영은 안성의 동양(洞陽)으로 이주하였다. 동양에 머물면서 이듬해인 1880년, 그는 시사를 개탄하며 지은 최초의 문답식 논설인 「동양에서의 대책(洞陽對)」이라는 글을 지었다. 이 글에서 그는 조선정부가 이미 일본과 강화를 결정하여 그것을 국시로 삼으니, 이로 인해 유교의 대도(大道)가 소멸되고 세도(世道)를 만회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깊이 한탄하였다. 이에 그는 이치에 근거하여 의리와 이해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따져 가며 문답식으로 글을 지었다.

이처럼 한편으론 자정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편으론 서양세력의 침투 속에서 유교문화를 보존할 방도를 강구하며 초야에 묻혀 척사사상을 구축해가던 정윤영이 자신의 척사론을 본격적으로 개진하며 상소운동에 가담한 것은, 『조선책략』 유포로 개화반대 상소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1881년이였다. 1880년 5월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은 고종에게 『조선책략』을 올렸고, 조선정부는 개화에 도움이 되는 서책이라 하여 이를 복사하여 중외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에 1880년 늦가을부터 1881년 여름까지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상경하여 서양 근대문물과 사상을 배격하고 동양의 유교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상소하며 위정척사운동을 줄기차게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정윤영은 경기유림을 대표하여 상소문을 지음으로써 경기지역 척사운동에 있어 실질적인 주도자 역할을 하였다. 경기유림들은 1881년 4월과 6월 두 차례의 상소를 올렸는데 1차 상소 때는 정윤영이 '척사만인소(斥邪萬人疏)'를 전담하여 작성하였고, 2차 상소 때는 상소문의 가필과 운색을 담당하였다. 1881년 4월에 올린 제1차 상소문에서 정윤영은 자신의 척사론과 사회인식을 가감 없이 그대로 피력하였다. 그는 '이적을 물리치고 사설(邪說)을 억제하고 유교를 영세토록 지지하고 임금을 허물 없는 정치로 이끄는 것이 유학자의 올바른 의리라는 의미에서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라도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짐승이나 다름없는 외국인들의 발자국이 나라 안에 어지럽게 나있고 조선의 예의와 명교(名教)가 모두 썩어버린 상황이라면 어진 사람들과 지사들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

고 한탄하며 크게 부르짖어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기본입장을 피력한 뒤 그는 자신의 척사론을 조목조목 개진하였다.

그는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조선은 상달(上達)에 힘쓴 것이며 서양 기계의 정밀하고 예리한 하달(下達)에 힘쓴 결과이니, 서양 기계의 우수성만을 따르게 되면 금수가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강화설이 가져올 폐단으로서 ①증화와 이적의 관계를 문란시키고, ②조종(祖宗)의 가법을 붕괴시키고, ③국가의 기강을 붕괴시키고, ④백성들의 충의심을 무너뜨리고, ⑤하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⑥타일의 화란을 잉태할 것을 들었다. 따라서 그는 왜와 강화하는 것은 결국 서양과 강화하는 것이요, 서양과 강화하는 것은 곧 견양(犬羊)의 무리와 같아지는 것이므로 강화설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881년 5월 9일 고종은 각도의 상소책임자를 연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상소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6월 15일에 전국에 척사윤음(斥邪諭音)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척사윤음 반포 후에도 척사운동은 종식되지 않고 격화되었다. 당시 경기유림들은 신섭을 상소대표로 삼아 다시 제2차 척사상소를 올렸는데, 정윤영은 신섭의 간청에 따라 그의 상소문을 가필하고 윤색하는 역할을 맡아주었다. 2차 상소문에서 정윤영은 1차 상소 때보다 훨씬 강도 높고 세세하게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의를 피력하였다. 상소문에서 주장한 그의 견해는 왜양일원론(倭洋一源論), 서양과의 부등가무역(不等價貿易)의 폐해, 개항기 자연재해의 원인, 일본공시관 이전 반대, 조선책략에 대한 비판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소운동에 대한 고종정부의 대응은 강경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대표 홍재학과 경기도 대표 신섭이 연행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고종은 1881년 윤 7월 20일 홍재학에게 범상불도죄(犯上不道罪)를 적용하여 즉각 참형에 처하고 그 가산을 적몰케 하였다. 척사상소 관련자들에 대해 고종정부가 강경한 탄압책을 펼치자 1881년 8월 1일에 상소유림들이 다시 모여 척사상소를 모의하려 하였다. 이에 고종은 형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이를 엄히 금하고 유림들을 교외로 쫓아내도록 하였다. 8월 21일에 형조는 안성 사람 정윤영을 “경향(京鄕)에 출몰하여 흑세무민(惑世誣民)한다”는 죄로 엄형을 가한 후에 함경도 이원현에 징배, 압송하였다. 이처럼 정윤영은 1881년 봄부터 여름까지 치열하게 벌어진 척사상소 운동에서 경기유림을 대표하여 상소문을 기초하고 가필, 윤색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귀양형을 받게 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갑오경장 이전까지 정윤영은 관직에 응하지 않고, 현실의 정치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지 않으며, 향촌에 은거하여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면서 자정론과 현실불참여론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 그는 정치와 시사문제에 적극 관여하지 않는 대신 향촌에 틀어박혀 묵묵히 『화동연표(華東年表)』와 『위방집략(爲邦輯略)』을 저술함으로써 성리학자이자 척사사상가로서 자신의 역사관과 경세론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그는 1894년 친일개화파의 제도개혁 반대 상소를 시작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비판하는 시를 짓고, 1895년 1월에는 복제개혁 반대 상소를 올렸다.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기(事實記)」를, 같은 해 11월 단발령이 반포되자 「자정명(自靖銘)」을 지었으며, 단발령 반포 후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기리는 연작시를 발표하거나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인석의 전기를 짓는 등, 중요한 시국의 고비마다 상소나 저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문벌·당론·지역을 타파한 정윤영의 시무개혁론

한편, 정윤영은 19세기 후반 고종에게 올리기 위해 「만언봉사(萬言封事)」라는 22개조의 시무개혁론을 지었다. 이 글은 결국 고종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으나, 정윤영의 성리학적 개혁론을 가장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로 당시 유학자로서는 희유의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핵심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 정윤영은 우리나라의 인재 선발이 세벌(世閥), 색목(色目), 강역(疆域)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자식이 반드시 아버지와 같지 않고, 손자가 반드시 할아버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진 임금은 사람을 벼슬에 임명할 때 세벌로서 하지 않았다고 하며 귀천을 따지지 않고 오직 현우(賢愚)만 살피는 것이 중국의 이상 시대인 하은주 3대의 용인(用人)하는 바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귀천은 명(名)이요, 현불초(賢不肖)는 실(實)이라고 하면서 씨족으로 선비를 취하면 재야에는 유현(遺賢)이 있게 되고 세권(勢權)으로 관리를 임명하면 초야에 일재(逸才)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인재 등용에 있어 서열의 엄격한 구별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미천한 자도 구애하지 않아야 하는데 허물며 서얼이라는 이유로 벼슬길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이미 조광조, 이이, 송시열 등에 의해 제시된 인재 등용론이기는 하지만 19세기 보수유림의 한 사람으로는 당시 매우 진보적인 견해로 평가된다.

그는 또한 세벌뿐 아니라 당론이나 지역색에 의한 인재 등용의 차별도 강하게 비판하며 문벌, 당론, 지역을 떠나 널리 인재를 발탁하여 쓸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정윤영의 견해는 동시대 대부분의 보수유림이 당파성과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며 의미 있는 대목이다.

4) ‘척사사상’을 넘어

언제인가 19세기를 살다 간 사람들을 ‘답장 위를 걷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에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던 당대 인들을 묘사한 말이다. 이는 지식인과 민초를 막론하고 19세기를 산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표현일 것이다. 정윤영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주의와 근대 문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19세기에, 척사사상가로서 경기 유생을 대표하여 개화반대 상소운동을 벌이다 함경도 이원현에 유배되기까지 했다. 정윤영이 귀양살이까지 무릅쓰며 끝내 주장했던 척사론의 핵심은 구한말 조선사회에 대한 우환의식, 바로 ‘구국(救國)’에 있었다. 그러나 물질문명이 세상을 지배하면 대도(大道)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정윤영도 순식간에 만 리 길을 달려가는 화륜선을 목도한 순간, 서양 문물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그가 받은 문화적 충격과 근심은 다음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화륜선〉

〈火輪船〉²⁴⁾

화륜선은 흡사 현원이 만든 배와 같아	火輪迴似軒轅舟
잠깐 사이에 만리를 달려가네	晷刻經過萬里流
천하가 대세를 따라 공법을 믿으니	天下從風信公法
어디에도 춘추 읽을 곳 없다네	域中無地讀春秋
그 어떤 군자가 원학이 될 수 있겠는가	其何君子爲猿鶴
만드시 이웃나라의 우마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네	未必隣邦及馬牛
근래에 쓸쓸히 음우에 대비하니	近日寥寥陰雨備
이 내몸 칠실 과부의 근심 견딜 수 없다네	書生爭耐漆髮憂

그는 서양과 동양이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면 오히려 동양의 사상과 문화가 서양으로 밀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확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는 “오늘날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선박이 중국에 왕래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그들과 기술이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그들과 교통한 후에는 그들의 서적을 번역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서양인들도 이미 중국의 서책을 이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동양의 유학이 서양으로 전해질 날이 머지않았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글이란 도(道)를 신는 그릇이라는 전통적인 서론(書論)과 동양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거 직전 정운영도 결국 서양 제국주의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관 역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서거하기 1년 전에 정운영은 중국, 조선 및 해외의 현황과 기수(氣數)를 논급한 국제관계 문제에 대한 짙막한 글을 지었다. 그는 “천지가 생겨난 이래 극남(極南)과 극북(極北)의 풍기는 열리는 것이 앞서고 뒤지는 현상이 존재했으며, 인간과 만물의 탄생도 역시 그에 따라 선후의 차이가 나게 되었지만, 지리상으로 동양과 서양은 일월(日月)이 운행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 시대가 흐르면 풍기가 넓게 열리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구역이 서

24) 『후산집』 권 2, 시, 「화륜선(火輪船)」.

로 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구라과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동양과 수레와 서책을 교환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인들이 구라과를 세상 밖의 나라로 두고 별도로 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서양의 선박이 두루 왕래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군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 나름의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정윤영이 국제 간 교류가 증대하는 변화된 사회상을 목도하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서양 제국주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구라과와 미국 등의 나라와 왕래하지 않고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았을 때에는 치지도외(置之度外)하고 논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 화륜선이 사방을 통행하여 왕래를 이웃처럼 하는 현실을 군자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정윤영은 서양이 지리상 발견으로 알아낸 신대륙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글에서 자세히 소개할 정도로 변화된 면모를 보였다. 그는 “지구에는 아세아·구라과·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등 5주가 있다. 아세아는 적도의 북쪽에 있으니 사방이 수만리로서 조선·중국·일본·태국·미얀마 등이다. 구라과는 아시아의 서북쪽에 있는데 사방이 만여 리로서 러시아·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오스트리아 등이다. 아프리카는 적도에 있는데, 기후가 혹독히 더우며 구라과보다 두 배의 넓이다. 북아메리카는 구라과 서쪽, 적도의 북쪽에 있는데 아세아보다는 작다. 영국에 속해 있었는데, 100년 전에 워싱턴이 영국과 전쟁을 일으켜 독립국을 세워 30여 국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합중국이라고 부른다. 남아메리카는 적도의 남쪽에 있는데 아세아·구라과·북아메리카에 비해 계절과 기온이 상반된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아시아 남쪽의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사방이 수천 리이다”고 하였다.

정윤영은 지구상 5대주에 대해 나름대로 정확한 지리적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사상적 지주인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벗어던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중국 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보수 유럽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화륜선과 서양 문물의 위력 앞에 지구 5대주를 소개하고 변화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호소할 만큼 정윤영은 자신의 세계관을 변혁하고 이를 백성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한평생 치열하게 전개했던 개화반대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이처럼 시대와 호흡하며 척사 사상을 넘어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참고문헌>

『정조실록』

『홍재전서』

『후산집』

김영진 외, 『이옥 문학 세계의 종합적 고찰』, 화성시, 2012.

설흔,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 창비, 2011.

오영섭·김자운, 『구국의 마지막 제언: 후산 정윤영의 학문과 실천』, 화성시, 2010.

이옥 저, 『완역 이옥 전집』, 휴머니스트, 2009.

정용수 역주, 『봉성에서』, 국학자료원, 2001.

채운,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옥을 읽는다』, 북드라망, 2013.

선조들의 삶이 녹아 있는 전통가옥

김지석 (인양시청 전문위원)

1. 들어가며

화성시 서신면은 서쪽으로 바다와 접한 임해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북쪽으로 안산 대부도가 있으며 내륙인 동쪽으로는 송산면과 마도면이 있고 남쪽은 화성호가 감싸며 서쪽으로는 제부도와 마주보고 있다. 서신면의 주요 전통가옥 중 흥헌, 정용채, 정용래 가옥은 임해 지역에 위치한 가옥이다. 따라서 자연지리적 영향이 내륙에 비하여 두드러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서신면에 접한 서해안은 19세기 서해안 대부도 옆 풍도에서 시작된 1894년 6월의 이른바 청일전쟁이 시작된 청군과 일본군의 결전장이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 서해안은 러일전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변이 이어진다. 따라서 시대의 풍랑 속에 당시 가옥이 지닌 불안한 시대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 전통가옥이 지닌 유교적 질서와, 우리 건축에 담긴 자연애와 인간적 심성의 표현 또한 고스란히 반영된 가옥들이다.

전통가옥 중 흥헌 가옥은 서신면의 북쪽인 전곡리에 위치하며 전곡항과 인접하고 있다. 반면 정용채, 정용래 가옥은 서신면의 남쪽인 궁평리에 위치하며 궁평항이 인접하고 있다. 세 채의 가옥은 전통 세거지에 기반한 집성촌 대동사회의 가옥으로 반가와 부농의 가옥이며 동시에 바닷가와 인접한 경제체제 그리고 집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18세기 이후의 사회질서 등이 시간의 율동 속에 반영된 가옥이다.

2. 흥헌 가옥

- 소재지 : 서신면 전곡리 은쟁이길 945
- 건축 시기 : 1870년
- 규모 · 형태 : 안채 13칸 ‘ㄱ’자, 사랑채 8.5칸 ‘ㄱ’자, 문간채 8.5칸, ‘-’자형
- 가구 짜임 : 안채 1고주 5량, 사랑채 평사량, 문간채 3량
- 지붕 형태 : 안채 팔작(현재 일식기와), 사랑채 초가(현재 함석 팔작),
행랑채 초가(현재 함석 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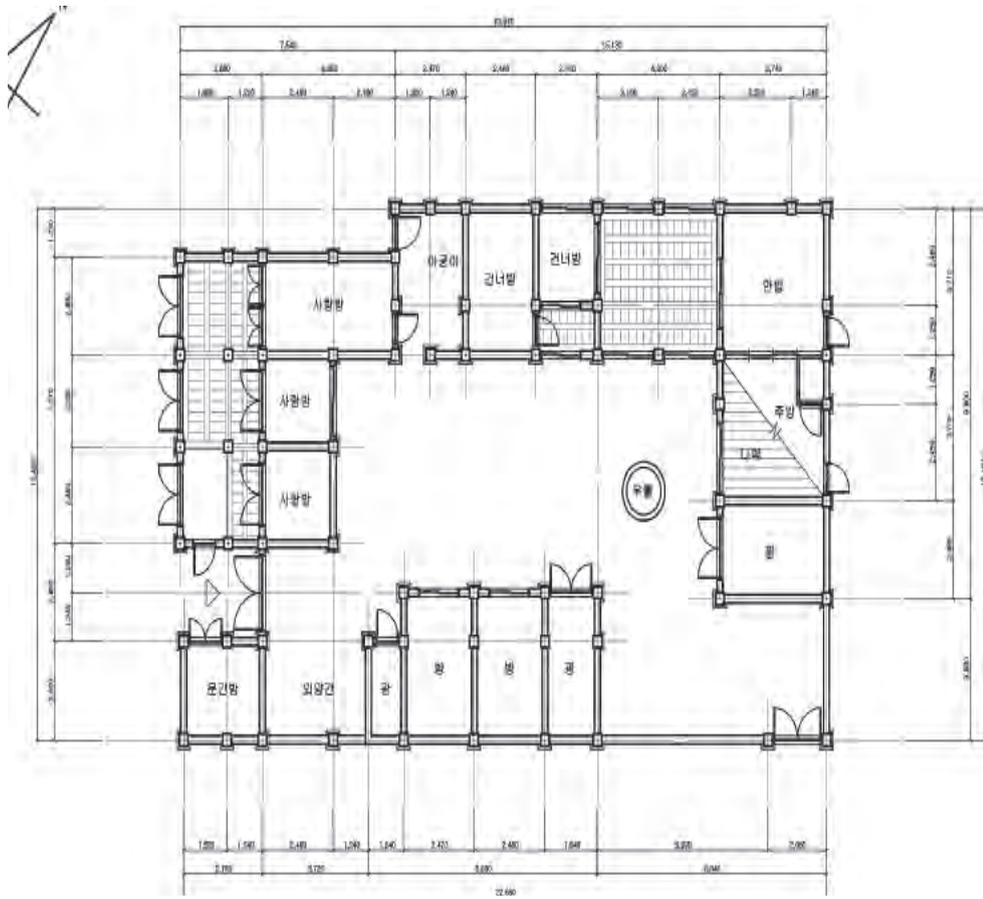
전곡리는 남양 홍씨의 집성촌이며 세거지로 흥헌 생가는 1870년에 처음 지어져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전통가옥이다. 지금은 홍완유(31년생) 씨가 소유자로 집은 마을 전체를 조망하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 집의 진입로 왼쪽 선산에는 산자락을 따라 낮은 둔덕에 수령 100년을 자랑하는 둘레 3.5m의 외벚꽃이 흐드러지게 붉은 꽃잎을 날리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홍완유 씨에 의하면 선친인 흥헌 선생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농에 덕망 있는 선비로 알려진 분이였다. 1919년 화성 전역의 3.1만세운동으로 일본군의 보복이 시작되어 전곡리 주변 마을의 양민 학살과 180여 가옥이 방화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 본인 소유의 산을 개방하여 건축용 목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였다. 이듬해 흥헌 선생이 운명하자 주민들은 고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은주전자와 은잔을 마련하여 조의문과 함께 헌작하였고 1977년에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전곡리 흥씨 문중산에 세웠다고 한다. 홍완유 씨는 의대를 졸업하여 오랜 기간 외과전문의의를 하였고 지금은 서신중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은 남동향으로 선산의 목재를 가져와 화성의 이름있는 목수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홍살이 있는 대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서면 안채는 대청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안방과 부엌, 우측으로 건너방이 있고 바깥마당 전면에 위치한 사랑채는 4칸의 사랑방과 4.5칸의 사랑마루가 있는 규모를 지니고 있다. 마루 전면으로 여닫이 문을 달아 개방성과 폐쇄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기능을 강조한 공간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채 전면으로는 곳간과 방이 함께 있는

행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신축 시 안채는 기와이며 사랑채와 행랑채는 초가로, 이는 19세기 말 서해안이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불안하던 시기에 외부에서 조망되는 집의 격을 낮추므로 집과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채의 격식은 안채는 겹처마의 일고주오량에 잘디듬은 방형의 초석과 각주기둥을 사용하였고 사랑채와 행랑채는 평사량 또는 삼량에 자연 석 주초석을 사용하였다. 집의 구조와 짜임에서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870년에 건축되었으며 이후 사랑채와 행랑채가 추가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사랑채의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이후 1972년 새마을운동 시기에는 지붕 교체와 콘크리트 포장, 대청의 미서기문 덧달기 그리고 2002년경 새로운 지붕 보수 등을 거치게 된다.

전체적으로 튼 미음자 형태이며 간살이는 안채의 경우 2,150mm이나 문간채와 사랑채는 2,480mm로 안채가 완공된 이후 사랑채와 문간채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의 경우 가구짜임에서 부드럽게 모접기를 한 들보와 종보 위로 판대공을 사용하였고 귀처마에는 알추너를 사용하였다. 딱지소로등의 수장재를 활용한 기법을 보여주는데 이는 19세기 이후 장식화되는 건축 수장재의 특성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이다. 흥헌 가옥의 특성 중 사랑채는 눈여겨 볼만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랑채가 처음 지어진 19세기 말에는 전면으로 1,200mm의 퇴칸에서 이후 1,680mm를 추가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흥완유 씨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국전쟁 이후 사랑채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에 기반한 생산경제의 소득증가와 가족 구성원의 세대별 방물림의 변화, 이로 인한 사랑채 공간의 확대 필요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 해 쌀 8~9백 석의 수확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생산된 쌀은 서해안 뱃길을 이용하여 안산과 인천 등지에 팔았는데 부의 축적은 집의 공간 확대와 맞물려 볼 수 있으며 집 뒤로 60~70년대에 지어져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쌀 저장창고는 이러한 시기적 상황과 맞물리는 부분이라 하겠다.

흥헌 가옥은 19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건축 변화 과정이 매우 잘 남아 있는 가옥이라 할 수 있다. 집의 변화는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과 사회성, 경제 관계 등이 함께 반영되며 변화하는데 흥헌 가옥의 경우 경제적 뒷받침에 따른 사랑채 공간의 확대는 가족의 증가와 경제적 축적이 혼합된 살림의 확대이다. 이와 함께 뱃길을 이용한 교역과 부의 축적은 자연지리적 환경과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흥헌 가옥 배치도



■ 가옥 전경



■ 사랑채



■ 사랑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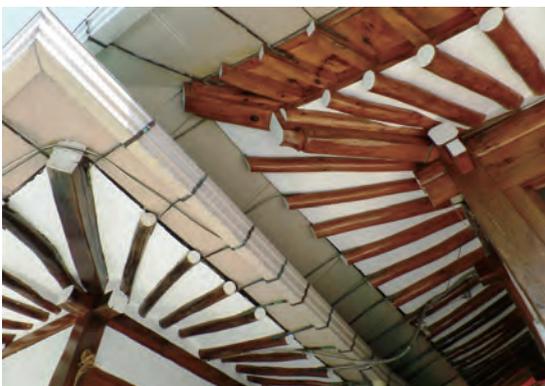
■ 안채 전경



■ 안채 들보와 도리



■ 사랑채 전경



■ 안채와 사랑채 추녀



■ 외벚꽃 나무

3. 정용채 가옥

- 소재지 : 오얏리길 44-12(서신면 궁평리 109)
- 건축 시기 : 안채 1887년 이전, 사랑채 1887년
- 규모·형태 : 안채 18.5칸 ‘ㄷ’자, 사랑채 9칸 ‘一’자, 행랑채 18칸, ‘ㄴ’자형
- 가구 짜임 : 안채 1고주 5량, 사랑채 1고주 5량가
- 지붕 형태 : 안채 맞배기와지붕, 사랑채 팔작기와지붕

중요민속문화재 124호로 지정된 정용채 가옥은 동향집으로 멀리 논과 남양만의 바다를 바라보며 낮은 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 궁평리는 초계 정씨 세거지로 정용채 가옥 아래에는 정용래 가옥이 위치하고 있다. 궁평리는 고려 초부터 궁(宮,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이 많아 ‘궁들’이라 불렸으며 인접한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넓어 바지락, 맛굴 등 해산물이 풍부한 어촌 마을이다. 집 자리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지로 대지의 여건상 골목 진입로인 북쪽으로 대문을 두고 남쪽을 따라 건물이 앉아 있다. 마을 골목에서 집 골목을 따라 대문 앞에 도착하면 바깥마당, 사랑마당 그리고 안마당을 거쳐 우물마당으로 연결되어 이어져 꺾이며 집 뒤로 길게 뒤란이 있다. 따라서 집은 평면상으로 남쪽의 안채와 북쪽의 사랑채, 안채와 사랑채 전면으로 행랑채가 길게 늘어서 ‘ㄷ’자와 ‘ㄴ’자가 합쳐진 ‘日’자이지만 안채의 윗방 남쪽으로 붙은 방과 행랑채 남쪽의 광이 꼬리처럼 붙어 전체적으로 ‘月’자의 형태를 보여준다.

숫을대문에는 1887년(고종 24)의 묵서명이 있어 사랑채의 건축시기를 알 수 있으나 안채는 약 50년 정도 앞서 지었다고 하므로 처음 지어진 시기는 19세기 초이며 이후에 사랑채가 추가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풍수적으로 정용채 가옥을 마주보는 안산이 나락을 쌓아둔 노적거리봉으로 누대에 걸쳐 재복을 누린다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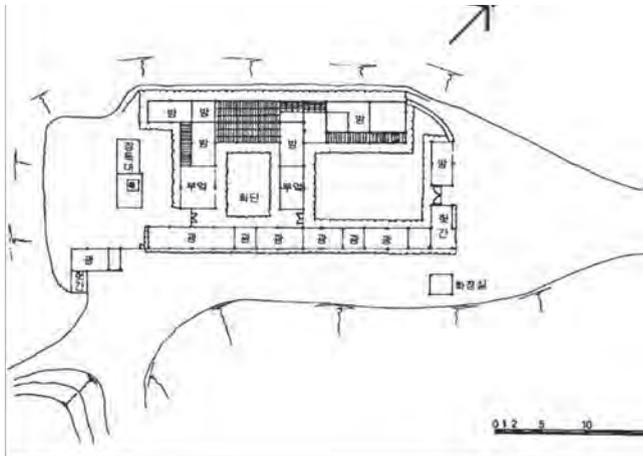
집의 간살이는 8자 2,400mm의 기준척이 잘 적용되어 매우 계획적으로 조성된 가옥임을 보여준다. 이는 집주인의 성격이 반영된 탓도 있으나 농업에 기반한 부를 바탕으로 재력이 건축

에 적용된 것으로 공간 활용과 부채 사용에 있어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안채의 경우 넓은 대청을 두고 좌우로 건넌방과 안방이 있으나 부엌을 각각 두어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들보는 모접기를 많이 하여 원형에 가까우며 대공 역시 판대공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오목하게 곡재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반면 기둥은 쇠시리가 들어간 각재에 초석은 사다리꼴의 방형재를 사용하였다. 창호는 연귀맞춤으로 외부는 격자살인 반면 내부는 ㄷ자이며 대청에는 불발기 창이 설치되었다. 여단이장은 개방할 경우 창과 벽 끝의 분할 비례를 1:1로 맞춤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적 안정감과 통일된 미감을 보여준다. 또한 높지막한 기단위의 사랑채는 각기둥과 방형초석을 사용하였으며 댓돌은 면이 높고 긴 쪽을 마당으로 향하게 하여 남성 공간의 위상과 격을 느끼게끔 하고 있다. 전퇴 널마루에는 기둥 하부에 연귀맞춤으로 설치한 낮은 난간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대문에서 사랑마당으로 진입할 때 사랑채 내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연귀의 치목이 매끄럽고 세련되어 목재의 부드러운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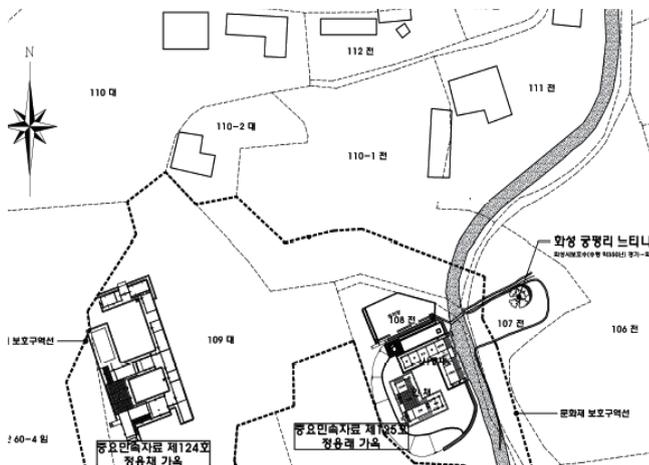
전체적인 공간의 동선 구성을 보면 50여 칸의 넓은 집은 마을 입구에서 바라보면 둔덕 위의 긴 행랑채가 마치 집의 내부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긴 담장과도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외부에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사랑채 공간은 바깥마당과 연결되어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정을 구분하는 안채문을 지나서 만나는 안마당은 대청과 안방, 부엌을 끼며 사용의 극대화를 주고 있다. 반면 우물마당은 여성 중심의 생활 공간이자 사적 공간의 활용이 어우러지며 이는 뒤란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접점으로 연결된다. 사랑채 역시 뒤란 쪽으로 안채와 연결되는 통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공간의 질서를 지키면서 내외를 연결하는 은밀한 사적 공간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용채 가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으로 진입하는 북쪽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의 공간이라 할 수 있고, 남쪽은 안채를 중심으로 하는 살림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안채 부엌 옆으로 있는 우물과 장독대 등은 여성 중심의 공간이며 살림 공간으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내외를 구분하는 공간 구성으로 안마당을 구분하는 안채 중문이 있어 공간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남녀의 구분을 공간의 사회성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남녀유별의 유가적 성격을 잘 나타내는데 여기서 안채 중문은 안마당의 여성 공간과 바깥마당을 열 어주고 닫아주는 차단과 연결의 접점이며 상징하는 공간의 구획선이라 할 것이다.

또한 행랑채는 안채와 사랑채의 앞을 가로막아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집을 보호하는 역할과 내부적으로 곡식을 저장하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공간이 지닌 위아래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용채 가옥의 전체적인 특성은 주변환경과 조화된 전통가옥의 터잡이와 간잡이, 전형적인 유가적 반가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집이 건축되던 시기, 즉 19세기의 서해안 상황과 맞물리는 사회 여건을 고려한 특성이 반영된 집으로 추정되며 전국리의 흥헌 가옥처럼 지역과 시대성이 어우러진 가옥이라 하겠다.



■ 정용채 가옥 배치도



■ 정용채 가옥 배치도



■ 가옥 전경



■ 안채 가구 짜임



■ 안채 전경



■ 사랑채 전경



■ 안채 연결 복도



■ 안채 중문

4. 정용래 가옥

- 소재지 : 서신면 오얏리길 56(서신면 궁평리 108)
- 건축 시기 : 1899년
- 규모 · 형태 : 안채 9칸 'ㄱ'자, 사랑채 10.75칸, 'ㄱ'자형
- 가구 짜임 : 안채 5량, 사랑채 3량
- 지붕 형태 : 안채 우진각 초가지붕, 사랑채 우진각 초가지붕

정용래 가옥의 아래에 있는 초가지붕으로 중요민속자료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향집이며 안채 상량은 “대한광무3년기해2월24입주상량택주정유생경좌갑향”으로 1899년에 신축되었고 현재 가옥은 신축 당시보다 부분적으로 변형되어 있다. 집 앞으로 남양반과 함께 논과 밭이 바라다 보이고 마을길과 접해 있다. 마을 안길이 집의 대문 앞에서 너른 마당을 만들었고 마당에는 약 350년 이상 된 느티나무와 연자방아의 연자매 아랫돌인 암돌이 있다. 그리고 집의 우측인 남쪽으로 약간의 공터가 있다. 집 앞의 마당이 정용래 가옥의 마당이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안길에 접하여 사방이 트여 있고 개방감 있게 깎여지는 공간적 특성과 느티나무 그리고 연자방아가 있던 것으로 보아 마당은 마을의 정보교류 공간이며 동시에 연자방아가 있어 마을 공동의 방앗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용래 가옥의 우측 공간은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짐작된다. 집의 간살이는 8자 2,400mm를 기준으로 평면은 'ㄱ'자형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와 행랑채로 구성된 전형적인 경기도의 'ㄷ'자형이다. 집을 감싸는 담장은 현재 벗집을 올려놓은 돌흙벽이지만 처음에는 싸리울이었다. 홍살이 있는 대문을 지나 안마당에 들어서면 안채는 자연석을 이용한 주춧돌 위로 건설한 각주기둥에 모를 처낸 들보를 사용하였고 종보 위로 판대공이 놓여져 있다. 대문에 들어서면 왼쪽에 큰 사랑채가 있고 오른쪽 서쪽으로 작은 사랑방에 딸린 행랑채가 있다. 안채는 사랑채를 마주보며 2칸 대청과 건넌방이 있고, 우측으로 꺾이며 안방과 부엌이 있다. 건넌방 전되는 높은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데 대청보다 뒤로 물러서 있다. 이러한 이유는 건넌방 아궁이가 뒷마루 아래에 있어 사람이 몸을 굽히기에 편리함을 고려하여 높은 뒷마루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청에는 벽감이 있어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며 안방 뒤에는 찬방과 과방을 겸한 방이 있다. 찬방과 과방은 집안의 큰행사, 즉 제사나 잔치 등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그릇류나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래 가옥의 통과례에 따른 거주거지와 가옥의옥의 관계를 보여준다. 사랑채는 후면으로 쪽마루가 있고 전면으로 우물마루가 있으며 마루 양 끝으로 문이 있어 남성들의 외부활동과 편의성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행랑채는 작은 사랑방 뒤로 광 → 외양간 → 광이 있었으며 작은 사랑방 역시 대문 밖 마당으로 우물마루가 있다. 마당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오른쪽 부엌 옆 측면 마당에는 수돗가와 장독이 있다. 그리고 왼쪽 행랑채 뒤로는 뒤뜰과 연결된 마당이 있는데 우물이 있어 원래 이곳이 우물과 장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용래 가옥의 옛모습을 살펴보면 사랑채 뒷면의 쪽마루 앞에 대문칸으로 반칸 내밀은 벽이 있으며 사랑채에서 안채 부엌으로 연결하는 담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사랑채 토벽은 복원되어 남아 있으며 대문에서 안채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지닌다. 그러나 안채 부엌으로 연결되는 벽은 남아 있지 않다. 안채를 감싸는 안담과 사랑채의 토벽은 전체적으로 집안을 계획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담과 토벽이 신축 당시부터인지 아니면 후대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홍천 가옥과 같은 전근대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시기적 격변기의 상황과 맞물리는 건축구조의 부분적 양상으로도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정용래 가옥은 부농이면서 감실과 찬방, 건넌방의 높은 뒷마루 등에서 민가의 격과 쓰임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가옥이라 하겠다.



■ 가옥 전경



■ 안채 전경



■ 간년방과 툇마루



■ 대형 감실



■ 행랑채와 사랑채



■ 행랑채 뒤 우물

5. 나가며

경기 서해안 서신면의 전통 가옥은 대동사회의 집성 세거지의 가옥으로 18세기 말에 건축된 가옥들이다. 일명 중부형 가옥이라 불리며 곱은자의 ‘ㄱ’자형에서 ‘ㄴ’자형의 바깥채가 연결된 ‘ㄷ’형의 가옥과 ‘ㄷ’자와 ‘ㄹ’자가 합쳐진 ‘ㄴ’자형 가옥이다. 일반적으로 안채인 몸칸에는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날개채에는 부엌이 있으며 집의 향은 남동향, 동북향이다. 이는 지리적인 환경이 고려된 집터의 배치로 산을 등지고 농경지나 물을 바라보는 곳에 집이 얹혀져 있는 풍수이론과 복거론이 적용된 터잡이라 하겠다. 즉 앞은 낮고 뒤는 높되, 출구는 좁고 들어오면 넓어지는 시각적 고려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접이는 집의 공간 용도와 기능에 맞는 평면적 공간 구조를 짜는 일로써 경제적 규모와 자연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일정한 양식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둥과 기둥의 거리인 평균 간살이는 2,400mm로 8자 안팎이다. 지형에 따른 공간성과 살림규모,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칸살의 간격이 일정한 경우도 있고 불규칙한 경우도 있다. 또한 안채를 지은 뒤에 살림과 경제가 증가해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 사랑채를 확장해서 짓는 경우도 발견된다. 흥헌 가옥의 경우 신축 당시부터 후대 사랑채의 규모 확장 그리고 해방 후와 새마을운동 이후 까지 변화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옥 내부 공간의 기능과 활용에 따른 쓰임과 배치 또한 전통적인 특성이 잘 남아 있다. 흥헌 가옥의 안채는 단정하지만 사랑채는 걸으로 보기와 달리 마당으로 향한 사랑마루와 사랑방 문을 활짝 열면 공간의 기세가 매우 등등하다. 정용채 가옥의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안채 중문은 유가적 남녀유별의 공간 구분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특히 안채는 지붕을 낮추고 엄정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지만 사랑채는 기단을 높게 만들어 개방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위엄 있는 사랑채의 내실은 부부간의 정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 집의 외형적 위엄과 인간이 지닌 본성의 양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용채 가옥의 대청 감실과 안방에 딸린 과방은 민가에서 조상을 모시는 유가적 송조의례가 일반화되고 전승되었으며 각종 통과의례에 따른 거주자의 주생활과 공간의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으로 흥헌 가옥은 의도적으로 사랑채를 추가로 하였고 정용채 가

옥은 폐쇄적인 안담을 세워 안채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18세기 말부터 근현대까지의 서해안의 격변기에 따른 가옥의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추가적인 사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건축이 지닌 건축적 미의식은 자연미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둥은 건설하며 들보는 부드럽게 모를 쳐 올렸다. 정용래 가옥 안채 전퇴의 휘어진 보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구조적으로도 유용하다. 정용채 가옥의 벽과 창호는 균형잡힌 비례감을 주며 사랑채 전퇴의 연귀난간은 있는 그대로 세련미를 준다. 이는 부재 간의 상호 존중으로 이때 나타나는 미적 특징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되 그 본성을 충분히 살려 소박한 듯하면서 듄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재료는 적절한 쓰임과 크기로 나누어져 다른 부재들과 어울리며, 비움과 채움을 적절하게 조화한다. 이때 적절성의 비례는 집 공간의 채와 칸의 비례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기둥과 들보, 도리로 구성되는 수평과 수직의 공간 규모는 인체 비례의 척도 체계로 크거나 적지도 않고 적절하다. 공간은 살림의 규모와 비례하며 적절한 공간은 가사 노동의 단축과 활동편의 그리고 안락함을 제공한다. 즉 근본적으로 인간과 조화되는 미적 비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어울림과 소박미는 일부러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살려 주며 그 자체를 활용, 응용하는 지혜이다. 따라서 전통가옥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은 유가적 질서와 겸손, 노자의 무위자연 그리고 선불교의 비움과 채움에 바탕을 두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감성과 오랜 경험을 표현하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유희로 이어진다.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제국주의의 침략과 주민들의 저항

Part 3

제국과 식민의 길목에서 : 마산포를 가다

차선헤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1. 말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곳, 마산포

화성시 남양읍에서 사강을 거쳐 북서쪽으로 이어진 322번 지방도로를 타고 반도의 끝자락에 이르면 고포리라는 고즈넉한 마을에 다다른다. 지금은 시화호 간척으로 바다가 막혀 옛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기에는 한때 중국과의 교통로이자 서해의 물산이 집결하던 포구가 있었다. 경기만의 근대 3대 포구 중 하나로 불리며 위용을 자랑하던 포구이자 항구가 바로 마산포다.

마산포는 현재 행정구역상 송산면 고포1리에 해당한다. 고포리는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고잔동과 포막동을 병합하여 앞 자를 따서 만든 지역이다. 원래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지금의 고포리와 마산리 일대를 통틀어 마산포라고 불렀는데, 1914년 원마산포를 고포리로 하고 장문, 갯마루, 도말을 떼어내 마산리로 통합했다. 고포리에는 모두 4개 리가 있는데, 1리에 마산포와 선창이라는 자연마을이 있다. 2리에는 웃골, 큰개매기, 작은개매기 등 3개 자연마을이 있고, 3리에는 큰머리, 4리에 어섬이 있다. 마산포 마을은 다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각각 '동짜굴', '서짜굴', '아랫말', '윗말'로 나누어 불렸다. 그리고 민가는 주로 안동네라 불리는 윗말에만 모여 있다.

고포1리 마산포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1985년에 출간한 《한국지명총람》에는 '말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여 마포라고 서술되어 있다. 지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조선 중엽에 말이 바다를 건너와 이 포구를 마포로 부르다가 이후에 이곳 산세가 말의 형상을 닮아 마산포로 개칭"했다고 한다. 한편 《화성시사》(2005) 지명유래편을 보면, 마산포는 '마루개



■ 1970년대 마산포 일대 지도

(宗浦)로 불리던 것이 변한 것으로 ‘으뜸’을 뜻하는 ‘마루’말(宗, 首)을 혼음차한 표기라고 추정한다. 그래서 말과 관련한 해석은 지명에 쓰인 한자의 뜻에 구애된 것일 뿐 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한편 마산포는 곳(串)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고지의 안’이라는 뜻으로 고잔으로도 불렸다.

2 해상교통의 중심으로 인천을 오가다

마산포는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포구형 지형과 길게 연결되어 있는 낮은 구릉지대를 배경으로 어촌마을과 포구로서는 천혜의 입지를 갖춘 곳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마산수로에 접하여 바닷길을 뚫고 다시 사강, 남양, 수원에 이르는 내륙교통으로 연결되는 바닷물길 네트워크와 육상교통의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지형적으로 바닷물길과 내만 깊숙이 흐르는 큰 갯골을 사이에 두고 주요 포구들이 형성된다. 서해 중남부 해역인 경기만과 한강지역을 연결하는 남양반도에는 경기 서해 항로와 물길을 대표하는 포구가 여럿 있었다. 그중에서도 남양반도와 대부도 사이를 흐르는 마산수로 초입에 위치한 마산포는 경기만의 근대 3대 포구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중심적인 포구였다. 제부도와 탄도 앞바다를 통해 시화호 안쪽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마산수로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영흥수로와 함께 경기만의 젓줄로 불렸다.



■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매립된 마산포 앞바다

남양만 일대 서해 7개 도서라 불리는 제부도, 대부도, 탄도, 선감도, 어도, 형도, 음도가 마산 수로와 마산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내륙로인 사강, 남양, 수원 등지로 나가는 루트였다. 마산포에 인근 도서의 물산과 내륙의 활기가 모여들면서 인근 사강장과 남양장이 번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마산포는 일제강점기부터 남양반도 일대와 인천항을 잇는 매개 역할을 했다.

육로 교통이 발달하고 시화호 간척사업을 계기로 인천 항로가 완전히 끊기기 전까지 마산포 일대 인근 섬과 마을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대부분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마산포에서는 사람과 화물이 함께 탈 수 있는 ‘뚝띠기’라 불리는 여객선이 인천지역을 왕래했다. 이 여객선은 1960년대 말까지 하루 한 차례 간격으로 왕복 운항하였고, 이후에는 매월 한 두 차례 정도 부정기선으로 지속하다가 1970년대 말에 폐지되었다. 마산포 선창이 여객선 정착지로 물이 많은 ‘사리’ 때는 배를 선착장 가까이 대고, ‘조금’ 때는 더 멀리 배를 댔다.

인근 서해 도서 주민은 물론 고포리 주변 고정리, 쌍정리, 용포리 사람들도 이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과 서울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일대에는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유학하는 중고교 학생들도 많았다. 인근 도서 중 제부도와 선감도, 불도 사람들은 마산포 선창에 배를 바로 댈 수 있었지만, 대부도 사람들은 보통 배를 타고 어섬의 목넘어줄터에 내려 마산포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 이는 물이 빠졌을 때 대부도에서 마산포 선창까지 갯고랑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 폐허로 변한 선창 횃집

한다. 어섬과 대부도만 왕래하는 나룻배를 '목넘이배'라고 불렀는데, 대부도에서 어섬까지 오는 데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렸다.

마산포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어섬은 시화호방조제로 바다가 막히기 전까지는 뱃길이 있어 어섬에서 음도를 거쳐 마도로 가기도 하고, 형도를 거쳐 군자까지도 갈 수 있었다. 때문에 조선 후기에 청에서 안산으로 오가던 배들은 안산에서 출발해 마산포 앞으로 해서 어섬을 돌아 제부도 뒤편으로 해서 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대부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과 사강장을 연결해 주는 유통경로이자 동력선이 나오기 전에는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인천과 서울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어섬 주민들이 사강장에 가기 위해서 어섬과 마산포 사이에 놓인 갯골을 건너야 하는데, 하루 두 번씩 길이 열리는 썰물 때에만 건널 수 있었다. 하지만 물이 빠져도 질퍽거리는 갯벌을 건너기 힘들어 1926년 무렵 큰 돌을 놓아 징검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968년도에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 3년에 걸쳐 어섬과 육지를 잇는 일명 개미다리를 건설했으나,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지금은 흔적도 없다.

마산포 선창에서는 인천으로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던 인천항로 외에도 대부도와 인근 가까운 섬을 오가는 항로도 있었다. 인근 섬에서는 이 항로를 통해 마산포로 들어와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했다. 그 후 인천항로가 끊기자 대부도와 제부도 등지에서 주로 짐배들이 들어왔다. 이들 짐배는 대부분 소금을 운송하던 배였고, 이를 하역하는 짐꾼들과 인근 도서 지역의

싱싱한 어물을 사려는 상인들로 북적였다. 외지의 배와 사람들이 몰리면서 선창마을 선착장 주변에는 작은 횃집과 식료품, 잡화 등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 한때는 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인천항로가 끊기고 점차 확대되던 육로 교통은 시화호 간척사업을 계기로 그 축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과거 고포리에서 사강장까지 도보로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남양장까지는 대략 4~5시간이나 소요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개설한 마산포에서 사강으로 가는 길과 남양장까지의 도로는 1970년대까지도 자갈길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87년에 마산포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의 수원~사강 구역이 포장되고, 1990년에 이르러 사강에서 마산포에 이르는 구역이 포장되면서 육로 중심의 교통체계가 확고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신면에서 대부도로 가는 육로가 시화방조제 건설로 연결되면서 마산포는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 일대 교육과 각종 경제활동의 범위도 종래 인천에서 수원, 안양, 영등포 등지로 옮겨가게 되었다.



■ 1987년 마산포~사강 도로포장공사 (화성시청 포토 갤러리)

3. 서해의 관문, 황당선과 이양선의 출몰

마산포 일대는 남양반도 서해의 관문으로 한강 이남의 넓고 비옥한 들녘과 각종 물산이 집결하는가 하면 일찍이 당나라와의 교두보였다. “남양 땅(마산포)에서 배를 띄워 해류와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나아가면 중국 땅 남경에 닿는다”고 하여 중국으로 가는 가장 오래된 뱃길을 열었다.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이 일대에는 마산포를 비롯하여 당성이나 화랑진과 같은 대당 교역과 사신 왕래, 유학 등이 이루어진 교역항이자 군사요충지가 다수 포진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남양만 바다를 거쳐 강화도를 지나 한강으로 거슬러 서울로 들어오는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제·군사적 역할은 계속되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따르면 송산면 고포리 마산포는 군사요새지로 유명하며,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마산포로 상륙해 서울로 진격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사람들이 석탄과 비단을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대부분을 거쳐 마산포로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주둔하던 진터가 네모반듯한 흔적으로 남아 있고, 감시 초소자리와 대포를 배치한 자리 흔적도 있어서 여기서 나는 화약 냄새 때문에 보리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 포도밭으로 변한 청나라 군대의 진터 자리

이렇듯 마산포와 남양만 일대는 중국과 거리가 가까웠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찍부터 황당선(荒唐船)이라 불리던 중국어선의 출몰이 잦았고 그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도 많았다. 17세기부터는 황당선과 더불어 남양만 일대에 이양선(異樣船)이라는 서양 선박이 자주 나타났다. 이양선의 출몰은 고종대에 들어와 더욱 빈번해지는데, 이는 프랑스, 미국 등 서양세력의 극동 진출과 함께 이 지역이 강화도를 거쳐 서울로 입성하는 주요 항로였기 때문이다.

1866년 9월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프랑스 함대는 남양만 풍도를 거쳐 입파도에 정박한 후 강화해협을 통해 갑곶진에 상륙해 강화도를 초토화시켰다. 당시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구실은 '병인박해'라 불리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으로 프랑스 신부가 희생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1866년 10월에는 남양부 서쪽 제부도 인근에 서양배 7척이 출몰했다가 서해바다로 물러가기도 했다. 1871년 '제너럴셔먼호'를 빌미로 발생한 신미양요 때에는 미국 함대가 남양만 풍도와 인접한 도리도 근처까지 근접하여 남양만 일대를 탐측한다며 입파도를 임시 정박지로 삼기도 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침입을 막아낸 후 해양방어를 위해 남양부의 대부도에 진을 설치하고 진무영 산하에 두기에 이른다.

이처럼 남양만과 마산포 일대는 1876년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고 1883년 인천항을 개항하기 전까지 중국과 조선을 잇는 통로이자 포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서양과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 또한 이곳을 통해 조선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했다. 때문에 마산포 일대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물론이고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등 근대이행기 조선을 둘러싼 격변의 시대를 함께 겪어야만 했다.

인천항의 개항으로 서울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교통편도 불편해지면서 마산포의 지역 거점 역할도 점차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마산포 선창마을에는 인천 앞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가 설치되어 군사적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 망루가 있던 자리에 군부대가 들어와 해안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4. 임오군란의 시작과 끝, 그리고 대원군

1882년 음력 6월 5일 구식군인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구식군인은 신식군대인 교련병대와 달리 차별대우와 함께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다. 봉기 당일 군인들은 13개월 만에 한 달 치 봉급으로 쌀을 받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양이 부족한 데다 돌과 겨까지 섞여 있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한 군인들마저 체포하자 분노한 군인들은 부정부패를 일삼던 민씨 일당을 공격하는 한편,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여 불태우는 등 폭동은 반일투쟁으로 발전했다. 군인 폭동은 개항 이래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면서 쌀값이 폭등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왕십리, 이태원 일대 빈민층으로 확대되었다. 고종은 10년 전에 실각한 대원군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이를 수습하려고 했고, 재집권한 대원군은 그간 추진해 온 개화정책을 백지화했다.

군인들의 봉기가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조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일본과 청이 앞을 다투어 조선으로 군사를 파병했다. 한발 먼저 조선에 당도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6월 22일 곤도(近藤眞鋤)가 인솔하는 군함 2척에 해병대 150명을 선발대로 제물포에 파견했다. 이어 29일에는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의 지휘 하에 군함 4척, 수송선 3척, 대대병력 약 1,500명이 제물포로 들어왔다.

청 또한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국왕을 보호하고 난을 진압해 달라”는 영선사 김윤식의 파병 요청에 따라 청군을 파견했다. 6월 27일 우선 선발대로 정여창(丁汝昌)과 마건충(馬建忠)이 이끄는 군함 3척이 월미도 앞에 정박했다. 본진을 파병하기에 앞서 청군 수뇌부는 상륙주둔지로 인천 이외의 지방을 택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물색한 곳이 마산포였다. 이로써 마산포와 남양부는 군함 정박과 수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주둔 및 이동에 따른 피해와 고초를 받아야만 했다. 7월 4일에는 오장경(吳長慶)이 지휘하는 3,000명의 군대와 선발대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던 정여창이 등주를 출발해 7월 7일에 남양만 마산포에 입항했다.



■ 임오군란 당시 청군이 가져왔다는 호인(胡人) 항아리 (최만진 소장)

이에 맞춰 마건충도 오조유(吳兆有) 부대와 함께 7일 당일 하오 7시 마산포에 상륙하였고, 밤 12시에 남양부에 도착했다. 이들은 다음날 아침 상경할 계획이었으나 오조유부대 병사들 가운데 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군사 200명을 선발 인솔하고 9일 출발해 수원에서 1박한 후 10일 저녁 입경하여 오늘날 원구단 자리인 남별궁에 도착했다. 이후 정여창이 군사 100명을 이끌고 남별궁으로 들어왔으며, 오장경이 이끄는 주력부대도 성 외에 주둔하고 있었다.

청은 파병에 앞서 청군이 입경하면 가장 먼저 재집권한 대원군을 억류·납치하고, 다음으로 조선 정계 장악과 군인봉기 진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청의 마건충은 선발대로 조선에 들어온 조영하를 통해 6월 30일 대원군을 인천으로 유치해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7월 2일 대원군이 이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실패한 바 있다. 이에 파병과 함께 대원군 납치를 가장 먼저 실행하기로 한 데에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내환(內患)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종을 복권시킨 후 교섭에 임하는 것이 명실에 부합하다는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13일 1단계 조치로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한다. 대원군 납치 전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오장경은 7월 13일 아침 납치 결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시킨다. 대원군이 의심하지 않도록 남별궁 주둔 병사의 수를 줄이고 오장경 등이 운현궁으로 대원군을 친견하고 우호를 가장하며 대원군에게 청군 진영에 담방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리고는 병력 배치를 서둘렀다. 군사 40명은 수원으로 먼저 가서 대기하고, 군사 100명은 성문을 수비하고 나머지 군사는 성 내 경비를 맡았다. 그리고 마건충과 정여창은 남문 밖 둔지미의 군영에서 대원군을 기다렸다. 군영 주위에는 대원군을 호위할 군사 100명과 긴장한 남자 16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대원군이 수습 기의 호종을 이끌고 도착한 것은 4시가 지나서였다. 대원군은 군영 막사로 안내되어 신시부터 유시까지 필담을 나눴는데, 필담한 것이 24쪽에 이르렀다. 필담하는 동안 호종들은 청병에 의해 모두 구류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마건충은 대원군에게 “조선국왕은 황제가 책봉하는 것을 아느냐”며 대원군의 죄상을 질책하며 청에 가서 황제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원군이 멈칫하자 마건충이 강제로 끌고나가 수레(乘輿)에 태우고, 정여창이 이끄는 호위병 100명의 호위 하에 마산포로 호송되었다. 대원군 일행이 마산포에 도착한 것은



■ 대원군이 유숙했다는 민가

7월 14일 새벽이며, 도착 즉시 대원군은 군함 등영주(登瀛州)에 승선되어 7월 20일 천진으로 호송하였다.

대원군 납치를 성공시킨 청국은 2단계 조치로 궁궐 안팎은 물론 사대문을 수비하던 조선을 몰아내고 서울 시내의 치안을 장악했다. 주한청국대표 원세개(袁世凱)는 일단의 청군을 이끌고 궁궐을 장악했고, 오장경은 청군 3,000여 명을 서울 각처에 배치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원군 납치사건을 합리화시키면서 백성의 소요를 엄금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7월 15일과 16일에는 임오군란의 진원지이며 군인들의 집단거주지인 왕십리와 이태원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170여 명이 체포되었다.

대원군을 납치하고 임오군란 진압을 명목으로 하층민들의 거주지역을 초토화시킨 정여창과 마건충은 7월 21일 마산포로 출발해 천진으로 돌아갔다. 이때 조영하, 김홍집 등이 이들과 함께 청에 들어가 봉기를 진압해 준 것에 대해 사례했다. 일본에 앞서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이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조선 내정에 대한 청의 간섭과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청군에 의한 대원군의 납치 경위나 행적, 이동경로 등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다만 음력 7월 13일 청 군영에서 납치되어 이튿날 마산포에 도착하는 즉시 천진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어른이자, 통치권을 이양 받은 최고 권력자가 청국으로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더구나 그 현장을 직접 목도했을 마산포 주민들의 충격과 공포는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마산포에는 대원군과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하나는 마산포의 오랜 대성인 경주 최씨와 관련한 것이다. 내용인 즉 마산포로 끌려온 대원군이 천진으로 떠나기 전 마산포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당시 유숙했던 곳이 마을에서 유일한 기와집이었던 경주 최씨 종손가였다는 것이다. 대원군이 머물렀다는 기와집은 지금도 마산포에 폐가나 다름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또 하나는 마산포로 끌려와 유숙하는 대원군에게 어느 아낙네가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물을 떠주자, 이를 고맙게 여긴 대원군이 환국해서 아낙네를 찾아 포상했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오랜 세월이 걸쳐 마산포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었을 대원군 이야기에는 대원군을 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애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다. 다만 7월 13일 유시 무렵 서울에서 납치된 대원군이 다음날 새벽 마산포에 당도하여 바로 천진으로 출발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대원군이 과연 하룻밤을 유숙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다.

한편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10월 남양만에 정박한 일본 군함은 4일간 남양만 일대를 측량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883년 <조선국경기도남양박지약측도(朝鮮國京畿道南陽泊地畧測圖)>라는 남양만 일대의 상세지도와 해류도를 제작했다. 이 지도에는 남양 앞바다의 선감도, 제부도, 작도를 비롯해 군소 섬들이 실측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부도에서 어도 사이의 암초, 썰물 시 모래와 갯벌, 마산포 앞의 중국선박 기항지와 해류 정보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남양지도는 10년 후 일본이 풍도전투에서 청국 함대를 선제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5. 갑신정변에 휘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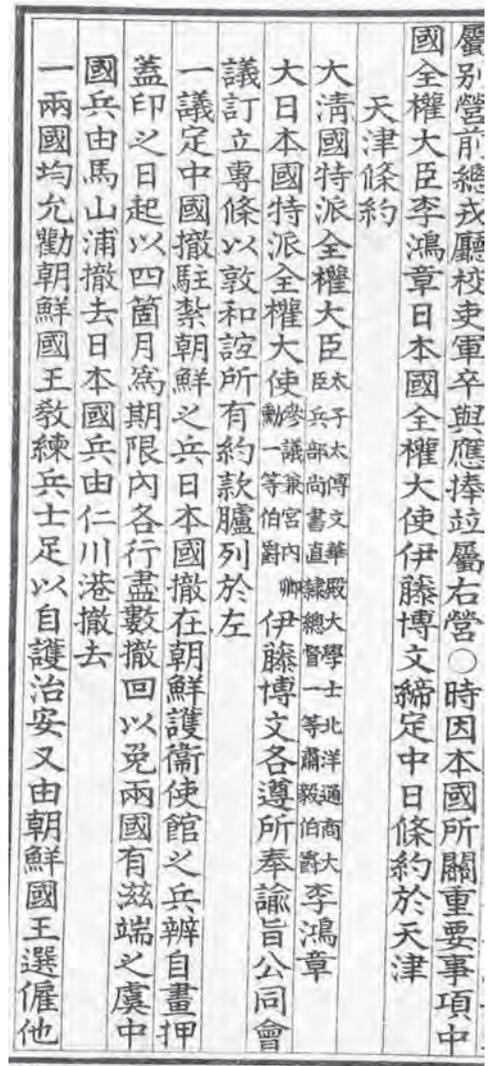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등 급진개화세력이 주도하는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이를 둘러싸고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청일 양국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갑신정변으로 마산포와 마산포 주민은 임오군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정치적 격변과 국제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청국은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였고, 이에 정부 관

료들 사이에 개화정책을 두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다.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온건개화파는 수구적인 민씨 척족과 손을 잡고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반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급진개화파는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여 국가의 독립을 실현하는 한편, 개화정책을 한층 더 철저히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척족 세력이 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고종마저 개화정책에 미온적이자 정치적 위기에 몰린 김옥균 등은 비상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더욱이 청국에서 안남 문제를 둘러싼 청불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1,500명을 철수시키자 이번 기회에 조선에서 청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려는 일본도 정변을 돕겠다고 나섰다.

1884년 음력 10월 17일 김옥균 등은 우정국 낙성식을 이용해 일대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변은 3일 만에 끝났다. 10월 19일 오후 청군이 공격해 오자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영식과 박영효 등은 청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9명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정변이 실패하자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공사는 이번 사건에서 발을 빼고 인천으로 퇴거해 버렸다. 일본에서는 조선측과 정변 처리문제를



■ 천진조약 조약문

를 협의한다며 특명전권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11월 14일 군함 7척에 2개 대대의 병력을 대동하고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한편 청국에서도 조선에 주둔한 오조유·원세개 등의 청군 파병 요청에 따라 군대를 증파했다. 11월 6일 북양수사제독 정여창이 군함 2척을 이끌고 경기도 남양만의 마산포에 입항하였다. 뒤이어 11월 13일에는 오대징(吳大澂)·속창(續昌) 등이 정변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병력 500명을 인솔해 역시 마산포로 들어왔다. 이로써 청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다시금 맞서게 되었다.

한편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에서 청국보다 열세에 몰린 일본은 이를 만회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특파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천진으로 파견하여 수석전권대신 이홍장과 협상을 벌인 끝에 1885년 3월 4일 ①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 ②조선으로 군사교관 파견 금지, ③조선 출병시 사전 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천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했다. 특히 조약문 ④에서는 ‘조약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양국은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되 ‘중국군은 마산포를 거쳐 철수하고 일본군은 인천항을 거쳐 철수’한다고 하여 철수 지점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에 따라 1885년 6월 10일 일본군은 인천항, 청군은 마산포를 통해 동시에 물러갔다.

천진조약은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있을 때 주인인 조선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국과 일본이 균등하게 간섭과 파병의 권리를 갖는다는 침략적 국제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10년 후인 1894년 조선정부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파병을 요청하고, 청에서 천진조약에 의거해 일본에 파병 사실을 고지하자 일본군 또한 일방적으로 조선 파병을 단행하면서 현실화되었다. 결국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세 번째 청일 양군의 격돌이 일어났으니 남양만 풍도해전을 시작으로 발발한 청일전쟁이었다.

6. 마산포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마산포는 남양만의 중심적인 연안포구로서 중국과는 가장 가까운 뱃길이자, 인천이 개항되기 전까지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 탓에 마산포 일대에는 황당선이라 불리던 중국 어선이 빈번하게 출몰하는가 하면 낯선 이양선까지 드니들었다. 뿐만 아니



■ 굴양식장 조성공사 (화성시청 포토 갤러리)

라 외세의 침입과 조선의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마다 마산포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다. 병자호란 때는 청군이 쳐들어와 군영을 설치하고 진을 치던 현상이었고, 임오군란 때는 청군이 들어오는 상륙지이자 대원군이 청국으로 끌려가는 출발지였다. 작은 포구로 밀려들어 온 수천 명의 군사로 인해 주민들이 받았을 피해와 고통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수난은 갑신정변까지도 계속되어 당시에 역시 청군은 마산포를 조선 진입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마산포에 외세의 침입에 따른 수난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산포는 어촌마을과 포구서의 천혜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서 예로부터 해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이 발달한 곳이었다. 때문에 낙지를 비롯한 굴, 소라, 바지락, 맛 등 다양한 어패류는 일 년 내내 간단한 도구만으로 채취 가능했고, 배 가진 사람은 송어, 망둥어, 우럭, 농어, 꽃게 등을 잡아 생활을 영위했다. 농사를 지으며 물때에 맞춰 해산물을 잡아도 짝퉁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어업은 이들에게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주된 생계수단이었다.

마산포는 또한 남양만 일대 인근 도서와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선창마을에 위치한 선착장에는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화물을 운송하는 짐배들로 북



■ 2002년 마산포 농지조성공사

적였다. 그래서 선창에는 횃집과 식료품 가게들이 번성했고, 선창의 횃집은 마산포에서 어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업종이었다. 이렇듯 당시 사람들은 마산포구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왔으며, 육로 교통이 어려운 시대에 주변의 물산 흐름과 교역을 매개해 왔다.

한편 역사적 격변기와 힘든 시절을 고비마다 견디고 적응하며 살아온 마산포와 마산포 주민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바로 시화호 건설이었다. 1987년부터 시작된 탄도와 서신면 전곡리 사이 물막이공사로 조수 흐름이 바뀌면서 북쪽에 있던 빨이 고포리 앞바다를 메우게 되었고, 더 이상 어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듬해인 1988년부터는 배를 이용한 어업활동도 중단되었다. 시화호 건설은 먼 옛날부터 어촌마을에서 어민으로 살아온 마산포 사람들의 삶의 지형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농토가 없어 수산물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외지에서 생계 수단을 찾아야 했고, 배를 가진 사람들은 소래, 서신, 제부도 등지로 떠났다. 마산포의 횃집이 침체에 빠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대부도에 땅을 불하받아 떠나거나 사강으로 옮겨 횃집을 운영했다. 선창 마을 주변에 살던 피난민들도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수원, 안양,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났다. 이에 마을은 점차 공동화되었고, 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빈번해지는가 하면, 새로운 생활



■ 마을사람들이 고사를 지냈던 징거바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보상금을 탕진하는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마을 인심이 크게 달라졌다.

마산포의 마을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마을신앙도 사라졌다. 과거 어업이 흥성했을 때 마을에서는 대동굿을 하고, 선주들은 배머리에서 뱃고사를 지냈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은 징거바위에서 고사를 지냈다. 징거바위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마산포를 집성촌으로 하는 경주 최씨의 입향조가 300년 전 마산포로 들어올 때 충성스런 하인이 죽으면서 바다 가까이 묻어 달라고 했으나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어 어섬 입구 바위 위에 터줏가리로 모셨더니 바닷물이 아무리 밀려와도 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영험하게 여기고 바다로 나가기 전 터줏가리에 고사를 지내는데, 그러지 않으면 고기도 잘 잡히지 않고 태풍을 만난다는 이야기다.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징거바위는 어섬 가는 길 한 켠에 초라한 모습으로 전설처럼 서 있다.

어촌이 아닌 마산포에서 어업을 대체한 경제활동은 포도재배였다. 보상금을 타고 2~3년 동안 마을에서는 생산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마을사람들은 농업분야에



■ 마산포 포도재배

서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작물을 찾아 재배방법을 배우고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황금어장을 잃은 마을사람들 스스로가 찾아낸 자구책이 포도재배인데, 참외나 그 밖의 다른 과일을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마산포는 중부지방에서도 북부지역에 입지해 남부지방에 비해 포도를 늦게 수확할 수 있어 판매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같은 밭에 있는 것도 한꺼번에 익지 않고 조금씩 익기 때문에 가족 노동력으로 수확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었다.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 5배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어업활동의 중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포도는 발뽀기로 내기도 하고 개인이 소매를 하거나 상회에 판매하기도 하고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였다. 어업을 대체할 자구책으로 시작한 포도재배는 이제 마산포를 비롯해 이 일대를 포도산지로 만들었고, '송산포도'라는 브랜드로 전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3·1운동의 현장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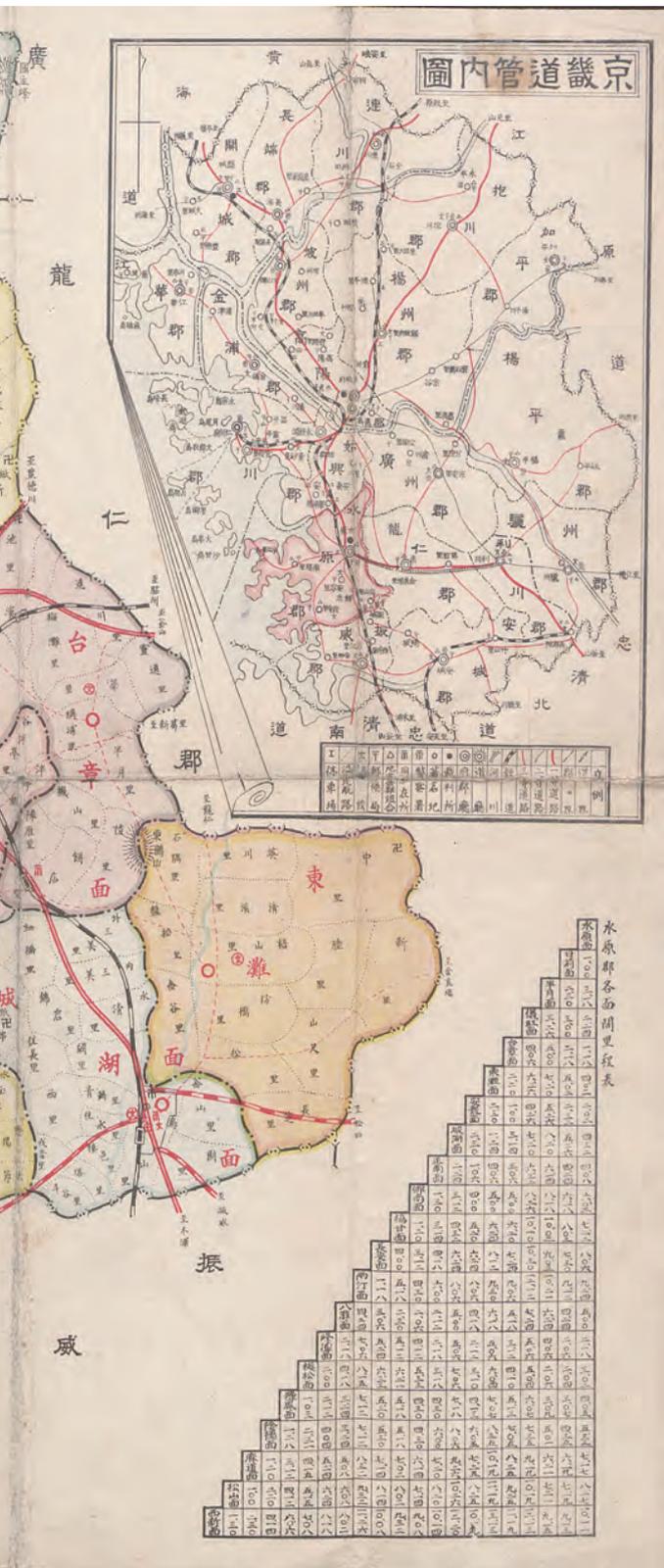
송산·서신면 일대를 중심으로

이혜영 (제암리순국기념관 연구원)

항일 저항의식의 심장을 지니다

1914년 일제는 조선시대까지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수원부(군)과 남양부(군)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여 수원군으로 통합하였다. 일제시기 '수원군'은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수원 지방'이란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행정구역상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전역과 평택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화성시는 조선시대에는 수원부와 남양부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지금의 동탄면·정남면·봉담읍·팔탄면·향남읍·장안면·우정읍·양감면·매송면과 동(洞) 지역 등 화성시의 동부가 수원부에 해당하며, 남양동·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 등 화성시의 서부와 서북부가 남양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송산을 비롯한 남양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해로를 통하여 인천과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육로가 발전되지 못하였을 때에 해안지방은 배를 통하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남양 지역에서는 마산포가 그 중심 역할을 하였다. 마산포는 뱃길을 통해 충청도로 연결되고 중국의 산둥반도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인천으로 통하는 서해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남양 앞바다에 있는 영흥도, 대부도, 선감도로 통하는 해로의 중심지였다. 이미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당성이라는 성을 쌓았을 정도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올 때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이끄는 군대가 바로 이 마산포를 통해 들어와서 주둔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서울로 진주하여 흥선대원군을 체포하여 청나라로 끌고 갔던 곳도 바로 마산포였다.



이처럼 마산포는 남양 지역의 관문이자 요충지이며 교류의 중심지였다. 사람과 물산 등 새로운 문물은 마산포를 통해 남양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었다. 이 시기 외국의 선교사들은 마산포를 통해 남양 지역으로 들어와 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들의 선교활동은 교육과 의료 활동을 동반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남양 지역에는 화랑기도처, 포막동 공동체와 같은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일찍이 타 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사립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근대 학문과 사상을 가르쳤다.

타국인들에게 송산을 비롯한 남양 지역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쳤을까? 다음은 타국인들에게 비춰진 남양 지역의 모습을 기능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선교사의 눈에 비친 남양 지역은 서해의 요충지이자 양반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인심이 후한 지역이었다.

수로는 충청남도 연해를 접하였으며 서해로는 청국 산동 해를 접하였으니 임진국변에 청국 병이 건너와 유진하던 곳 마산포가 근읍으로 서편 삼십 리나 가위(가히) 서해 요충지라 할 만하더라. 물산은 염이요. 풍속은 어두워서 무당을 숭상하고, 인심인즉 후하고 양반이 많이 사는 땅이라. 『신학월보』 1권 2호, 1901, 66쪽

이와는 반대로 남양지방금융조합 이사 이로카와(色川元市)는 탁지부 대신 임선준에게 보낸 다음 보고에서 남양 지역을 “인심이 나쁘고 배일사상이 가장 격렬한 곳”으로 묘사하였다.

이곳 지방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극히 악질로 배일사상이 가장 격렬한 곳이며 해안으로 남양반도 전면에는 대부도를 주로 하고 작은 여러 개의 섬이 있어 폭도가 잠복하거나 총기 등을 몰래 옮기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다. 해안에는 아무 시설도 없고 일본인 순사가 단속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들은 일본인에 대하여 이를 갈며 응수하고 있다.『남양 관계서류』, 규장각, 도서번호 22048)

일본인들에게 남양 지역이 그렇게 호감 가는 지역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로카와는 격렬하게 의병활동을 전개하는 남양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항일운동을 펼치는 조선인들을 ‘폭도’라고 일컫고 있으며 배일사상이 뿌리 깊어 지속적인 항일운동을 펼치는 남양 지역민들을 일제의 통치체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항일운동으로 일제 식민통치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남양 지방민들이 왜 이렇게 강렬한 배일사상을 갖게 되었을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일찍이 마산포를 통해 들어오는 신학문과 사상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상과 학문은 마을 곳곳에 유입되어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끌었다. 또한 신물물의 영향을 받은 남양 지역은 종교 및 학교 등 교육기관들이 타 지역에 비해 일찍 설립되었고 사숙이나 사립학교 등을 통해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천일엽의 침식에 대항하여 남양 지역 염업 종사자들은 ‘남양군염업회’ 의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남양염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남양의 자염업을 보호하고 일제의 염업정책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재정 자립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남양 지역사회 저변에 도도히 흐르던 항일 민족의식은 3·1운동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뿔어져 나왔다.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격렬하게 전개된 화성 지역의 3·1운동은 다양한 조직과 계층이 참여한 민족 항일운동으로 화성 지역 곳곳에 그 흔적이 화석처럼 남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저항의 현장을 돌아보며 그날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서신 3·1운동의 현장을 걷다

서신면 사람들의 3·1운동에 대한 기록은 일본 측 자료와 상안리 마을에 있는 「3·1독립운동기념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덕상의 『조선』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서신면 사람들은 3월 26일, 27일, 28일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신면 상안리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3·1독립운동기념비」에는 서신면 사람들의 만세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서신면 주민들은 굴고개를 넘어 송산면 사강시장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으며 주도자는 이원행, 홍성휴, 홍대규, 홍대우, 이재항으로 주로 전곡리와 상안리 사람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당시 서신면 주민들이 사강리로 가려면 굴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서신면 상안리는 서신 지역 3·1운동의 주도자 이원행이 살았던 마을로 이원행은 양성 이씨이다. 상안리는 1914년 상림원, 돌팍제(달바위제, 월암현), 터골(기목촌), 개물, 대안동을 병합하면서 '상림원과 대안동'의 이름을 따서 상안리라 칭하였다. 상안리는 경주 이씨, 양성 이씨, 남양 홍씨가 집성을 이루어 살았으며 지씨들이 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았다 하여 '지촌말'이라고도 불렀다.

비문에 의하면 3·1운동이 일어나자 상안리 주민들은 이원행의 주도하에 홍성휴, 홍대규, 홍대우, 이재항 등과 함께 굴고개를 넘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당시 주모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일본군은 이원행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자 이원행의 부친인 이현진의 집과 이원행의 하인 집을 방화하였다. 집을 잃은 가족들은 온갖 고초를 다 겪었으며 당시 만삭의 몸이었던 이원행의 부인은 길거리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원행은 일본군의 체포를 피해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등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시효가 만료되자 상안리로 귀향하였다. 귀향한 후에는 서신학술강습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민족교육



■ 상안리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3·1독립운동기념비」



■ 상안리 마을 입구에 있는 이원행 생가



■ 서신학술강습소 자리

에 헌신하였다. 하지만 요시찰 인물이었던 탓에 항상 감시가 따라 붙었는데 일본 순사가 하루에도 한 번씩은 강습소 주위를 돌며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제자 정수일은 이원행이 언제나 검소하고 겸손하였으며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헌신적이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서신학술강습소는 상안리 독립기념비 우측에 있었다.

서신면 전곡리는 벼슬아치와 부자집이 많고 세도가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앞실(前室)이라 불렀는데 앞실의 '전(前)자와 계곡이 많다는 뜻의 '곡(谷)자를 합하여 전곡리라 부르게 되었다. 전곡리는 하동 정씨, 남양 홍씨들의 집성촌으로 이들이 전곡리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였다. 전곡리는 일찍부터 항구가 발달되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았던 곳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신문 기사가 눈에 쉽게 띈다.

전곡동시숙은 신식교육기관으로서 홍대필이 확장한 후 신학문 서적을 구입하여 교육한 곳이다. 남양염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제염업자를 보호하고 일제의 염업정책에 저항하고자 했던 최성대와 홍은후가 깊이 관련한 곳으로 학생수가 70여 명에 이르렀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4일자 「남숙성황(南塾盛況)」 기사에 의하면 “숙장 최성대(崔成大)가 애국가를 작하여 찬성하였고 홍은후(洪閔厚) 씨가 의무교육이란 주제로 연설하였다더라.”고 되어 있다. 최성대는 애국가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부르고 홍은후가 의무교육에 대해 연설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민족교육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

전곡동시숙이 현재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남양 홍씨 대호군과 인물들이 다수 출연하고 있는 것, 홍헌 생가에서 일제강점기에 줄곧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주민들의 증언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홍헌 생가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전곡리에서 출연한 국채보상금 모금 명단에도



■ 흥헌 생가

대호군파 사람들이 상당수 참여한 것이 확인되는데, 특히 전곡동사숙과 관련된 대호군파 흥대립, 흥대진, 흥대필 등이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전곡리 구장을 지낸 홍사철에 의하면 대호군파가 운영하던 서당은 전곡리의 흥헌 생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홍사철은 흥헌의 집에서 배웠던 책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흥헌(1901~1920)은 전곡동사숙에 깊게 관여한 흥대필의 후손이다. 흥헌은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송산·서신 일대를 방화하였을 때 자신의 산을 개방하여 이재민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를 배부한 인물로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지역민들의 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다. 흥헌 생가는 전곡리 은쟁이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흥헌의 뜻을 기리는 불망비가 전곡리에서 제부도 가는 길가에서 있다.

무엇보다 흥헌의 고모부인 이재항 역시 서신 지역 3·1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일경이 “주도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자 내가 주도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나선 인



■ 홍사철이 흥헌의 집에서 배웠던 책



■ 흥헌시은불망비

물이다. 일제는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전곡리 이재항의 집에 불을 지르고 처갓집이었던 흥헌의 집에도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이 소실될 위기에 처한 흥헌 댁에서는 일본 순사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여 집을 구할 수가 있었고 이재항 또한 피신하여 체포를 면하였다고 한다.

송산 3·1운동의 현장을 걷다

마산리 예종구와 3·1운동

송산면의 서쪽 해안인 마산포에서 사강리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마산리와 만나게 된다. 마산리는 여러 성씨가 거주하는 각성바지 마을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마산리는 일본 순사들의 감시가 아주 심하였다고 한다. 일본 순사가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여 가는 일은 다반사여서 사랑방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동네 노인도 일제의 감시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문을 닫았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일제의 감시와 핍박이 심하였던 반면 독립운동가 예종구의 독립운동 활동이 돋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예종구는 흥면옥과 함께 송산 지역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3·1운동 이후 예종구는 일경의 체포를 피해 풍도, 대부도, 인천 등으로 피신하면서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였지만 결국 일경의 손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예종구의 모친은 논 3,000평을 팔아 일경에게 바치고 예종구를 겨우 석방시켰다고 한다. 그 후 예종구는 고향 마산리에 돌아와 마산리강습소를 운영하면서 교편을 잡았다. 지금도 집 앞에는 학생들이 예종구 선생에게 감사의 뜻으로 바친 회양목이 자라고 있다. 이후 예종구는 사강리로 나가 여관업, 대서방, 한약방을 운영하며 해방을 맞이하였다. 예종구는 동명여관을 운영하였는데, 현재는 그 자리에 삼거리철물점이 들어와 있다. 동명여관은 예종구와 뜻을 같이하던 동지들이 정치적 활동을 모색하던 아지트로 사용되었다.

예종구의 후손 예문택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일본 순사들은 예종구가 거주하던 자택(마산리 176번지)에 불을 지르는 등 예종구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 조선인 순사가 예종구를 볼 낯이 없다고 먹을 것과 장롱 등 가재도구를 챙겨 주었다고 한다. 지금 예종



■ 불탄 예종구의 집터



■ 마산강습소터

구의 생가는 일본군에 의해 소각되어 공터로 남아 있다. 후손 예문택은 “아버지의 집터를 파는 것은 마치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아 터라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 예문택의 안내로 집 뒤편에 있는 예종구의 묘역을 잠시나마 찾아볼 수 있었다.

마산리에서 다시 사강 쪽으로 향하면 중송리와 만나게 된다. 중송리는 초계 정씨가 대성을 이루며 사는 마을이다. 독립운동 인물로는 송산 지역 3·1운동의 주도자인 이규선(李奎善, 1885~1941)이 살던 마을이다. 이규선은 우리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활동이나 생애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홍면옥과 함께 송산의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 정도이다. 아마도 3·1운동 이후 일제의 눈을 피하여 만주로 망명하고 나서 고향으로 귀향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만주로 망명한 이규선은 1923년부터 1928년까지 임시정부의 밀령을 받고, 3차에 걸쳐 입국하여 군사금



- 동명여관 자리 _ 독립운동가 홍면옥과 예종구를 비롯한 그의 동지들이 주로 회합하던 장소였던 동명여관 자리에는 삼거리철물점이 들어서 있다.



- 예종구 묘역

모금에 힘쓰다가 1928년 8월 사리원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1931년 1월 다시 대대적인 군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으며, 경성북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1년 옥사하였다. 3·1운동 당시 중송리에 거주하였던 이규선은 고향으로 귀향하지 않은 채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 등 지속적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홍면옥과 대교서당

육일리는 사강리에 인접한 마을로 '육교리'라고도 불리는데, 송산 3·1만세운동을 주도한 홍면옥이 출옥한 이후 살았던 마을이다. 홍면옥은 출옥 이후 이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집에 대교서당을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다. 홍면옥은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태극기 그리는 법과 애국가를 가르쳤고 한글수업도 병행하였다. 육일리 주민 김광성의 형님은 홍면옥의 제자였는데 집 벽 안에 태극기를 붙여 놓고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띄게 항상 벽지로 가려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형 친구들이 집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 가려 놓았던 태극기를 꺼내 놓곤 하였고 친구들이 가면 다시 벽지로 가려 놓았다고 한다.

한문수업은 그날그날 외워야 하는 분량이 있었는데 해당 글귀를 못 외우면 초초리 째질이가 해졌다고 한다. 학생들 중에는 홍면옥 선생을 너무 무서워 해서 서당을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홍면옥은 꽤나 엄격한 스승이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생이었다. 홍면옥은 버릇없는 동네 아이들을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 자신의 회갑연에 온 일본인 주재소 소장을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어 쫓아낼 만큼 성품이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요시찰 인물로 항상 일본 순사의 감시를 받았던 홍면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순사조차도 선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항상 “선생님,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었다고 한다. 육일리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는 홍면옥 같은 선생이 있어서 친일파가 없었다.”고 말한다. 홍면옥 선생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집 뒤편의 나무 밑 그늘을 자주 찾곤 하였다. 그의 제자들은 감나무를 지날 때마다 홍면옥 선생이 생각난다고 한다.

해방이 되던 날 홍면옥의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의해 기억되고 있다. 해방 소식을 접한 홍면옥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홍면옥의 손자 홍광유 옹도 그 자리에 함께하였는데 홍면옥은 방안의 커다란 껌에서 흰색 천에 손수 그린 태극기를 꺼낸 후 제자들에게 보여 주면서 따라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이끌고 만세를 부르며 시장시장에 갔다고 한다. 시장시장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다. 홍면옥의 손자 홍광유는 “생전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회상하였다.

大校書堂周年紀念





■ 대교서당 1주년 기념사진(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삼존리의 독립운동가 : 홍남후, 홍열후, 홍관후

삼존리는 송산면과 남양동 사이에 흐르는 문산천 남쪽에 위치해 있다. 문산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는 ‘문산들’이 펼쳐져 있다. 삼존리는 모두 3개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리는 문산, 2리는 물미(또는 물피), 3리는 신흥동(또는 염전마을)이다. 삼존리에서 매봉산을 지나면 바로 지금의 송산농협이 바로 나온다. 3·1운동 당시 문산동, 용포리, 대정동, 양지촌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삼존리는 독립운동가 홍남후, 홍열후, 홍관후 삼형제가 살았던 마을로, 이들은 남양 홍씨 참의공파의 후손이다. 홍남후는 1920년 고등법원에서 7년형을 구형받고 옥중에서 병을 얻어 출옥하였으나 이듬해인 1924년에 사망하였다. 홍관후도 역시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옥하였으며 홍열후는 다행히 예심과정에서 면소 방면되었다.

홍열후는 출옥 이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홍남후의 집터 바로 뒤편이 홍열후가 운영하던 서당 터이다. 일제강점기 삼존리 마을 내에는 변변한 서당 하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삼존리 학생들은 천등3리 등구리강습소나 사강리의 정다리강습소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글공부를 하러 다녔다. 홍열후의 글씨는 홍헌의 만장에서 엿볼 수 있다. 인근에는 홍씨 삼형제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독립운동가임을 알 수 있을 만한 표식은 하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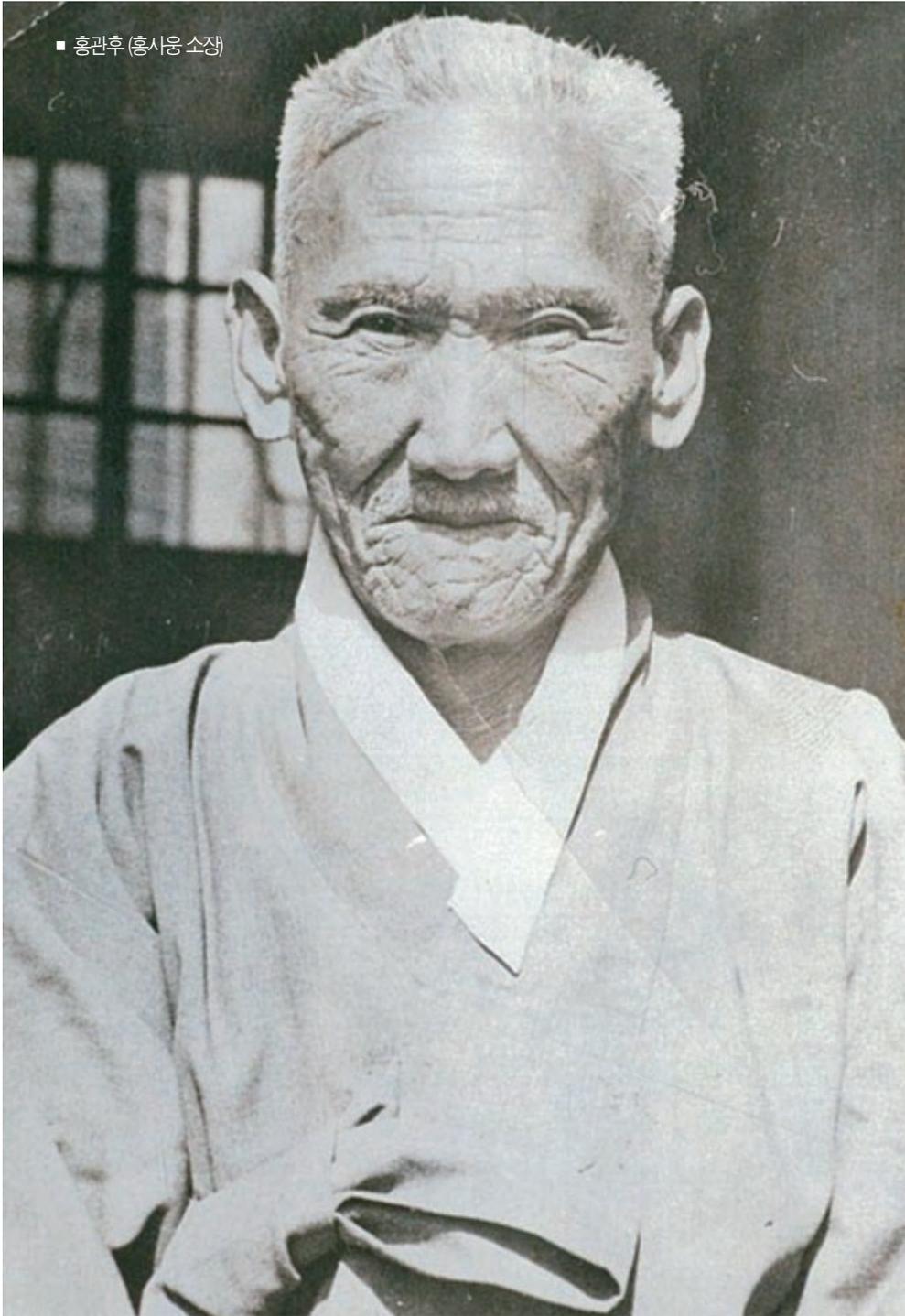
■ 홍열후의 집터 및 서당터





■ 홍열후 (홍사옹 소장)

■ 홍관후 (홍사옹 소장)



3·1운동, 그날의 역사가 화석이 되다

사강은 송산뿐만 아니라 남양 인근 지방의 물산이 모이는 중심지이다. 사강리는 예로부터 농산물의 집산지로 조수가 드나들며 유난히 모래가 많았다고 해서 '사강(沙江)'이라 일컬어졌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송산 지역의 관문이자 요충지인 마산포를 통해 들어온 농산물 들은 사강리로 모여들었다.

사강리는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경찰지서, 우체국, 학교 등이 위치해 있었을 만큼 송산 인근에서 가장 중심지에 해당하였다. 무엇보다 사강은 장이 서는 곳으로 사람과 물산의 집산지였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였다. 사강장은 서신, 마도, 비봉 사람들이 이용할 만큼 장의 규모가 컸다.

이 지역에 만세시위가 일어난 날도 역시 장날이었다. 장날 모인 많은 사람들은 만세시위에 동참하였다. 사강리가 화성 지역 내에서도 독립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손꼽히는 공간인 까닭은 마을 한가운데 장터를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한다.

“과연 백여 년 전의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나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거리로 나오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홍면옥의 말처럼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거리로 나왔을 수도 있다.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곧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민족이라면 독립은 누구나 원하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날 사강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민중의 외침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행위였던 것이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은 순식간에 천여 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강장 인근의 주민들 중에 만세를 부르지 않고 있으면 눈치가 보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일제의 끄나풀이 되지 않고서야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송산 지역의 경우 3월 초순 송산면사무소 게시판에 “이러한 좋은 기회에 만세를 부르는 것은 독립을 구하는 것으로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조선인민이다. 만세를 부르지 않는 마을에는 방화한다.”는 익명서가 붙은 것을 시작으로 가시화되었다. 왕광연의 진술에 따르면 이 익명서는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홍효선이 붙인 것이라고 한다.

홍효선은 국장을 배관하고 마을로 돌아왔었는데, 그는 그때 서울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며, 또 무엇인지 모르나 글을 쓴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마을 어딘가에 붙였다는 것이다. 음력 2월 25일에 마을 사람이 다수 모여 있을 때 홍효선과 홍면옥이 서울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온 글에도 만세를 부르라고 적혀 있으니 그와 같이 만세를 부르지 않겠는가 하여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마침 3월 26일은 호세를 납부하는 날이었다. 호세를 납부하려고 홍명선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홍효선은 만세를 부르자고 독려했고 홍면옥, 홍효선의 주도로 오후 5시경 송산면사무소로 향하였다. 송산면사무소 부근에 모인 주민들은 구한국기를 게양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왕광연, 홍명선, 홍복룡, 김도정, 임팔용 등 150여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26일 만세시위를 주도한 홍면옥과 홍효선은 경찰의 체포를 피해 육일리 뒷산 구봉산에 숨어 있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28일 오전 11시경 홍면옥 집에서는 홍효선, 김창준, 왕광연, 홍태준, 홍문선 등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사강시장 방향으로 향하였다. 이날은 마침 장날이었으므로 장날을 기해 모인 군중들은 송산면사무소, 사강주재소 인근에서 구한국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구한국기는 약 2척 5촌에서 3척 가량의 백포에 염색하였다.

홍면옥의 집에서 모인 시위대는 만세를 고창하면서 사강장터 쪽으로 이동하였다. 아마도 송산초교 후문 쪽으로 나 있는 길로 이동하면서 만세를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위대는 사강시장, 송산면사무소 앞, 송산면사무소 뒷산에서 구한국기를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사강장터와 면사무소는 길 하나를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었기에 만세를 부르며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합류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세시위 군중이 천여 명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날 장날 모인 사람들과 사강리 인근 주변 사람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것이다.

3·1운동 당시 사강장의 위치는 회센터 뒤쪽 삼촌리 가는 방향에 위치해 있었으며 옛 송산면사무소는 현재 사강4리 경로당이 위치한 자리에 있었다. 송산면사무소는 남양방면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송산면사무소를 바라보고 섰을 때 좌측에 송림이 있었다. 현재는 송산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당시 송산면사무소의 면장은 홍달후였고 문상익과 홍준옥이 면서기로 일하고 있었다. 면사무소 우측에는 사강주재소가 있었으며 주재소에는 수원경찰서에서 전날의 시위

소식을 듣고 노구찌(野口廣三) 순사부장과 정인옥 순사보가 출장 나와 있었고 다케우치(竹内) 순사, 김학웅·조종환·장용남 순사보가 있었다. 이들은 만세현장에 출동하여 군중에게 해산명령을 내리고 김학웅은 군중에게 “독립이 되게 된다면 총독이 독립을 선언할 것이니 너희들은 소란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홍면옥은 “조선독립은 결코 총독부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요, 세계대세와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조선 민족된 의무로 만세를 부르는 것이다.” 하고 만세운동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김학웅에게 “너도 조선 사람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 시위군중을 향해서 만세를 불렀다.



■ 노구찌(野口廣三) 순사부장 검시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주제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노구찌 순사는 시위대의 함성소리에 놀라 권총을 꺼내들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시위군중이 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으니 그들의 함성소리 또한 무척 컸던 모양이다. 겁에 질린 노구찌 순사가 예종구, 홍효선, 홍면옥 등을 무릎 꿇리고 위협을 가하였지만 시위군중을 해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홍면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시위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계속 만세를 선창하였다. 노구찌 순사는 되돌아

서 연호하던 홍면옥을 향해 총을 쏘고 홍면옥은 어깨에 총격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다.

노구찌가 쓴 총에 홍면옥이 쓰러지자 시위군중들의 흥분은 극도에 달하였다. 만세를 외치던 군중들은 쓰러진 홍면옥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중들은 “저 놈 잡아라.”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혼란한 틈을 타서 자전거를 타고 남양 방면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노구찌는 쫓아오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며 저항하였으나 얼마 못 가 시위군중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다수의 군중이 노구찌 순사를 포위, 투석하면서 돌과 곤봉으로 마구 타격하기 시작하였고 현장에서 노구찌 순사는 즉사하고 말았다. 총격을 받은 홍면옥은 치료차 수원 의곡병원으로 가는 도중 지원 나온 순사들에 의해 체포되어 사강주재소로 끌려갔다가 수원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당시 송산면사무소의 양 옆으로 길이 나 있었고 지금의 삼거리철물점에서 길이 합류하는 모양새였다. 삼거리철물점에서 합류하는 길을 따라가면 지금의 남양읍이 나온다. 남양 방면으로 이동하여 지원요청을 하러 가던 노구찌 순사는 사강리 경찰관주재소에서 동쪽 60칸 떨어진 도로 길가에서 시위군중에 의해 타살되었다. 노구찌가 타살당한 자리는 현재의 수협 위치로 알려져 있으며 1919년 당시에는 강업동의 밭이었다. 당시 사강리 주재소로부터 60칸에 해당하는 거리를 계산하면 수협이 있는 곳보다 훨씬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농협 근처로 추정된다.

당시 노구찌 순사가 근무하였던 주재소에서 수협 근처까지는 200m가 채 안 되는 거리이다.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일본인 순사를 타살한 곳은 2곳인데 모두 화성 지역이었다. 송산 지역은 전국의 어느 곳보다 격렬하게 무력항쟁을 펼친 3·1운동 항쟁지이다.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통치에 무력으로 저항하며 일본인 순사를 처단한 현장으로서, 그 자리에 독립을 염원하던 화성 지역민의 숨결이 그대로 녹아 있다.

정도리, 독립운동가를 품다

정도리는 사강2리에 속해 있는데 웃정도리와 아랫정도리로 나누어지며 그 경계가 되는 곳에 십자로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아랫정도리 사람들은 대개 산의 나무를 해다가 사강시장에 내다 팔았으며 웃정도리는 양반 동네였다.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처녀들이 널을 뛰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했던 마을이다.



■ 송산 3·1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살던 정도리

정도리는 3·1운동의 항쟁지이자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동네이다. 홍면옥은 사강리 511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홍면옥의 집 주변에 문상익, 홍문선, 홍태근, 왕광연, 홍복룡, 이경집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송산 지역에서 3·1운동 관련하여 체포 구금된 35명 가운데 상당수가 정도리 마을에 거주하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송산 31운동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의 거주지

연번	이름	주소	연번	이름	주소
1	홍면옥	사강리 511	7	이경집	사강리 530
2	왕광연	사강리 523	8	홍복용	사강리 543
3	홍준옥	사강리 530	9	이순일	사강리 528
4	문상익	사강리 526	10	김병준	사강리 544
5	홍문선	사강리 514	11	진순익	사강리 526
6	홍승환	사강리 544	12	이성봉	사강리 526

이처럼 송산 지역 독립운동가들은 정도리 마을에 밀집하여 살았는데, 이들 중에는 남양 홍씨 참의공파 문중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남양 홍씨 참의공파 사람들이 대거 3·1운동에 참여한 것은 홍면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홍면옥은 참의공파 23세손으로, 항렬이 높은 편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중의 좌장이었다.

홍면옥은 3·1운동 당시 총을 겨누는 노구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의연히 일어나 만세를 불렀으며 강직한 품성과 절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항일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 또한 일본 경찰에게 고문을 받을 때도 신음조차 내지 않았으며, 총상을 입은 어깨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인데도 일본인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였다. 그는 같이 투옥된 동지들을 독려하면서 의연하게 법정에서 조선의 독립을 당당히 주장하였다.

송산 지역의 3·1운동은 홍면옥과 같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만세운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해 왔다. 홍효선이 고종의 국장을 배려하고 와서 동네 게시판에 붙였다는 글귀, 백포에 염색한 구한 국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홍면옥의 집에서 모인 시위대가 만세를 부르면서 사강시장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점, 체포에 대비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던 점 등은 그들이 꽤 오랫동안 만세시위를 계획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은 3·1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모색하여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독립운동을 벌이거나 민족교육에 헌신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였다.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목이 터져라 외치던 대한독립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역사적인 항쟁지 송산은 아직도 그날의 숨결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듯하다.

홍진후의 기억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 홍면옥과 그 후손의 삶

이혜영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선임연구원)

1. 화성지역 3·1독립운동과 구술자료

3·1운동은 전 민족적 독립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건이자 일제의 지배정책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저항의 지점이자 원점이다. 그러므로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래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역사 속으로부터 소환하여 전유하여 왔다. 특히 화성지역의 3·1운동은 비폭력의 원칙을 깨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반하였다. 만세시위대는 장안면과 우정면의 면사무소와 주재소 1곳을 완전히 파괴하고, 일본인 순사 2명을 처단하는 등 일제의 통치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러한 화성지역 3·1운동의 격렬하고 공세적인 저항은 폭압적인 탄압을 불러왔다. 일제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였다. 소실호수 328호, 사망자 45명, 부상자 17명에 이를 정도로 화성지역의 피해 상황은 심각하였다.¹⁾

1)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東京:みすず書房, 국학자료원, 1967, 312-318쪽을 재구성함. 이것은 일본측의 문서에 기록된 것으로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측의 문서에 기록된 것보다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주리의 사망자는 6명인데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검거되어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했던 피해자 집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 화성지역 3·1운동의 피해 상황

면	리	소실호수	사망자	부상자	검거인원	
우정면	화수리	22	3		204	
	조암리	11	1	1		
	한각리	1	1			
	화산리	1	2			
장안	수촌리	33	1	4		
	어은리	12	1			
	독정리	2	1	1		
	사곡리	1	1			
	석포리	2				
	장안리		2			
	팔탄	기전리	1		1	
		고주리	1	4		
노하리		1	1			
가재리			1	5		
하저리			1	1		
창곡리		1	1	1		
향남	제암리	28	23			
	발안리			5		
성호	오산리			2	63	
송산	사강리	81		4	175	
	육일리	30				
	봉가리	47	1	1		
	삼촌리	40				
	중송리	1				
	마산리	1		1		
서신	전곡리	2	1			
	상안리	2				
마도	해문리	7		2		
총계		328	46	24	442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화성지역민이 보여줬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저항정신이 매우 강렬하였던 만큼 화성지역 3·1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물들이 판결문이나 신문조서 등 일제에 의해 기록되고 구성되어진 자료들에 의지하고 있어서 3·1운동에 직접 가담하여 활동한 이 지역 독립운동의 입장에서 3·1운동을 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출옥 이후의 활동이나 그 가족구성원의 삶 등을 전혀 조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3·1운동 기록물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자료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체되어 있는 화성지역 3.1운동 연구지평을 확장시키려면 일제에 의해 기록되고 해석된 화성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가 아닌 화성지역민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문서화하거나 기록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술 자료에 대한 수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수원시에서 발간한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2001~)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실린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인물들의 구술채록은 그동안 집적된 구술자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구술자료를 활용한 화성의 독립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서로 김선진의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1983), 뿌리깊은 나무의 민중자서전으로 간행된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이 있다.

김선진의 경우 화성 독립운동 관련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증언채록을 바탕으로 화성지역 독립운동 연구의 진전을 이루어내었지만 녹취문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뿌리깊은 나무의 민중자서전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은 ‘계암리 학살 사건의 증인 전통례의 생애사를 담은 의미 있는 자료이다.’²⁾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존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2) 김선진, 『일제의 학살 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전통례 구술(김원식 편집),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 뿌리깊은 나무, 1981. 박환의 일련 연구도 구술·인터뷰 등을 활용해 이뤄진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환, 『경기 지역 3·1 독립운동사』, 선인, 2007 등 참조).

이마저도 구술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며 접근하는 데도 제약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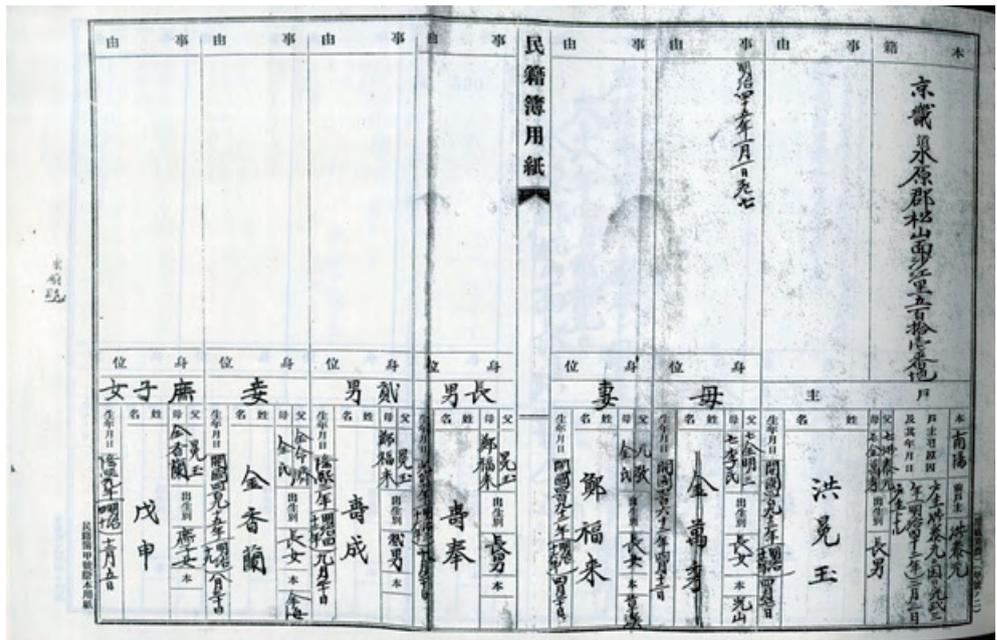
하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더 늦기 전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지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작업이 지속되어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가 풍부해져 온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우리들이 기억하는 독립운동의 기억과 독립운동가 홍면옥의 아들 홍진후 선생의 기억을 통해 홍면옥의 행적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재구성 하고자 하였다.

2. 출옥 이후 홍면옥의 활동과 삶

(1) 홍면옥의 민족의식과 대교서당

홍면옥은 송산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15년형을 구형받았다. 홍면옥은 부인 이씨(李正泰의 딸), 정봉래(첩), 김향란(송산3.1독립운동가 김명제의 딸)이 있었으며 정봉래와의 사이에 2남, 김향란과의 사이에 3녀를 두었다. 김향란의 아버지가 3.1운동 당시 장인으로 알려진 김명제이다. 출옥 이후 홍면옥은 육일리(마을에서는 육도리로 부름)에서 대교서당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홍면옥은 이때 엽일녀를 만나 2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홍진후이다. 홍진후는 홍면옥과 엽일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1937년생이다. 홍진후는 홍면옥의 아들이자 육일리에서 홍면옥과 함께 생활한 홍면옥의 해방전후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다.

홍진후는 출옥 이후 홍면옥이 육일리에 거주하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낳은 유일한 아들로 홍면옥에게는 늦둥이이다. 다른 아들이나 손자들이 엄격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로 홍면옥을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홍진후는 아버지 홍면옥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였다. 홍면옥은 밥일을 나가더라도 어린 홍진후를 데리고 가서 자리를 깔아 놀게 해주시던 자상한 아버지로 기억된다. 유독 새를 좋아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새를 잡아 주고 손수 먹잇감을 마련하여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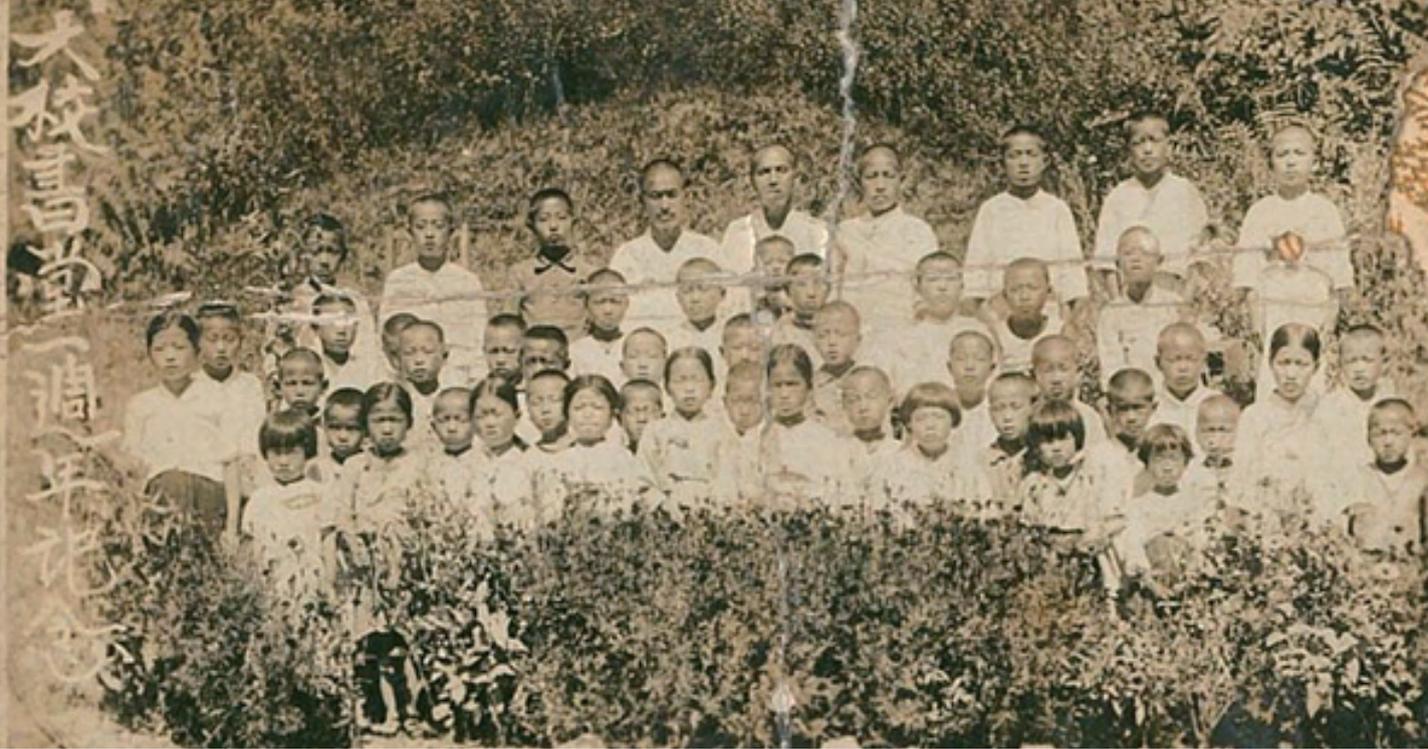


■ 흥면옥의 민적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 어린 아들이 좋아하는 새를 기를 수 있도록 살뜰하게 보살펴 주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린 아들을 안고 대교서당 기념식에 서있는 모습은 세상의 여느 아버지들처럼 늦게 얻은 아들에 대한 애뜻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는 듯하다.

흥면옥은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엄격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회초리 찌질은 예사였다. 서당에서는 천자문, 동몽선습 등 한학 이외에도 한글 교육과 민족교육을 시행하였다. 1937년생인 홍진후가 서당에서 한글을 배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일제의 눈초리를 피해 엄격하게 금지하였던 한글교육을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홍진후의 기억에는 아버지, 흥면옥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태극기와 애국가를 가르쳤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대교서당시절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너댓명 있고 했는데, 하루는 괘짝에서 태극기를 끄내더니 따라 그리라고,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태극기 그리는 법을



■ 대교서당 1주년기념사진, 화성시 소장

알았더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신으로썬 그게 비깅으로 흘러 가면은 인제 잡히고 그러니깐 그 믿을만한 저기를 데리고 이게 우리나라 국기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걸 봤다니까요.³⁾

이러한 홍진후의 증언은 홍면옥의 손자 홍광유에게서도 확인된다.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가끔 놀러가요. 한문공부하던 애들이 여섯 일곱명 되더라고, 한문을 가르치시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됐다고 좋아서 참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 참 그건 생전 있지도 않아. 과짜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태극기를 하나 꺼내서 그 리래는 거야. 손수 그리신 태극기인데...⁴⁾

해방이 되자 홍진후가 제일 먼저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증언⁵⁾과 해방되는

3) 홍진후 구술, 2013.7.6

4) 홍광유 구술, 2013.5.23

5) 홍광유 구술, 2013.5.23

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사강시장에 갔다는 증언은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출옥 이후 홍면옥은 육일리에 거처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일의식과 민족교육을 고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면옥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홍면옥의 대쪽 같은 성격은 민족의식과 결합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휘하게 한다. 요시찰 인물이었던 홍면옥의 육도리(육일리) 집에는 순사들이 자주 들렀다. 오산이나 발안 등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불려가는 날이 허다하였다. 이런 일로 어머니 염일녀는 기절하기를 반복하였다. 붙들려 가면서도 일경들이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순사들은 언제나 “선생님 모시러 왔습니다”하고 아버지 홍면옥을 데리고 갔다.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서장이 아니면 독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잡혀오는 홍면옥을 보고 경찰서장이 어린 자식들을 봐서라도 이젠 그만오라고 당부할 정도였다고 한다.

어? 이젠 여기 오지 말으라고. 어? 그러히고[그렇게하고]. 거, 겨울에 그 난로가에. 그 저기 저, 진달래가 피어 있는데 시나 한 수 지어달라고. 그래서 시도 지어주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그건 난 말로만 듣고. 몰라, 나는 신문을 보지도 못하고. 어.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 그렇게 못이 박힌 거여. 그러니깐, 그때는 기다리면 왔거든. 어, 기다리면 왔거든. 기다리면, 그때도 어려서도, 그, 가시면은. 그, 자주, 그거, 아버지가 성질이, 보통이 저기한 게 아니었었고. 그때도, 그. 뭐, 이, 순경들, 뭐 이런 사람들, 데려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말 하면은. 그러면 막 욕을 하는 거여. 이 망할 자식들 어디다 대고, 이 자식들아 어디다대고 반말을 하느냐고, 못하면 막 야단을 해요. 끌려가면서도, 어? 그렇게 무서웠었어요.⁶⁾

홍면옥의 이런 기개는 3·1독립만세 운동 때에 어깨에 총을 맞았던 당시에도 엿볼 수 있다. 순사들이 어깨에 부상이 심한 홍면옥의 치료를 위해 일본의사를 부르자 치료받기를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6) 홍진후 구술, 2013. 7.28

대꼬챙이 같은 것으로 찌르면서 이래도 치료 안 받을 거냐 해도 치료를 안받았는데는 뭐, 그 정도로 성질이 보통이 아니지. 어깨 여기가 구더기가 났었는데, 여기, 치료를 안 받아서. 일본 의사가 와서 가르치니까. 팽개치고. “마, 너희가 쏘고 어디다가 손을 데냐고.” 예. 그렇게 지독했던 거여, 어? 그러가지고 한의사인가 누구, 한의사가 있었다는데. 그 한의사가 누군지 저기, 좀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면 이는데. 이름을 모르겠다고. 어? 그분이 그 수원 나와서 거,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⁷⁾

어깨에는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일본의사의 진료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홍면옥 때문에 사강에 있는 조선인 한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한다. 이런 강단은 고문을 받을 때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른 방에서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무성하여도 홍면옥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고 한다. 홍면옥의 강직한 성격은 민족정신과 결부되어 송산지역 3·1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양 홍씨 집성촌이었던 송산·서신 지역 일대에서 홍면옥이 항렬이 높았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 불어 혈연과 지역적 연대감, 공동체의식, 가족의식이 강한 집성촌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은 ‘홍면옥의 총격’ 자체가 불러오는 파장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출옥 이후 홍면옥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면옥은 예종구를 비롯한 몇 명의 인사들과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회합을 했다. 장소는 주로 예종구가 경영하던 사강시장 안에 위치한 여관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강시장 거기서 여관도 하시고 대서소 같은 것도 하시고 인제 한약방도 하셨는데 맨날 홍면옥 그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서너 명에서 여관에 모이고 하셨는데 그 위가 바로 경찰, 주재소야. 그러면 거기서 순사가 보고 있다가 여관으로 그분들이 들 어가면 또 따라 들어간다고, 그러면 차만 마시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러셨다구⁸⁾

7) 홍진후 구술, 2013.7.28

8) 예문택 구술, 2013.5.23

(2) 해방 이후 홍면옥의 활동

해방이 되자 홍면옥은 송산면 치안대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을 어느 시기에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출옥할 즈음에 이미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⁹⁾ 또한 사회주의 사상을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 받아들였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1946년 3월에 있었던 수원군 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서 홍면옥은 이하영과 함께 주석단에 앉아 있었다. 1948년 8월 해주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에 박승극과 홍면옥의 이름이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봐서 인민위원회에서의 활동하다가 3당 합당 이후에 월북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홍진후는 홍면옥이 한독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마도 김구 선생이 송산지역 한독당 결성식에 사강시장에 왔을 때 김구 선생과 연단에서 함께 연설하였던 아버지 홍면옥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면옥이 정치적 은신처로 한독당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송산지역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출옥 후 해방 이후까지 홍면옥과 함께 어울리던 예종구가 전쟁 중에 좌익으로 몰려 학살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한독당 결성식 때 축하인사로 초청된 것을 한독당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구 선생님 사강에 오신 날은 뭐, 사강 시장이 뭐 떠들썩했지.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갔는데, 아들 이라고 그러니깐 그 양반이 엿을 사주셔서 엿을 내가 먹은 생각이 난다고. 세



■ 홍면옥 출옥 기념사진(1932년 추정, 화성시 소장)

9) 김시중, 2001, 『한국근현대사 증언자료집』1, 수원시, 78쪽

개를 사주셔서 하하하, 아마 지금 내가 생각하면은 오도바이 타고 왔어.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혼이 난 게 “아버지,” “아버지,” 인제 그 대답을 하시는 거여. “왜 그래,” “왜 그 저, 저기. 그 아버지 만난 김구 선생이라는, 그 선, 그 사람은 왜 얼굴이 꺼꾸로 참외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 하. 아버지한테 혼, 아단을 맞았지, 하하하. 거꾸로 참외 같이 생겼다고. 그랬다가 아주 아버지한테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구 선생님이여. 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도 연설을 하셨는데 내용은 기억은 안나지만 항상 똥 연설을 하면 울분을 토하셔. 목소리가 얼마나 찌렁찌렁 거기 하다가.¹⁰⁾

위의 증언에서처럼 홍진후는 김구선생을 만났던 것과 그날 아버지 홍면옥이 연설했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홍면옥이 해방이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예종구와 함께 활동한 것, 수원군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홍면옥이 김구와 함께 한독당 활동을 했다는 홍진후의 증언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송산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예종구나 홍면옥 등이 추구하였던 정치적 지향이다.

해방되는 날 사강시장에 사람들이 죄다 모였어.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인민공화국이고 대통령은 여운형이다. 지금도 안 잊혀져¹¹⁾

홍면옥, 예종구의 활동은 비단 송산에만 머물지 않고 인근지역으로 확대된 듯하다. 예종구의 아들 예문택 선생의 증언, 홍면옥의 아들 홍진후의 증언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수원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던 박지명, 동구여상의 김도태, 예종구, 우리아버지 이렇게 맨날 여관에서 모이고 했어¹²⁾

10)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1, 돌베개, 531쪽

11) 홍사웅 구술, 2013.7.8

12) 같이 활동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생전의 옆일녀 여사와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홍진후 소장, 년도미상)

해방 이후 홍면옥의 정치적 행보는 비빠졌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김시중의 증언에 의하면 남로당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¹³⁾ 전쟁 시기 송산면 인민 위원장은 송○옥, 남로당당수 왕○로, 경기도 남로당 당원이었던 홍○인 등이 송산지역 좌익 세력의 대표적 활동가였다. 이들 모두 송산보통학교 동기동창생으로 이중에 왕○로는 육일리 홍면옥의 아랫집에 살고 있었다.¹⁴⁾ 홍면옥과 같이 활동을 하던 예종구는 전쟁 중에 좌익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3당합당 이후 군 단위 기관들만 북으로 넘어가고 면 단위는 넘어가지 못하였는데 그때 많은 남로당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13) 김시중, 2001, 『한국근현대사 증언자료집』1, 수원시, 76쪽

14) 홍사웅, 2013.12.

3. 독립운동가 아들로서의 삶

홍면옥이 송산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은 화성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홍면옥의 행적은 3·1운동 이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옥 전후에 관한 행적과 그의 정치적 활동, 지역적 관계망, 가족관계 등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 그에 관한 연구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신문기사와 김시중의 증언을 통해 어렵פות이 해방 이후 그의 정치적 활동을 어렵잡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송산지역 3.1운동의 주도자이자 인민위원회 송산면 책임자였던 그의 행적의 면모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홍면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송산면 지역 조사와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 홍면옥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홍면옥을 기억하고 있는 송산지역 주민 몇 명과 후손이 생존해 있었다. 특히 홍면옥 아들의 생존과 만남에 대한 기대는 무척 흥분되고 설레는 것이었다. 홍면옥의 아들 홍진후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7월이었다. 홍진후 선생과의 만남으로 그 가족들의 삶과 출옥 이후 홍면옥의 활동에 대해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홍진후 선생은 현재 고향 송산을 떠나 살고 있다. 홍진후 선생으로서는 홍면옥의 아들로서 살아온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으며 독립운동가 홍면옥이 아닌 아버지 홍면옥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우리에게는 독립운동가 홍면옥이지만 홍진후 선생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이고 세상의 엇갈린 평가 속에서 아버지 홍면옥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홍진후 선생은 지금까지도 아버지 홍면옥으로 인해 받아야 했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왔다. 고향 송산에는 조카 홍광유가 살고 있고 육일리에는 어머니 염일녀와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지만 홍진후는 27세에 고향 송산을 떠난 후 고향을 찾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아버지 홍면옥의 가출과 깊은 관계가 있다.

홍진후의 나이 열 살이었을 때 아버지 홍면옥은 어느 날 불현듯 '강원도 누이네 가서 약을 먹고 오마' 하며 집을 나가셨다. 홍면옥 선생은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그런 아버지를 어린 시절의 홍진후는 매일같이 뒷동산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경찰서에서 하루가 멀

다 하고 와서 아버지를 잡아 가곤 했어도 며칠이 지나면 곧 돌아오시곤 했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실 거라는 믿음은 쉽게 포기가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가도 언제나 집 뒷동산에 올라 아버지가 돌아오실 길을 하염없이 쳐다보곤 했다.

기다리던 언젠고 돌아오실 줄 알았던 아버지를 두고 마을사람들은 ‘홍면옥이 월복을 했네, 좌익이네’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홍진후는 집 뒷동산에 올라 한없이 마을길을 내려다보며 울음을 삼키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월복에 대한 소문은 무성해져가기만 했다. 마을에서는 좌익들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어졌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그 집 앞으로는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을 정도로 마을 내 좌우익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마치 동네 사람들이 월복한 자식, 빨갱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냥 행동했다. 마음속으로 ‘난 바보다’를 몇 번이고 곱씹었다는 홍진후 선생은 바보처럼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힘을 썼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신 후 어머니와 어린 동생, 구술자는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채 고스란히 생활전선에 내동댕이쳐졌다. 어머니는 동네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그 가녀린 몸으로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셨다. 어린 자식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려면 몸을 바빠 움직여야 했지만 어린 여자의 몸으로 두 아이를 온전히 길러내기에 현실은 매정하였다. 어머니 옆 일녀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또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줄지에 고아가 된 듯한 현실과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고립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학업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학비가 없어서 선생님께 무릎 꿇고 사정하기를 수십 번, 다행히 아버지와 안면이 있으셨던 수원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배려로 학업의 끈만은 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을 얻기보단 사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었고 사업도 잘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처럼 가정을 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은 되지 말자’며 스스로에게 한 다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자녀들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이고자 하였다.

이제 홍진후 선생도 환갑을 훌쩍 넘어버린 세월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원망은 화석처럼 남아 있다. 어느 날 새벽 황망히 집을 나가서 연락 한 번 없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 수많은 이복형제들 속

에서 자신의 운명을 비판하며 숙절없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 홍면옥에 대한 원망으로 번민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 시간만큼 마음의 굵은 마디가 앉았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어서 처자식을 버리고 무엇을 위해 떠났는지 몰라도 우리어머니는 아버지한테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구, 그리고 쪼그만 어린새끼들을 놔놓고 갔는데 그러면 몸은 못 왔어도 그래도 누구 사람이라도 보내서 사람이라도 보내서 집안 사정을 물어야 할거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게 인간 본능 아니여? 어? 그러면, 그 본 본느, 본능이 응? 말할땠을 때는. 분명히 이 양반은. 어디서 돌아가셨다는 얘가지. 나는 그게, 그게 중점이며. 근데 인제. 그런 거를. 걸, 뭐 어떻게 보면은 월북했다 그래고, 납치됐다 그래고, 별소리가 다 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며는 뭐, 그 나이에 육십이 넘은 나이에 거기 가서 자식을 낳았을 리는 만무하고. 예?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알아 보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예요. 어? 그런데 예, 그게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난, 이렇게도 믿지 않고, 저렇게도 믿지 않는 거예요.¹⁵⁾

홍면옥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젊은 청년들은 홍면옥을 스승처럼 모시고 따랐다. 해방 이후 송산면 건국준비위원회는 홍면옥 선생의 정치사상을 따르고 그를 실현하려는 조직체와 다름없었다. 3·1운동으로 인한 명망성은 인근 지역까지 알려져 출옥 이후 수원군 전역으로까지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 아버지였기에 아들은 홍면옥의 월북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하고 있었다. 월북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쪽지라도 보내 생사를 확인해 주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전쟁 중에 행방불명이 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홍면옥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인터뷰 내내 곳곳에서 드러내었다. 아버지에 대

15) 홍진후구술, 2013.12.30

한 원망의 근본 이유는 가출이었다. 가정과 처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원망,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그 원망은 나이가 들수록 깊은 그리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다려도 안오니까 내가 너무 기다렸다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은 어 너무 그리워. 세월이 갈수록 더 그래.¹⁶⁾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며 주름진 얼굴에 퍼진 눈물을 닦는 구술자의 모습에서 어린 소년의 모습이 겹쳐보였다. 만약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독립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가정을 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것이라고 한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그 처절한 고통을 혼자 이겨내는 과정은 말로 다 표현 못한다면서 똑같은 아픔을 그 누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사무친다며 아버지가 어디에 묻히셨는지 죽기 전에 무덤이라도 한 번 찾아뵙고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다고 말끝을 흐리신다. 인터뷰를 마치며 구술자가 간직한 아픔이 비단 구술자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 선열들이 지금의 우리 세대에게 남겨준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6) 홍진후구술, 2013.12.30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바닷가 사람의 삶과 문화

Part 4

‘젓부리섬’으로의 초대

홍현영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자연과 하나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혹시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제부도로 향하자. 제부도에 도착하면 우선 물이 빠진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자. 오감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 장소로 갯벌만큼 좋은 곳도 없다. 아이들과 함께 바다가 열리는 신비함도 느껴 보고 바다로 난 산책로도 걸어 보자. 자연이 전해 주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 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부도의 이름다운 노을을 잊지 못하는 이가 많다. 서해라고 해서 노을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1박을 한다면 제부도가 제격이다.

〈이상현, 『이야기를 따라가는 한옥여행』, 2012, 시공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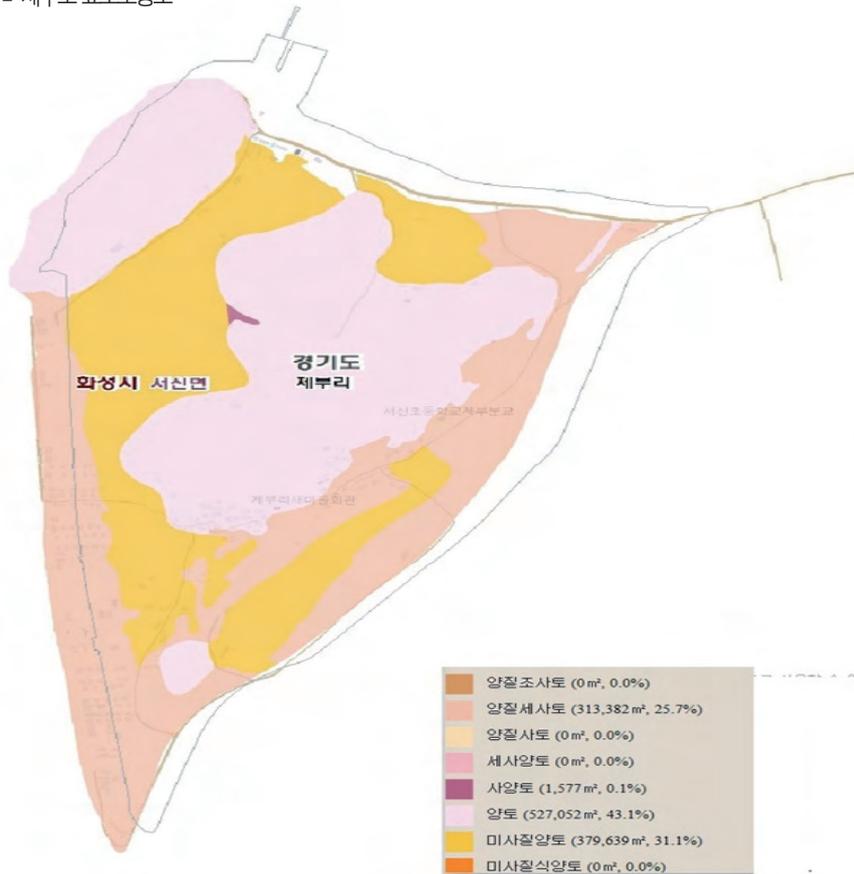


제부도, 그 섬에 가다

제부도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해당되며, 서신면 송교리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육지와 가까워 풍도나 국화도와 달리 길이 2.3km의 연륙도로(連陸道路)가 건설되어 있다. 제부도의 면적은 97만 2,000㎡이고 높이가 67m(탑재산)이며 평균고도가 12m로 약간의 구릉지가 있을 뿐 섬의 대부분이 평탄하다.

제부도 주변에는 넓게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간석지는 갯벌을 포함하여, 만조와 간조가 교차되는 해안 퇴적지형이다. 주로 섬의 북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조개류와 게, 썩,

■ 제부도 표토투성도



낙지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간석지의 입경이 점토질과 모래질이 잘 섞여 있었지만 최근 입경이 점토질로 변화하고 있고 간석지 지형에 서식하는 생물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제부도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탐재산이 나타난다. 이 산을 중심으로 암석해안이 펼쳐지는데 해안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그 지형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섬의 서쪽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제부도에 유일한 모래해안이며 길이 1.8km로 남북으로 길게 발달하였다. 남쪽에 위치한 매바위는 제부도의 상징물로서, 만조 시에는 섬이 되고 간조 때에는 제부도와 연결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드러낸다.

섬의 안쪽을 보면, 당산과 능안산 주변을 감싸듯이 농경지가 펼쳐진다. 농경지는 간척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는 표토의 토성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부도의 표토토성도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미사질양토를 보이는 지역이다. 미사질양토는 해안저습지성 토양에 해당하는데, 해안저습지성 토양은 주로 조수(潮水)의 영향을 받는 하천 하류변이나 해안의 개간지에 분포한다. 따라서 제부도의 표토토성도를 보면 탐재산과 당산·동미산은 간척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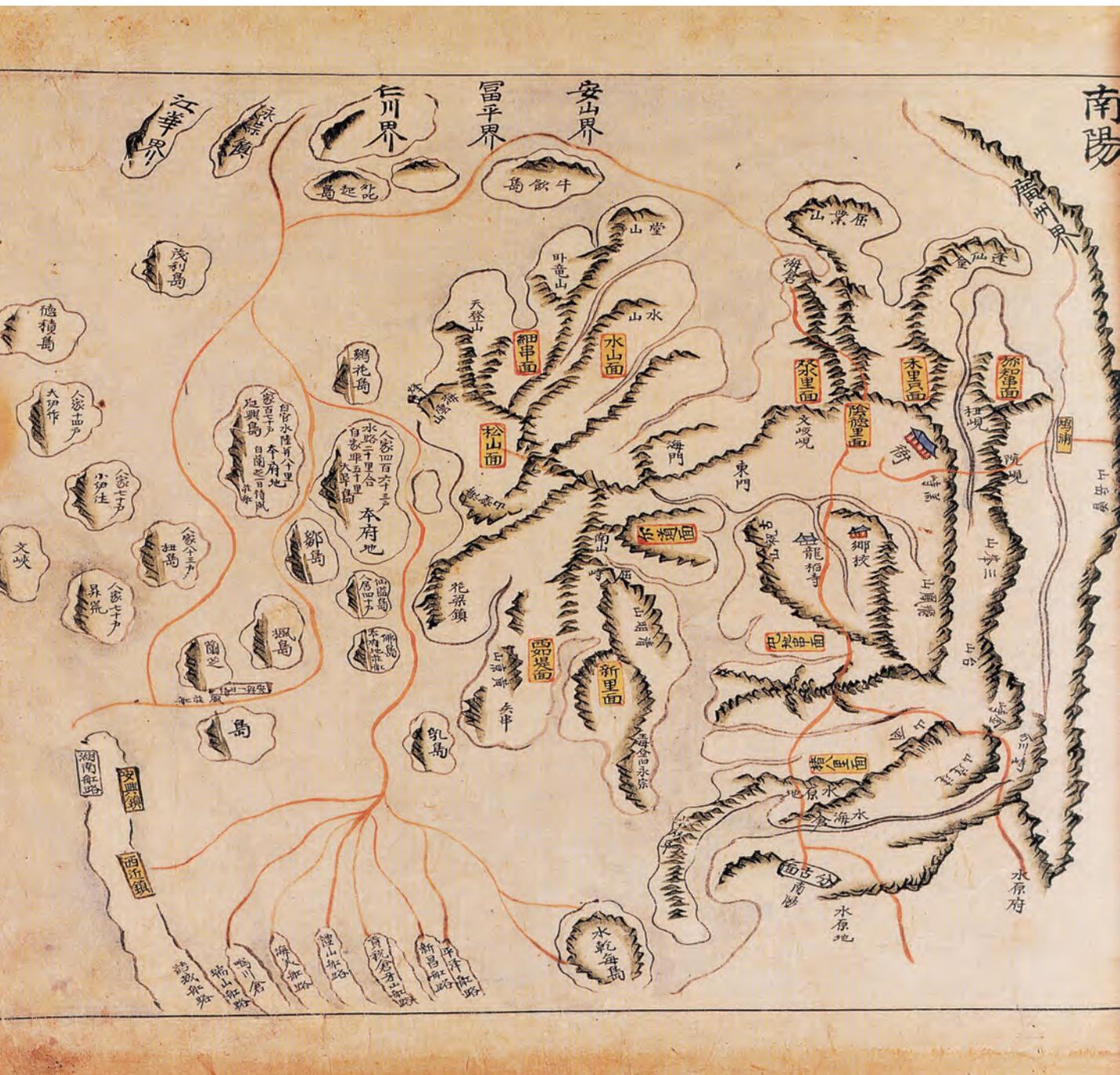
제부도의 간척은 앞방죽, 남원이방죽, 신탕죽, 새방죽 등의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능안산에서 선창 방향의 방죽은 1920년대에 축조되었는데, 이 방죽 건설로 염벚이 있던 지역이 들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앞방죽은 1960년대 축조되었고 이를 통해 앞방죽들이 만들어졌다.

섬과 땅,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

제부도(濟扶島)는 0.97km²의 작은 섬으로, 제부도라는 이름은 ‘젓부리섬’(또는 ‘젓비섬’)이라는 순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젓부리는 역삼각형인 섬의 모양이 젓뿔꼭지를 닮아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제부도라는 지명이 섬의 모양을 딴 데서 유래했다는 설명은 사람들에게 흡족한 대답은 아니었는지 또 다른 유래도 전해지고 있다. 즉 조선 중엽 이후 송교리와 제부도를 연결한 갯벌고랑을 “어린 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서 건넌다.”는 천자문의 제약부경(濟弱扶傾)이라는 말에서 ‘제’자와 ‘부’자를 따 왔다는 것이다.



■ 「대부지도」에 나타난 제비도(18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해동여지도』 「남양」에 나타난 유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부도라는 이름은 1530년(중종 25)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등장한다. 그 이후 『동국여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등과 각종 고지도에 그 이름이 보인다. 고지도에 제부도가 표시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부도(濟扶島)로 표시된 것으로 『남양부읍지』, 『남양군읍지』, 『경기지』 등의 읍지류에 수록된 지도와 1872년 팔도지도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제비도(濟飛島)로 표기된 것인데, 이는 젓비섬을 한자로 표현한 것으로, 「대부지도」에 단 한 차례 나타난다. 세 번째는 유도(乳島)라고 표기된 경우로, 이는 제부도의 한글 이름인 젓부리의 또 다른 한자식 표현으로 보인다.¹⁾

제부도의 주요 지명

	지명	내용
1	고도섬	제부도 북쪽 선창 근처의 작은 섬
2	탑재산 (탑산, 탑지산)	제부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탑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
3	당산(당재산)	안동네 뒷산으로 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
4	육골산	육골마을 뒷산이므로 붙여진 이름.
5	능안산	한우물 동쪽에 있는 산으로, 구릉지라서 붙여진 이름.
6	동미산 (동밀산)	안동네에서 남서쪽 매바위 방향으로 있는 조그마한 산으로, 동네 끝에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
7	안동네	제부도 당산 아래에 있는 큰 마을로, 섬 한가운데 있으므로 안동네라고 함. 제부리의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함.
8	뒷술 (뒷장술, 해수욕장)	안동네 뒤에 있는 해수욕장 자리를 뒷술이라 부름. 술은 넓은 땅을 가리키는 순우리말.
9	왕지물	탑재산 밑의 마을로, 옛날에 왕이 잠깐 머물렀다 간 적이 있어 왕지물이라 함.
10	한우물	당산 밑에 있는 동네 우물 이름이자, 이 우물 주변에 형성된 마을 이름. 물이 잘 나와서 큰 우물이라 하던 것 또는 매우 차기 때문에 찬 우물이라 하던 것이 한우물로 바뀌었다고 함.
11	개골	개머리 모양이라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자 마을 이름으로, 옛날에 대부도 흘끗동의 이 서방네가 와서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거주하지 않음.

1) 그런데 유도와 제부도를 같은 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유도의 위치가 지도에 따라 아주 다른 곳에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지도는 유도를 불도(佛島) 아래편 서여제면 옆, 즉 제부도와 같은 위치에 그렸으나, 방안도법에 의해 그려진 고지도에는 유도가 어도와 선감도 사이에 위치한다. 또 다른 문제는 『여도비지』, 『대동지지』에 제부도와 유도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제부도와 유도를 각각 별개의 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2	육골	꿀짜기 이름이나 마을 이름으로, 옛날에 유 서방네가 살았기 때문에 육골이라 불렀다가 유 꿀-육골로 변함.
13	남마당	대추나무짓걸 쪽에 있는 편평한 지역으로, 1950년대 후반 실향민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이 만들어짐.
14	벌논	한우물 앞 벌에 신방죽을 쌓아 생긴 논임.
15	앞방죽	안동네 앞에 있는 방죽이라 앞방죽이라 함.
16	남원이방죽	앞방죽에 이어 제부분교 앞쪽에 있는 방죽.
17	신방죽	탑재산에서 한우물 쪽으로 막은 방죽으로,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신방죽이라 함.
18	새방죽	능안산에서 선창 쪽으로 새로 쌓은 방죽
19	매바위	동미산 쪽에 있으며 송곳같이 뾰족한 봉우리가 대여섯 개 있음.
20	말바위 (말대가리)	해수욕장 북단에 있는 말머리 모양의 바위.
21	앞우물	안동네 앞 논에 있던 우물로, 마을 앞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22	감길 (바닷길)	하루에 두 번씩 육지로 연결되는 2.3km의 길로, 도로가 나기 전에는 겨울에 차가운 필길을 건너다니기 위해 짚신으로 감발을 하였기 때문에 감길이라고 함.
23	안동네길	감길에서 안동네로 들어가는 마을길.
24	앞방죽길	앞방죽 앞 바닷가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도로는 놓았는데 이를 앞방죽길이라 부름
25	왕지물길	감길에서 왕지물 선창으로 가는 새 포장도로를 말함.
26	뒤턓길	해수욕장이 있는 해안도로를 뒤턓길이라 함.
27	밴대이짓걸 (밴대이길걸)	동미산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난 길로, 밴대이 잡으러 가는 길이라 붙여진 이름(또는 밴대이가 많이 잡혀서 붙여진 이름). 길걸은 길거리의 변음이고 짓걸은 길걸의 변음임.
28	대추나무짓걸 (대추나무길걸)	안동네에서 앞방죽으로 연결된 세 개의 도로 중 남한이방죽과 사이에 있는 길을 말함. 길 옆에 대추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29	우물뒤턓길 (우물길걸)	안동네에서 앞방죽으로 연결된 세 개의 도로 중 가운데길로, 길옆에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30	시나무짓걸(시 나무길걸)	안동네에서 앞방죽으로 연결된 도로 중 동미산 쪽에 가까운 길로, 정자나무인 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31	오망짓걸 (오망길걸)	안동네에서 당산 밑을 거쳐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길로, 큰 어망을 펴서 넣고 걷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 오망은 어망의 변음.
32	골연짓걸 (골연길걸)	오망짓걸 북쪽에 있으며 골논을 지나 바다로 나가는 길. 꿀짜기논인 골논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33	감나무짓걸 (감나무길걸)	안동네에서 해수욕장으로 건너가는 길로, 감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34	먼둑짓걸 (먼둑길걸)	감나무짓걸과 밴대이짓걸 사이의 길로, 원래는 빗먼둑길걸인데 빗자는 빠지고 먼둑짓걸이라 부름.
35	선창	왕지물 쪽에 있으며, 배를 대고 짐을 싣거나 부리는 시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36	뒤턓	해수욕장 뒤편에 펼쳐진 갯벌.
37	앞넓	바닷길 아래에서 안동네 앞으로 펼쳐진 갯벌



선창

고도섬

남도락

탐재산

원지물

감길

감뿔

밧건너

새방죽들

말대가리

능안산

뒷방죽들

개골

안방죽들

안우물

육골

당제산

남야당

안종네

앞방죽(앞방죽길)

뒷슬

앞방죽들

동미산

매바위

제부도라는 섬 이름 외에도 제부도에는 다양한 지명과 그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인조 임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 ① 탐재산 : 인조대왕이 병자호란 때 충청도로 피난을 갔다가 배를 타고 올라오던 길이 었다. 인조대왕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제부도에 잠시 정박했는데 산이 가까운 터라 쉬 어 가는 동안 인조대왕이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탐을 쌓았다. 어떤 사람은 물때를 기다 리느라고 잠시 정박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 ② 왕지물 : 왕이 앓았던 자리라 왕지물이라 한다.
- ③ 한우물 : 옛날에 최씨네 증가 처녀가 물을 길고 있는데 인조대왕이 지나다가 물을 떠 달라고 해서 마시고 갔다. 그 후로 처녀는 수절을 해서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한우물이라고 한다.

이 설화들은 제부도에 전해 오는 이야기이지만, 대부도의 왕жат제, 종현동, 왕지정의 유래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① 왕жат제 : 병자호란(이괄의 난) 때에 인조대왕이 피난차 대부도에 잠시 머물러 동사무 소 앞 논뜰 건너 등성이의 잔디밭에 앉았다 다시 피난길을 떠났기 때문에 왕жат제라 한 다.
- ② 왕지정 : 인조대왕이 병자호란(이괄의 난) 때 피난 중 대부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신하 에게 숲 속에 우물이 있을 것 같으니 물을 찾아보라고 하자 신하가 황급히 그곳에 들어 가 보니 조그만 우물이 있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왕에게 바치니 갈증을 느끼고 있던 왕이 단숨에 물을 마시고 난 후 이 우물 왕지정이라 한다.
- ③ 종현동 : 왕지정이 있던 마을에 기념으로 쇠로 만든 종을 하사하여 종현동이라 한다.

이처럼 제부도와 대부도의 전설이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은 두 지역이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문화적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에 개골의 사례가 도움 을 준다. 개골에는 옛날에 대부도 흘곶동의 이 서방네가 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거주하지 않으

며 분묘(위치는 제부리 산20번지로, 1910년대 자료인 『토지조사부』에는 이원옥이 연고자로 기록되어 있음)만 몇 기 남아 있다고 한다. 대부도 흘곶동은 현재 대부남동 남4리 일대로 이씨가 오랫동안 세거했던 곳으로, 대부도 흘곶동에 거주하던 이씨들 중 일가가 제부도로 이거해서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전주 최씨에 밀려 이씨들이 제부도에서 대부도 흘곶동으로 이주해 갔다고도 함). 따라서 이러한 이주민들을 통해 대부도의 설화가 전파되기도 하고, 대부도 사람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설화가 전파되어 제부도에 맞게 변형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인조가 병자호란 때에 제부도에 왔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기가 어렵다. 다만 여러 상상을 통해 개연성 있는 설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우선 위 이야기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유래를 권위 있고 상징적인 존재인 임금과 연결 지음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역 공동체 성원들에게 전파되고 지속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최소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부도 지역은 전쟁이나 반란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 이상 임금의 친림(親臨)을 상정할 수가 없다. 비상상황 중에서 병자호란은 가장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는 강화도로 들어가 청에 항전하려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만 일대는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화랑진에 있던 경기수영을 교동으로 이전하는 등 서해안 방어체계가 변경되면서 남양만 일대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병자호란은 제부도에 임금이 친림하였다는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만드는 가장 적합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도 있다.

사실 19세기 말까지 읍지류와 고지도에 섬 이름이 등장하는 것 외에 제부도는 여타의 역사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제부도가 국가의 지방 지배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지역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제부도는 1866년에 가서야 실록(『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0월 16일 신축)에 등장하는데, 제부도의 파수장(把守將)이, “서양 배 7척이 이달 15일 신시(申時)에 서해 쪽으로 물러갔는데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보고한 내용이다. 즉 제부도 부근에 이양선이 출몰한 것인데, 1871년에도 경기감사 박영보는 제부도 인근에 나타난 이양선의 상황과 서양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경기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방금 남양부사(南陽府使) 신철구(申轍求)의 첩보(牒報)를 받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화랑첨사(花梁僉使)와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막 바다 가운데에 들어서자 세찬 바람이 크게 일어서 도무지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제부도(濟扶島)로 물러나와 정박하였는데, 양선(洋船)의 종선(從船) 3척(隻)이 떠 오기에 손을 흔들어 불렀더니 배는 과연 잠깐 멎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왔다고 써서 보였더니 그들 서너 사람은 배에서 육지로 뛰어내렸습니다. 글을 써서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또 ‘어느 달 어느 날에 우리나라 지역에 왔으며, 배는 몇 척인가?’라고 물어보니, 그들은 서양글자를 써서 보여주었는데 모두 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무엇을 그리고 또 손을 들어 큰 배가 있는 곳을 가리켰는데 함께 가서 문답을 하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鉛盒) 1개(箇)와 소도(小刀) 1병(柄), 건병(乾餅) 1탁(囊)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환급(還給)하였더니 빵 주머니는 받지 않고 그냥 큰 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모양은 눈이 움푹하고 콧마루는 높으며 눈썹과 머리털은 누르스름하였고 웃은 모두 검은 색깔로 확실히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내일 다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라고 이뢰었다.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4월 8일 정묘〉

이렇듯 19세기 열강의 침략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제부도 역시 제국주의적인 세계체제로 편입되면서 역사 속에 그 얼굴을 내보였다.

낙도에서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관광지로

제부도는 물에서 떨어진 외딴섬, 즉 낙도(落島)였다. 1950년대까지도 남양만 일대의 해안 경비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1958년 11월 18일에는 제부도 앞바다에 무장한 북한 간첩선이 나

타나 남한의 해안경비경찰대와 격전을 벌이다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때 경찰대의 경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이후 제주도 주변의 해안 경비가 강화되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남양만 일대의 섬들은 저개발 상태에 머물렀다. 비록 1980년에 경기도 15개 낙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제주도는 화성의 다른 섬들과 함께 경기대부권 도서개발지역에 포함되었지만, 제주도가 눈에 띄게 변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경제 성장과 교통의 발달로 가족여행과 여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의 명소가 관광지로 소개되었는데, 이때 하루에 두 번 썰물 때 일어나는 제주도의 해탈현상(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섬이 되 섬이 아닌 제주도의 독특한 환경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었다. 제주도는 '모세의 기적'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관광지로 부상하였다. '모세의 기적'이라 이름 붙여진 제주도 바닷길의 환상적(幻想的)인 장면은 화성팔경 중 제3경(濟扶모세)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한겨레 1991년 6월 8일

하루 두 번 바닷길 내보이는 제주도

매바위 갈대밭 백사장 구경거리
물맛 일품 ... 때 못 맞추면 간혀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세의 기적' 하면 진도가 쉽게 떠오른다. 그러나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것도 날마다 두 차례씩 바다가 갈라져 물과 섬 사이에 길이 나는 흥미로운 장소가 있다.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제주도.

넓이가 1km가 채 안 되는 이 섬은 하루에 두 차례 간조 때면 바닷물이 좌우로 빠져 나가 육지까지 너비 3km, 길이 2.3km의 단단한 길이 생겨나 휴일이면 기적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두 자 깊이의 바닷물이 빠져 나가면서 생기는 이 길을 섬으로 향해 차로 달릴 때면 마치 환상의 세계로 초대 받은 듯한 기분에 가벼운 흥분마저 이다. 길 양쪽으로 최고 500미터까지 드러나는 개펄은 갑작스런 변화에 놀란 엄지손가락 크기의 새까만 칠게들의 대이동으로 꿈틀거리고 바위틈은 바지락이나 굴의 은신처가 된다. 장화만 있다면 이것들을 한 양동이 그득히 잡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장에서 이런 짓을 했다가는 단단히 야단을 맞는다.

섬에 상륙한 뒤에는 시계방향으로 섬을 일주해 볼 만하다. 매들이 날아와 동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는 매바위, 서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갈대밭, 1km 정도 곧게 뻗은 백사장, 서해 치고는 꽤 맑은 바닷물 등의 구경거리가 8km 남짓의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사는 60여 가구 200여 주민들은 대부분 땅콩이나 벼를 짓는다. 특히 모래땅이 많은 탓에 땅콩이 잘된다고 한다. 아직 정부로부터 전기 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해 주민들 스스로 자가발전시설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물도 지하수를 퍼올려 쓰고 있는데 이 물맛은 제주도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다.(이하 생략)



■ 돌을 놓아 만든 바닷길(화성시청 포도갤러리)

제부도와 송교리를 연결하는 바닷길은 원래 갯벌이라 걸어가면 발이 푹푹 빠졌다. 과거에는 맨발로 그냥 걸어 다녔는데, 봄에서 가을까지는 맨발로 건너기가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것이었지만, 겨울에는 발이 얼어 동상에 걸리는 등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공여지책으로 지푸라기를 돌로 짊어 부드럽게 만든 후 이것으로 발가락을 감쌌다. 동상이 주로 발가락 부위에 걸렸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감발만 하여도 이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바닷길을 감발길이라 불렀다.

제부도 주민들이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바닷길을 이용하거나 전마선(傳馬船,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를 다니며 연락을 하거나 짐을 나르는 작은 배)을 타야 했는데, 1965년 3월 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사강장에 갔던 제부도 주민 5명이 전마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모두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제부도 주민들에게 육지를 오가는 일은 불편하고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은 1969년부터 바닷길에 돌을 놓기 시작하였다. 부녀자들은 양동이에 돌을 담아 섬 부근부터 썰어나갔고 좀 더 먼 곳은 인력거 10대를 사서 돌을 실어 날랐다. 그런데 이 바닷길 갯고랑 중에는 깊이가 2m가 넘는 곳도 있어 이곳을 때울 때는 배로 돌을 옮겨야 했다. 이렇게 하여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닐 정도인 60cm 폭으로 돌길이 놓였다.



■ 시멘트로 포장된 바닷길(화성시청 포도갤러리)

그 후 3m로 바닷길을 넓혔고 도로를 포장하였는데, 1975년 7월 2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서울의 고등학생과 교사들이 제부도-송교리 간 도로(폭 3m, 길이 1km) 개설공사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988년에는 1차선으로 시멘트 포장이 실시되었고, 교통량이 증가하자 1992~1993년에 길이 2.3km의 2차선 시멘트도로로 건설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끝에 현재의 도로는 만조 때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리 때에는 하루 8~10시간 정도 통행이 제한되는 반면 조금 때에는 거의 24시간 내내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섬 주변의 수심이 얇기 때문에 바닷길이 통제될 정도의 만조 때라도 선박을 운항하기가 쉽지 않아 이 기간에는 섬과 송교리 간의 통행이 어렵다.

제부도 바닷길의 통행가능시간표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성시청, 제부모세정 보화마을, 제부도유원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이전에는 바닷길 통행료로 성인 1인당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였지만, 2009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조석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바닷길의 특성으로 제부도는 별도의 수단 없이 차량으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때에 따라 섬의 특징도 나타나는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게 되었다.

최처대는 신임사화로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명승산천을 찾아 주유(周遊)하던 중 제부도의 경관이 수려하여 이곳에 연지를 파고 연꽃을 심은 후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그 후 서울 사동에서 가솔을 데리고 와 세상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은거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그 후세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세거한 것이다. 당시 최처대는 아름다운 제부도의 풍경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鷹岩砂色非冬雪 매바위 모래 빛은 겨울이 아닌데도 눈빛 같으며
 鵲鳥波聲不雨雷 까치 섬 파도소리는 비도 아니 오는데 뇌성 소리와 같구나.

이 시는 조선시대 제부도 일대의 자연환경을 표현해 주고 있다. 즉 매바위와 맑은 모래, 까치 섬의 파도 소리를 통해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부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정쟁에 지친 그에게 이 섬은 안식처이자 일종의 유토피아였던 것이다.

전주 최씨 사평공파 사람들은 바닷바람이 비교적 약한 안동네에 자리를 잡아 마을을 형성하였다. 1910년대 안동네는 28필지의 대지를 16명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15명이 전주 최씨였고, 전주 최씨 외에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계석뿐이었다. 논과 밭의 경우 총 268필지 중 224필지를 전주 최씨가 소유하였고, 나머지 44필지만을 타성 주민(김갑용, 김남원, 김춘선, 방희린, 이계석, 이원옥, 이창식, 정선동, 정선봉, 차군삼 등 10명)이 소유하였다. 이는 제부도가 전주 최씨 동족마을이었음을 의미한다.

1910년대 제부도 안동네 대지 소유자명

연번	번지	소유자명	연번	번지	소유자명
1	124	최영식(崔永植)	15	152	이계석(李啓錫)
2	128	최우식(崔禹植)	16	153	최병헌(崔炳憲)
3	129	최주철(崔周撤)	17	154	최홍식(崔弘植)
4	130	최봉균(崔鳳均)	18	155	최영식(崔榮植)
5	131	최봉균(崔鳳均)	19	156	최인철(崔仁撤)
6	132	최홍식(崔弘植)	20	157	최영식(崔榮植)
7	133	최용균(崔龍均)	21	158	최장흥(崔長興)



■ 제부도 남단에 위치한 매바위(화성시청 포토갤러리)

8	135	최용균(崔龍均)	22	159	최창식(崔昌植)
9	136	최홍식(崔弘植)	23	161	최진섭(崔鎭燮)
10	137	최은식(崔殷植)	24	163	최봉균(崔鳳均)
11	138	최종식(崔鍾植)	25	164	최봉균(崔鳳均)
12	149	최영식(崔永植)	26	165	최봉균(崔鳳均)
13	150	최병현(崔炳憲)	27	166	최주철(崔周徹)
14	151	최홍식(崔弘植)	28	167	최진택(崔鎭宅)

제부도에는 1929년경에 32호가 살았는데, 이후에도 호수의 규모는 30~40호를 유지하면서 1950년대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50년대 후반 북한 실항민 10여 호가 제부도로 이주해 와 제부분교 부근 남마당에 정착하였다. 이에 제부리 촌락은 원주민 주거지인 안동네와 제부분교 부근 마을로 구분되었다.

제부도에는 마을 뒷산인 당산에 자생하던 몇 백 년 묵은 소나무를 당산나무로 숭배하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민속신앙이 있었다. 제부도의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에 제사를 지내는 당제를 매년 열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당제를 지낼 길일과 시간을 계산하고, 마을에서 제일 정결한 사람을 당주로 선출하여 당제를 집관하게 하였다. 당주를 중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화장과 축관 등 3인이 당제를 집전하였는데, 이들은 당제가 열리는 날에 목욕재계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당산으로 올라가 하룻밤을 꼬박 새어 당제를 지내고 내려왔다고 한다. 이러한 당제의 풍습은 당시 마을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주 최씨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들도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화합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이자 의례였다.

제부도에서는 당제의 제물을 만드는 회장을 따로 선출하여 직접 만들게 하였는데 닭을 잡아 올리고, 흰밥과 말린 송어, 갓은 나물, 무조각과 다시마를 삶은 맑은 탕을 올렸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당산의 정결한 곳에 터줏가리를 두고 당제에 올릴 제기를 보관하였다가

당제가 열릴 때마다 정해진 제기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2~3년마다 마을에 무당을 초청하여 당산나무에게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비는 당굿을 개최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부도에 교회가 들어와 기독교신앙이 뿌리내리고 당산나무였던 소나무도 말라 죽어 당산나무신앙도 함께 사라진 상태이다.

한편 제부도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외지 인구가 대거 유입되어 마을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외지인들은 섬으로 이주하여 주로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숙박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제부도로 이주해서 펜션을 운영하며 자녀를 키우고 사는 어가촌 안주인의 '제부도 이야기'에는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과 심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1910년대 제부도 안동네 대지 분포



■ 1960년대 제주도 마을 잔치(김원홍 소장)



■ 1960년대 친구들과 뒷밭에서(김원홍 소장)

마을을 들어서기 초입에 있는 아이의 학교는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라고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교실 셋, 교무실, 식당, 선생님 기숙사 그리고 41명의 학생과 세 분의 선생님 그리고 소사 아저씨와 식당 아줌마…… 이렇게가 학교 식구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60호 정도의 마을 사람들과 또 60호 정도의 나처럼 외지에서 흘러들어 온 사람들…… 모두가 학교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어서 학교의 행사는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어 버리곤 하죠. 결국 섬은 전체가 하나의 식구로 울타리 쳐져 있어요. 얼마 전에 치른 '가을 운동회'…… 전체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내어 놓은 꽃게로 게무침을 하고 어느 분은 굴을 몇 통 내어 놓아 어리굴젓을 담고 마을에서 뽑아 온 배추로 곁절이를 하고 지짐을 지지고 하는 일들의 음식장만을 학부모와 부녀자들이 학교에 모여 밤이 늦도록 하였습니다.

동네 청년들은 밤을 새워 만국기를 걸고 운동회 때 쓸 도구들을 만드느라 몇 날 며칠을 모였습니다. 밤이 이미 깊어서 모든 준비가 끝난 마을사람들은 전아저로 막걸리에 게무침을 먹으며 낄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운동회 당일엔 아이들 게임이 반이고 마을 사람들 게임이 반이어서 아이들 행사에 동네잔치로 섬이 떠들썩할 지경이죠. 시골 학교는 매년 학생수가 줄어 폐교의 숫자가 늘고 있다지만 이곳은 조금씩 학생수가 늘어 내년에는 교실 10개의 분교로 개축할 계획이랍니다.

아침이면 해변도로를 타고 바다를 배경으로 삼삼오오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 모습은 영화 ET의 장면처럼 정말 동화 같아요. 정말 예쁜 나의 아이는 갈래머리를 휘날리며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학교로 향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의 아이의 자전거 앞 바구니엔 항상 들꽃들이 풍성히 담겨져 있어요. 꽃을 따오지 말라고 늘 타일러도 아이는 늘 수줍은 모습으로 “너무 이빠서…… 엄마 줄려고……”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아단치질 못하고 미는걸요. 결국 아이가 따온 꽃들을 두툼한 책속에 차곡차곡 끼워 놓아요. 겨울이 되면 책속의 꽃들이 얼마나 이쁘게 화려한 빛깔은 없어지고 노랗게 바랜 모습으로 향수처럼 마른답니다. 흰 눈이 올 때쯤엔 그 꽃을 편지봉투에 담아 당신에게도 편지를 쓸 생각이예요.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아이도 나도 날마다 풍요로워지는 날들이예요. 언젠가 당신이 이곳에 오시면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와 나의 구릿빛 생활에 너무 부러워 시샘이 나실걸요. 오늘 점심식탁엔 부대찌개와 콩나물무침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동태전이 올라간 이곳은 섬, 제부도예요. <어기촌, 2001, 제부도 이야기 6-나의 구릿빛 생활 (www.jebudo.com)>

제부도의 관광 관련 시설이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들의 주도로 개발되고, 원주민의 경우 급격히 관광지로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원주민과 새로 이주한 주민들 간 갈등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제부도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행복한 공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부도에서 생산되는 것

제부도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평지가 존재하고 있어 과거부터 어업보다는 농업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 1915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보면 제부리에는 논이 8만 668평, 답이 3만 8,630평 정도가 있어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경에 제부도의 호수가 40호 미만이었으므로 농지개혁 이후 1호당 평균 경작평수는 논과 밭을 합해 2,000~3,000평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육지 지역의 평균 농경지 소유 규모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 해 농사가 풍년이면 삼 년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할 만큼 제부도에서 농사는 안정적인 생업이었다.

1950년대 후반 제부도에는 이북 실향민 10여 가구가 이주해 왔는데, 이들은 제부도에서 땅콩을 재배하였다. 제부도의 밭은 물이 잘 빠지고 일사량이 많아 땅콩이 잘 자랐다. 땅콩 재배로 소득이 높아지자 원주민들도 이에 동참하여 한때는 제부도 밭의 90%가 땅콩 밭이었다. 이처럼 땅콩이 제부도의 특산물로 유명해지자 제부도 학생들이 객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닐 때면 ‘땅콩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땅콩 재배는 40여 년간 벼농사와 함께 지역 농경의 주축을 이루었는데 1991년부터 중국산 땅콩이 수입되자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이후에는 재배농가가 없어졌다. 제부산 땅콩은 수입산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맛이 있었으나 1가마당 가격은 중국산 땅콩의 3배나 되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재배농가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제부도가 급속하게 관광지로 변화하면서 지가가 상승하자 주요 땅콩 재배지였던 해안도로 주변의 토지가 상업용 택지로 이용되거나 개발을 기대하며 휴경지가 된 것도 땅콩 재배가 소멸된 이유이다.

제부도의 농업은 벼농사가 위주였으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점차 포도밭을 비롯한 밭작물

연산(年産) 천여(千餘) 석(石)으로 판로는 축년(逐年) 발전 수원-남양-석화

수원의 특산물이라 하면 수종이 있으나
기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은 남양석화를
지칭하게 된다.

남양은 원래 고읍으로서 현금 수원군 읍
덕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우정
면 매송면 반월면 향남면 수원군 서부에
있어 황해 연안에 돌출하여 일명 남양반
도라고도 칭한다. 삼면 해안의 굴곡선이
수십 리에 긍하여 그 부근 일대가 전부
석화의 소산지이다. 그리하여 일 년 중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산출되나 춘추에 제
일 많이 산출하게 되어 일변 중 총생산고
가 약 천여 석으로서 오만여 원에 달하는
바 생산자는 대부분이 빈농층이어서 농한
기를 이용해야 채취하게 된다면 특히 부
녀노약으로서 종업할 수 있으므로 농가의
유일한 부업으로 되어 있다. 그 용도는
실로 광범하여 왕고에는 진상품으로 유명
하였으며 봄과 여름이면 효 굴젓(일명 어

리젓) 지지민 등에 적절하다 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침장(집치)에 필요품으로서 어느
가정을 물론하고 굴이 아니면 침장할 줄
을 몰을 만큼 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각
방면으로 용도가 많으나 한 가지 더욱 저
명한 것은 굴 덴뿌라와 굴 불이미(전병)야
말로 진미라고 한다. 그리고 굴겉줄(피각)
은 석분 혹은 사료로서 사용하게 되어 실
로 버릴 것이 없는 명물이다. 판로는 경
성을 위시하여 전조선 각 지방에 이출되
며 최근에는 만주 방면으로도 많이 수출
되나 아직 수량이 근소하여 숫자적 통계
까지는 없다.

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 또한 많은 원주민들이 소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업
과 관광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농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많
은 농지들이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바뀌고 있다.

한편 남양만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넓은 갯벌이 발달
하였기 때문에 어패류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었는데, 남양만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중 가장 유
명한 것은 남양굴이었다.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한다.”는 속담은 남양만에서 굴이 많이 났음
을 나타내 준다. 1911년에 편찬된 『조선지리지』에 따르면 당시 남양에서 굴이 생산되고 있
던 지역은 서신면 제부도, 송산면 포막동, 우정면 고온포, 대부도, 선재동 등 5곳이었다. 남양굴
의 인기는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되어 국내 각 지방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판매되었다.



■ 굴양식장 만들기(화성시청 포토갤러리)

1949년 7월 1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1949년에 수원군 어업조합은 남양반도의 굴을 증산시키기 위해 제부도에 3만 평의 양식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서 생산된 굴을 가공하여 각 도시에 공급할 계획이며 질의 향상과 육성·채취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만 평씩 3단씩으로 채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양식장 공사가 추진되었는데, 이때 제부도민 200여 명과 제부분교 학생 40여 명이 참여하였고, 6월 3일에 양식장이 준공되었다.

굴을 기르는 방법은 돌을 바다 속에 투하하여 그 바위에 굴이 붙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양식 방법상 투석식이라 하는데, 산에서 채석한 돌이나 해안가 주변의 돌을 바다에 던져 넣으면 자연적으로 굴 포자가 붙어 굴이 자랐다. 굴 양식이 잘되는 지점은 만조 시의 60% 정도 물이 차는 곳으로, 이곳에 30cm 내외의 돌을 0.7~1m 정도의 간격으로 못 심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썰물 때에는 갯벌에 많은 돌이 보이는데 대부분 굴 양식을 위해 투하된 돌이다. 1950~1960년대에 도 제부도 주변에 굴양식장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돌을 깨거나 옮기는 작업에 부역으로 참여하였다.

제부리는 1985~1986년 시화방조제 보상 이후 면허가 소실되었다. 2000년경 제부도에서 어업 및 어패류 채취 등에 종사하는 어업가구는 약 70가구 정도였다. 제부도의 원주민으로서 과거부터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이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제부도 인근 해역의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서 김양식 인가 등을 취득해 들어온 이주민들이다.

제부도에는 뱃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선단이 있는데, 주로 김양식업자들이다. 제부도 전체



■ 제부도 김양식장(화성시청 포토갤러리)



■ 김 수확 장면(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의 선단장은 1명으로 리더십이 있고 “뱃놈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한다. 시화간척사업 이전에는 주로 지주식 양식을 하였으나 지금은 부유식이다. 지주식은 책 10당 10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부유식은 50톤 정도 생산되어 5배

이상 더 생산된다. 김양식장 관리선은 3~4명이 타는데, 하루 작업을 보면 보통 아침 8시경(물때가 맞지 않으면 6시경) 출발하여 오후 1시경에 돌아온다. 김은 겨울농사라 하지만, 그물손질까지를 생각하면 1년 농사가 된다. 그물손질은 여름에 하는데 4월에 그물을 철수하여 한곳에 모아 두 달 정도 비를 맞게 한 후 썬으면 양수기로 빨아서 그물의 때를 제거하고 수리를 한다. 제부도에서 생산된 김은 ‘제부도 맛김’이라는 브랜드로 상품화되어 중국까지 수출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제부도 주변 해역에서 바지락과 석화가 많이 채취되었기 때문에 조개구이와 바지락 칼국수를 파는 식당이 제부도 전역에 많이 들어설 수 있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해수욕장 주변으로 조개구이와 바지락칼국수 등을 주요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이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제부도에서 직접 잡는 양은 그리 많지 않고 중국산과 북한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부도 어촌계에서 직접 수산물직판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판매되는 양을 감당하기에도 현재는 자체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북한산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직접 수입되지는 않고, 중국을 경유하여 들어온다.

제부도의 바지락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시화방조제와 화홍방조제 건설로 제부도 주변 수역의 해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제부도해수욕장 앞쪽 바다의 경우 예전에는 모래와 빨이 적절하게 혼합된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바지락이 다량으로 채취되었지만 최근에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서 바지락의 서식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반면 빨의 양이 늘어나면서 니질에 주로 서식하는 썩이 많이 잡히기 시작하고 있으며, 썩을 먹이로 하는 낙지의 수확량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바지락 등의 종패를 뿌리는 사업을 여러 차례 해 보았지만 주변 해역환경의 변화로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어종자원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김현미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마당으로 모였다. 어둠이 깔린 피난민촌 마당에는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에 모두들 나와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어! 우리 아버지다!”

“저거 순이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오네.”

사람들은 스크린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확인하며 신기해 했다. 이날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은 화성군 서신면 매화리 피난민촌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다.

미공보원에서 만든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매화리 앞바다에서 마치 개미처럼 돌을 나르고 독을 쥘는 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1948년부터 '대한뉴스'의 전신인 '리버티뉴스'를 제작하던 미공보원 영화과에서는 뉴스 외에도 전후 한국의 부흥상, UN과 미군의 원조, 한국인의 생활과 풍습 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여 순회 상영하였다. 바다를 밀어내고 독을 쥘는 매화리 앞바다의 개미노동은 피난민들의 전후 복구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던 것이다.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상영되었다고 한다.

■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이 일군 공생염전과 매화리 전경(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휴전선 이북 출신 피난민들은 낮은 땅에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에 잠시 피난을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 긴 피난생활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대부분 옷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다. 정부는 피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지역별로 분산 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서해안 지역의 간척사업을 들 수 있다. 공유수면(公有水面)을 매립하여 염전이나 농지를 조성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정책으로써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남한은 심각한 소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염전들이 대부분 북한 지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남한 정부는 소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52년부터 염 증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관영이던 제염업을 풀고 민간에게도 염전 개발을 허용하였다. 전쟁 피난민들이 서해안 지역에 분산 수용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195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에서 전라남도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곳곳에 염전이 조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천일 염의 주산지인 신안군의 염전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경기도 남양만 일대에도 간척을 담당할 피난민들이 배치되었다.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의 주인공들은 수원·안성·평택 등지에서 거처하던 피난민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1·4후퇴 때 철원·평강·김화 등지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로, 미군의 소개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다. 이들이 경험한 피난길은 사선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함께 걸던 가족이 폭격으로 죽어 가는 것을 보았고, 동생을 업고 걸던 10대 소녀는 너무 힘들어서 동생을 길에 버렸다. 살아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몸 하나 누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 피난민수용소에서 지낸 사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 기와를 굽던 가마 안에서 지낸 사람도 있고, 언덕에 움을 파고 들어가 지낸 사람도 있었다.

피난민에게 배급되던 우유죽은 그 양이 너무 적었고 그나마도 배급소 앞에서 오랜 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피난민들은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 먹을

것을 얻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일과였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화성군 서신면에 가면 염전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서신면이 어디인지도 잘 모른 채 가장들은 가족을 데리고 서신면으로 가는 트럭에 올랐다. 수차례에 걸쳐 1,500명 가량의 피난민들이 서신면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당장 거처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서신면에서는 피난민들이 들어오면 이장들을 통해 각 마을로 몇 가구씩 배치하였다. 피난민들은 남의 집 결방살이를 하면서 CAC의 원조를 받아 생계를 이어 갔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더니 잘사는 마을에서는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 주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마을에 배치된 피난민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했다.

염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독을 쌓아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갯벌을 매립해야 했기에, 서신면 전역에 흩어져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남자들은 매일같이 매화리 앞바다로 독을 쌓으러 다녔다. 독을 쌓는 일은 바닷물이 빠진 동안에만 할 수 있어서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때에 맞춰 진행되었다. 밤에는 갯벌 곳곳에 횃불을 밝혀놓고 돌을 날랐다. 인근 뱀산의 돌을 캐서 구루마로 바다까지 운반하고 등짐으로 지어 날라 독을 쌓는 일이 이어졌다. 여자들은 거처하는 집의 일을 해 주거나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면서 간간이 대야에 잔들을 담아 머리에 이어 나르거나 죽 늘어서서 돌을 전달하면서 독 쌓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바다에 독을 쌓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한 달간 애써 쌓은 독이 사리 때 바닷물에 쓸려 나가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바다에 주저앉아 울었고, 허망함에 짐을 싸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독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바다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피난민들이 맨몸으로 돌을 나르며 바다에 독을 쌓는 것을 보고 인근 마을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였다. 피난민들이 정말로 독을 쌓는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독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MILITARY

POLICE

PROVOST
MARSHAL

P-1

■ 철원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떠나는 피난민들(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한국전쟁 60주년 사진집 1950 0625』, 2010)



■ 1966년 공생염전과 매화리 신촌 마을





둑을 쌓고 다시 쌓고 하기를 2년 남짓, 드디어 매화리 앞바다에 길이 874m, 높이 2~3m의 둑이 완성되었다. 또 2년여에 걸쳐서 길이 1,734m에 달하는 평균높이 2m의 염전저수지 둑을 완성하고 염전저수지 30정보, 염관 40정보, 유희지 20정보를 조성하였다. 사람들은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을 결성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염전과 유희지를 나누었다. 둑을 쌓는 동안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일 사무소에 들러 출근 확인과 당일 작업량을 배정받았는데 이 근무기록은 유희지를 분배받을 때 근거가 되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았다. 고생하며 일을 했어도 도중에 나간 사람은 땅을 받을 수 없었지만 중간에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조금이나마 땅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약 400가구가 매화리에 염전을 만들기 위해 들어왔다고 하는데, 둑을 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기를 반복하였다. 둑을 쌓다가 힘들어서 못 견디고 나가거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소문을 듣고 중간에 들어오거나 하면서 둑이 완성될 때까지 남아 있던 가구는 55가구였다.

공생염전? 고생염전!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던 피난민들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자고 염전에 ‘공생(共生)’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생조합은 염전 부지 전체를 나누어 1만 2,000평을 1개 호로 정한 후 1호당 6명의 조합원이 각 2,000평씩 소유하여 공동작업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염전의 바닥은 개흙으로 만들었는데, 높은 곳은 깎고 패인 곳은 흙을 더해서 수평을 맞추었다. 그냥 보기에 염전 바닥은 바둑판처럼 편평하게 보이지만 사실 저수지 물을 가장 처음 대는 증발지 1단계와 소금이 나는 결정지의 높이가 다르다.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5~10cm씩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염전의 종단면을 보면 계단 모양이다. 그래야 증발지에서 결정지까지 단계마다 물꼬를 터서 잔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유하식염전’이라고 한다.

공생염전에는 ‘사무실염전’이 있었다. 둑을 쌓을 때부터 사업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난민정착 사무소가 운영되었고 자치조합을 결성한 후에는 조합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들에게도 염전



■ 1980년대 공생염전(이순용 소장) _ 소금창고 뒤로 신촌의 모습이 보인다.

이 분배된 것이다. 그래서 소유주가 직접 생산하는 공생조합의 다른 염전과 달리 사무실염전은 임금노동을 하는 일명 '덧염부'를 고용하거나 임대를 주었다. 현재 공생염전 입구 공장 건물이 들어선 곳에 조합사무실이 있었는데, 1962년 소금이 전매 대상에서 제외된 후 없어졌다고 한다.

사무실염전은 나중에 외지인에게 팔려서 대양염전이 되었다. 그 후 대양염전은 소유주가 범정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생긴 후 경매로 나왔다고 하며, 당시 대양염전 직원이 이 사실을 배형식에게 알려 주어 그가 대양염전을 샀다고 한다. 배형식은 소금 전매제가 폐지된 후 짐자전거로 소금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번 사람인데, 나중에 공생염전을 더 사서 운영하다가 자녀들에게 상속하였다.

6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작업하는 조건이다 보니, 염전에 나오지 못하는 염부는 가족 중 한 명을 대신 내보내거나 '덧염부'를 사서라도 자리를 채워야 했다. 덧염부는 대개 외지에서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지만, 더러는 분배받은 몫을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공생조합 염부들은 염전 바로 뒤편에 있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지만 멀리서 출퇴근하

는 덧염부들은 점심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간혹 빈 도시락에 몰래 소금을 담아서 퇴근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그 정도는 눈감아 주던 시절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서신면에는 공생염전과 대양염전 외에도 중앙·수성·남창·당성염전 등 많은 염전들이 있었다. 염전 한 호에 6명의 염부가 일을 했고, 소금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전은 최고의 소비 집단이었다. 그래서 서신면 면소재지인 상안리 변화가에는 술집과 다방들이 많았다. 다방이든 술집이든 “장화 신고 나온 염부들한테는 물어보지도 말고 무조건 외상을 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에는 염전에서 통닭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는데 공생염전만 해도 60~70명의 염부들이 있었으므로 그런 날이면 통닭집은 매상이 대박 났다. 염부들 회식 날이면 변화가가 들썩였고, 하루에도 여러 명의 보따리장수들이 염전에 다녀갔다고 한다.

염전에는 염부 문화가 있었다. 봄에 소금을 내기 전, 염부들은 소금창고 앞에서 좋은 소금을 많이 내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돼지머리를 제물로 올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예전에는 염전의 작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소금바구니를 목도에 매달아 소금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이었다. 결정지에서 막 채취한 소금은 물기가 많아 적은 양이라도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허리를 다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염부들은 목도의 이음새에 나무 조각을 끼워 소금바구니가 흔들릴 때마다 “찌그덕” 소리가 나도록 했다. 이 소리에 박자를 맞추어 걸으면 소금바구니의 무게가 분산되어 덜 힘들었다고 한다. 비가 내리는 날은 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염부들이 소금창고 안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날은 모여서 옷놀이나 화투를 했다. 염전에서 옷놀이가 벌어지면 마을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떠들썩하게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한다. 가마니에 소금을 담아 팔던 시절에 공생염전 염부들은 포장할 때 가마니에 두르는 새끼줄에 색을 입혀서 다른 염전의 소금과 구별되게 했다고 한다. ‘청띠 홍띠 소금’으로 불리던 공생염전의 소금은 품질 면에서도 우수해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소금을 걷기 전 3~4시경이면 염부들은 새참을 먹고 소금 걷을 준비를 했다. 새참은 같은 호에 속한 6명이 순번제로 당번을 정해 준비했는데 점차 경쟁이 과열되어 새참을 준비하는 부인들의 부담감이 심해지는 폐해가 생겼다. 결국 새참은 찌뽕과 막걸리를 주문해서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찌뽕이 배달될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염전 주위로 모여들었고, 운 좋은 날이

면 뛰어다니다가 전빵을 하나씩 얻어먹기도 했다. 가끔 어느 집에서 특별한 새참을 내는 날이면 인근 염전의 염부들을 초대해서 나누어 먹었다. 새참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포장할 때도 먼저 일을 마치면 아직 작업 중인 염전으로 가서 도왔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생 염전 염부들은 이웃사촌이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염부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체의식이 약해졌다고 한다. 염전 조성 초기에 부임했던 한 사무소장이 “공생염전이라고 하지 말고 고생만 죽어라고 하는 염전이니까 차라리 고생염전이라고 해라”는 소리를 했을 정도로 피난민들은 염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공생염전을 지켜 온 염부는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음식 못 먹어도 이웃 간에 정을 나누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회상한다.

매화리 피난민촌 이야기

새로 생긴 마을. 공생염전과 맞닿아 있는 매화리는 ‘신촌(新村)’이라 불리던 곳이다. 이곳은 원래 어린 소나무가 자라던 야트막한 산이었는데, 피난민들이 소나무를 베고 언덕을 깎아 마을을 만들었다. 신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존한 피난민들의 기억을 더듬으면 대략 1955년쯤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들이 서신면에 들어오고 나서 신촌이 생기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그 사이 남자들은 각자의 거처에서 매화리까지 그 먼 길을 다니며 바다에 독을 쌓았으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철원 출신 피난민 47구가 가장 먼저 신촌에 집을 지었다. 흙벽돌을 찍어 벽을 쌓고 원조 받은 목재와 함석으로 지붕을 올렸다. 드디어 서럽고 힘들었던 남의 집 결방살이를 끝내고 비좁고 허름한 집일망정 내 집을 가질 수 있었다. 구호물자로 지어진 피난민주택은 크기와 구조가 모두 동일하였다.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고 그 사이에 아궁이 두 개짜리 부엌이 하나 있어서 두 집이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방은 가족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구당 하나였다. 그래서 사위가 와도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자야 했다. 가끔 한 부엌을 쓰던 가족이 떠나면 다른 가족이 들어올 때까지 독채로 사용하는 호사를 누리는 경우가 있었다. 신촌이 시작될 때는 이런 집들이 나란히 늘어선 줄이 2개였고 그 사이에 골목이 있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



■ 1960년대 신촌의 취락구조

면서 8개까지 줄이 늘어났고 1960년대에는 150여 가구 600여 명의 마을이 되었다.

신촌에는 염전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먹고살 길을 찾아 염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신촌을 드나드는 사이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다시 집을 지었다. 피난민주택에서 떨어진 곳에 큰 집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 살던 가족이 떠난 후 그 방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아예 매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흙벽돌집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집들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매화4리가 되었다.

신촌에는 우물이 없었다. 우물을 파기 위해 여기저기 뚫어 보았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지 않아서 결국 산 너머 소로지 마을의 우물을 이용했다고 한다. 소로지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은 대개 10대 여자 아이들의 몫이었다. 아버지는 염전에 일하러 가고, 어머니는 나무하러 가거나 돈 벌러 가고, 남자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집에 남는 것은 여자 아이와 노인과 어린애들뿐이었다. 그러니 낮 동안 어린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물을 길어 오는 것은 여자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물지게를 지든 물동이를 머리에 이든 물을 길어 오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다. 아이들은 왕래하는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여 볼 요량으로 우물에 갈 때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지만 야속하게도 집으로 가는 동안 물통의 물은 출렁거리면서 길에 떨어지는 것



■ 1970년대 매화4리 새마을사업(이순용 소장)



■ 신촌의 4H 회원들이순용 소장 _ 뒤에 보이는 것이 피난민주택이다





■ 매화4리 신촌의 현재 모습 _ 집의 모습은 변했지만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 무너진 채 남아 있는 피난민주택

이 반이었다.

남자들은 독을 쌓고 염전을 만들고 소금을 내는 동안에도 쉬는 날이면 품을 팔러 다녔다. 1950년대 하루 품값이 쌀 한 되였다고 하는데 하루의 끼니거리도 안 되는 부족한 양이지만 그래도 항상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도움이 되었다. 여자들도 구호품을 받으러 가고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고 빨감을 하러 다니느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 신촌에서는 빨감을 구하려면 궁평리에 있는 산까지 왕복 30리 길을 다녀야 했다. 가까운 곳의 산은 임자 있는 산이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물론 궁평리의 산도 임자가 있긴 했는데 나무를 하다 들켜도 나뭇단을 빼앗진 않았다고 한다. 산에 올라가 갈퀴로 나뭇가지를 끊어모아 끈으로 나뭇단을 만들어 양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오기를 20년 넘게 했더니 늙어서 허리며 다리가 아파서 고생들이다.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기 전까지 신촌 사람들은 구호물자와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동냥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피난민들이 집을 지어 정착할 때까지 서신면 사람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고마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식들 교육을 시키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고 빨리 돈을 모아야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기에 여자들은 대부분 행상이나 품팔이를 했다. 정말로 억척스럽게 살았더니 서신면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피난민들이 더 잘산다고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날이 따뜻해지면 신촌 사람들은 집 앞에 가마니를 깔고서 밥을 먹었고 여름철에는 잠자리로도 이용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한 방에서 붙어 지는 것이 온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서로의 체온이 견디기 힘들 수밖에 없었다. 줄 지어 늘어난 피난민주택 사이 골목은 식사시간이면 마치 거대한 식당을 방불케 했다. 가난한 살림살이라 먹는 것이 별스럽진 않았어도 집집마다 메뉴가 다양했으니 아이들은 수저와 밥그릇을 들고 돌아다니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밥상을 훑고 다니기도 했다. 특별한 메뉴나 맛있는 반찬이 있는 집의 밥상 주변에는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칙뿌리를 캐먹고 눈에 들어가 우렁이를 잡았다. 소금 내는 일을 쉬는 늦가을부터 겨울 동안 염전은 남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돼지 오줌통이나 짚을 뭉쳐 만든 공으로 염판의 크기가 가장 넓은 난치 1단계에서 축구를 했다. 돌 두 개를 양쪽으로

나란히 놓으면 골대 완성이었다. 남자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가끔은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편을 갈라서 응원을 하기도 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피난민끼리 사돈을 맺기도 했다. 아들들은 결혼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덧염부를 하러 분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너도나도 가난했던 1950년대만 해도 결혼식은 상 위에 물을 가득 담은 늦양푼을 올려놓고 하는 작수성례(酌水成禮)가 많았다. 신촌에는 마을 혼례용품이 없어서 소로지 마을에 가서 가마와 사모판대, 원삼족두리를 빌려 왔고, 약간의 부침개와 국수를 마련하여 음식을 나누었다. 결혼이나 초상 때 도움을 주는 상포계가 조직되었다가 가난한 집에 부담이 되니 하지 말자고 해서 중단했다고 한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명절이나 제사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소나무 앞에 막걸리 한 그릇 담아 놓고 지방 한 장 써 놓고 절하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기도 했다.

농사가 많은 집 모내기나 벼 베기를 하는 날은 동네 잔치날 같았다. 낮 동안 남자들은 모두 염전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는 여자들이 주로 했는데 30~40명의 여자들이 일을 도와주러 오면 그 집의 남편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일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 날이면 소여물 끓이는 가마솥에 소머리와 내장을 넣어 우거짓국을 한가득 끓이고, 부엌 부뚜막에 걸린 3개의 솥에는 밥과 찌개를 앉혔다. 신촌 부잣집 가장의 생일에도 동네잔치가 벌어졌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 돕고 정을 나누던 신촌의 피난민 1세대는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났다.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묻혔고, 어떤 이는 마을 뒷산에 묻혔다. 지금 신촌에 남은 사람들은 어릴 적 부모 따라 피난 나온 1.5세대와 2, 3세대들이다. 이들은 부모가 다르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형제이고 친구이다.

공생염전 염부 이야기

공생염전 12호를 운영하는 염부 이순용은 피난민 2세대로, 그의 아버지 이규인은 바다를 밀어내고 염전을 만든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이규인은 철원 출신 피난민으로, 1·4후퇴 때 어머니, 동생 셋, 부인과 5살 난 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전남 나주까지 내려갔다가 국군이 다시 북진하자 고향에 돌아갈 생각으로 상경했는데 38선 부근에 전선이 형성된 채 남



■ 신랑 친구들의 함 팔기(이순용 소장)



■ 매화4리 조기축구회(이순용 소장)

북이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어 수원 화서동 꽃피 마을에서 멈추었다. 광고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 겨우 연명하던 중에 화성군 서신면 매화리에 염전을 만들어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규인은 가족들을 데리고 서신면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전곡리 은쟁이골에 배치되었는데 이곳에서 함께 피난을 나왔다 헤어진 고향 사람을 만났다.

이순용은 그의 부모가 전곡리에서 남의 집 결방살이를 하던 1954년에 태어났다. 얼마 후 이순용의 가족은 매화리 피난민촌에 집을 지어 이사했고 뒤이어 동생들이 태어났다. 이순용은 ‘꿈이란 별명이 붙었던 아버지 이규인 덕에 피난민촌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편이다. 사람들은 이규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꿈’이라고 불렀다. 요령을 피우거나 몸을 사린다고 해서 ‘새알멜빵’이니 ‘오소리’니 ‘너구리’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규인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무거운 돌도 마다하지 않고 거뜬히 들어 날랐다고 한다.

이규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피난열차를 타고 나주로 가던 중 어느 역에 정차했을 때 이규인은 역 근처에서 국밥 장사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먹일 국밥을 사러 갔다. 피난 나오면서 가져온 쌀을 쟁개비에 담아 국밥을 사러 갔는데 돌아오는 동안 피난열차가 떠나고 있었다. 가족에게 먹일 국밥을 버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족과 헤어질 수는 더욱 없었기에 이규인은 국밥이 담긴 쟁개비를 들고 열차를 따라 다음 정차 역까지 뛰었다. 가족을 만났을 때 쟁개비 안에는 국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규인의 근면성실함은 염전을 만든 후에도 변함없었다. 공생염전 사람들은 염전을 조성하고 남은 매립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고 이 땅을 농토로 개간하였다. 그러나 갯벌을 개간해서 만든 논은 농사짓기가 힘들었다. ‘하늘바라기’ 시절에는 장마가 시작돼야 모를 낼 수 있었다. 소금기가 있는 갯논은 모를 내고 나서 계속 비가 와야 하는데 장마철이라도 비가 적으면 모가 빨갭게 타죽었다. 다시 모심기를 반복하다가 중복 때까지 모를 낸 적도 있다고 한다. 모 내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밤송이를 하나 따서 겨드랑이에 끼고 농사 전망을 예측하였다. 가시가 찢려서 아프면 그해 농사는 수확이 적고, 아프지 않으면 수확이 괜찮을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아마도 밤 가시에 찢려 아프면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싶다. 갯논의 농사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 땅을 팔거나 남에게 농사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규인은 염전 일하는 틈틈이 본인 소유의 땅을 개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리쌀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사들였



■ 이순용의 결혼식(이순용 소장) _ 신랑 뒤 양복 입은 사람이 이규인이다.

다. “달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50마지기 가량의 논을 장만하였다. 용두리에 타작 품을 팔러 갔던 어느 날 이규인은 가족들 하루를 굶기더라도 품값 대신 벋 단 몇 개를 받아다 집에 가서 내 것을 타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무쳤다고 한다. 제 땅 한 평 없는 피난민 신세가 되고 보니, 고향집 마당에서 벋 타작을 하던 옛 생각에 부러움과 서러움이 사무쳤다는 것이다.

함께 피난 나온 이규인의 동생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도 종종 형에게 쌀을 얻으러 왔다고 한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형과 달리 동생들은 염전에서 번 돈을 다 써버릴 때마다 쌀 자루를 들고 형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쌀을 내어주긴 했지만 이규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동생들에게 품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호통을 쳐서 보냈다. 이규인은 가장 먼저 피난민촌 흙벽돌집 골목을 벗어나 마을 아래쪽에 큰 돌기와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이규인은 장남 이순용이 자신의 눈물과 땀으로 일군 염전을 물려받길 원하였다. 그러나 이순용의 어머니는 장남을 의대에 진학시키고 싶어 했다. 집안 형편도 어렵지 않은데 굳이 힘들고 품 안 나는 염부로 살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지지 않았다면 이순용은 의사가 되었을지 모른

다. 그러나 송산종합고등학교 재학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면서 농사짓기가 힘들게 되자 이순용이 장남의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몸이 불편해지자 이규인은 눈을 몽땅 팔아서 염전을 샀다. 그것이 현재 이순용이 운영하는 공생염전 12호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일해서 벼를 수확해 팔아야 돈을 손에 쥐는 농사보다는 현금장사인 염전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염부가 이순용의 천직이었던지 그는 지금까지 공생염전을 지키고 있다.

이순용은 공생염전을 떠난 적이 없다. 공생염전 8호를 분배받은 그의 아버지는 아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염전을 맡기고 농사를 전담하였다. 이순용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 전까지 2년 정도 염부로 일하였다. 군 생활도 공생염전 맞은편 송교리의 뱀산에서 지역방위로 복무하였다. 저녁 5시에 출근해서 밤새 해안 보초 근무를 하고 아침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아버지 이규인의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고 자란 이순용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 2세대 염부들 중에서 만형이다 보니 공생조합염전의 굶은일을 도맡다시피 하고 염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귀찮고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 공생염전 12호 대표 이순용 대표(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소금 꽃이 피기까지

긴 겨울을 지내고 봄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무렵 염전도 소금 낼 준비를 시작한다. 염전의 작업은 2-3월에 겨우내 묵혀 두었던 염전 바닥과 독을 정리하거나 보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염전은 개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하면 군데군데 손 볼 곳이 많았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염부들이 1년 중 가장 고된 노동을 하는 때였다고 한다.

염전의 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일명 '면도흙'은 갯벌의 바닥을 파면 나오는, 찰흙처럼 찢득



■ 수차를 돌리는 염부들(화성시청 포토갤러리)



■ 소금을 수확하고 있는 염부들(화성시청 포토갤러리)







■ 소금 수레(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찢든 부분을 말한다. 결정지의 독을 보수할 때도 이 흙을 사용한다. 면도흙을 가래로 잘 개어 물을 뿌려 가면서 발로 밟으면 말랑말랑해지는데 이 상태가 되면 지계에 지고 다니면서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 독에 쏟아놓는다. 직급이 낮은 상염부와 하염부가 주로 맡던 이 작업은 지계를 진 채로 염전 바닥에 들어가지 않고 독에만 흙을 떨어뜨리는 것이 기술이다. 고참 반장들은 삽을 들고 다니면서 독 양쪽으로 흙을 조금씩 떠 놓고 물을 문힌 후 삽으로 밀면서 흙을 편평하게 바른다. 이때 성한 곳은 그냥 지나고 패인 곳은 흙이 들어가게 힘을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작업이 끝난 후 1~2일이 지나면 흙이 말라서 금이 가는데 이때 단단한 송관으로 금이 간 곳을 치면 틈이 메워지면서 단단해진다고 한다. 난치와 느티의 독은 소금 생산이 끝난 늦가을에 물이끼가 낀 부분을 벗겨 내서 다시 독에 바르는 방법으로 보수한다. 요즘은 포크레인이 염부를 대신한다.

바닥에 까는 ‘난들’은 비가 올 때 흘러내리는 고운 개흙으로, 그 입자가 고와서 푸른빛을 띤다고 한다. ‘난들’은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밟으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걸어 다녀도 발자국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난들판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토판염’, 난들 위에 옹기나 타일을 깔고서 내는 소금이 ‘옹기염’ 또는 ‘타일염’이다. 토판염은 결정지 바닥에 항상 물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마철에 비를 피해 함수구덩이에 함수를 저장할 때도 해가 나오면 저수지의 물을 수로로 내려서 결정지에 보내야 한다. 강한 햇볕에 바닥의 물기가 금방 증발되어 난들 토판이 타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판염은 염부의 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전 독 보수가 끝나면 소금을 내기 시작한다. 소금을 내는 일은 3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 무렵까지 계속되는데, 5~6월 일조량이 많은 시기에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고 이 시기까지 연간 생산량의 80%를 낸다고 한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일조량이 적어 소금이 잘 나지 않는다. 소금 생산의 가장 첫 단계는 바닷물을 받는 것이다. 물이 가장 깊이 들어오는 사리 때 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을 유입시키고 염전 증발지에 보낸다. 예전에는 증발지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차’라고 부르는 ‘무자위’를 이용하였다. 무자위를 돌리는 염부의 모습은 염전의 대표 이미지였지만, 무자위를 돌리는 것은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모터펌프가 시판된 후에는 사라졌다.

염전은 저수지로부터 '난치'라고 하는 1차 증발지 6단계, '느티'라고 하는 2차 증발지 4단계, 소금을 내는 결정지 4단계의 순으로 구성되는데, 난치 1단계부터 단계마다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찌물의 염도는 높아진다. 저수지의 바닷물은 염도가 2도쯤 되지만, 난치와 느티를 거치면서 염도가 높아져 느티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소금물의 염도는 25도 전후가 된다. 이 소금물이 증발지에 가면 엉겨 붙어서 25~27도의 하얀 소금 결정체가 물에 뜨기 시작하는데 염부들은 이것을 '소금이 온다' 또는 '소금 꽃이 핀다'고 표현한다. 난치 1단계에서 시작해 결정지에 소금 꽃이 피기까지 대개 15일 정도가 걸린다. 소금 꽃이 피고서 3~4시간 정도 지나면 결정지 바닥에 사각 모양의 소금 결정이 생겨서 가라앉는데, 이때부터 염부들은 대패로 소금을 걷기 시작한다. 참고로 운반된 소금은 약 1년간 간수를 빼고 나면 염도 84~86도의 천일염이 된다. 소금은 입자가 굵고 크며 색이 하얀 것이 좋은 것이다. 소금을 손에 쥐었다 흘려 보면 알 수 있는데, 손바닥에 남지 않고 다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간수가 덜 빠진 소금은 손바닥에 붙기 때문이다.

소금 꽃 피는 마을의 미래

공생염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직 화성시에 염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한다. 시화방조제와 화성방조제로 화성시의 바다가 모두 막혀버린 줄 알았다는 것이다. 송산면부터 장안면에 이르기까지 화성시 해안 지역에 있던 많은 염전들이 시화방조제와 화성방조제 조성으로 사라졌지만 서신면 해안에는 여전히 바닷물이 드나든다. 2015년 현재 화성시에는 매화리의 공생·대양염전, 송교리의 남창염전, 광평리의 중앙염전 등 15개의 허가업체가 130여ha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매화리의 대양염전과 공생염전은 '소금 꽃 피는 마을'이라는 관광지로 알려져 해마다 많은 체험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방문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화성시의 염전 면적은 1,500ha에 달할 정도로 광대하였으나, 1997년 소금의 수입자유화가 시작된 후 값싼 중국산 소금에 밀려 염전들이 운영난에 허덕이다 하나 둘 문을 닫았고, 2000년부터는 폐염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대부분의 염전이 소금 생산을 중단



■ 공생염전과 매화4리(화성시청 포토갤러리)

하였다. 염부들이 떠난 염전은 공장 부지나 양식장으로 바뀌었다. 공생염전과 저수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던 장외리의 염전은 장외산업단지, 송교리의 염전 터는 화남산업단지로 바뀌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폐염전이 공장이나 근린시설 가능부지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이제 낯설지가 않다.

최근 공생염전은 서울대 경제동아리 ‘인액티스(Enactus, 전 세계 36여 개국 1,700여 개의 대학과 세계 우수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연합단체)’를 만나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인액티스는 2009년부터 경기 지역 로컬 푸드인 천일염 재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 천일염전의 매출 부진이 20kg 포장의 도매에 의존하는 판매방식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아내고 유통과 마케팅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 소금에 ‘갯벌의 숨결’이라는 상호를 붙이고 작고 아담한 포장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직접 사갈 수 있게 했다. 공생염전의 ‘갯벌의 숨결’은 화성시 우수 농특산물 ‘햇살드리의 인증도 받아 농산물 쇼핑몰 ‘화성팜’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정부 공모전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소금 만들기 체험학습장을 꾸미고 전국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화성시 염전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화성시는 천일염전을 보존하고 천일염을 명품화해서 생태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염전보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공생염전 일대를 보전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보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염부들도,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보전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호재가 없어진 공생염전 주변 땅값이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했고, 염전체험장 조성도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현재 공생염전은 90%가 1년 계약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염부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염전이 소금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 염전소유주들의 결정에 따라 공생염전에도 언제든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천일염의 성분 중 하나가 방사능의 체내 축적을 막아 준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천일염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몇 년의 기간이 40년 경력의 염부가 경험한 천일염의 최전성기였다고 할 만큼 염전은 화려한 시절이 없었다. 이렇듯 녹록하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의 후예는 여전히 공생염전을 지키고 있다. 공생염전과 함께 나이를 먹은 이들은 힘이 다할 때까지 소금 꽃을 피우고 싶다고 말한다.

사강장에 가다

이태영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송산 방면 322번 지방도로 이동하면 곧바로 사강장 인근 사강입구 교차로에 다다른다. 교차로 이전에 사강장 방향 우회도로¹⁾가 연결되어 있고, 그 우회도로에는 사강시장 초입을 알리는 '사강시장 회 센터' 안내 표지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서 약 800m를 더 이동해야 사강장이 나타나는데, 이 안내판이 시장보다 훨씬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강장의 횃집을 주로 이용하는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사강장 및 횃집거리의 위치와 길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00년대부터 횃집과 해산물 좌판으로 유명세가 따르기 시작한 사강장은 최근에는 주말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화성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사강장은 오래전부터 송산·서신·마도뿐만 아니라 대부도·선재도·영흥도, 화성·수원·안산·시흥, 삼남 지방 등지를 연결하는 광역 유통망이 구축된 오일장이었다.

사강리는 마을 앞까지 “조수(潮水)가 드나들어 강처럼 흰빛모래가 쌓였다” 하여 사강(沙江)으로 불리었다.²⁾ 사강리까지 출입하던 조수는 해로를 통한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사강리를 각종 농수산물과 기타 물품의 집결지로 만들었다. 또한 1918년 마산리에 위치하던 송산면사무소가 사강리로 이전하고³⁾ 1920년 송산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면서⁴⁾ 사강리는 송산면의 중심

1) 1900년대 초에는 이 우회도로로 남양과 송산·서신이 서로 연결되었다. 이 도로의 교차점에 송산과 서신 방면 도로가 나뉘어졌고, 사강리 오일장이 섰다. 사강장 상인들은 사강장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지방도 제322호선을 '우회도로라 부른다.

2) 화성군·경희대학교박물관,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1989, 158-159쪽.

3)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3월 30일.

4)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5월 17일.



■ 사강입구 교차로에 위치한 '사강시장 회 센터' 안내 표지판

부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해로와 육로를 연결하는 해륙교통의 요충지 및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이 되는 먼 소재지의 역할은 사강리에 오일장을 자연스럽게 형성시켰다. 그러나 사강장의 역사는 공식적인 문서상의 기록⁵⁾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사강장의 역사를 문헌, 지도, 문서, 신문기사 등의 각종 기록과 상인들의 구술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조선후기 남양반도 장시체계로 살펴보는 사강장

오늘날과 같은 상업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각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경시(京市)와 지방 교통 요지를 중심으로 한 향시(鄕市)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조직은 고려·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다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지방에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장시는 상업활동의 중심을 이루었고, 장시의 발달은 장시가 개설되는 지역적 범위의 확대는 물론 개시 횟수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도 장시 개설을 금지하던 정책 대신 장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양성화하였으며 1770년에는 전국의 시장

5) '신기시장설치허가',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10월 20일. 사강시장 번영회 및 상인회 연혁은 1915년 4월 15일 사강 시장이 개설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전해내려 오는 이야기로 확인되었다.

이 1,000여 곳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에 보인다. 장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각종 지리지, 읍지 등에 장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누락이나 오기가 종종 발견되어 문헌상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각 문헌의 기록을 비교해 조선후기부터 한말까지 남양 반도의 장시 현황을 정리하여 당시의 장시가 어떻게 시장장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조선후기~한말 남양 반도의 장시 현황

장시 소재지 자료명(발행연도)	남양	비봉	송산	마도
東國文獻備考(1770)	남양읍내 2·7	구포 1·6	기지 ·9	
道路考(1770)	읍내 2	구포 1	기지 4	
林園經濟誌(1830년대)	부내장 2·7	용교장 1·6	신기장 4·9	
輿圖備誌(1850년대)	읍내장 2·7	구포장 1·6		
大東地志(1861)	읍내 2·7	구포 1·6	기지 4·9	
南陽郡邑誌(1899)	읍내장 2·7	구포장 1·6	기지장 3·8	청산장 4·9

비고 : 장시 소재지는 현재 행정구역상 소재지이다.

1770년에 발행된 『동국문헌비고』와 『도로고』에서는 남양부 내 장시가 남양읍내에서 2·7일, 구포(鳩浦)에서 1·6일, 기지(機池)에서 4·9일로 모두 3기의 장시가 개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포는 지명으로 미루어 보아 며지곶면(鉢知串面) 구포동(현 비봉면 구포리)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기지는 지명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위치를 추측하기 어렵다.

1830년대 『임원경제지』에는 부내장(府內場)은 관문 앞에 위치하고 개시일이 2·7일, 용교장(春橋場)은 부 동쪽 10리 저팔리면(楮八里面, 현 비봉·팔탄면)에 위치하고 개시일이 1·6일, 신기장(新基場)은 부 서쪽 20리 수산면(水山面, 현 송산면)에 위치하고 개시일이 4·9일로 모두 3기의 장시가 개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교장과 신기장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명은 보이지 않지만 『임원경제지』의 기록을 근거로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용교장은 부 동쪽 10리 저팔리면에 위치하였다는 기록으로 거리를 계산해 보면 현재 비봉면 양노리쯤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노리는 당시에

며지곶면에 속한 지역이라 '저팔리면'에 위치하였다는 기록과 상이하다. 『임원경제지』를 통해 용교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른 문헌 등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장은 부 서쪽 20리 수산면에 위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구 행정구역상 수산면에 속했던 송산면 사강리·봉가리·육일리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50년대 발간된 『여도비지』는 읍내장 2·7일, 구포장 1·6일로 단 2기의 장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지장 혹은 신기장의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1861년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에는 읍내 2·7일, 구포 1·6일, 기지 4·9일로 모두 3기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1872년 『지방지도』 중 남양 지도에는 아사(衙舍) 바로 옆에 읍장이, 며지곶면과 저팔리면 사이에 구포장이, 수산면 바로 옆에 신기장이 기록되어 있어 3기의 장시가 보인다. 남양 지도를 통해 장시의 위치를 설명하면 신기장은 읍으로 20리에 위치하고 삼존동(三尊洞, 현 송산면 삼존리)을 북동쪽에 북일동(北一洞, 현 송산면 육일리)을 서남쪽에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사강리와 봉가리의 경계지인 사강장의 위치와 매우 유사하여 신기장의 위치는 수산면 사강동·봉가동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구포장은 며지곶면 백학동(白鶴洞, 현 비봉면 쌍학리)을 동쪽에 두고 있고 구포동이라는 지명을 참고로 현재 비봉면 구포리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구포장은 지도상에서 읍으로부터 10리에 위치한 며지곶면과 읍으로부터 20리에 위치한 저팔리면 사이에서 좀 더 며지곶면 가까이에 있어 읍으로부터 15리 내에 위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현 구포리의 위치가 읍으로부터 15리 이상의 거리에 있기에 구포장의 위치를 구포리로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동국문헌비고』, 『도로고』, 『임원경제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남양 지도 등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1770~1870년의 약 100년 동안 남양부의 장시는 총 3기로 읍내장(邑內場, 부내장)(2·7), 기지장(機池場, 신기장)(4·9), 구포장(鳩浦場, 용교장)(1·6)이다. 『임원경제지』에서는 구포장이 용교장으로 기지장이 신기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남양 지도에서는 기지장이 신기장으로 변경되었다. 이 기록들은 당시에 2개의 명칭이 모두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케 하고, 이는 이후 발행되는 문헌 등에서도 구포장·용교장과 기지장·신기장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남양부 정기시는 구포장(鳩浦場, 용교장)(1·6)→읍내장(邑內場)(2·7)→기지장(機池場, 신기장)(4·9) 순으로 개설되어 지리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체계를 보인다. 이 육지에서 해안을 향하는 장시 이동순서는 장시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이 해안 지역보다는 내륙에서 생산되는 물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데, 이는 『임원경제지』에서 부내장의 거래 품목으로 쌀, 콩, 보리, 면



■ 1872년 『지방지도』의 남양 지도. 수산면에 위치한 신기장짜과며지못면과 저팔리면 사이에 위치한 구포장(우)이 표기되어 있다

포, 어염, 대추, 밤, 감, 염초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또한 남양부 정기시는 일반적인 정기시 유통체계를 보이나 중간 3·8일 장시가 보이지 않아 그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남양부가 아닌 인근 타 지역의 장시와 연계된 것은 아닌지 추측한다.

1899년 『남양군읍지』(규10705)에는 읍내장은 2·7일, 청산장(靑山場)은 부 서쪽으로 10리에 위치하고 4·9일, 기지장은 부 서쪽으로 20리에 위치하고 3·8일, 구포장은 부 동쪽으로 15리에 위치하고 1·6일로 모두 4기의 장시가 개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존에 보이지 않던 청산장이 새로 나타나는데 지명으로 미루어 보아 마도면(麻道面) 청산동(현 마도면 청원리)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새롭게 등장한 청산장의 개시일이 4·9일로 되면서 기존 기지장의 개시일은 4·9일에서 3·8일로 변경되었다. 19세기 말 남양 내의 정기시는 모두 4기로 구포장(1·6)→읍내장(2·7)→기지장(3·8)→청산장(4·9) 순으로 개설되어 통상적인 정기시 유통체계를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말 남양 정기시 유통체계는 지리상 이동체계에서 이전과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예전 남양 정기시 유통체계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반면 청산장이 등장한 이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지장은 부 서쪽으로 20리에, 청산장은 부 서쪽 10리에 위치하였다는 『남양군읍지』의 기록을 통해 읍내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청산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장의 개시일을 4·9일에서 3·8일로 변경하면 서까지 읍내장(2·7) 다음에 기지장(3·8)→청산장(4·9) 순으로 정기시를 연결하였다. 그 이유를 추측하건대, 새로 생긴 청산장은 읍내장과 근접해 있어도 장시 크기와 거래량이 미비하여 기지장 다음 날로 개시일을 정한 것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시 내 거래 물품에서 해안 지역 생산품 및 해로를 이용한 운반 물품 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쪽에서 서쪽, 즉 내륙에서 해안으로 이동하던 우

통체계를 다시 동쪽인 내륙으로 변경하여 원형으로 연결되는 장시 유통로를 정착한 것일 수 있다.

남양 반도 내 장시는 읍내장을 중심으로 구포장, 기지장, 청산장의 거리가 10~20리 정도로, 일반적으로 장시가 30리 내외에 떨어져 개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기 장시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편에 속한다. 도보로 하루 거리인 30리를 기준으로 떨어져 개설되는 내륙의 오일장 정기시장체계와 남양 장시가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해안에 위치한 남양 지역의 특성상 모두 포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⁶⁾ 조선후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에 형성된 남양 장시들은 이 포구로 타 지역과의 물품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였고, 해로를 통해 운반된 물품들을 남양 반도를 통해 수원·경기 남부·서울 방면으로 이동시켜 갔다. 이와 같이 남양 내 일부 장시들은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만으로 한정된 거래를 유지하는 타 장시들이 점차 소멸되어 갈 때 거래 품목의 다양성과 광역체계의 확대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였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 『도로고』에 나타난 기지(4·9)는 위치를 추정하기 힘들고, 1830년대 『임원경제지』의 신기장(4·9)은 다른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위치는 설명하고 있다. ‘부 서쪽 20리 수산면에 위치’한다는 기록은 수산면 내 4개 동 봉가동·사강동·대교동·육교동·북일동(현 송산면 봉가리·사강리·육일리)을 장시 소재리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1861년 『대동지지』는 기지와 4·9일로 장시명과 개시일만 기록되어 있고, 1872년 남양 지도는 신기장의 위치가 읍으로부터 20리에 있다는 수산면 표기 바로 옆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신기장이 수산면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 동명(洞名)의 위치상 사강동·봉가동 경계 지역으로 짐작하게 한다.

1899년 『남양군읍지』에서는 기지장이 부 서쪽으로 20리에 위치하고 개시일이 3·8일임을 보여 준다. 기지장의 개시일이 이전의 4·9일에서 3·8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산장이 생겨난 후 그 개시일을 4·9일로 정하면서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양군읍지』의 제언(堤堰)에 대한 기록에서는 기지(機池)가 수산면에 있고 부 서쪽으로 20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시와 제언 양쪽에서 등장하는 기지의 명칭과 위치의 기록이 같으므로 제방이 있던 기지에 기지장이 운영되었고 그 장시명도 이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자료를 통해 기지장과 신기장은 서로 다른 장시가 아닌 양자가 혼용되어 불린 하나의 장시이며, 그 위치를 사강리·봉가리 경계로 추정하니 현재 사강장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강장이 기지장·신기장의 명목을 이어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사강장의 변화

1911년 발행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는 남양 반도의 시장으로 읍내시장과 저팔리면 방아다리장(下樁洞)만을 기록하고 있고 주막으로 구시장(舊市場, 사강동)과 구포장을 기록하고 있다. 구시장으로 표기된 기지장과 구포장이 장시가 아니라 주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시장이 간척으로 수심이 얕아져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72년 『지방지도』의 남양 지도에는 읍장, 구포장, 신기장에 조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95년 『구한말한반도지형도(舊韓末韓半島地形圖)』를 보면 이미 사강장과 구포리 앞까지 물길의 닿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사강장과 구포리 주변 지역은 논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10년 초에 측량된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에서는 사강장과 구포리로 들어오는 물길이 제방에 쌓여 제방 안이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90년대부터 사강장, 남양장, 구포리 주변에 간척이 진행되어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양부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염도가 높은 서해안에 접해 있으며 바다에 접해 있지 않은 서울과 내륙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서 일찍부터 소금의 주요한 생산지가 되었다. 그러나 18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값싼 청국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주요 생업이었던 자염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경기도의 소금 생산량은 1910년에 5,000만 근에 달하였으나 1915년 600만 근, 1930년에는 400만 근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한다.⁷⁾

1910년대 경기도 지역의 소금 생산량은 1/10로 하락하게 되고 이와 같은 변화는 갯벌을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하지 않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남양 반도 내 대부분의 포구가 염전을 끼고 입지해 있어 이 포구의 기능이 소금 운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통 제염업의 쇠퇴와 갯벌을 농경지로 변경하는 간척의 확대는 포구들의 기능을 쇠퇴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발간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서는 남양군 내 장시로 읍

6) 1872년 남양 지도는 읍장, 구포장, 신기장 등 3기의 장시가 수로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여준다.

7) 경기도, 『商工水産統計』, 1931.

하(2·7), 청산(4·9), 기지(3·8), 구포(1·6)가 있고 이 중 읍하가 가장 성시를 이루었다고 기록하였다. 『조선지지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한국수산지』에서 기지장이 확인되고 있어 서로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지만, 이 두 기록과 앞에서 설명한 당시 남양 반도의 지리·경제적 상황을 통해 1900~1910년대 사강장기지장·신기장은 소멸된 것보다는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 사강장이 계속 운영된 것은 1919년 3월 발생한 송산 지역의 3.1만세운동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체포된 홍설후의 신문조서 내용으로 사강리에 시장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나는 3월 23일 오후 1시경 송산면 육일리의 형 집에 가는 도중에 사강리의 흥윤일이 말하기를 오는 26일 사강리 시장에 모여 한국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너를 죽이든가 집을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였으므로 26일 오전 11시경 시장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⁹⁾

홍설후의 신문조서 내용대로 3월 26일 송산면 주민들은 송산면사무소¹⁰⁾로 향하였고 그 부근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며칠 후인 3월 28일은 사강장의 장날이라¹¹⁾ 송산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장터로 모이는 날이었다. 3월 26일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수적 열세로 무마시키기에 급급하였던 사강리경찰관주재소는 장날에 대비해 아침부터 장터 주민들에게 점포를 단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전 10시경 사강장터에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건잡을 수 없이 전개되었다.¹²⁾ 이와 같이 화성 지역의 대표적인 3.1운동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송산 지역의 3.1만세운동은 송산면의 중심부인 사강리 장터에서 일어났고, 이는 사강장이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8) 오창현은 「남양반도의 시장체계와 생업의 변화」(한국문화인류학 제45집 2호, 2012)에서 사강장이 1900년대 소멸되었다가 1920년대 입지와 장시일을 바꾸어 재개장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 11』 21권, 1995, 259쪽.

10) 1918년 사강리로 이전된 송산면사무소의 위치는 현 송산초등학교 옆으로 사강장과 바로 인접해 있다.

11) 1899년 『남양군읍지』와 1911년 『한국수산지』에는 기지장의 개시일을 3·8일로 기록하고 있다.

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 11』 21권, 1995, 265쪽;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 12』 22권, 1995, 97·162·171·266쪽.



■ 1872년 『지방지도』에 표시된 신기장(좌), 1919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 표기된 구시장(우측 상단), 현재 네이버 지도에서 보여주는 사강장(우측 하단). 모두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기지장-신기장의 위치도 현재의 사강장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72년 『지방지도』의 남양 지도에서 신기장의 위치는 당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로를 표시한 붉은 도로선의 교차점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10년 초에 측량되고 1919년에 발행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서는 구시장(舊市場)이 바로 도로선의 교차점 이전에 표기되어 있다. 현재 사강장의 위치는 『지방지도』 신기장과 같이 도로의 교차점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19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구시장 위치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구시장이 지도상에서 약간 우측에 표기된 것으로 추정한다. 장시가 매우 인접한 위치로 이동하였다 단기간 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도로 교차점 사이 X는 경찰서 및 순사주재소의 표시 기호로 그 자리 위에 장시를 표기하기 힘들어 약간 우측에 표기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10월 20일자 「조선총독보관보」에 의하면 신기시장(新基市場)이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에 음력 1일마다 매월 3회 개시로 설치되는 것을 허가하였다. 1910년대 일제는 시장세를 징수하기 위해 시장 설치 및 경영에 관한 각종 법령을 만들어 공고하였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시장 설치에 대한 고시가 관보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六十三號
 水原郡松山面沙江里ニ設置セル新基市場ノ開市日ヲ陰曆二、七ノ相當日ニ
 更ノ件大正十二年七月二十四日許可セリ
 大正十二年七月二十四日 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 時實 秋穗

- 1923년 7월 25일자 「조선총독보관보」의 경기도고시 제63호로 신기시장 개시일을 2·7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에 나타나는데, 1921년 신기시장 설치의 건도 새로 시장이 설치되었다기보다는 시장세 징수를 위한 일제의 정책에 의한 등록 절차로 보인다. 반면 그 이전에 3·8일로 운영되던 개시일이 1일로 변경되어 한 달에 3회로 줄어 장이 섰다는 것은 1919년 송산 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이 사강리 장터에서 발발한 것으로 인해 일제가 사강장을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강리 신기시장의 개시일은 1922년 음력 2일로, 1923년 음력 2·7일로 변경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위용을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이후 발행된 『市街地の商圏』(조선총독부, 1926), 『朝鮮の市場經濟』(조선총독부, 1929), 『商工水産統計』(경기도, 1931), 『朝鮮の市場』(조선총독부, 1941) 등 각종 문헌 기록에서도 사강장·기지장·신기장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갔다. 다만 1941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朝鮮の市場』에서는 장시명이 신전(新荃)으로 변경되어 나타나는데, 관련 지명도 찾을 수 없고 자료에서 더 이상 이 명칭이 나타나지 않아 오기로 추정한다.

〈표 2〉 일제시기 사강장 현황

자료명(발행연도)	장시명(개시일)	자료명(발행연도)	장시명(개시일)
韓國水産誌(1911)	기지(3·8)	朝鮮總督府官報 (1923.07.25)	신기(2·7)
朝鮮總督府官報 (1921.10.20)	신기(1)	朝鮮の市場經濟(1929)	신기(2·7)
朝鮮總督府官報 (1922.07.15)	신기(2)	商工水産統計(1931)	신기(2·7)
市街地の商圏(1926) ¹⁴⁾	신기(2)	朝鮮の市場(1941)	신전(2·7)

1920년대부터 사강·장신기장은 기존의 기지장과 달리 남양 반도 및 화성 관내에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우선 주변 섬 지역의 변화와 관련된다. 섬은 수초가 풍부하지 못

13) 「조선총독보관보」, 1922년 7월 15일; 「조선총독보관보」, 1923년 7월 25일.

14) 1926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市街地の商圏』은 1923년을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람이 적고 별도의 울타리 없이도 목장을 설치·관리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다.¹⁵⁾ 그로 인해 조선 전기부터 남양 반도에 접해 있는 서해안의 여러 섬들, 즉 대부도·영흥도·소홀도·덕적도 등에는 목장이 있어 사복시(司僕侍)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대부도 목장에는 국마 418필, 덕적도 목장에는 국마 257필이 사육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남양부 여러 섬들의 목장을 개간해 둔전을 경영하게 하고 말들을 모두 팔아 관설 목장을 혁파했다.¹⁶⁾ 목장이 폐지된 이후 남양 반도 주변 섬 지역은 점차 개간이 진행되고 말 대신에 소와 돼지를 키우는 농업지대로 바뀌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대부도는 “논밭이 많고 소가 여무는 섬”으로 남양 반도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러운 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부도 주민들은 키우던 소를 장날 우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했는데, 배편을 이용해 소를 실어 나르는 게 위험해 주로 나룻배를 타고 어섬까지 들어와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에 마산포까지 끌고 가는 길을 이용하다 보니 사강장에서 20리나 떨어져 있는 남양장을 이용하기는 어려워 주로 사강장의 우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부도 주민들이 남양 장시 중 가장 인접한 사강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대부도 주민들의 생산품 판매 및 생활 필수품 구매로 연결되는 거래량의 증가는 사강장을 더욱 성장하게 하였다.

또한 사강장이 위치한 남양 반도가 외부와의 교역로인 것이 관련된다. 남양 반도와 주변 섬 지역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지에서 출발한 배가 서울권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바다가 막히기 이전의 어섬을 휘돌아 가는 뱃길은 삼남지방에서 서울·인천·마포까지 연결하는 길이었고, 송산·서신면의 배터는 화령·이영·소금 등을 싣고 외부로 나가거나 충청도·전라도 등지에서 삼베 등의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교역로이었다. 이와 같이 해안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역로를 통해 운반된 물품들은 남양 반도를 통해 수원·경기 남부·서울 등지로 이동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인 사강장으로 모여들었다.

15) 이태영, 『한국문화화발달사』, 한국마사회, 1911.

16) 『고종실록』, 고종21년 4월 21일; 『고종실록』, 고종30년 9월 8일.

〈표 3〉 일제 후기 수원군 일대 장시 일년 매매고

단위 : 엔(円)

장시명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	기타 잡품	계
성내(9)	30,672	10,080	36,920	241,992	71,244	390,908
성외(4)	29,820	9,800	35,700	235,287	69,265	379,872
오산(3·8)	36,500	4,300	6,250	231,120	19,800	288,350
발안(5·10)	15,600	1,920	10,650	60,620	6,930	95,630
남양(3·8)	4,620	1,980	3,000	11,880	9,900	31,380
신기(2·7)	17,701	10,994	42,378	15,890	96,419	183,380
삼괴(4·9)	42,200	6,800	125	35,500	85,385	85,385
반월(1·6)	43,780	1,080	5,400	8,100	21,060	21,060

출처 : 경기도, 『상공수산통계』, 1930.

1930년 발간된 『상공수산통계(商工水産統計)』에 의하면 사강장신기장의 거래품목 중에서 직물의 1년 거래량이 4만 2,378엔, 기타 잡품이 9만 6,419엔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강장의 다른 거래 품목인 농산물의 거래량이 1만 7,701엔, 수산물 1만 994엔, 축산 1만 5,890엔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다른 품목에 비해 직물과 기타 잡품이 사강장의 주요 거래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강장의 직물 및 기타 물품의 거래량은 수원군 관내 장시 중 일년 매매고의 합계가 가장 높은 수원 성내 시장(직물 3만 6,920엔, 기타 잡품 7만 1,244엔) 및 성외 시장(직물 3만 5,700엔, 기타 잡품 6만 9,265엔)과 비교해도 높은 규모이다. 이를 통해 사강장에서 거래된 직물과 기타 잡품은 남양 반도 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아닌 해로를 통해 외부에서 교역해 온 물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역량의 증가는 사강장을 남양 반도 장시 중 최고의 성시(成市)로 만들었다.

3. 20세기 중후반 성시를 이루었던 사강장

문헌 자료에서 장시명을 기지장이나 신기장이 아닌 ‘사강장’(2·7일)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국토구역총람(國土區域總覽)』과 1977년 국립농업경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농촌시장의



■ “사강리장까지 자동차운전을 개시한다”는 일제시기 신문기사 (『동아일보』, 1924.11.16)

제도와 기능연구』이다. 1950-1960년대부터 사강장에서 점포를 운영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구 명칭 기지와 신기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사강장의 다른 명칭에 대해 오히려 낯설어 하였다. 1919년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신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사강리 북쪽이며 내사강(內沙江) 바로 위쪽으로 현재 쌍정리와 접해 있는 사강리 북동 지역으로 보인다. 이 위치는 사강장과 거리가 멀고 현재는 그 지명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에 장시명으로 사용된 까닭을 설명하거나 밝히기가 어렵다. 한편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에서도 ‘사강리시장’, ‘사강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¹⁷⁾ 이는 지역 주민들이 문헌 자

료에 기록된 기지장·사강장이 아니라 지명을 이용한 장시명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사강장은 남양 반도 주변 섬 지역의 경제적 부흥과 해안을 통한 교역로의 중간기점 역할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전쟁 당시 남양 반도 지역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은 사강장을 근거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현재 사강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이병길(남, 1944년생)은 고정리가 고향인 부친이 일제강점기 서울로 상경해 공덕동에서 포목장사를 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다.

이병길 : 육이오(6·25)전쟁이 터지니까 고향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거죠. 네, 고향으로 인저 피난을 내려오셔서 바로 이곳 사강시장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저기 장돌뱅이, 그 당시는 아버님은 군자장, 오산장, 발안장, 사강장. 그렇게가 가장 큰 시장, 장을 사(세)일을 보시고 하루는 수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이렇게 인저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¹⁸⁾

17) ‘사강리장까지 자동차운전 개시’, 『동아일보』, 1924년 11월 16일; ‘사강리시장에 자동차운전 연기’, 『동아일보』, 1924년 11월 30일.

18) 2016년 4월 27일 사강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1961년부터 사강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경식(남, 1945)도 1950년 안양에서 거주하던 당시 폭격을 만나 안성 죽산으로 피난을 가 몇 년 전전하다 1953년 송산으로 오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사강장은 지역 주민과 피난민들에게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었다.

〈표 4〉 1960 ~ 1970년대 마도·송산·서신면 제염 현황

단위 : 개소·명

읍면 연도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합계	
	제염 사업장수	종업원수	제염 사업장수	종업원수	제염 사업장수	종업원수	제염 사업장수	종업원수
1964	6	142	16	656	18	250	40	1,048
1969	6	97	19	438	17	287	42	822
1974	5	101	18	468	33	280	56	849
1976	5	138	17	268	39	280	61	686

출처 : 화성군, 『통계연보』, 각 연도.

해방 이후 중국과의 무역 단절로 청국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자 소금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제염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남양 반도에 다시 염전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거의 사라졌던 염전은 1950년대 이후 크고 작은 천일염전으로 곳곳에 들어섰고, 1970년대에는 송산면의 양정염전·현대염전, 서신면의 수성염전·광진염전·대양염전·공생염전, 마도면의 남양염전 등이 운영되었다. 〈표 4〉의 마도·송산·서신면의 제염사업장 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1964년 40개소, 1969년 42개소, 1974년 56개소, 1976년 61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신면의 제염사업장 수는 1974년 33개소, 1976년 39개소로 송산·마도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와 같은 염전의 설치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시켰고, 타지에서 남양 반도로 이주하는 염전 염부와 그 가족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김경식 : 옛날 사강시장은 음. 형성된 건 염전이 있어서 염부들로 인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요. 물론 그 전에는 농사를 위주로 했지만 이, 우리 상인 입장에서는 염전에 뺄 돌아서 염부들이, 만약에 돈 이백만(2,000,000) 원을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팔구

십 프로(8-90%)를 생활필수품으로 다 쓰기 때문에.¹⁹⁾

이병길 : 그 당시에 여기, 저기 염전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 송산, 마도, 서신 이렇게 해서, 염전에서 거기서 종사하는 그분들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포목점에 있는 그 물품들하고 식료품하고 곡물 아닙니까? (면담자 : 그러면은 어르신도 그 어르신이 운영하는 포목점에서 그 당시에는 염부들의 역할이 아주 큰) 큰 역할을 했죠. 당연히 당연히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죠. 물론 여기 토착민들도 많은 거래를 해주었지만, 그분들도 무시 못하죠. (면담자 : 그분들이 사강시장에 주 고객층이었던 거죠? 당시는?)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그 당시는 토착민들도 큰 고객이었죠. 왜냐하면은 거리가 주로 어른들이 물품 구매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생활하는 것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는 매상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거의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과 토착민에게 오십(50) 대 오십(50)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봐요.

1950년대 이후부터 1994년 시화방조제 건설 이전에는 송산·서신·마도 지역에 많은 염전이 운영되었고, 염부와 그 가족은 사강장의 주요 고객·소비층이 되었다. 이들은 사강장을 활성화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양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반이었다. 또한 대부도 및 주변 섬 지역의 주민들도 사강장 상인들에게는 주요 고객이었다.

이병길 : 거기 지금, 대부도, 안산, 아니, 대부도, 영흥도, 선재도 있는 거기 있는 고객은요? 굉장히 큰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 그쪽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득이 아주, 우리 이쪽 집으로는 훨씬 여유가 있었다고 느끼는데, 그분들 큰 손들이었어요. (면담자 : 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소외된 지역, 아무래도 외진 구석에 더 있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는 아주 넉넉히 많은 양을 구입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면

19) 2016년 4월 22일 사강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 1976년 사강시장 번영회. 1954년 6월부터 사강시장 번영회가 구성되었다. (화성시청 포토갤러리)

담자 :아 그러면 개인이 구입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혼수를 해도 아주 옛날 격식대로 충분히 넉넉히 많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치를 때 장례용품 같은 것도 넉넉히 많이 아주 풍부하게, 또 그만큼 재력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생산된 그런 부분들이. (면담자 : 장사꾼이 와서 도매로 구입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면담자 : 개인들이 직접 와서 그렇게 했다구요?) 물론 개 중에는 우리에게 물건을 받아다가 거기서 소매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가 큰 고객들이었어요. 대부분, 선강도, 저기 탄도, 이 저, 영흥도, 선재도 있는 고객들이 큰 고객이었어요.

대부도, 선재도, 영흥도 등의 섬 지역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20세기 전후 목장 폐쇄와 토지 개간을 통해 목축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섬 인구수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섬 지역의 발전은 남양 반도 주민들이 대부도를 “농사만 짓고 굴도 반찬으로만 해먹는 부자들이 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섬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남양 반도 주변 섬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사장 오일장과 우시장의 큰 기반이 되었고, 섬 지역 주민들의 남양 반도에서의 소비 활동은 남양 지역 주민들과 사장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사장장은 화성·수원·안산·시흥·인천 등의 인근 지역과 대부도, 영흥도, 선재도 등의 주변 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삼남지방을 연계하는 광역체계를 갖춘 오일장이었다.

이병길 : 가장 그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직물 직거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당시에는 베, 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물물거래가 참, 손실이 높고 가장 큰 어떤 거래의 거래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베인데, 당시는 전라남도 고흥, 보성 거기에서 거의 그 가내공업, 가내 그 공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를 여기로 와서 직거래를 해서 팔아서, 그걸 사서 판매하고 그랬을 때, 장의 물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솔직한 얘기로 미진이 좋습니다. 미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했지요. 나머지는 그 당시는 뭐, 강화, 인조리든가, 강화, 인조가 거기서는 많이 생산됐었는데, 그것은 저, 직접 찾아, 찾아가서 구입을 했고, 인저,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핵심, 큰, 그, 저기, 주요 물품이었지요. (면담자 : 그러면 또 타 지역에서의 또 다른 물품들은 또 생각나게 없으신가요?) 다른 것들은 뭐 과도기적인 것이니까, 그 당시는 지나놓고 보면 나이롱 생산, 처음 시작해서 옷이 천이 바뀌어지고 그럴 때니까 거의 그것은 초창기 그 당시 팔십(80)년대 칠십(70)년대에는 수원을 대상으로 물건을 도매상을 거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인저 서울 광장시장으로 옮겨져 간 거죠.

앞에서 1930년 『상공수산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사강장의 직물 거래량은 수원군 내 장시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해로를 통해 외부 지역에서 삼베 등의 직물이 사강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인데, 이병길의 구술은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전라도 고흥·보성의 베와 강화의 인견 등이 들어와 직물 거래가 계속 유지되었고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어 온 직물 거래가 높은 마진을 남겨 상인들에게 큰 이익을 남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강장에서 운영된 우시장의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수원축협 담당자에 의하면 “사강 우시장은 1988년 오산 가축시장으로 이전되면서 폐시되었다.”고 한다. 이는 김경식이 “88올림픽 하기 이전에 없어진 것 같다.”라고 구술한 내용과 그 시기가 동일하다. 사강 우시장은 처음에 현 송죽식당 자리에서 운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강 우시장은 이곳에서 소를 팔지 못하면 수원장이나 오산장까지 이동해야 했던 소장수들의 불편함으로 잠시 폐시되었다. 그러다 지역 주민들의 원성으로 현 복지회관 자리에서 다시 개장하였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졌다. 사강 우시장이 한창 번성할 무렵에는 소 100마리 이상이 출입하였다고 하나, 수원장·오산장·발안장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이러한 이유로 소장수들이 사강장에서 수원장·오산장 등지로 다시 소를 거래하



■ 현 송죽식당의 위치는 초기 우시장이 운영되던 곳이다.

러 이동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결국 사강 우시장은 오산장에 흡수되었다.

사강장은 해안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이 직접 거래되고 그 거래량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강리에 위치한 수협은 남양 반도에서 수확되는 수산물을 직접 접수하고 그 대부분을 수원으로 보내는 과정을 맡아 관리하였다.

(형도에) 단골로 들어오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독공'이라 하였다. 독공은 사강 상인들이었으며 사강에 있는 수협으로 물건을 넘겼다. ... 상인들은 사강까지 가면서 값싼 고기들은 농촌 마을에 팔고 비싼 고기는 수협으로 넘겼다.²⁰⁾

김경식 : (면담자 : 아니 저는 바다근처기 때문에 어업과 관련된 해산물 종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것은 별로 없었어요. (면담자 : 아, 그래요?) 아, 있기는 있어도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수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오면 뭐 여기 저, 거기서 인제 오면 수협에서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데 뭐 수원인가 어디 이런데서 수원이 본 점이에요. 그리로 그냥 거의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20) 화성시, 『화성의 민속』, 2016, 215쪽.



■ 1980년 사강시장 수산물 장터. 어민들이 바지락, 굴 등을 직접 채취하여 판매하였다.(화성시청 포토갤러리)

남양 반도 및 주변 섬 지역, 혹은 멀리 삼남지방의 주민들은 사강장을 이용하기 위해 장날 전날 사강리에 와 숙박을 하거나 유흥을 즐기기도 하였다. 사강리의 숙박업소, 다방, 식당, 술집 등의 서비스업 및 유흥업은 그들의 소비로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사강장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렀다.

김경식 : 예. 옛날에 커피가 커피 장, 여기 다방이 삼십팔(38)군데가 사십(40)군데 있었어요. (면담자 : 정말이요?) 그럼요, 아유.

유효종 : 오십(50)군데, 오십(50)군데.

김경식 : 오십(50)군데. 아 내가 줄여서 그려. 그전에 한 사오십(45)군데 있었어요. 다방이.

유효종 : 예. 다방이 많았죠. …… (면담자 : 지금 몇이예요? 그러면 다방수가?) 지금은 서른, 서른 개가 좀 넘어요.

김경식 : 한 이십(20)군데 줄었어. 다방이.²¹⁾

이병길 : 그 당시는 인근의 영흥도, 선재도, 대부도, 선강도, 탄도, 그리고 서신, 남양, 마도를 다 아우르는 사강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장날이면은 사람이 통행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저기 주민들이 나와서 거래를 하고, …… 상권을, 상권을 좌우했죠. 그 당시 시장은 제가 아는 시장은, 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시가 된 시화호 방조제 막기 이전까지, 그 사강시장에 맨 위 초등학교 입구쯤 가면은 거기 수협, 그, 수산물, 수산물 시장이 거기서 성시를 이뤘구요. 그리고 이 아래 쪽에 금고, 옆으로 나오면 우시장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그 경기도 일원에서는 거의 소장, 소머리꾼들이 다 모여들지 않았나. 더군다나 특히 시화방조제

21) 유효종(남, 1957년생)은 사강시장상인회장으로 2016년 4월 22일 진행된 김경식 인터뷰에 잠시 참여하여 구술하였다. 유효종은 다방의 수가 30여 개라 구술하였는데 상인회가 제공한 자료에는 2014년 현재 22개였다.

막히기 전까지는 인근 그 대부도, 영흥도, 선재도, 탄도, 선강도 등등 섬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나와서 여기 여인숙에서 숙박하면서 그 댕겼으니까, 여인숙 등의 숙박업이나 또 인제 음식업, 요정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담자: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네요.) 될 수밖에 없었고, 거의가 당시는 인근 비봉부터 거의 장을, 사강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인근 비봉에서부터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뒀, 등등해서 거의 걸어서 장을 보러 나온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 가고 거의 보면은 그 당시 사강시장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제 참 성시 내지 인산인해를 이뤘었어요. 참 대단했었습니다.

이렇게 장날마다 모여드는 사람들로 사강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시화방조제의 건설을 시작으로 사강장의 형세는 반전되어 간다.

4.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활로를 찾고 있는 사강장

시화방조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간척 지대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대부도를 잇는 방조제로, 1987년 4월 착공하여 1994년 1월 24일에 완공하였다. 경기도의 육지 면적을 넓히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화성·시흥·안산 연안의 생태계 파괴와 해안의 내륙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어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을 들어 생계보조금만을 지급하는 등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일부를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시화방조제 건설과 그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남양 반도의 주민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끼쳐 남양 지역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남양 반도의 가장 큰 소비활동 주체였던 염부들은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염전이 폐쇄되면서 남양 지역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1976년 남양 반도에서만 61개소에 이르렀던 염전의 수는 2009년 현재 화성시 전체에서 15개소(모두 서신면 소재)로 감소하였다.²²⁾ 염전의 쇠퇴는 더 이상 노동

22) 화성시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 1990년 사강 수산물 판매점(화성시청 포토갤러리)

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일자리를 잃은 염부들은 하나둘씩 새로운 일을 찾아 외지로 나갔다. 이와 같은 염부들의 부재는 사강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염부들이 한창 사강장을 이용할 때는 사강장의 골목 한쪽이 모두 다방으로 형성되었고 그 수는 무려 50여 개에 달하였다. 다방이 이 정도로 큰 성업을 이루었던 것은 염부들이 가장 큰 고객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부들이 빠져나간 이후 다방의 수는 20여 개로 줄었고, 사강장의 다른 점포들도 침체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해안 지역 어민들은 사회방조제 건설 이후 삶의 터전을 잃거나 더 이상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어섬이나 마산포 등지의 일부 어민들이 사강장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좌판을 벌였다.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배운 기술이라고는 “생선을 잡을 줄 알고, 손질할 줄 알고”²³⁾하는 일이었으니 먹고살기 위해 회를 손질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사강장의 횡집거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횡집을 운영하는 어민들은 대부분이 해안 지역에서 거주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 사강리로 오는 경우이므로 시장 내 가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시설물 설치를 도와주기도 하였지만 건물 주인에게 자릿세를 지불해야 하니 횡집 운영은 녹록치 않다. 횡집 거리의 횡집은 2004년 28개 점포였는데, 2014년 현재 18개만 남아 있고,²⁴⁾ 횡집 거리의 상인들은 별도로 사강시장 회센터 상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23) 김경식의 구술.

24) 사강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사강시장 업종별 현황 참고.

■아케이드 설치 이전의 시장장
(시장장상인회 제공)



남양 반도에는 평택시흥간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서울·수원 등지에서 제부도·전곡항·궁평항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방도로가 개통되었다. 새로 개통된 도로는 구 도로에 위치하던 사강장을 통하지 않고 외곽을 거쳐 직접 목적지로 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사강장은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사강장 횡집 거리의 도로가 제부도 등지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여서 횡집 거리와 사강장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도로의 차량이 밀릴 때는 서해로 향하던 차들이 이곳에 주차하여 회를 먹거나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도로의 개통으로 방문객의 유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자 사강장은 그 해결책으로 새로 개통된 도로 및 구 도로 등에 사강장을 알리기 위한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였다.

남양 반도에는 대형 쇼핑몰·마트·백화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송산·마도·서신면의 인구 수는 2016년 현재 24,966명밖에²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도로망의 발달은 수원·동탄·안산 등의 도시권과의 연계를 쉽게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위치한 외부로 나가 소비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사강장 주변에는 중소형 마트가 5-6개나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조차 사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중소형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강장 쇠퇴의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사회방조제의 건설, 도로망의 발달, 대중소형 마트의 난립 등이 가장 크겠지만, 사강장 내부 및 인근 지역에서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즉, 포도농사로 인한 송산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주 고객층의 노령화, 상인들의 노령화, 시설의 낙후, 상품 구색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도 사강장의 쇠퇴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으로 날로 점포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인들은 상인회를 통해 사장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2000년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였고, 사장장을 홍보하고 외지인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난전한마당'을 개최하였다. 또한 송산포도축제, 캠핑푸드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및 상인들의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점포창업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장이 서는 2·7일에는 여전한 활기를 띠고 있어 오일장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화성 지역 대표 오일장으로서의 위세를 되찾기 위한 사장장 상인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5) 화성시청 홈페이지 인구현황

사라지는 것들을 위한 쓸쓸한 보고서

간척과 개발 속에 잃어간 장소와 문화적 기억들

정수자 · 시인

사라지는 것들은 통시적 그리움을 호출한다. 우리 곁에서 함께 살 비벼온 시간의 흔적이 오롯이 새겨진 곳들이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것에 끼쳐 있던 우리네 삶의 곁은 좁게는 개인의 기록이지만 넓게는 한 마을, 한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버린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가 지키지 못해 버려진 경우도 있겠다. 우리가 버려서 사라지는 것들은 거개가 쓸모 즉 경제적 가치 매김에 따른 선택의 결과다. 쓸모가 없다고 버리면 버려진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곁인 삶을 떠나가는 것이다.

사라짐이 개인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버림이면 그 영향도 자신의 삶에 그치고 만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나 큰 단위의 지역이 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개발이라는 당국의 명령을 앞세운 것이니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발전이라는 큰 목표와 필요성에 따른 일종의 집행으로 진행될 때는 그 직전까지 울고 웃으며 살던 생존의 장소가 사라지는 것. 거기 속해 있던 사람과 삶의 기억들도 자연히 잃게 된다. 특히 자본이나 발전의 논리를 따라 사라지는 장소의 경우는 그곳에서 같이 살아 숨 쉬던 자연과 문화 같은 삶의 모든 게 통째로 소멸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라지는 삶의 기억들이 쓸쓸한 잔영만 남기다 그마저도 새로운 장소로의 변모에 묻히게 된다.

갯벌, 천혜의 아름다운 삶터

수도권은 특히 많은 장소가 자주 바뀌는 지역이다. 화성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고 파헤쳐지고 변해가는 곳이 너무나 많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유일한 길인 양 떠받들어 온 발전의 지상명령 즉 개발은 해당지역 주민의 삶에도 너무나 크고 많은 지각변동을 일으켜왔다. 경제적 효용가치만 따지는 과거의 개발은 그 피해가 더 넓고 심해서 복원할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화성시는 서해라는 드넓은 바다며 갯벌을 끼안고 있는 지역이라 일찍부터 간척이 성행했다. 갯벌의 효용과 가치를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던 시절에는 너른 갯벌을 매우먼 농토가 얼마나 나오는지 짧은 계산부터 앞섰으니 간척 사업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다가 깊숙이 들어와서 어업과 농업이 공생하는 지역이면 언제나 그곳을 짚을 거두거나 공장을 돌릴 만한 유용한 땅으로 만들어 냈던 흔적을 갖고 있다. 경제성에 대한 얇은 계산은 산업화 논리가 앞서던 시기부터 화성시에 많은 간척지를 만들고, 그곳 본래의 삶들을 지워갔다.

사라진 것은 불수록 많고 돌아볼수록 아쉽고 안타까운 게 많다. 잃고 나서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토며 마을 같은 자연은 회복이 너무나 어렵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우리 산하를 돌아보면 개발 논리에 따라 일찍부터 사라진 장소며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곳도 많고 한때는 문전옥답이고 밥줄이던 논과 밭이 아파트에 먹힌 곳은 일일이 찾아보고 기록하기도 벅찰 정도다. 그렇게 사라진 것을 따져보기도 새삼스럽고 늦은 기록이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워 잠자고 밥 먹는 아파트도 대부분 논밭 때워 지은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 변하는 게 세상 이치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사라져간 장소와 문화에 대해 애도하고 기록하기에는 화성시만 하더라도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따라서 바다를 끼고 있는 화성시의 특성인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과 섬들을 찾아 애도하며 그 속의 삶과 문화 등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한다.

간척, 잃은 풍경과 얻은 풍경

화성시에서 간척 사업으로 생긴 대표적인 문제는 인공호수 시화호(始華湖)의 일생이다. 간척 이전에는 군자만(시흥시 쪽 이름을 딴 군자의 만)이었으니 바닷물이 드나드는 만(灣)이 간척지가 되어 겪는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시화호라는 호수의 이름조차 전체 방조제의 양 끝에 해당하는 시흥·화성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방조제로 얼마나 대단한 호수를 만들어냈는지는 화성시만 아니라 시흥시, 안산시에 둘러싸인 위치가 말해준다. 1987년 6월 착공한 간척 사업은 대부도와 화성을 잇는 불도, 탄도, 대선방조제가 먼저 완공(1988년 5월)되고,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주방조제 완공(1994년 1월)은 12.7km라는 가나긴 물막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대단위 간척 사업을 통해 기획한 국토 개발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이러한 대규모 공업단지, 도시개발, 농업용지조성 등을 위한 복합적인 개발 사업의 명목으로는 단골메뉴처럼 대부분 고부가가치성 산업육성을 들었다. 그러한 육성을 통해 2000년대 선진국국의 건설과 함께 국제사회의 교역 증진 및 경제 발전을 비약시키는 산업기지로 삼겠다는 개발 논리인 것이다. 거기에는 해외에서 쓰던 유희장비 활용과 국내 경기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건설기술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목적도 들어 있었다고 하니 여러 모로 대대적인 간척 사업이었던 셈이다.

이 계획의 보도를 독촉 받았는지 그 무렵 마스크들이 꽤나 떠들썩했던 게 기억난다. 국토가 엄청 넓어지고 무슨 황금이라도 나올 듯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무리한 간척에 따른 문제가 터지더니 억지로 바닷물을 막는 데 대한 자연의 반발과 저항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시화호 문제가 머리기사를 자주 장식하면서 개발의 후유증은 견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급기야 시화호는 오염의 경고 속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갔다. 환경전문가나 생태운동가들이 모여들며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에 비해 해결은 난망한 지경으로 치달으며 방조제를 폭파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런 문제덩어리가 된 시화호는 개발이 중단되며 바다 반 황무지 반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화호 오염에 따른 생태 파괴 문제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라 문화예술 쪽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문학에서는 최승호 시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죽은 시화호

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며 애도 속에 미래까지 짚는 큰 시를 보여준다. 제목부터 뜨끔하게 「누가 시화호를 죽였는가」다! 무서운 추궁을 담은 시의 부제는 “—시화호의 아름다운 처녀시절을 떠올리며 술 한잔 마시고 베란다 밖을 내다본다. 황량한 밤이다. 누군가 죽은 딸 곁에서 울고 있다.”니 시의 내용이 그대로 쫓인다. 근원적인 문제를 일깨우고 안이한 생각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고조시킨다.

시화호에선 시체 냄새가 난다. 몇 년을 더 썩어야 악취가 사라질지 이 거대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다 어느 바닷가를 지날 때였다. 마을사람들이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달마가 물었다. 「왜들 떠나시오?」 마을사람이 대답했다 「악취 때문에 떠납니다」 달마가 보니 바닷속에서 대충이라는 큰 이무기가 썩고 있었다. 달마는 해안에 육신을 벗어놓고 바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썩고 있는 대충을 먼 바다로 끌고나가 내다 버린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몸, 해안에 벗어놓았던 몸이 사라진 걸 알고는 당황한다. 달마는 결국 자신의 육신을 찾지 못한다. 대신 누군가가 바닷가에 벗어놓은 얼굴 흉측한 육체, 그걸 뒤집어쓰고 중국으로 건너간다.

시화호에선 악취가 난다. 관료들에게서도 악취가 난다. 구역질, 두통, 발열, 숨막힘, 마을사람들은 떠났다. 개펄은 거대한 조개무덤으로 변해 버렸다. 짝 벌어진 조개껍질 위로 허영게 소금비람이 분다. 갯지렁이들도 떠났다. 도요새들은 향로를 비꾸었다

무력감에서도 악취는 난다. 산 송장들, 시화호 바닥에 누워 공장 폐수와 부패한 관료들의 숙변을 먹는 산 송장들, 이것은 그로테스크한 나라의 풍경인가. 시화호라는 거대한 번기를 만드느라 엄청난 돈을 배설했다.

달마는 시화호에 오지 않는다. 시화호에 달이 뜬다. 누가 시화호를 죽였는가? 누가 죽은 시화호를 딸처럼 부둥켜안고 먼 바다로 걸어나가며 울겠는가.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 절망의 병어리, 그래도 세금은 낸다. 세금으로 시화호를 죽였다. 살
인청부자?

내가 시화호의 살인청부자였다. 나를 처형해 다오. 달 뜨는 시화호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
기 나를 못 박아다오. 아니면 눈 푸른 달마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든지.

- 최승호, 「누가 시화호를 죽였는가」 전문

풍자와 비판과 우의(愚意) 그리고 자학에 가까운 반성이 물고 물리는 부패의 관계와 그에 따
른 생태 파괴를 통렬하게 고발하는 시다. 스스로 “절망의 병어리”라며 결국 “세금으로 시화호를
죽였”으니 부패 관료이자 뇌물 업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범이요 “살인청부자”라는 인식은 섬
뜩하기 짝이 없다. 죽어가는 시화호를 살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우
리 사회에 만연한 “대충”과 “무력”의 결탁으로 넘치는 “악취”란 해결할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차
라리 “나를 처형해다오”라고 대속하듯 반복하는 진술은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의
신랄한 확인이자 추궁이다. “나를 못 박아다오”라는 절규가 귀에 멍멍 감기며 “거대한 변기”가 된
시화호 울음에 중첩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위적 개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시화호는 다시 살아나며 재탄생하는 자연의
힘을 보여준다. 오랫동안의 노력 끝에 인공 담수로 떠났던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고 풀들이 살아
나며 생명의 호수가 된 것이다. 그런 경이로움에는 많은 갯벌과 그 황금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희생이 묻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갯 생명들의 신음과 울음과 바람과
파도의 비명도 들어 있다.

시화호에 묻힌 세 섬의 보고서와 후속편

시화호를 만드느라 사라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 세 섬을 각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라진
섬의 대표로 꼽히는 우음도, 어도, 형도가 그들이다. 1994년 시화방조제 공사 이전에는 시화호
(군자만) 내의 3개의 섬으로 꼽혀왔다. 이름만 들어도 정겨워지고 가보고 싶던 섬들은 대대적인

간척 사업 앞에 육지 어딘가로 편입되면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그 중 우음도에는 각시당이라는 당집이 있어 각별한 섬이었다. 각시당은 '돌아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던 각시가 물에 빠져죽은 암초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한다. 3년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이 곳을 올렸는데 갯벌 옆 나무에서 각시당을 향해 절을 하면 무당이 바위를 향해 초혼을 하는 식이었다. 이 각시당도 시화호 공사로 사라진 바닷가 특유의 문화가 깃들었던 장소다. 오랫동안 그곳을 터전 삼던 사람들 삶의 기억이 담긴 장소 하나가 간척 사업에 따라 영원히 묻혀 버린 것이다.

각시당은 우리나라 바닷가의 많은 당집 중에도 '여성 신체'를 모신 당집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신체를 모시는 곳은 몇 안 되므로 주변에서 많이 찾고 인근 마을의 곳도 했다고 한다. '여성 신체를 모시게 된 것은 각시당에 전해내려 오는 부부사랑의 전설이 뒷받침해준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해양신앙 공간이 있는데 이곳 각시당도 거듭나며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무사 귀환과 풍어 등을 비는 당집이 된 것이다. 바다로 나갈 때는 항상 위험 속으로 가는 길이니 어부들은 어딘가에 안녕을 빌곤 했는데 이곳 각시당은 물건을 하나씩 맡기고 나가며 비는 당집 역할도 했다는 것이다. 돌로 울타리를 삼은 소박한 제단을 차리고 비녀, 빗 같은 주로 여성의 물건을 제물로 모셔놓고 생업에 나갔다고 한다. 죽은 각시의 영혼에게 바다의 풍어와 평화를 빌었던 셈이랄까.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사라진 장소들은 이 땅의 정신이 깃들었던 곳들이다. 고포리 해안에는 '할매바위가 있었는데, 바다에 나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결국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그곳은 항상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그 할머니의 사랑이 샘물이 되었다고 믿으며 갯일에 지칠 때마다 물을 찾았다. 각시당 전설처럼 여성의 안내와 기다림이 물과 연관되는 구조로 우리네 삶의 위로와 치유와 구원 등을 감당해온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장소들은 간척 사업이나 그에 따른 해안도로에 묻히게 된다. 방조제는 그곳에 편입되는 모든 일대를 들어냈으니 주민들의 정신적 위안이 되어주던 장소며 문화 같은 것들도 흔적을 잃고 만다. 그런 사라짐의 회복을 바라듯, 많은 외지인이 각시당 자리를 찾아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공유하고 있다. 각시당이 있던 자리에는 군 초소가 들어서서 시멘트 흔적이 그로테스크하게 남아 있는데 군이 곳곳의 늪을 헤치고 먼 길을 걸어가 그곳의 흔적을 찍어 기념하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쓸쓸한 회상이 그런 수고쯤 당연하게 하는지 그곳을 애써 찾아 애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

각시당이 있던 근처의 섬 우음도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비록 육지가 되어 뒷동산 같은 모습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이름은 아직 남아서 옛 자취를 증언한다. 송산면 고정리에 위치했던 우음도 2.4km의 해안선도 시화호 방조제 공사에 사라진 풍경이다. 간척 사업이 우음도를 육지 아닌 육지로 만들자 그동안 반농반어(半農半漁)로 살아온 섬마을의 정체성도 바뀌고 이제는 섬의 흔적만 지닌 이상한 땅이 되어 있다.

예전 우음도에는 100여 명이 살았고 갯것도 아주 많았다고 한다. 피조개가 널린 앞바다 덕분에 남정네들도 일과 소득이 다 넉넉한 편이라 여인네들이 외지 관광을 할 정도였다고 전한다. 남정네 중에는 더러 노름에 돈을 다 날렸는데 그래도 갯벌에서 조개 한 지게 잘 건져내면 벌충이 되었다니 조개바다가 섬사람의 금광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고 풍요롭던 섬에 군 초소가 들어서고는 얼마 후 군인이 여럿 죽는 사고가 나더니 초소도 곧 폐쇄되었다. 그 자리에 풀이 마구 자라고 한참 지나자 시화호 공사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모든 생명이 제 터전과 역할을 잃은 것이다.

우음도는 소의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육지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소가 많았다고 한다. 화성시 동탄 출신 홍일선 시인은 우음도의 사라진 모습을 애도하며 이러한 기억을 잘 복원하고 있다.

우음도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떠돌이별 하난 시화호 간척지 매립 공사로
가는귀까지 먹어
시절 다 놓쳐서 뺏시디 뺏신
갯질경이들과 눈인사 나누었으리
또 떠돌이별은 폐교
텅 빈 우음분교를 지키고 있는
방울나무들이 고마워서
첫마음을 불러보다가
그만 목이 메었을 것이다

(..중략..)

먼 곳 황해가 시화호 인가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이제 에미소 따수운 울음소리 들리지 않아도
노랑부리저어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세상의기다림들 더 깊어가서
마산포로 가는 지워진 뱃길에
폐선 한 척 쓰러져 삭고 있는
흐린 날의 경계 속에서
떠돌이별처럼 우음도는
오랜 날 더 외로워야 하리
- 홍일선, 「이제 우음도(牛音島)는 떠돌이별이 되셨는가」 부분

이 시 「이제 우음도(牛音島)는 떠돌이별이 되셨는가」에 나오는 많은 식물들은 우음도와 함께 바닷바람을 이기며 살 비벼운 정겨운 권속들이었을 것이다. 시화호를 위한 대대적인 간척 사업으로 사라진 우음도의 여러 모습들, 그 중에도 소의 울음소리를 환기하는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어떤 울음소리가 전해지는 것만 같다. 그 위에 자그마한 교사(校舍)의 정경이 연상되는 우음분교에 이르기까지 간척으로 사라지기 전의 우음도라는 섬의 풍경들을 일일이 불러본다. 그 우음도를 우음도답게 했던 식물들과 사람들과 풍속은 간척이라는 필요성 너머로 영원히 묻히거나 사라진 것이다. 아니 그 중에도 풀들은 살아남아 우음도를 기억하며 물이 된 우음도를 다시 살리고 있다.

지금은 우음도가 폐허로 섬도 아닌 육지의 한 변두리처럼 남아 있다. 마을 입구에는 '우음도주민대책위원회' 간판이 곧 헐린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장승이 여전히 있어 몽클하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나란히 드는 사람을 맞이하던 시절, 인근 어느 섬보다 넉넉했던 우음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오래 전에 쓸려나가 사람들의 온기도 사라진 빈 집에는 주소만 쓸쓸히

붙어 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이라는 딱지 아래 그 집에 거주했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확인을 위한 숫자로 보이는 붉은 글씨가 섬이 문히기까지의 시간을 보여준다.

그런 과정이 지난 후 우음도는 새로운 풍경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장소로 뜨고 있다. 낚시꾼도 많이 찾고 간간이 주말 모임도 갖는 곳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그 중에도 가장 새롭게 튀는 독특한 풍경으로 섬의 높은 지점에 자리한 전망대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확실히 보여주는 4층 높이 전망대를 올라가면 인근 지역이며 시화방조제 등을 다 볼 수 있게 특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며 생명의 터를 함부로 쓸어 묻고 세우는 '그린'을 앞세운 누구의 '시티'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갯고랑들이 그림보다 아름답게 갈대숲을 파고 들어와 나뭇의 물길로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 곳. 공룡알 화석지나 인근 습지나 갈대와 갯풀들이 어우러진 풍광은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지평선을 열어 탄성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눈맛 시원한 풍경 밑에는 이곳 주민들의 밥벌이 터였던 갯벌이 깔려 있다. 너무나 많이 사라진 갯벌들을 생각하면 자연이 자신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저 풍광을 온전히 즐길 수만은 없는 심정이다.

송산면 독지리에 위치한 형도(衡島) 역시 시화호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된 섬. 형도는 옛날 봉수대가 있던 섬으로 무인도였다. 그러다 한국전쟁 후 이북 피란어민을 비롯해 새로운 삶을 찾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사람 사는 섬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눈물만큼이나 이주의 맘도 더 많이 뻗은 곳이 형도다. 시화호 연안어업의 중심지였을 당시에는 시화호 일대를 통칭하여 '형도 앞바다'라 부를 만큼 이 일대 어업을 대표하던 곳이다. 또한 '형도(衡島)'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인근 어로활동에서 물이 들 때와 썰 때를 썰 때 저울 삼는 곳이기도 했다(유성문, 『주간경향』, 2008. 8. 14). 그런 형도의 삶은 시화방조제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섬 아닌 섬으로 남아서 죽음의 섬이자 유형의 섬으로 변하고 말았다.

형도로 들어가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반쪽으로 파헤쳐진 채 깎여 나간 산등성이다. 멀리서도 흉측하게 보이는 모습은 토사채취장으로서의 착취 현장이다. 시화방조제 공사의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당하는 처참한 지경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 모습도 곧 사라질 것이다. 채석과 토사채취장으로 찍힌 형도, 자신의 터전이 참혹한 채취로 파헤쳐지는 것을 보는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고 허탈했을까. 우음도에서 바라보면 반으로 갈라놓은 형국이 더 안쓰럽게 느껴진다.

겨우 버티고 있는 형국이지만 아직은 마을을 가로질러 오르는 길로 형도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잔재만 남아 있는 섬에는 바닷물이 있던 데 낸 신작로로 아직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다. 그 길도 곧 사라지겠지만 섬 가운데 길을 따라 올라가면 섬을 관통할 수 있는데 군데군데 형도의 사람살이 뒤끝이 남아 있다. 한때 마을사람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술도 한잔 했을 법한 마을회관이 쓸렁하게 남아 있는 중에 간간히 사람 사는 흔적도 보인다.

형도의 가장 높은 지점 바로 아래에는 자그만 형도교회가 서 있다. 작은 섬 안에 교회가 있다니, 육지로 편입당하기 전의 형도가 지녔을 마을의 풍경이 스친다. 섬에 울리는 종소리는 더 긴 울림을 지니며 노을 속으로 퍼졌으리라. 작은 교회에서 종이 울리면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모였을 일요일의 정경을 그려보다 저 교회도 섬에서의 삶을 가슴에 안고 떠난 형도 주민들의 새로운 정착을 빌겠지 싶어져 한번 바라본다. 마을회관과 교회가 있는 형도의 고샅을 엿보는 마음에 교회 종탑이 유독 쓸쓸한 음영을 드리운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림엽서 같은데, 걸만 볼 때와 속을 들여다 볼 때 그렇게 달라지다니 참 아이러니한 게 삶의 풍경임을 다시 확인한다.

육지가 되었어도 그 자리 그대로 이름은 아직 쓰고 있으니 새로운 장소로 이곳을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다. 갈대밭 곳곳을 파고드는 서해의 긴 물길은 그곳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것일까. 물길을 따라 보며 다시 한 번 사라진 섬과 메워진 갯벌의 운명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KBS 2TV 드라마 중에도 최고 시청률로 상종가를 찼던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입소문이 나서 또 다른 관광 방문이 늘고 있다. 주인공들이 갈대밭에서 쫓고 쫓기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흔적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꽤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드넓게 펼쳐지는 갈대습지를 보면 탄성이 절로 터지는 장관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그곳이 다 갯벌이었다는 것은 바닷물이 갈대밭 사이로 드나드는 데서도 확연히 보이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과 민물 담수가 지닌 물빛의 차이에서도 느껴진다.

어도(魚島)도 기억 속의 섬이 되었다. 간척으로 흔적이 희미해진 섬은 이제 육지의 약간 외진 마을처럼 있는데 어딘지 어설픈 모습이다. 한때 서해 노을의 이름다운 섬으로 일간지에 추천되기도 했던 어섬은 이름만으로도 묘하게 향수를 자극한다. 1980년대 말쯤 어느 여름도 막바지에 그 섬을 찾아간 기억이 선명한데 작은 섬에 몇 안 되는 집들이 매우 안온해 보였다. 무덤처럼 동산처럼 쌓인 굴 껍질에 둘러싸인 집들은 어촌 특유의 표정으로 나직나직하니 평화로웠다. 그 즈음은 찾는 사람도 적어서 서해 섬의 일품 노을을 호젓이 누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섬 주변이 방조제를 따라 메워지더니 이제는 이정표로나 그 자리를 기억하며 본래의 큰 마을에 줄 대고 있는

변두리 끝집 같은 풍경으로 남았다.

어도는 없었다. 이번에 어도에 가서 홀연히 알았다. 십년 전 어도, 뇌세포 온통 파스텔 원색으로 물들이던 파란 보리밭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하늘에 흰구름 딱 한 점 띄웠던 섬, 동력선 하나 활기 있게 헤엄치던 섬. 보리밭 뒤로 신록이 마음 조이게 박혀 있고 그 속에 종다리 몇 마리와 집 몇 채가 숨어 있던 섬. 영화 「안개」의 로케 장소 조그맣고 흰 교회당을 앞을 지나면 꿈처럼 떠 있던 섬. 시화 방조제 쌓은 후 자동차 길이 났다.

- 황동규, '어도(漁島)' 부분

국내 곳곳을 여행하고 그곳의 안과 밖을 탐색하며 성찰하는 시를 써온 황동규 시인은 「어도(漁島)」를 이렇게 그린 적이 있다. 시의 일부만 읽어도 환히 그려지는 “어도는 없었다”고 쓸쓸해 하던 그때는 언제쯤일까. 그 전에 보고 탄복했던 어도를 그리는 행간마다 애뜻이 배어나오는 그리움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어도는 본래부터 그랬던 듯 평평히 너른 땅을 두르고 있다. 갯굴 껍질을 하얗게 뒤집어쓴 채 저녁놀에 남실대던 “꿈처럼 떠 있던” 작은 섬은 까마득히 지워졌으니 사라짐에 대한 애도가 이 장소를 더 깊이 일깨운다. 곳곳을 찾아 새로이 불러내며 풍경의 품과 격을 높여준 황동규 시인에게 사라진 섬 어도는 인근 주민에게도 이미 사라진 섬이다. 호젓하던 어도의 노을과 바닷바람과 갯내와 파도와 별빛 그 모두를 다시 맞이들이듯 사라진 풍경들을 오래 불러본다.

화성의 방조제라면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시화방조제가 먼저 떠오르지만 화양방조제도 있다.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면 매향리를 잇는 이 방조제는 199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에 물막음 공사를 마쳤다. 방조제 총 길이가 9.8km에 이르는데 드넓은 들판이 확보된 셈이다. 거기에 탁 트인 전망의 길이 되고 나서는 다양한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딩족이 날로 늘고 있는 듯하다. 자동차로 달리기에다 막힘없이 시원한 길이지만 자전거로 달리기 역시 거칠 것 없는 곳이라 주말이면 나를 레이서들이 마음먹고 달리기를 즐긴다.

남양방조제는 아산방조제와 함께 세계은행차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방조제다. 화성시 장안면과 평택시 포승면 사이의 바다를 막아서 이은 남양방조제는 1971년에 착공하여 1974년에 준공했다. 총 길이가 2,060m에 이르는 이 방조제는 너비 12m의 도로가 있는데 배수를 위한

갑문도 12개나 설치했다. 바다를 막으며 갯벌은 인중에도 없던 시절에 앞세웠던 논리는 서해안 지역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라는 명목이었다. 논밭 즉 밥이 시급했던 개발독재시절의 일방적인 정책이던 농업단지 만들기의 효시가 된 것이다. 국내 최초의 현대식 공법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방조제는 화성시와 평택시를 잇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 길 아래 묻힌 바다나 갯벌은 우리의 기억이나 기록을 넘어서는 오래 전의 이야기다. 간척으로 큰 농토를 얻기 전에 더 큰 무엇을 잃는지는 크게 관심 갖지 않던 시절이니 그 방조제로 사라진 것들 입장에서 보면 더 애통할 일이겠다.

마산포, 저무는 포구의 쓸쓸한 풍경

마산포,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끝에 자리한 서해의 자그만 포구다. 하지만 한때는 꽤나 흥성했던 포구로 배도 사람들도 많이 오가던 곳이다. 게다가 그림 같은 섬 어도를 바로 옆에 두르고 있는 위치 덕분에 여름이면 포구 풍경을 그리워하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던 곳이기도 하다.

인근의 사강은 장도 크게 서는 편이라 많이들 가던 곳이어서 익숙한 지명이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달려가면 만나던 포구의 정경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예전의 포구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스친다. 어도를 찾아 나선 사람들도 마산포를 반드시 들르곤 했는데 그곳에서 회를 먹는 것은 물론 포구의 맛과 정취를 오붓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해의 포구라서 해넘이며 노을도 색다르고 멋지다는 소문에 그런 장관도 볼 겸 포구 특유의 맛도 즐길 겸 겸사겸사 마산포를 찾는 발길이 의외로 많았던 것이다.

1980년대 말쯤, 덜경대는 시골 흙길의 먼지를 잔뜩 쓰고 마산포에 닿은 것은 쓰르라미 극성스럽게 울던 여름도 끝자락의 저녁이었다. 저녁 포구여서일까, 바다를 자주 못 봐서 그랬을까, 아무튼 저녁 포구만이 지날 법한 작은 경이로움을 안겨준 곳이 바로 마산포였다. 그 무렵은 탄도 방조제를 만들기 전이어서 오래 전부터 지켜온 풍경이 그대로 그림처럼 살아 있었다. 당시는 더 마음먹고 나서야 하는 비포장 흙길이었으니 내내 털털 흔들리며 마신 흙먼지며 야트막한 집들이며 한적한 포구의 정취가 마음의 풍경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시화호가 생기기 전의 마산포 인근 마을은 풍요로웠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들어온 피란민들

이 땅 없이도 먹고 살았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굴, 바지락, 소라, 낙지, 별게 다 잡혔는데 그 무렵 마산포도 소래포구만큼 큰 어장이 서곤 했단다. 손발이 다 얼어 터져도 아침나절만 일하면 나무통 하나 가득 굴이며 바지락을 채웠다는 이야기는 시화호가 얼마나 많은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풍경을 사라지게 했는지 충분히 짐작되는 증언들이다. 갯벌을 막고 마산포 바다가 죽어가기 시작하자 거기 의지해 살던 주민들도 하나 둘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 마산포도 포구로서는 죽은 것이다.

10년 만에 포도마을이 다 된 마산포 근방은 물일 못 하게 된 사람들이 산자락이며 둔덕에 포도나무를 심은 덕이라고 한다. 방조제 때문에 소금 먼지가 바람 타고 이파리에 들러붙어 노랗게 말라가는 걸 일일이 닦아가며 키웠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존의 땅으로 되돌린 사람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렇게 일군 포도밭에 다시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게 되었으니 그 후유증을 또 심각하게 앓게 되었다. 갯벌 잃고 포도농사 지어 이름가치 높여준 '송산포도'의 주산지인 고포리, 천등리, 지화리 일대가 토사채취장 수용 대상지로 찍혔기 때문이다.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사라진 갯벌에 어업권마저 잃은 송산면의 600여 가구가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롭게 일궈서 생계를 이어온 포도 농사의 터전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다.

마산포는 소래포구, 사리포구와 함께 경기만 3대 포구의 하나로 한때는 꽤나 번성했던 곳이요. 형도를 비롯해 음도, 어도, 탄도, 선감도, 대부도 등 시화호 인근 도서에서 해산물에 모여들던 포구였으니 말이다. 이곳에 부러진 해산물은 인근 시장시장으로 나가거나 다시 인천을 거쳐 서울로 흘러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무렵은 어느 포구보다 흥성해서 사람들이 꼬이곤 했다. 지금은 문 닫은 지도 오래된 횡집들이 번성했던 시절을 환기하듯 포장이 찢겨진 채 황폐해진 마산포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마산포 입구에는 오래된 구멍가게가 있었다. 10년 전 이곳을 답사할 때만 해도 당신이 모아온 삶의 자료를 다 보여주던 김익만 노인은 마산포의 산 증인이었다. 황해도 웅진에서 인천으로 다시 마산포로 내려와 해산물 지정상인이 되어 마산포를 지키던 노인도 2015년에 타계했다고 한다. 마산포구가 성행할 당시 지정상인을 못 하게 되자 연 가게는 포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쉼터였다. 그 곁에 아주 오래된 아까시나무만 꽃송이를 윈 없이 피워내며 사라진 마산포 속으로 진한 향기를 날리고 있다.

아직은 마산포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송산포도도 사라지는 곳이 늘어날 것이다. 바닷바람을

맛아가며 여느 지역보다 더 달게 익는다는 말을 증명하듯 송산포도는 달고 맛이 좋아 인기가 높았는데 아쉽기 짝이 없다. 명성을 유지해 온 송산포도들의 대부분 땅은 이제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슨 '농원'이 길마다 나타나 반기던 송산의 풍경이 새로운 그린시티에서 '그린' 아닌 시름의 그늘로 남을 것만 같아 보는 마음이 자꾸 아릿해진다.

사라짐이 살아남으로 새롭게 피어나길

무릇 사라지는 것은 더 애틋하고 더 그리운 법. 그보다 빼이픈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게 많으니 너무 늦은 깨우침이다. 서해를 끼고 있는 특성상 간척사업이 많았던 화성시는 사라진 장소며 문화가 많아 그 돌아보기가 더 큰 숙제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생명의 터이자 삶의 터였던 갯벌을 잃은 곳 생명들과 사람들의 그 후가 많은 문제를 물고 나온다. 갯벌이라는 천혜의 삶터와 함께 살 비비며 만들어낸 갯가 특유의 문화가 사라진 것도 안타까운 손실이다.

그 흔적을 찾아 여러 곳을 돌아보는 동안 사라진 것들의 신음과 울음이 내내 밟히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쓸모와 발전을 핑계 삼아 또는 새로운 안락을 앞세워 오래된 삶의 터전을 바꿔버린 후 우리는 과연 약속만큼 기대만큼 행복해졌는가. 오히려 버리고 놓치고 잃은 것들이 더 많은 귀결로 회복할 수 없는 훼손과 큰 파괴와 손실 앞에 미래를 저당 잡힌 것은 아닌가. 도처에 파묻고 몽개고 내버리고 온 이웃 생명들의 사라진 웃음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치고 간다. 그 흔적을 딛고 새롭게 마련하는 이곳의 삶들은 또 어떤 문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사라져가는 장소와 삶과 문화에 대한 보고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환경과 생태와 삶터의 파괴는 지금도 진행형이니 사라진 것들을 깊이 돌아보되 이웃 생명들과 더불어 살 궁리를 더 깊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쓸쓸한 애도를 동반하는 보고서지만 이런 애도의 기억이 다시 새로운 문화를 낳는 데 쓰이길 빌어본다.

맛과 멋과 노을에 취하는 서해의 항구들

정수자 · 시인

항구는 묘하게 여수(旅愁)를 자극한다. 마치 詩 속의 무슨 고유명사처럼 특유의 표정을 길러온 영상의 느낌도 짙게 풍긴다. 항구의 정의며 정체성이 무엇이든, 일단 배와 바다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특성상 떠남의 정서를 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항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기보다 짧은 여행지로 찾는 경험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항구,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곳으로서의 역할도 그런 정서를 함축한다. 길든 짧은 배가 떠나고 돌아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들고 나는 여정의 이미지를 더 품고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정착을 연상시키는 농촌의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의 느낌으로 항구를 떠올리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항구의 이별이 노래 속에도 많은 것 역시 그래서였으리라. 게다가 이별 중에도 제일 애절한 장면이 뱃전의 이별이라 할 만큼 호소력이 높지 않던가. 닻을 올리고 부두에서 떠나는 배를 바라보는 시간부터 일거니와 철썩거리는 물소리 너머 뱃고동 소리로 멀어지는 것을 조금씩 더 실감케 하니 애타는 심정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다. 제목만 봐도 탁월한 은유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심수봉)라는 대중가요에서 더 절절하게 느껴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이 곧 관광지로 변해가는 추세는 서해의 항구들에서도 많이 보인다. 화성8경에 노을을 등재한 궁평항부터 요트로 이국적인 매력을 담보한 전곡항 그리고 최고의 갯벌체험장으로 거듭난 백미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항구가 그런 변모를 보여준다. 항구만의 특색을 관광문화상품으로 견인하며 본래부터 그곳의 주인이던 주민들과 관광객들

이 서로 어울려 즐거운 오늘날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 모두 어디서나 만나는 낮익은 변화지만, 화성만의 특징이 그 안에 또 오롯이 있어 더 많은 즐거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서해를 끼고 있는 장소성의 문화관광적 연계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니 항구라는 풍경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화성의 힘이라 하겠다.

요트 돛으로 더 푸른 마리나, 전곡항

전곡항은 서신면 전곡리의 자그마한 항구다. 요트로 특화한 후 이름도 새로 지어 이제는 전곡마리나항이다. 마리나는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이른다. 마리나 운영 실태는 고급해양레포츠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데, 서해의 평범한 항구이던 전곡항이 그런 마리나로 변신할 줄은 생각도 못 했던 일이다.

예전부터 소박한 대로 나뭇의 항구 역할을 해온 전곡항의 풍경은 이제 낯설 정도로 바뀌었다. 제부도를 오가다 잠깐 들르곤 하던 예전 전곡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국적 풍경의 돛을 펼쳐놓는 것이다. 이러한 풍경은 항을 가득 메우며 바다를 들었다 났다 히는 요물~같은 요트의 높은 돛들 때문이지만, 요트가 쉬고 있을 때도 낯설고 새롭기는 매한가지다. 멀리서 봐도 여느 항구와는 확연히 다른 정취를 지니게 되었고, 길가에도 돛의 형상화로 보이는 가로등 도열이 남다른 풍경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전곡항 앞바다에 요트가 가득히 뜨다니! 프랑스의 알랭 드롱이 출연해 더 유명했던 영화 「태양은 가득히」를 비롯해 요트 나오는 영화마다 그 날씬한 배머 돛들이 얼마나 낭만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을 부시게 했던가. 그만큼 요트는 푸르른 지중해 같은 곳으로의 동경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전과된 부(富)의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요트가 돛을 높다랗게 펼치는 뜻밖의 일이 서해의 작은 항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게 경기도의 전략적 사업으로 구상되며 전곡항 자체가 마치 큰 승격이나 되는 일인 양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도 새삼스럽게 스친다.

마리나 시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67억 원이나 들인 경기도의 전략적 사업이다.

육상계류 55척에 해상계류가 145척으로 총 200척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냈으니 전곡항 주민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화일 것이다. 마리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체험과 휴양시설 그리고 어업인을 위한 어항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다목적 기능의 복합어항을 도모한다니 계획대로라면 곧 복합어항의 면모를 갖추며 전곡항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될 것 같다.

시의 홈페이지에도 전곡마리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8년부터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를 열어 해양레저문화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2013년까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열었는데, 2015년부터 경기도컵 국제요트대회로 대회 명칭을 바꾸어 열고 있다.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 요트동호회원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결과, 2015년 대회에는 400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아무려나 요트가 전곡항을 메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외국에서도 요트는 부자들이나 즐기는 고급취미로 알려진 까닭에 아름답지만 어딘지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풍경인 것이다. 그런 요트들이 전곡항의 매력인 양 자리 잡았으니 바다의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항구의 모습에 새삼 놀라며 부두로 나가 본다. 요트들도 바다로 나가기 좋은 때를 만나기 전에는 돛을 내리고 줄에 묶인 채로 휴식 중이다. 여름이 최적의 시기일 것 같은데 요즘은 더위가 일찍 오고 늦게 가는 기후가 되었으니 요트도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요트에 다양하게 써 붙인 이름들을 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짐작해 본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써서 자동차 사랑에까지 붙여온 ‘애마(愛馬)’의 폭넓은 활용처럼 요트에도 ‘애’를 붙이는 게 가능할까? 쿡 웃으며 요트 사이를 걷자니 애인인 양 고심하며 붙였을 법한 몇몇 이름들이 다정하게 다가온다. Blue Bird, White Shaark, AURORA 같은 이름을 붙여놓고 배의 주인들은 수시로 쓰다듬으며 바다로 나갈 마음에 부풀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니 날렵한 요트가 더 날씬하게 물살을 가르며 내닫는 그림이 선히 그려진다.

요트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등의 시설을 보면서 전곡마리나의 실감이 더 난다. 다른 항구에서는 볼 수 없는 마리나 시설이야말로 전곡항의 고유한 풍경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시설과 배들 사이를 거닐며 보니 요트들이 마치 바다로 달려 나가고 싶어 꿈틀거리는

것만 같다. 이 배들이 돛을 일제히 펼치면 장관이겠다는 생각에 간간이 뉴스에 나오던 화면을 떠올려본다. 일단 서해로 번어 나가는 시원하고 이국적인 돛의 행진부터 전곡항 앞 바다에 새로운 풍경을 부여하며 낭만의 급도 상당히 올랐을 것이니 이제는 마리나의 위용을 즐겨야 하리라.

볼거리는 곧 놀거리다. 그런데 전곡항의 새로운 놀거리이자 풍경으로 한동안 전파를 타며 이름을 알린 요트놀이는 자칫하면 일부 요트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위화감은 없을까 작은 우려도 따라붙는다. 이곳을 멀리서 바라보며 지나거나 매운탕이라도 먹고 가자고 들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괜히 상하려는 비위를 좀 너그럽게 다스려야 하는 그야말로 눈요깃감에 그치지나 않을지... 관광객이 그런 심정을 좀 갖더라도 전곡항을 먹고사는 터전 삼아온 주민들에게 요트로 인한 벌이가 좀 늘어난다면 그야 괜찮겠다. 그동안 지역경제에 보탬 운운하는 정책이며 그것의 성급한 시행들이 관료적 탁상행정의 결과로 잠시만 반짝히는 게 종종 보였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를 하듯 항구에 새로운 정책을 펴려면 당연히 본래 주민들 삶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 양방향 행정인지 자신의 치적에 급급한 일방적 시행인지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게 마련이다. 모쪼록 전곡항도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을 존중하며 같이 사는 항구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요트족만의 돛을 높이 퍼다 찢어지는 후유증 같은 것은 없기를 날개 접은 요트들에게 전해본다.

일박이일 맛있는 저녁평상 같은 공평항

공평항은 서신면 공평리에 자리하고 있다. 몇 년 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2008년 12월 19일)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인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항구다. 일찍이 낚시 명소로 이름이 나기도 했거니와 휴가철이면 일박이일 코스로도 널리 알려졌으니 말이다. 인근 도시 수원에서도 찾기 편한 거리에 있어서 휴일 오전에 쉬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와 늦은 점심을 먹고 가기에 딱 좋은 곳이다.

무엇보다 금방 달려가 뛰어들고 싶도록 가까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그 해안

으로는 무성한 솔숲을 두르고 있으니 아영에도 편하니 가볍게 찾아 일박이일처럼 놀고 가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노을까지 장관이라 날 좋은 날이면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로 자리 잡으며 궁평항은 이름값을 꽤 올린 편이다. 바닷가 솔숲은 대부분 바람막이를 위해서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쓸모는 물론 관상에도 아주 유용하다. 푸른 바다 옆에 도열하듯 줄지어 서 있는 소나무들 모습이 보기에도 멋진 풍광을 만들어낸다. 그뿐인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막으며 온몸으로 빚어내는 솔바람소리는 또 얼마나 시원하니 푸르던가.

대체로 바람을 맞아 몸이 휘는 형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휘면 흰 대로 풍격으로 더 그윽한 운치를 높이는 게 조선소나무의 매력이다. 갓은 형상의 구부러진 모습에 해가 비치거나 달빛이 스미거나 바람과 더불어 서면 솔숲 전체가 수목화를 옮겨놓은 듯 깊이를 이루는 것이다. 어느 나무나 시원찮은 사람보다 나은 덕성을 갖고 있지만 그만이 지닌 품격을 남다르게 지켜오고 있어 소나무는 나무 중의 균계일학처럼 빼어난 위용이 한결같다.

궁평항은 노을이 좋아 소문이 꽤 널리 퍼져 있다. 서해의 항구들은 해가 지는 서쪽에 자리한 특성상 웬만한 곳이면 노을이 다 좋게 마련이다. 그런 중에도 궁평항 노을을 높이 치는 것은 그곳만의 풍광이 있기 때문이겠다. 화성시에서 선정한 '화성8경'에 들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풍경으로 값을 높여갈 정도라면 근처의 여느 항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노을을 펼쳐놓을 것이다. 소문의 진위가 궁금하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상책이다. 사실 주말에 몰리는 차량을 얼핏 봐도 제부도로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싶다. 물이 빠지면 작은 섬으로 길이 나는 신기한 곳이 바로 제부도의 매력이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노을을 보기 위해 일부러 궁평항을 찾는 이들도 꽤 많다는 것은 그곳에 가야 확인할 수 있다. 궁평항만의 쉬는 맛과 먹는 맛 그리고 노을 맛이 있기에 어느 항구보다 더 편하게 찾아들어 우리 서해 속으로 나날의 해가 지는 장관도 즐기는 것이리라.

해가 작은 두 개의 섬을 거느리고 정박한 고깃배들을 쉬게 하며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날이 좋아야 해가 뚝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으니 절호의 기회는 언제나 인내심을 요한다.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바닷물에 닿는 해의 멋진 장면은 볼 수가 없다. 풍덩!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저녁 해 지는 모습은 그렇다 쳐도 노을은 구름이 끼어도 그 나름의 장관을 이룬다.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차 세우고 혹은 내려서 가만히 하루를 마감하는 석양을 배웅하며 노을에 취해 보는 것은 서해의 아늑한 항구에서 맛보는 아름다운 순간의 황홀이다.

바닷가 어디나 그곳의 수산물이 아니라도 위탁 판매를 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기 마련인데 궁평항에도 수산물궁평항위판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워서 해산물을 즐기고 싶어 하니 그 중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버르던 회를 한 접시씩 먹는다. 특별히 즐길 준비 없이 가볍게 나온 경우라면 근처 부두나 갯벌 한 바퀴 돌아보고 회를 동하게 하는 횃집을 찾아들게 마련이다. 물론 그 전에 새우깡 한 봉지 사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즐거운 경험도 필수코스처럼 거친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용케 받아먹는 갈매기들 보는 재미도 쓸쓸하지만 손끝에 닿을 만큼 사람 가까이 날아오는 모습도 신기하다. 이래저래 갈매기들은 비만이 되어간다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런 심심풀이를 한 번쯤 하고 간다.

위판장 전망대는 유명한 궁평항 노을에 대한 안내이자 자부심이다. 회 한 접시에 즐비하게 차려 내놓는 곁들이 안주(이보다 더 친숙한 이름은 스키다시다) 맛도 각별한데 매운탕에 소주 한 잔까지 마시면 더 바랄 게 없어진다. 조금 불과해져서 전망대를 올라가면 오늘 노을도 한층 더 붉으리라.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은 불과해진 얼굴을 얼마나 시원히 쓸고 가겠는가. 맛에 취해 노을에 취해 혹은 옆 사람에게 취해 궁평항 전망대에 서면 한동안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부듯하겠다.

궁평항 풍어제도 있어 그때 맞춰 가면 어촌의 전통적 축제인 풍어제를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열어진 궁평항 풍어제는 2016년에는 4월 16~17일에 열었는데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풍어를 기원하는 봉축 세우기와 장승제 지내기, 상산맛이와 산맛이 그리고 전통문화 공연이 진행됐다. 축제에는 먹거리가 풍성하게 따르기 마련이다. 항구의 풍어제니 수산물이야 당연한 차림이지만 조개구이서부터 제철인 주꾸미며 새우 튀김에 아이들 좋아하는 추억의 달고나까지 사람들이 찾을 만한 음식이 줄을 이었다. 모쪼록 궁평항 주민들도 항구를 찾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즐기는 풍어의 한 해를 빌어본다.

낚시 명소리는 소문은 낚시도구 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확인된다. 낚시는 부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바다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데크로 만들어 놓은 ‘궁평항 바다 낚시터’가 따로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 낚시줄을 던지는 맛이 부두와는 다르겠지, 하고 보니 입장료를 따로 받으며 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거기에 바다낚시, 배낚시가 더 있으니 낚시꾼들은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궁평항에서의 바다낚시 손맛을 즐길 수가 있겠다.

회센터가 있는 중앙을 벗어나 돌아보면 놀기 좋은 곳이 또 있다. 바닷가의 포장집들이

나 한철 운동장으로 쓰일 법한 넓은 마당이 있어 일박이일 인기코스의 이름값을 보여준다. 운동장을 에워싸고 있는 두꺼운 천막지붕의 가건물 같은 집들은 거의 다 식당이다. 바닷가밥집 특유의 메뉴를 줄줄이 써놓고 있는데 꽤 많은 집이 상가처럼 진을 친 것을 보면 여름에는 사람들이 꽤나 몰리는 듯하다. 마침 찾은 때가 이른 봄이라 겨우내 한가했던 빈터는 아직도 하품을 하는 쓸렁한 분위기였지만, 그 풍경에서도 사람들의 함성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다.

해안선 쪽으로 걸으며 바다를 더 가까이 느껴본다. 오래 전부터 아프게 봐온 풍경, 아직도 시야를 가로막은 철조망이 해안을 따라 길게 번어 있다. 일상에서는 다들 잊고 살지만 남북이 분단된 채 총을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 분단국이 실감 난다. '일몰 시 해안 통제', 이 땅의 바닷가에 늘 둘러져 있던 철조망의 경고다. 군데군데 방공호가 있고, 조금 높은 언덕 쪽으로는 방범초소도 아직 있다. 서슬 퍼렇던 70년대에는 근처조차 가기 겁나고 철책에 묶여 늪는 땅이 안쓰럽던 풍경이다. 우리나라 어딜 가나 검문소가 있고 철조망이 있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새삼 떠오르는 살풍경을 다시 본다. 사실 바다는 걸어서 나가볼 수 있지만 철조망 사이로 내다보는 게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저렇게 반백 년 넘도록 쳐놓은 철조망을 아직도 거둘 수 없는 국토라는 우리 현실을 궁평항의 해안에서 다시 너무도 확연히 깨닫는다.

그 너머 갯벌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캐고 있다. 갯벌에 바짝 엎드려 캐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꽤 많아 물어보니 어린 아들과 나온 아빠는 조개를 캐본다고 한다. 아낙들은 아마 그 이상의 바다 보물들을 캐 텐데 근처에 가보기도 어려울 만큼 물고인 곳이 많다. 그저 바라만 봐도 아련한 그림이 되 살아 있는 갯벌이 품은 수많은 생명들의 싱그러운 나눔이다.

으늑한 갯벌에 놀기 좋은 미항(美港), 백미항

해안선이 어여쁜 항구 백미항. 서신면 백미리에 위치한 마을로 해산물의 종류가 많고 그 맛이 다양하여 백미로 불린 내력을 갖고 있다. 항구 입구에 들어서자 '백미리어촌체험

마을'이라고 달아놓은 이름표가 정겹게 맞이한다. 마을에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항구 살림을 꾸려가는 듯 입구 건물에는 부녀회 명패도 걸려 있다. 항구로 들어서면 갈마드는 해안선이 한잠 자고 싶을 정도로 고조곤히 아늑한 곳이다.

저 드넓은 갯벌이 언제부터 백미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있었던 말인가. 달려가서 막 뒹굴고 싶어지는 백미항을 왜 이제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 정도로 으늑하고 감미로운 정취에 빨려들게 하는 곳이 바로 백미의 항구요 첫 인상이다. 그런데 항구를 둘러볼수록 곱상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결이 아주 매끄럽고 고울 법한 갯벌의 흙감이 전해진다. 마침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본 갯벌의 모습은 오래도록 봐도 좋은 찬찬하니 평화로운 정경이다. 오랫동안 숨겨놓은 비경(秘境)을 혼자 발견하고 차지하는 양 오붓이 젖어들게 하니 항구를 걷는 자체만으로도 절로 흐뭇해진다.

백미항은 인근 항구를 이용하다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2004년부터 어촌정주어항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면 어촌체험장부터 눈에 띄는데 둘러보니 인근에서 체험이라는 놀거리가 제일 많은 항구 같다. 그만큼 다양한 어촌체험이 가능해서 놀거리가 줄을 잇는 갯벌놀이터라 불리도 좋겠다. 유달리 호젓한 풍경과 정취를 거느리고 있는 데다 어느 항구보다 다종다양한 체험 거리가 널려 있으니, 아이들 데리고 한 번 다녀간 사람이라면 중독되기 딱 좋은 곳이라고 재풀에 끄덕인다.

체험장에는 천막을 치고 체험에 필요한 시설을 고루 갖춰 놓았다. 안내 글이 빙 둘러 빼곡히 적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어류가 백미항에서 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백미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혹시나 했던 게 항구에서 같이 살아온 수많은 어류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준다. 그 어류들의 생태는 물론 다양한 어류와 함께 갯벌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의 종류도 다채롭게 적어놓아 설명이 따로 없어도 되겠다.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친절히 소개해놓은 글들을 보면 백미항의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충분히 되는 자연학습장이다.

조개 캐기 체험, 망둥어 낚시 체험, 고동 계잡이 체험, 카약 타기 체험, ATV고카트 체험, 갯벌 마차 체험, 건간망 체험, 사두질 체험 등 체험 가짓수도 무척 많고 낯선 것도 많다. 그런 면에서 이런저런 체험 또한 백미항에 어울리는 백미요 진미라 하겠다. ATV고카트 체험은 특히 생소한데, buggy kart라고도 불리며 운전면허만 있으면 2인승도 가능하다고

한다. 갯벌이고 숲길이고 새로운 운전을 할 수 있어 연인끼리도 즐길 수 있다니 최근 발굴한 체험 거리 중의 하나 같다. 건간망 체험, 사두질 체험도 낯설지만 웬만한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자세히 보니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쳐놓았다가 물이 들어올 때 걸린 고기를 낚는 방식이다. 사두질도 밀물에 따라 오는 물고기들을 큰 뜰채로 건져 올리는 방식인데 관광객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니 잡기와 먹기를 같이 즐기는 체험의 확장이다.

갯벌의 힘과 아름다움을 상세히 적어놓은 것도 좋은 공부거리이자 생각거리로 자연을 돌아보게 한다. 갯벌이 지닌 자연 본래의 힘 즉 기후 조절 기능에 수산생물 생산 및 서식지 기능이라는 역할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오염 정화 기능은 물론 문화적 기능과 나아가 심미적 기능까지 적어놓으며 전문가의 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갯벌이라는 특유의 자연만이 지닐 수 있는 힘에서부터 교육이며 체험 등을 통해 창출하는 문화적 힘 그리고 그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라 할 만한 심미적 힘까지 적어놓은 안내 글이 어린이부터 식견 있는 어른에게도 좋은 자연공부이니 말이다. 빼곡하게 적으면 잘 안 볼 것 같다는 우려를 넘어 깊이와 넓이를 꾀는 자료의 활용이 새삼 돋보이는 대목이다.

백미항에서는 조개잡기, 해산물 채취 같은 마을축제를 일 년에 한 번씩 연다. 마을잔치는 공동체문화의 전승이나 마을 사람끼리의 우의를 다지는 잔치로도 좋지만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며 먹거리 풍부하게 펼치는 흥겨운 잔치마당이다. 백미항 특유의 어촌 체험에 문화적 특징까지 가미하면 더 많은 즐길 거리를 만들어내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두루 행복찬 축제가 되겠다. 그만큼 오붓한 백미항만의 풍경과 정취에 빠진 때문일까, 한 번쯤은 꼭 때맞춰서 백미를 즐기러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백미항의 명물은 해안선이 아늑하게 갈마드는 드넓은 갯벌과 다양한 어종들과 그와 함께하는 어촌체험일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 세워둔 트랙터자동차(?)가 눈길을 끈다. 트랙터에 이어 붙여 만든 꼬마버스 같은 게 백미항에 색다른 풍경을 엮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갯벌 마차'라 이름 지은 트랙터차인가 보다. 그림도 아기자기 예쁘게 그린 것은 물론 색깔도 환하게 칠해 놓아서 어느 모로 보나 타보고 싶게 만든다. 이용객 줄어든 기찻길에 레일바이크를 만들어 추억의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듯, 트랙터로 갯벌 달릴 마차를 만든

것도 참신한 재활용 아이디어다. 그런 점에서 어촌의 다양한 체험에 재미와 운치를 한층 높여줄 법한 갯벌 마차도 백미항의 추억으로 이름을 날릴 것 같다.

갯벌 마차를 타면 질척거리는 갯벌을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색다른 갯벌의 맛을 만날 수 있겠다. 사람들 몰리는 여름철이면 줄을 서야 할 것으로 짐작되는 갯벌 마차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텅텅대며 가더라도 갯벌에 빠지지 않고 가는 즐거움이 꽤 재미있을 법하다. 한적한 봄날 찾아든 내게도 어느 동화 속 장면 같은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데 여름방학에 찾아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신나는 체험이 될까. 아이들이 가득 들어찬 백미항의 여름날을 그리니 신명난 소리들이 들리는 듯싶어 슬며시 귀를 기울여본다.

백미항은 최근에 더 공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곡항이나 궁평항보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어촌체험장으로서의 본격적인 변모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늦게나마 백미항을 돌아보고 나니 아이들 자연공부나 체험을 중시하는 가족 단위 여행지로는 최고의 어촌체험장으로 이름을 떨칠 것으로 보인다. 아늑하고 아름다운 항구의 선을 다시 보면서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둘러만 봐도 갯벌의 심미적 기능은 다하지 싶다. 누군가 단순히 서해의 정취만 맛보는 산책 코스를 원한다면 잠시 쉬어가는 항구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곳. 그만큼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거나 무심히 지나쳐버린 게 미안할 정도로 백미항의 매혹이 더 오붓하게 살뜰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맛있는 항구의 노을에 취해

항구, 하면 떠올리기 쉬운 배와 노을과 낭만. 그런 여행지로서의 항구 느낌이 삶의 터전 삼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정 모르는 감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입히고 학교 보내던 시절은 더 그랬을 터, 한가하게 놀러나 오는 외지인들에게 고운 시선을 보냈을 리 없다. 예전에는 간혹 그랬더라도 이제는 현지 주민들의 삶이 외지 관광객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로 묶인 채 살아가는 세상이다. 더욱이 지금은 신유목인이라는 ‘호모 노마드’ 시대, 여행과 놀이는 삶의 기본조건이니 ‘입도 보고 뺨도 따는’

최적의 여행지를 도모하는 게 상책이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많아진 서해안의 아늑한 항구들. 화성시가 뿌듯이 내어놓을 만한 천혜의 조건인 바다와 갯벌도 지속적으로 잘 살려야 건강한 즐거움을 나눌 것이다. 물론 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웃으며 다시 만나는 삶터요 여행지이면서 놀이터로 바뀌갈 때 더 높아지는 항구의 매력이다. 그러려면 맛과 멋과 노을빛 낭만을 품어온 서해로서의 강점과 그 권속인 갯벌 생명들이 계속 푸르게 뛰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듯 못 생명이 더불어 노닐며 살아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서해의 항구들로 빛나겠다.



우리가 몰랐던 _____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초판발행일 _ 2016년 08월31일

발행처 _ 화성문화원

주소 _ 1859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전화 _ 031-353-6331

발행인 _ 고정석

편집인 _ 화성문화원

디자인 _ 마실팜투

이 책자는 화성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